

저자 황도연
국역 구현희
해제 구현희

국역
方藥合編
下



9 788959 704705

ISBN 978-89-5970-470-5 (PDF)
ISBN 978-89-5970-440-8 (세트)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서문 序	1.1
의방활투 원서 醫方活套原序	1.1.1
중정방약합편 서문 序	1.1.2
방약합편 원인 方藥合編原因	1.1.3
신증증맥방약합편 유재 新增證脈方藥合編 酉齋	1.1.4
손익본초 損益本草	1.2
약성강령 藥性綱領	1.2.1
약성가 藥性歌	1.2.2
산초 34종 山草 三十四種	1.2.2.1
향초 23종 芳草 三十三種	1.2.2.2
습초 49종 濕草 四十九種	1.2.2.3
독초 20종 毒草 二十種	1.2.2.4
덩굴 31종 蔓草 三十一種	1.2.2.5
수초 10종 水草 十種	1.2.2.6
돌풀 2종 石草 二種	1.2.2.7
이끼 1종 苔草 一種	1.2.2.8
향목 28종 香木 二十八種	1.2.2.9
교목 20종 喬木 二十種	1.2.2.10

관목 20종 灌木 二十種	1.2.2.11
나무에 기생하는 것 5종 寓木 五種	1.2.2.12
대나무 5종 苞木 五種	1.2.2.13
매운 향이 나는 채소 16종 葷辛菜 十六種	1.2.2.14
잎채소 10종 柔滑菜 十種	1.2.2.15
오이과 채소 4종 苣菜 四種	1.2.2.16
버섯 2종 芝栢 二種	1.2.2.17
오과 6종 五果 六種	1.2.2.18
산과 17종 山果 十七種	1.2.2.19
남만 과일 5종 夷果 五種	1.2.2.20
오이과 과일 7종 苣果 七種	1.2.2.21
물에서 나는 과일 3종 水果 三種	1.2.2.22
깨, 보리, 벼 9종 麻麥稻 九種	1.2.2.23
기장, 조 8종 稷粟 八種	1.2.2.24
콩 4종 菽豆 四種	1.2.2.25
조양 9종 造釀 九種	1.2.2.26
난충 10종 卵蟲 十種	1.2.2.27
화충 4종 化蟲 四種	1.2.2.28
용 4종 龍 四種	1.2.2.29
뱀 2종 蛇 二種	1.2.2.30
어류 30종 魚 十三種	1.2.2.31
비늘 없는 생선 19종 無鱗魚 十九種	1.2.2.32
거북, 자라 5종 龜鱉 五種	1.2.2.33

조개 12종 蚌蛤 十二種	1.2.2.34
물새 2종 水禽 二種	1.2.2.35
들새 7종 原禽 七種	1.2.2.36
숲에 사는 새 3종 林禽 三種	1.2.2.37
가축 9종 畜 九種	1.2.2.38
들짐승 10종 獸 十一種	1.2.2.39
쥐 2종 鼠 二種	1.2.2.40
인 6종 人 六種	1.2.2.41
수 1종 水 一種	1.2.2.42
토 2종 土 二種	1.2.2.43
금석 35종 金石 三十五種	1.2.2.44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항	2.3

序

서문



醫方活套原序

의방촬투 원서

往余既輯羣書之可合時用者, 以爲醫門之指南矣. 行之未幾, 讀者往往稱賞, 特未素攻者, 猶不敢爲之汎應, 而滋惑焉. 於是乎, 坊友有要余求合璧者, 余曰嗟乎, 今天下之事, 規矩可傳而其巧難傳, 豈可以一時私見, 以窮天下之萬變哉. 藉令爲之, 其人之不能申明, 雖巧奚益. 辭又不得, 乃敢集諸方之尤著者, 以爲活套之萬一, 其藥則隨宜增減, 其治則臨症先後, 或十病而同一方, 或一方而合羣劑, 初不可援例, 分門次爲三統, 以見補和攻之三品, 別爲鍼線, 使學者, 開卷而該兼治. 此雖古人之不傳, 亦可爲對投之一例, 因是推究, 庶其汎應, 而入門矣. 編旣成, 聊以副求讀者, 謂何. 請質于大方家.¹

전에 내가 이미 여러 서책들 가운데 세상에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편찬하여 의문(醫門)의 지침으로 삼았더니, 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읽은 자들이 왕왕 기뻐하며 칭찬하였으나² 본디 의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자들은 오히려 감히 널리 응용하지 못하여 혼란이 더하여졌다. 이에 출판업자 친구가 나에게 적절하게 모아 편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나는 "아, 지금 천하에 일이란 것이 준거가 되는 원칙은 전해줄 수 있으나 그 실력의 교묘함은 전해주기 어려우니 어찌 한 때의 사견(私見)으로 천하의 온갖 변화를 다 드러낼 수 있겠는가. 가령 해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둬 밝히지 못한다면 교묘히 한들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하고 사양하였으나, 계속 사양할 수는 없어 감히 여러 의서 가운데 매우 빼어난 것들을 모아 만에 하나에라도 활용되도록 하였다. 그 약(藥)은 적당함에 맞게 증감하였고 그 치료(治)는 증상에 따라 선후를 두었으며, 10가지 병에 같은 1가지 처방을 쓰기도 하고 혹은 1가지 처방에 여러 방제를 합하기도 하였다. 애초부터 따를 전례가 없어서 문(門)을 나누고 3통(統)으로 차등을 두어 보익、화해、치료하는 세 가지 품목으로 나타내고, 별도로 침선(鍼

線)을 두어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책을 펴 보면 모두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비록 옛사람이 전해준 것은 아니지만 또한 대중투약의 일례가 될 것이니, 이 책을 미루어 끝까지 연구해 나간다면 널리 응용하여 의문(醫門)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책이 이미 완성되어 이 책을 구하여 읽는 자들에게 부족한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나니, 일러 무엇하겠는가? 대방가(大方家)들의 질정을 바란다.³

己巳孟秋下澣, 惠庵書于游藝室.

기사년(1869) 맹추(孟秋) 하순(下旬) 유예실(游藝室)에서 혜암이 쓰다.

1. 초간본에 마멸자가 다수 ←

2. 《의종손익》을 말하는 듯하다. 황도연이 《의방활투》(1869) 이전에 편찬한 서적으로는 《부방편람》(1855)과 《의종손익》(1687)이 있는데 《의종손익》 범례에 "今次如之, 以便臨症之指南."라고 하였다. ←

3. 본 원서(原序)는 1869년 간행된 《의방활투》의 서문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초간본, 중정본, 신정본에 모두 있다. 초간본에 마멸자가 다수 보이는데 《의방활투》 서문으로 교감하여 수정하고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

序¹

중정방약합편 서문

吾師乎惠庵公, 以名門宿德, 出而不得以措諸事業, 退修兼濟書以見其志, 古人所云良醫之願, 於斯可驗矣. 是編凡三刊, 而活套之行于世也十數年, 而方鍼兼本, 以公之尚在世也, 是書爲公絕筆, 人爭快靚, 行未幾朔字頑不可讀, 至令坊人不惜重費, 苟非公遺愛之入人深者, 何人之慕公, 如是之甚也, 余方重訂, 悲公之功成而不居, 且喜其陰德之在人愈久愈新, 不但爲一時事業而止也.

나의 스승이신 혜암 공은 명문가 사람에다 덕이 높으신 분이셨다. 벼슬길에 올랐으나 사업에서 펼치지 못하여, 재야에 물러나 모든 이를 구제하는 책을 찬수하여 그 뜻을 드러내었으니, 옛 사람이 말한 "좋은 재상이 되지 못한다면 좋은 의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이 분에게서 증험되었다. 이 책은 모두 3번이나 간행되었고² 《의방활투(醫方活套)》(1869)는 세상에 간행된 지 십 수 년밖에 되지 않았건만, 이제 막 복본(兼本)을 새기고자 한다. 공께서 아직 세상에 살아 계셨을 때 이 책이 공에게 마지막 작품인지라 사람들이 빨리 보기를 다투어서 간행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목판의 글자가 마모되어 읽을 수 없게 되어, 출판업자로 하여금 무거운 비용을 아끼지 않게끔 하였으니, 진실로 공이 남기신 애민지심이 사람들에게 깊이 스며든 것이 아니라면 어찌 사람들이 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와 같이 심하겠는가. 내가 이제 거듭 교정하면서 혜암 공께서 공이 이루어지고도 공을 자처하지 않으신 것에 슬퍼하고, 또 그 음덕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되 오랄수록 더욱 새로워져 다만 한 때의 사업에 그치지 않은 것에 기뻐한다.

受業漢隱生謹識.

문하생 미은생(漢隱生)이 삼가 쓰다.

1. 본 서문은 증정본과 신정본에만 있는 표제지 서문으로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

2. 이 책은 모두 3번이나 간행되었고 : 박훈평에 따르면 1884년 4월 《방약합편》이 목판으로 초간된 이후 《중정방약합편》이 출간(1885년 8월)되기까지 재간본, 삼간본이 출간(을유이월야동신간. 재간·삼간본 동일 책판)된 바 있다. 박훈평. 《방약합편》 목판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2018. [↩](#)



方藥合編原因¹

방약합편 원인

嗚呼, 先君子惠庵公, 所著方藥書甚富, 皆不留姓氏, 但令施治者, 捷於奇中, 公人而忘己者, 蓋如此也. 中有活套一書, 書簡施博, 條理明暢, 人一見之, 皆可按證而治, 雖素所未攻者, 無不欲蓄一本, 病於印發不給. 於是, 坊人謀鋟兼本, 來告于公, 公曰, 書固可傳, 用之在人, 不必驚廣, 且人不讀本草, 徒法何足以盡活套哉. 此余之志切救世, 而亦猶恐疑似之致誤也. 坊人之請益勤, 而酬世之志, 終不可遏也.

아! 선친 혜암 공께서 지으신 방약서가 매우 많으나 모두 이름을 남기지 않으시고 다만 치료하는 자들이 병증에 기발하게 적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남들에게 숨김없이 드러내고 자기는 잊게 하신 것이 대개 이와 같았다. 그 가운데 《의방활투》(1869)라는 책은 글이 간결하여 치료에 널리 쓰였으며 논리가 밝고 시원시원하여 사람들이 한 번 살펴보면 모두 증상에 따라 치료할 수 있었으니, 평소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들도 한 부를 소장하고자 하지 않은 자가 없었으나 충분히 인쇄해내지 못하는 것이 병통이었다. 이에 출판업자가 복본〔兼本〕을 새길 것을 꾀하여 혜암 공에게 가서 고하니 공께서 "책은 진실로 전할 수 있지만 쓰임은 사람들에게 달려있으니 너무 널리 퍼뜨리려 할 필요는 없네." 하시고, 또 "사람들이 본초서는 읽지 않고서 한갓 치법만 가지고 어찌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겠는가? 지금 나의 뜻은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에 간절하지만 비슷하게 해서 일을 그르치는 꼴이 될까 두렵기도 하네." 하셨지만, 출판업자가 더욱 정성스레 청하니 세상이 바라는 뜻에 응하셔서 끝내 막을 수는 없으셨다.

公年已七十有七, 不可以自抄, 命子傳書. 書例倣汪忍庵《本草備要》·《醫方集解》合編之法, 先之以損益本草, 復益之以用藥綱領, 及救急禁忌等十數種, 命之曰, 《方藥合編》. 役未及半, 公偶感疾曰, "吾病其不起矣, 藥不可以延生, 良醫十全, 在乎識其死生已." 竟不服藥, 以是年八月十七日下世.

혜암 공의 연세가 이미 77세인지라 스스로 초(抄)를 잡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명하여 책을 전하도록 하셨다. 책의 형식은 왕인암(汪忍庵)의 《본초비요(本草備要)》(1694)와 《의방집해(醫方集解)》(1682)를 합편하였던 것을 모방하되, 《의종손익》(1867)의 본초를 앞에 두고 〈용약강령(用藥綱領)〉·〈구급(救急)〉·〈금기(禁忌)〉 등 십 수 종을 덧붙여 《방약합편(方藥合編)》이라 이르도록 하셨다. 일이 절반도 이루어지기 전에 혜암 공께서 병에 걸리셔서 "내 병은 아마도 치료할 수 없을 것이니, 약으로도 목숨을 연장하지 못할 것이다. 좋은 의사가 10명 중 10명을 온전히 낫게 하는 것은 죽을지 살지를 알아차리는 것에 달려 있을 뿐이다." 하시고는 끝내 약을 드시지 않으시더니 이 해(1884년) 8월 17일에 세상을 하직하셨다.

嗚呼慟哉. 嗣子繼世, 尚不忍讀父之書, 況敢抄父之所傳乎. 然坊人入梓中掇, 亦不可不念, 既葬後二月, 拭涕卒業而歸之, 金根之誤在, 所難免. 並無款識, 蓋追先志之不欲以醫名世也. 略述顛末, 以寓感慕. 嗚呼覽者, 想公婆心.

아! 애통하다. 자식이 선친의 세업을 이어서는 선친의 책을 읽는 것도 차마 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감히 선친이 전하신 바를 초(抄)한단 말인가? 하지만 출판업자가 출간을 시작했다가 중단되는 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장례를 마치고 2달 만에 눈물을 흘리며 일을 완성하여 글을 돌려보내었으나 잘못 옮긴 오류가 있을 것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낙관을 전혀 찍지 않은 것은 의업(醫業)으로 세상에 이름이 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 선친의 뜻을 따른 것이다. 일의 전말을 대략 서술하여 마음에 느끼어 사모하는 마음을 여기에 붙여둔다. 아!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혜암 공께서 염려하셨던 마음을 떠올리기 바란다.

龍集二十一年甲申十二月上澣.

고종 21년 갑신(甲申) 12월 상순(上旬).

公之子不肖孤泣血謹書.

해암 공의 아들(황필수, 黃泌秀) 불초고(不肖孤)가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쓴다.

¹. 본 원인(源因)은 중정본과 신정본에만 있는데 초간본에 임의로 추가해 두었다. ←

新增證脈方藥合編 酉齋¹

신증증맥방약합편 유재

方藥書, 特因_先生別開手眼, 一編而綱維畢舉, 固可謂醫門之準繩, 辨證審脈, 別有成書, 此不及載, 讀者恨焉. 今因重訂, 取全書中證脈要訣而羽翼之, 固不足爲收拾遺文之一事也, 蓋亦識其母忘, 辱知之最厚爾.

《방약합편》은 오직 선생께서 손과 눈을 새롭게 열어주신 것에 의지하여 하나로 엮어 버리를 모두 들어두었으니 진실로 의문(醫門)의 준승(準繩)이라고 할 만하다. 증상을 분별하고 맥을 살피는 것은 따로 완성한 책이 있지만 《방약합편》에는 실어두지 않아 독자들이 한스러워 하였다. 이제 《중정(重訂)방약합편》의 내용을 따르고, 전서(全書)에 실린 증맥의 요결을 취하여 도왔으니² 진실로 선생의 유문(遺文)을 수습한 한 가지 일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나 또한 과분히 알아봐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으로는 가장 정성된 일일 것이다.

丁亥玄月受業漢隱生謹署.

정해년(1887년) 9월, 제자 미은생(漢隱生)이 삼가 쓰다.

¹. 본 유재는 신정본에만 있는데 초간본에 임의로 추가해 두었다. ←

². 전서(全書)에 실린 증맥의 요결을 취하여 도왔으니 : 중정(重訂)본을 신증(新增)하면서 《의학입문》의 <잡병제강>을 요약하여 보입한 것을 말하는 뜻이다. ←



損益本草

손익본초



藥性綱領

약성강령

五色所主

오색이 주관하는 것

靑屬木入肝.

○赤屬火入心.

○黃屬土入脾.

○白屬金入肺.

○黑屬水入腎. 《備要》

청색은 목(木)에 속하며 간(肝)으로 들어간다.

○적색은 화(火)에 속하며 심(心)으로 들어간다.

○황색은 토(土)에 속하며 비(脾)로 들어간다.

○백색은 금(金)에 속하며 폐(肺)로 들어간다.

○흑색은 수(水)에 속하며 신(腎)으로 들어간다. 《본초비요》

五味所主

오미가 주관하는 것

酸入肝能澁收.

○苦入心能瀉燥.

○甘入脾能和緩.

○辛入肺能潤橫行.

○鹹入腎能軟堅.

○淡能利竅滲泄. 《備要》

신맛은 간(肝)에 들어가며 수렴시킨다. 쓴맛은 심(心)으로 들어가며 조(燥)를 사한다.

○단맛은 비(脾)로 들어가며 조화시키고 완화시킨다.

○매운맛은 폐(肺)로 들어가며 자운시키고 널리 퍼지게 한다.

○짠맛은 신(腎)으로 들어가며 굳은 것을 무르게 한다.

○담담한 맛은 9굴(九竅)을 잘 통하게 하고 잘 스며나가게 한다. 《본초비요》

升降浮沈之義

승강·부침의 의미

輕虛者, 浮而升, 重實者, 沈而降.

○味薄者, 升而生. 象春 氣薄者, 降而收. 象秋 氣厚者, 浮而長. 象夏 味厚者, 沈而藏. 象冬 味平者, 化而成. 象土

○氣味俱薄者, 浮而升. 味厚氣薄者, 沈而降, 味薄氣厚者, 能浮能沈. 氣味俱厚者, 可降.

○酸鹹無升, 辛甘無降, 寒無浮, 熱無沈. 《備要》¹

가볍고 허(虛)한 것은 뜨게 하고 상승시킨다. 무겁고 실(實)한 것은 가라앉히고 하강시킨다.

○성미가 얇은 것은 상승시키고 생장시킨다. 봄의 형상이다. 기가 얇은 것은 하강시키고 수렴시킨다. 가을의 형상이다. 기가 두터운 것은 뜨게 하고 장려한다.

여름의 형상이다. 성미가 두터운 것은 가라앉히고 감춘다. 겨울의 형상이다. 성미가 평한 것은 조화시키고 왕성하게 한다. 토(土)의 형상이다.

○기와 성미가 모두 얇은 것은 뜨게 하고 상승시킨다. 성미가 두텁고 기가 얇은 것은 가라앉히고 하강시킨다. 성미가 박하고 기가 두터운 것은 뜨게도 하고 가라앉히기도 한다. 기와 성미가 모두 두터운 것은 하강시킨다.

○신맛과 짠맛은 상승시키는 것이 없고, 매운맛과 단맛은 하강시키는 것이 없다. 한(寒)은 뜨지 않고 열(熱)은 가라앉지 않는다. 《본초비요》

上下內外之別²

약재의 상하부위와 겉과 속의 구별

根之在土中者, 半身以上, 上升, 半身以下, 下降.

- 枝者, 達四肢.
- 皮者, 達皮膚.
- 爲心爲幹者, 內行臟腑.
- 質之輕者, 上入心肺, 下入肝腎.
- 中空者, 發表.
- 內實者, 攻裡.
- 枯燥者, 入氣.
- 潤澤者, 入血. 《備要》

흙속에 있는 뿌리의 절반 윗부분은 상체에 작용하고 절반 아랫부분은 하체에 작용한다.

- 가지는 팔다리에 도달한다.
- 껍질은 피부에 도달한다.
- 심지와 줄기는 장부의 안쪽을 돌아다닌다.
- 본질이 가벼운 것은 위로는 심폐로 들어가고 아래는 간신(肝腎)에 들어간다.
- 속이 빈 것은 겉으로 발산시킨다.
- 속이 짙은 것은 속을 공략한다.
- 마른 약은 기(氣)로 들어간다. 윤택한 약은 혈로 들어간다. 《본초비요》

五味相克

오미의 상극

酸傷筋 斂則筋縮, 辛勝酸.

- 苦傷氣 苦能瀉氣, 鹹勝苦.
- 甘傷肉 甘則³緩, 酸勝甘.

○辛傷皮毛 疎散腠理, 苦勝辛.

○鹹傷血 鹹能滲泄, 甘勝鹹. 《備要》

신맛은 근을 상하게 하고 수렴하니 근이 수축된다. 매운맛은 신맛을 이긴다.

○쓴맛은 기를 상하게 하고 쓴맛은 기를 사하여 준다. 짠맛은 쓴맛을 이긴다.

○단맛은 살을 상하게 하고 단맛은 늘어나게 한다. 신맛은 단맛을 이긴다.

○매운맛은 피모를 상하게 하고 소통하여 주리(腠理)를 흩어준다. 쓴맛은 매운맛을 이긴다.

○짠맛은 혈을 상하게 하고 짠맛은 잘 스며나가게 한다. 단맛은 짠맛을 이긴다.

《본초비요》

五病所禁

병에 금하는 다섯 가지

酸走筋, 筋得酸拘攣.

○苦走骨, 骨得苦難舉.

○甘走肉, 肉得甘壅氣.

○辛走氣, 氣得辛益虛.

○鹹走血, 血得鹹凝滯口渴. 《備要》

신맛은 근으로 주행하니 근이 신맛을 얻으면 당기고 저린다.

○쓴맛은 뼈로 주행하니 뼈가 쓴맛을 얻으면 거동이 어려워진다.

○단맛은 살로 주행하니 살이 단맛을 얻으면 기가 막힌다.

○매운맛은 기로 주행하니 기가 매운 맛을 얻으면 더욱 허해진다.

○짠맛은 혈로 주행하니 혈이 짠맛을 얻으면 엉키고 잘 흐르지 않으며 입이 마른다. 《본초비요》

五臟五味補瀉

오장과 오미의 보사(補瀉)

- 肝
- 간

〔肝〕苦急, 急食甘以緩之甘草, 以酸瀉之赤芍藥, 實則瀉子甘草, 欲散, 急食辛以散之川芎, 以辛補之細辛, 虛則補母地黃、黃蘗.

〔간〕이 당겨서 괴로우면 급히 단맛을 먹어서 이완시키고감초. 신맛으로 사하되적작약, 실증이면 자식(심(心))을 사해준다감초. 흠어주려면 급히 매운맛을 먹어서 흠어주고천궁, 매운맛으로 보하되세신, 허증이면 어미(신(腎))를 보해준다지황、황벽.

- 心
- 심

〔心〕苦緩, 急食酸以收之五味子, 以甘瀉之甘草、參、芪, 實則瀉子甘草, 欲熨, 急食鹹以熨之芒消, 以鹹補之澤瀉, 虛則補母生薑.

〔심〕이 이완되어 괴로우면 급히 신맛을 먹어서 수렴시키고오미자, 단맛으로 사하되감초、인삼、황기, 실증이면 자식(비(脾))을 사해준다감초. 부드럽게 하려면 급히 짠맛을 먹어서 부드럽게 하고망초, 짠맛으로 보하되택사, 허증이면 그 어미(간(肝))를 보해준다생강.

- 脾
- 비

〔脾〕苦濕, 急食苦以燥之白朮, 以苦瀉之黃連, 實則瀉子桑白皮. 欲緩, 急食甘以緩之炙甘草, 以甘補之人參, 虛則補母炒鹽.

〔비(脾))가 습하여 괴로우면 급히 쓴맛을 먹어서 말려주고백출, 쓴맛으로 사하되황련, 실증이면 그 자식(폐(肺))을 사해준다상백피. 이완시키려면 급히 단맛을 먹어서 이완시키고자감초, 단맛으로 보하되인삼, 허증이면 그 어미(심(心))을 보해준다구운 소금.

- 肺
- 폐

〔肺〕苦氣逆⁴, 急食苦泄之之⁵訶子, 以辛瀉之桑白皮, 實則瀉子澤瀉, 欲收, 急食酸以收之白芍藥, 以酸補之五味子, 虛則補母五味子.

〔폐〕로 기가 거슬러 올라 괴로우면 급히 쓴맛을 먹여서 배설시키고가자, 매운 맛으로 사하되상백피, 실증이면 자식(신(腎))을 사해준다택사. 수렴하려면 급히 신맛을 먹여서 수렴시키고백작약, 신맛으로 보하되오미자, 허증이면 어미(비(脾))를 보한다오미자.

- 腎
- 신

〔腎〕苦燥, 急食辛以潤之黃蘗、知母, 以鹹瀉之澤瀉, 實則瀉子芍藥, 欲堅, 急食苦以堅之知母, 以苦補之黃蘗, 虛則補母五味子. 《本草》

〔신(腎))이 말라서 괴로우면 급히 매운맛을 먹여서 적셔주고황벽·지모, 짠맛으로 사하되택사, 실증이면 그 자식(간(肝))을 사해준다작약. 단단하게 하려면 급히 매운맛을 먹여서 단단하게 하고지모, 쓴맛으로 보하되황벽, 허증이면 어미(폐(肺))를 보해준다오미자. 《본초강목》

隨症用藥例 《本》

증상에 따라 약을 쓰는 용례 《본초강목》

- 風中六腑
- 풍이 육부에 적중한 경우

手足不遂, 先發其表, 羌活、防風爲君, 隨證加藥, 然後行經養血, 當歸、秦艽、獨活之類, 隨經用之.

손발을 잘 쓰지 못하면 먼저 표증을 발산시켜야 하니 강활·방풍을 군약으로 삼고 증상에 따라 약을 더한다. 그런 다음 경락을 운행시켜 혈을 길러주어야 하니 당귀·진교·독활 같은 약을 경락에 맞게 쓴다.

- 風中五臟
- 풍이 오장에 적중된 경우

耳聾目瞤, 先疎其裏, 三化湯, 然後行經, 獨活、防風、柴胡、白芷、川芎, 隨經用之.

귀가 안들리고 눈이 멀었다면 먼저 그 속을 소통시켜야 하니 삼화탕을 쓴다. 그런 다음 경락이 운행하도록 독활·방풍·시호·백지·천궁을 경락에 맞게 쓴다.

- 破傷中風
- 파상풍

脈浮在表汗之, 脈沈在裏下之, 背搖, 羌活、防風, 前搖, 升麻、白芷, 兩傍搖, 柴胡、防風, 右搖, 加白芷.

맥이 부(浮)하면 표증이므로 땀을 내주어야 하고 맥이 침(沈)하면 이증이므로 설사시켜야 한다. 등 쪽에 경련이 있으면 강활·방풍을 쓰고 앞쪽에 경련이 있으면 승마·백지를 쓰고 양옆 쪽에 경련이 있으면 시호·방풍을 쓴다. 오른쪽에 경련이 있으면 백지를 더하여 쓴다.

- 傷風惡風
- 풍사(風邪)에 상하여 오품이 생긴 경우

防風爲君, 麻黃、甘草佐之.

방풍을 군약으로 삼고 마황·감초를 좌약으로 삼는다.

- 傷寒惡寒
- 상한으로 오한이 생긴 경우

麻黃爲君, 防風、甘草佐之.

마황을 군약으로 삼고 방풍, 감초를 좌약으로 삼는다.

- 六經頭痛
- 6경병의 두통

須用川芎, 加引經藥.

- 太陽, 蔓荊子.
- 陽明, 白芷.
- 太陰, 半夏.
- 少陰, 細辛.
- 厥陰, 吳茱萸.
- 巔頂, 藁本.

반드시 천궁을 쓰고 인경약(引經藥)을 더하여 쓴다.

- 태양병에는 만형자를 쓴다.
- 양명병에는 백지를 쓴다.
- 태음병에는 반하를 쓴다.
- 소음병에는 세신을 쓴다.
- 궤음병에는 오수유를 쓴다.
- 정수리가 아플 때는 고본을 쓴다.

- 眉稜骨痛
- 미륵골에 통증이 있는 경우

羌活、白芷、黃芩.

강활, 백지, 황금을 쓴다.

- 風濕身痛
- 풍습(風濕)으로 몸이 아픈 경우

羌活.

강활을 쓴다.

- 噤痛頔腫
- 목구멍이 아프고 턱이 붓는 경우

黃芩、鼠粘子、甘草、桔梗.

황금、서점자、감초、길경을 쓴다.

- 肢節腫痛
- 사지 관절이 붓고 아픈 경우

羌活.

강활을 쓴다.

- 眼暴赤腫
- 눈이 갑자기 충혈 되고 붓는 경우

防風、芩、連瀉火, 當歸佐之.

방풍、황금、황련으로 화(火)를 사하고 당귀를 좌약으로 삼는다.

- 眼久昏暗
- 눈이 오래도록 흐리고 어두운 경우

熟芩、當歸爲君, 羌防爲臣, 甘草、甘菊之類佐之.

숙지황、당귀를 군약으로 삼고 강활、방풍을 신약으로 삼으며 감초、감국 등을 좌약으로 삼는다.

- 風熱牙疼
- 풍열(風熱)로 치아가 아픈 경우

喜冷惡熱, 生芩、當歸、升麻、黃連、牡丹皮、防風.

풍열로 치아가 아파서 찬 것을 좋아하고 뜨거운 것을 싫어하면 생지황·당귀·승마·황련·목단피·방풍을 쓴다.

- 腎虛牙疼
- 신허(腎虛)로 치아가 아픈 경우

桔梗·升麻·細辛·吳茱萸.

길경·승마·세신·오수유를 쓴다.

- 風濕諸病
- 풍습으로 인한 여러 질병

須用羌活·白朮.

반드시 강활·백출을 쓴다.

- 風冷諸病
- 풍랭(風冷)으로 인한 여러 질병

須用川烏.

반드시 천오를 쓴다.

- 一切痰飲
- 모든 담음증

須用半夏, 風加南星, 熱加黃芩, 濕加白朮·陳皮, 寒加乾薑.

반드시 반하를 쓴다. 풍증에는 남성을 더하고 열증에는 황금을 더하고 습증에는 백출·진피를 더하고 한증에는 건강을 더한다.

- 風熱諸病
- 풍열(風熱)로 인한 여러 질병

須用荊芥·薄荷.

반드시 형개, 박하를 쓴다.

- 諸欬嗽病
- 각종 기침

五味子爲君, 痰用半夏, 喘加阿膠佐之. 不拘有熱無熱, 少加黃芩, 春加川芎、芍藥, 夏加梔子、知母, 秋加防風, 冬加麻黃、桂枝之類.

오미자를 군약으로 삼는다. 가래 있을 때는 반하를 쓰고 호흡이 가쁠 때는 아교를 좌약으로 더하여 쓴다. 열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황금을 약간 더한다. 봄에는 천궁, 좌약을 더하고 여름에는 치자, 지모를 더하고 가을에는 방풍을 더하고 겨울에는 마황, 계지 등을 더한다.

- 諸嗽有痰
- 각종 기침에 가래가 끼는 경우

半夏、白朮、五味子、防風、枳殼、甘草.

반하, 백출, 오미자, 방풍, 지각, 감초를 쓴다.

- 諸嗽無痰
- 각종 기침에 가래가 없는 경우

五味、杏仁、貝母、生薑、防風.

오미자, 행인, 패모, 생강, 방풍을 쓴다.

- 有聲有痰
- 소리가 나고 가래가 있는 경우

半夏、白朮、五味、防風.

반하, 백출, 오미자, 방풍을 쓴다.

- 寒喘痰急

- 한천(寒喘)으로 호흡이 가쁘고 가래가 있어 병이 급한 경우

麻黃、杏仁.

마황、행인을 쓴다.

- 熱喘咳嗽
- 열천(熱喘)으로 호흡이 가쁘고 기침을 하는 경우

桑白皮、黃芩、訶子.

상백피、황금、가자를 쓴다.

- 水飲濕喘
- 수음(水飲)으로 습천(濕喘)이 생긴 경우

白礬、皂莢、葶藶.

백반、조협、정력을 쓴다.

- 熱喘燥喘
- 열천(熱喘)、조천(燥喘)

阿膠、五味子、麥門冬.

아교、오미자、맥문동을 쓴다.

- 氣短虛喘
- 숨이 짧고 허천(虛喘)이 있는 경우

人參、黃芪、五味子.

인삼、황기、오미자를 쓴다.

- 諸瘧寒熱
- 각종 학질로 한열이 왕래하는 경우

柴胡爲君.

시호를 군약으로 삼는다.

- 脾胃困倦
- 비위(脾胃)가 피곤한 경우

參、芪、蒼朮.

인삼、황기、창출을 쓴다.

- 不思飲食
- 입맛이 없는 경우

木香、藿香.

목향、곽향을 쓴다.

- 脾胃有濕
- 비위(脾胃)에 습이 있는 경우

嗜臥有痰, 白朮、蒼朮、茯苓、猪苓、半夏、防風.

비위에 습이 있으면 누워 있기 좋아하고 담(痰)이 생긴다. 백출、창출、복령、저령、반하、방풍을 쓴다.

- 上焦濕熱
- 상초에 습열이 있는 경우

黃芩, 瀉肺火.

황금으로 폐의 화(火)를 사한다.

- 中焦濕熱
- 중초에 습열이 있는 경우

黃連, 瀉心火.

황련으로 심(心)의 화(火)를 사한다.

- 下焦濕熱
- 하초에 습열이 있는 경우

(酒洗)黃蘗、知母、防己.

황벽(술로 씻는다)、지모、방기를 쓴다.

- 下焦濕腫
- 하초에 습(濕)이 있어 부종이 있는 경우

(酒洗)漢防己、龍膽草爲君, 甘草、黃蘗爲佐.

한방기(술로 씻는다)、용담초를 군약으로 삼고 감초、황벽을 좌약으로 삼는다.

- 腹中脹滿
- 뱃속에 창만이 있는 경우

須用(薑製)、厚朴、木香.

반드시 후박(생강즙으로 법제한다)、목향을 쓴다.

- 腹中窄狹
- 뱃속이 작아진 경우

須用蒼朮.

반드시 창출을 쓴다.

- 腹中實熱
- 뱃속에 실열이 있는 경우

大黃、芒消.

대황、망초를 쓴다.

- 過傷飲食熱物
- 음식이나 뜨거운 것을 지나치게 먹어서 상한 경우

大黃爲君, 冷物巴豆爲丸散.

대황을 군약으로 삼고 냉약인 파두를 넣어 환이나 가루약을 만든다.

- 宿食不消
- 먹은지 오래된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경우

須用黃連、枳實.

반드시 황련, 지실을 쓴다.

- 胸中痞塞
- 흉증이 결리고 막힌 경우

實用厚朴、枳實, 虛用芍藥、陳皮, 痰熱用黃連、半夏, 寒用附子、乾薑.

실증이면 후박, 지실을 쓰고 허증이면 작약, 진피를 쓴다. 담열(痰熱)에는 황련, 반하를 쓰고, 한증이면 부자, 건강을 쓴다.

- 胸中煩熱
- 흉증에 번열이 있는 경우

須用梔子仁、茯苓.

반드시 치자인, 복령을 쓴다.

- 六鬱痞滿
- 육울(六鬱)로 속이 결리고 더부룩한 경우

香附、川芎, 濕加蒼朮, 痰加陳皮, 熱加梔子, 食加神麴, 血加桃仁.

향부자、천궁을 쓴다. 습울(濕鬱)이면 창출을 더하고 담울(痰鬱)이면 진피를 더하고 열울(熱鬱)이면 치자를 더하고 식울(食鬱)이면 신국을 더하고 혈울(血鬱)이면 도인을 더한다.

- 諸氣刺痛
- 여러 기병으로 찌르는 듯 아픈 경우

枳殼、香附, 加引經藥.

지각、향부자에 인경약(引經藥)을 더하여 쓴다.

- 諸血刺痛
- 여러 혈증으로 찌르듯 아픈 경우

須加當歸, 詳上下, 用根稍.

반드시 당귀를 더한다. 병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잘 살펴서 뿌리와 끝부분을 알맞게 쓴다.

- 脇痛寒熱
- 옆구리가 아프고 한열이 왕래하는 경우

須用柴胡.

반드시 시호를 쓴다.

- 胃脘寒痛
- 위완(胃脘)이 차고 아픈 경우

須加草豆蔻、吳茱萸.

반드시 초두구、오수유를 더한다.

- 少腹疝痛
- 아랫배에 산기(疝氣)가 있고 아픈 경우

須加青皮、川楝⁶子.

반드시 청피、천련자를 더한다.

- 臍腹疼痛
- 배꼽 주변이 아픈 경우

加熟苳、烏藥.

숙지황、오약을 더한다.

- 諸痢腹痛
- 여러 이질로 배가 아픈 경우

下後, 白芍、甘草爲君, 當歸、白朮佐之.

○先痢後便, 黃蘗爲君, 地榆佐之.

○先便後痢, 黃芩爲君, 當歸佐之.

○裏急, 消黃下之, 後重, 加木香、藿香、檳榔和之.

○腹痛用芍藥, 惡寒加桂, 惡熱加黃芩, 不痛芍藥減半.

설사한 후에는 백작약、감초를 군약으로 삼고 당귀、백출을 좌약으로 삼는다.

○설사가 나온 후 대변이 나오는 경우는 황벽을 군약으로 삼고 지유로 좌약을 삼는다.

○변이 나오고 설사를 하는 경우는 황금을 군약을 삼고 당귀를 좌약으로 삼는다.

○속이 당길 때는 망초、대황으로 설사시키고 뒤가 묵직할 때는 목향、곽향、빈랑으로 화해시킨다.

○배가 아플 때는 작약을 쓰고 오한에는 계지를 더하고 오열(惡熱)에는 황금을 더한다. 배가 아프지 않으면 작약을 반으로 줄인다.

- 水瀉不止

- 물설사가 그치지 않는 경우

須用白朮、茯苓爲君, 芍藥、甘草佐之, 穀不化, 加防風.

반드시 백출, 복령을 군약으로 삼고 작약, 감초를 좌약으로 삼는다. 음식이 소화되지 않을 때는 방풍을 더한다.

- 小便黃澀
- 소변이 누르고 소변을 보는 것이 불편한 경우

黃蘗、澤瀉.

황벽, 택사를 쓴다.

- 小便不利
-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

黃蘗、知母爲君, 茯苓、澤瀉爲使.

황벽, 지모를 군약으로 삼고 복령, 택사를 사약으로 삼는다.

- 心煩口渴
- 가슴이 답답하고 구갈(口渴)이 있는 경우

乾薑、茯苓、天花粉、烏梅, 禁半夏、葛根.

건강, 복령, 천화분, 오매를 쓴다. 반하, 갈근은 금한다.

- 小便餘瀝
- 소변을 본 후 남은 소변이 찰끔찰끔 떨어지는 경우

黃蘗、杜沖.

황벽, 두충을 쓴다.

- 莖中刺痛.
- 음경 속이 찌르듯 아픈 경우

生甘草梢.

감초(생것 끝부분)를 쓴다.

- 肌熱有痰
- 살이 뜨겁고 담(痰)이 있는 경우

須用黃芩

반드시 황금을 쓴다.

- 虛熱有汗
- 허열(虛熱)로 땀이 나는 경우

須用黃芪、地骨皮、知母.

반드시 황기, 지골피, 지모를 쓴다.

- 虛熱無汗
- 허열(虛熱)에 땀이 나지 않는 경우

牧丹皮、地骨皮.

목단피, 지골피를 쓴다.

- 自汗盜汗
- 자한(自汗)과 도한(盜汗)

須用黃芪、麻黃根.

반드시 황기, 마황근을 쓴다.

- 潮熱有時
- 조열(潮熱)이 일정한 주기로 나는 경우

黃芩, 午加黃連, 未加石膏, 申加柴胡, 酉加升麻, 辰戌加羌活, 夜加當歸.

황금을 쓴다. 오시에는 황련을 더하고, 미시에는 석고를 더하고 신시에는 시호를 더하고 유시에는 승마를 더하고 진시와 술시에는 강활을 더하고 밤에는 당귀를 더한다.

- 驚悸恍惚
- 경계(驚悸)와 황홀(恍惚)

須用茯神.

반드시 복신을 쓴다.

- 一切氣痛
- 모든 기통(氣痛)

調胃, 香附、木香. 破滯, 青皮、枳殼. 泄氣, 牽牛、蘿菔子. 助氣, 木香、藿香. 補氣, 人參、黃芪. 冷氣, 草薢、丁香.

위기를 고르게 하려면 향부자、목향을 쓴다. 기가 응체된 것을 깨트릴 때는 청피、지각을 쓴다. 기가 새어 나갈 때는 견우、나복자를 쓴다. 기를 복돋을 때는 목향、곽향을 쓴다. 기를 보할 때는 인삼、황기를 쓴다. 냉기가 있으면 초두구、정향을 쓴다.

- 一切血痛
- 모든 혈병으로 아픈 경우

活血補血, 當歸、阿膠、川芎、甘草. 涼血, 生地黃. 破血, 桃仁、紅花、蘇木、茜根、延胡索、郁李仁. 止血, 髮灰、棕灰.

혈을 잘 돌게 하거나 혈을 보하려면, 당귀、아교、천궁、감초를 쓴다. 혈을 식힐 때는 생지황을 쓴다. 어혈을 깨뜨리려면 도인、홍화、소목、천근、현호색、옥리인을 쓴다. 지혈을 할 때는 난발(불에 태운 재)、종려(불에 태운 재)를 쓴다.

- 上部見血

- 상부에 출혈이 있는 경우

須用防風、牡丹皮、剪草、天、麥門冬爲使.

반드시 방풍, 목단피, 전초, 천문동, 맥문동을 사약으로 삼는다.

- 中部見血
- 중부에 출혈이 있는 경우

須用黃連、芍藥爲使.

반드시 황련, 작약을 사약으로 삼는다.

- 下部見血
- 하부에 출혈이 있는 경우

須用地榆爲使.

반드시 지유를 사약으로 삼는다.

- 新血紅色
- 붉은 색의 신선한 피를 흘릴 경우

生地黃、炒梔子.

생지황, 치자(볶는다)를 쓴다.

- 陳血瘀色
- 어혈 빛깔의 묵은 피를 흘릴 경우

熟地黃.

숙지황을 쓴다.

- 諸瘡痛甚
- 각종 창(瘡)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苦寒爲君, 黃芩、黃連, 佐以甘草, 計上下, 用根稍, 及引經藥.

○十二經, 皆用連翹.

○知母、生地黃, 酒洗爲用.

○參、芪、甘草、當歸, 瀉心火, 助元氣, 止痛.

○解結, 用連翹、當歸、藁本.

○活血去血, 用蘇木、紅花、牡丹皮.

○脈沈, 病在裏, 宜加大黃利之.

○脈浮爲表, 宜行經, 芩、連、當歸、人參、木香、檳榔、黃蘗、澤瀉.

○自腰已上至頭者, 加枳殼, 引至瘡所.

○加鼠粘子, 出毒消腫.

○加肉桂, 入心引血化膿.

○堅不潰者, 加王苽根、黃藥子、三稜、莪茂⁷、昆布.

황금、황련 같이 쓰고 찬 약을 군약으로 삼고 감초를 좌약으로 삼되 병이 상부에 있는지 하부에 있는지 잘 살펴서 뿌리와 끝부분을 쓰고 인경약을 쓴다.

○12경맥에 모두 연교를 쓴다.

○지모、생지황은 술로 씻어 쓴다.

○인삼、황기、감초、당귀로 화(火)를 사하고 원기를 복돋으면 통증이 멎는다.

○뭉친 것을 풀 때는 연교、당귀、고본을 쓴다.

○혈을 잘 돌게 하고 어혈을 없앨 때는 소목、홍화、목단피를 쓴다.

○맥이 침(沈)할 때는 병이 속에 있는 것이니 대황을 더하여 써서 대변으로 빼내야 한다.

○맥이 부(浮)할 때는 병이 겉에 있는 것이니 경락을 통하게 해주어야 한다. 황금、황련、당귀、인삼、목향、빈랑、황벽、택사를 쓴다.

○허리에서부터 위로 머리까지 난 창(瘡)에는 지각을 더하여 창이 난 곳까지 이 끌어야 한다.

○서점자를 더하여 독소와 부종을 뺀다.

○육계를 쓰면 약이 심으로 들어가 혈을 이끌어 농을 화해시킨다.

○창이 단단하여 터지지 않으면 왕과근, 황약자, 삼릉, 아술, 곤포를 더한다.

- 上身有瘡
- 상반신에 창(瘡)이 있는 경우

須用黃芩、防風、羌活、桔梗。上截黃連，下身黃蘗、知母、防風，用酒水各半煎。

○引藥入瘡，用皂角針。

상반신에 창(瘡)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황금, 방풍, 강활, 길경을 쓴다. 상반신에 창에 있을 때는 황련을, 하반신에 창이 있을 때는 황벽, 지모, 방풍을 술과 물을 반씩 섞은 곳에 넣고 달여서 쓴다.

○약기운을 이끌어 창(瘡)에 들어가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각자를 쓴다.

- 下部痔漏
- 하부의 치루

蒼朮、防風爲君，甘草、芍藥佐之。詳證加減。

창출, 방풍을 군약으로 삼고 감초, 작약을 좌약으로 삼는다. 증세를 자세히 살펴서 가감한다.

- 婦人胎前有病
- 임신 중에 병이 있을 때

以黃芩、白朮安胎，然後用治病藥。發熱及肌熱者，芩、連、參、芪。腹痛者，白芍、甘草。

황금, 백출을 써서 태를 안정시킨 후 치료약을 써야 한다. 발열이 있고 살갓에 열감이 있으면 황금, 황련, 인삼, 황기를 쓴다. 복통이 있으면 백작약, 감초를 쓴다.

- 產後諸病

- 산후의 여러 병

忌柴胡、黃連、芍藥. 渴, 去半夏, 加白茯苓. 喘嗽, 去人參. 腹脹, 去甘草. 血痛, 加當歸、桃仁.

산후의 여러 병에는 시호、황련、작약을 금한다. 목이 마를 때는 반하를 빼고 백복령을 더한다. 호흡이 가쁘며 기침을 할 때는 인삼을 빼고 복창(腹脹)에는 감초를 빼고 쓴다. 어혈로 아플 때는 당귀、도인을 더한다.

- 小兒驚搐
- 소아 경련이 이는 경우

與破傷風同.

파상풍과 같이 치료한다.

- 心熱
- 심열

搖頭, 咬牙, 額黃, 黃連、甘草、導赤散.

심열(心熱)로 머리가 흔들리고 이를 갈며 이마가 누렇게 뜨는 경우는 황련、감초、도적산을 쓴다.

- 肝熱
- 간열(肝熱)

柴胡、防風、甘草、瀉青丸.

간열(肝熱)로 눈이 흐린 경우는 시호、방풍、감초、사청환을 쓴다.

- 脾熱
- 비열

鼻上紅, 瀉黃散.

비열(脾熱)로 콧등이 붉어진 경우는 사황산을 쓴다.

- 肺熱
- 폐열

右腮紅, 瀉白散.

폐열(肺熱)로 오른쪽 뺨이 붉어진 경우는 사백산을 쓴다.

- 腎熱
- 신열

額上紅, 知母、黃蘗、甘草.

신열(腎熱)로 이마가 붉어진 경우는 지모、황벽、감초를 쓴다.

諸虛用藥例《本》

여러 허증에 약을 쓰는 용례《본초강목》

虛勞頭痛復熱, 加枸杞、葳蕤.

허로로 두통이 있고 다시 열이 나는 경우는 구기자、위유를 더하여 쓴다.

虛而欲吐, 加人參.

허하면서 토하려고 할 때는 인삼을 더하여 쓴다.

虛而不安, 亦加人參.

허하면서 불안해 할 경우는 인삼을 더하여 쓴다.

虛而多夢, 加龍骨.

허하면서 꿈을 많이 꾸는 경우는 용골을 더하여 쓴다.

虛而多熱, 加地黃、牡蠣、地膚、甘草.

허하면서 열이 많은 경우는 지황、모려、지부、감초를 더하여 쓴다.

虛而冷, 加當歸、芍藥、乾薑、黃芪.

허증으로 몸이 찬 경우는 당귀、궁궁、건강、황기를 더하여 쓴다.

虛而損, 加鍾乳、棘刺、蓯蓉、巴戟天.

허손이 있는 경우는 종유、백극(白棘) 가시、종용、파극천을 더하여 쓴다.

虛而大熱, 加黃芩、天門冬.

허하면서 몹시 열이 나는 경우는 황금、천문동을 더하여 쓴다.

虛而多忘, 加茯神、遠志.

허하면서 건망이 심할 경우는 복신、원지를 더하여 쓴다.

虛而口乾, 加麥門冬、知母.

허하면서 입이 마를 경우는 맥문동、지모를 더하여 쓴다.

虛而吸吸, 加胡麻、覆盆子、柏子仁.

허하면서 거둑 숨을 들이마실 경우는 호마、복분자、백자인을 더하여 쓴다.

虛而多氣微欬, 加五味子、大棗.

허하면서 호흡이 가쁘고 기침을 약간 할 때는, 오미자、대추를 더하여 쓴다.

虛而驚悸, 加冷用紫石英、小草. 客熱用沙參. 不冷不熱用龍齒. 冷熱皆用.

허하면서 경계(驚悸)가 있을 때, 몸이 찬 경우는 자석영、소초를 더하여 쓴다.

객열이 있는 경우는 사삼을 더하여 쓰고 몸이 차지 않고 열도 나지 않을 때는
용치를 더하여 쓴다. 냉증과 열증이 모두 있는 경우는 모두 다 넣어 쓴다.

虛而身強腰中不利, 加磁石、杜沖.

허하면서 몸이 강직되고 허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자석、두충을 더하여 쓴다.

虛而多冷, 加桂心、吳茱萸、附子、烏頭.

허하면서 몸이 많이 찰 때는 계심、오수유、부자、오두를 더하여 쓴다.

虛而勞小便赤, 加黃芩.

허로 소변이 붉으면 황금을 더하여 쓴다.

虛而客熱, 加地骨皮、黃芪.

허하면서 객열(客熱)이 있을 때는 지골피、황기를 더하여 쓴다.

虛而痰復有氣, 加生薑、半夏、枳實.

허하면서 담(痰)이 있고 숨이 찰 때는 생강、반하、지실을 더하여 쓴다.

虛而小腸利, 加桑螵蛸、龍骨、鷄胫胫.

허하면서 소변이 지나치게 나올 때는 상표초、용골、계패치를 더하여 쓴다.

虛而小腸不利, 加茯苓、澤瀉.

허하면서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복령、택사를 더하여 쓴다.

虛而損溺白, 加厚朴.

허손으로 소변이 백색인 경우는 후박을 더하여 쓴다.

髓竭不足, 加生地黃、當歸.

골수가 고갈되어 부족한 경우는 생지황、당귀를 더하여 쓴다.

肺氣不足, 加天麥門冬、五味子.

폐기(肺氣)가 부족할 때는 천문동、맥문동、오미자를 더하여 쓴다.

心氣不足, 加人參、茯神、菖蒲.

심기(心氣)가 부족할 때는 인삼, 복신, 창포를 더하여 쓴다.

肝氣不足, 加天麻、川芎⁸.

간기(肝氣)가 부족할 때는 천마, 천궁궁을 더하여 쓴다.

脾氣不足, 加白朮、白芍藥、益智.

비기(脾氣)가 부족할 때는 백출, 백작약, 익지인을 더하여 쓴다.

腎氣不足, 加熟地黄、遠志、牡丹皮.

신기(腎氣)가 부족할 때는 숙지황, 원지, 목단피를 더하여 쓴다.

膽氣不足, 加細辛、酸棗仁、地榆.

담기(膽氣)가 부족할 때는 세신, 산조인, 지유를 더하여 쓴다.

神昏不足, 加硃砂、預知子、茯神.

정신이 혼미하고 부족할 때는 주사, 예지자, 복신을 더하여 쓴다.

汗劑《本》

한제《본초강목》

風寒暑濕之邪, 入于皮膚之間而未深, 宜發汗.

풍사, 한사, 서사, 습사가 피부의 사이에 들었으나 깊이 않을 때에는 땀을 내어 발산시켜야 한다.

- 辛而溫者
- 매우면서 따뜻한 약

荊芥、薄荷、白芷、陳皮、半夏、細辛、蒼朮、天麻、生薑、葱白

형개、박하、백지、진피、반하、세신、창출、천마、생강、총백

- 辛而熱者
- 매우면서 뜨거운 약

蜀椒、胡椒、茱萸、大蒜

측초、호초、수유、마늘

- 辛而平者
- 매우면서 평한 약

靑玄⁹、防己、秦艽

청피、방기、진교

- 甘而溫者
- 달면서 따뜻한 약

麻黃、人參、大棗

마황、인삼、대추

- 甘而平者
- 달면서 평한 약

葛根、赤茯苓

갈근、적복령

- 甘而寒者
- 달면서 찬 약

桑白皮

상백피

- 甘辛而溫者
- 달고 매우면서 따뜻한 약

防風、當歸

방풍、당귀

- 甘辛而大熱者
- 달고 매우면서 매우 뜨거운 약

官桂、桂枝

관계、계지

- 苦而溫者
- 쓰면서 따뜻한 약

厚朴、桔梗

후박、길경

- 苦而寒者
- 쓰면서 찬 약

黃芩、知母、枳實、苦參、地骨皮、柴胡、前胡

황금、지모、지실、고삼、지골피、시호、전호

- 苦辛而微溫者
- 쓰고 매우면서 약간 따뜻한 약

羌活、獨活

강활、독활

- 苦甘且平者
- 쓰고 달면서 평한 약

升麻

승마

- 酸而微寒者
- 시면서 약간 찬 약

芍藥

작약

- 辛酸而寒者
- 맵고 시면서 찬 약

浮萍

부평

○凡此皆發散之屬也, 中病則止, 不必盡劑.

○이 약들은 모두 발산하는 약으로 병에 적중하였으면 곧 쓰기를 그치고 끝까지 쓸 필요는 없다.

吐劑《本》

토제《본초강목》

病在胸膈中脘已上者, 皆吐之.

병이 흉격과 중완 위쪽에 있을 때는 모두 토하게 한다.

- 苦寒者
- 쓰면서 찬 약

瓜蒂、梔子、茶末、豆豉、黃連、苦參、大黃、黃芩

과체、치자、차 가루、두시、황련、고삼、대황、황금

- 辛苦而寒者
- 맵고 쓰면서 찬 약

常山、藜蘆、鬱金

상산、여로、울금

- 甘而寒者
- 달면서 찬 약

桐油

오동기름

- 甘而溫者
- 달면서 따뜻한 약

牛肉

쇠고기

- 甘苦而寒者
- 달고 쓰면서 찬 약

地黃、人參蘆

지황、인삼 노두

- 苦而溫者
- 쓰면서 따뜻한 약

青木香、桔梗蘆、遠志、厚朴

청목향、길경 노두、원지、후박

- 辛苦而溫者
- 맵고 쓰면서 따뜻한 약

薄荷、芫花、松蘿

박하、원화、송라

- 辛而溫者
- 맵고 따뜻한 약

葡萄¹⁰子、穀精草、葱根鬚、杜衡、皂莢

나복자、곡정초、총백 수염뿌리、두형、조협

- 辛而寒者
- 매우면서 찬 약

膽礬、石綠、石青

담반、석록、석청

- 辛而溫者
- 매우면서 따뜻한 약

蝎稍、烏梅、附子尖、烏頭、輕粉

전갈꼬리、오매、부자(뽕족한 부분)、오두、경분

- 酸而寒者
- 시면서 찬 약

晋礬、綠礬、螯汁

진반、녹반、절인 채소즙

- 酸而平者
- 시면서 평한 약

銅綠

동록

- 甘酸而平者
- 달고 시면서 평한 약

赤小豆

적소두

- 酸而溫者
- 시면서 따뜻한 약

飯漿

승능

- 鹹而寒者
- 짜면서 찬 약

靑鹽、滄鹽、白米飮

청염, 창염, 쌀미음

- 甘而寒者
- 달면서 찬 약

牙消

마아초

- 辛而熱者
- 매우면서 뜨거운 약

砒石

비석

○諸藥, 常山、膽礬、茈薺, 有小毒, 藜蘆、芫花、烏、附、砒石, 有大毒, 他皆吐藥之無毒者.

○여러 약 중에 상산、담반、과체는 독성이 약간 있고 여로、원화、오두、부자、비석은 독성이 많은 약이다. 나머지는 모두 토법에 쓰는 약 가운데 독이 없는 것이다.

下劑《本》

하제《본초강목》

積聚陳莖于中, 留結寒熱于內, 必用下之.

묵은 찌꺼기가 속에 쌓이거나 한열이 안에 오랫동안 뭉쳐 있을 때는 반드시 하법을 써야 한다.

- 寒而鹹者
- 차면서 짝 약

戎鹽

응염(戎鹽, 청염)

- 寒而酸醎者
- 차면서 시고 짝 약

犀角

서각

- 寒而甘醎者
- 차면서 달고 짝 약

滄鹽、澤瀉

창염·택사

- 寒而苦酸者
- 차면서 쓰고 신 약

枳實

지실

- 寒而辛者
- 차면서 매운 약

膩粉

이분

- 寒而苦辛者
- 차면서 쓰고 매운 약

澤漆

택칠

- 寒而苦甘者
- 차면서 쓰고 단 약

杏仁

행인

- 微寒而苦者
- 약간 차면서 쓴 약

猪膽

돼지쓸개

- 大寒而甘者
- 크게 차면서 단 약

牙消

마아초

- 大寒而苦者
- 크게 차면서 쓴 약

大黃、牽牛、苈薈、苦瓠、牛膽、藍汁、羊蹄根苗

대황、견우、과체、고호、우담、쪽즙、양제근 싹

- 大寒而苦甘者
- 크게 차면서 쓰고 단 약

大戟、甘遂

대극、감수

- 大寒而苦鹹者
- 크게 차면서 쓰고 짠 약

朴消、芒消

박초、망초

- 溫而辛者
- 따뜻하면서 매운 약

檳榔

빈랑

- 溫而苦辛者
- 따뜻하면서 쓰고 매운 약

芫花

원화

- 溫而甘者
- 따뜻하면서 단 약

石蜜

석밀

- 溫而辛鹹者
- 따뜻하면서 시고 짠 약

皂角

조각

- 熱而辛者
- 뜨겁고 매운 약

巴豆

파두

- 涼而鹹者
- 서늘하면서 짠 약

猪羊血

돼지피, 양피

- 平而酸者
- 평하면서 신 약

郁李仁

옥리인

- 平而苦者
- 평하면서 쓴 약

桃花

복숭아 꽃

○下藥, 惟巴豆性熱, 非寒積, 不可輕用.

○하법에 쓰는 약 중에 파두는 성질이 뜨거우니 한사로 생긴 적취가 아닌 경우에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

七方《本》

7방《본초강목》

病有遠近, 證有中外, 治有輕重. 近者奇之, 遠者偶之. 汗不以奇, 下不以偶. 補上治上制以緩, 補下治下制以急. 近而偶奇制小其服, 遠而奇偶制大其服. 大則數少, 少¹¹則數多, 多則九之, 少則二¹²之. 奇之不去則偶之, 偶之不去則反佐以取之. 所謂寒熱溫涼, 反從其病也.¹³

병에는 가까운 것과 먼 것이 있고 증상에는 속에 생긴 것과 겉에 생긴 것이 있으며 치료에는 경중이 있다. 병소가 가까우면 기방(奇方)을 쓰고 멀면 우방(偶方)을 쓴다. 한(汗)법에는 기방을 쓰지 않고 하(下)법에는 우방을 쓰지 않는다. 상부를 보하거나 치료할 때는 완방으로 짓고, 하부를 보하거나 치료할 때는 급방으로 짓는다. 병소가 가까우면서 우방이나 기방을 쓸 경우에는 소방으로 지어 복용시키고, 병소가 멀면서 우방이나 기방을 쓸 경우에는 대방으로 지어 복용시킨다. 대방을 쓸 때는 복용 횟수를 적게 하고 소방을 쓸 때는 복용 횟수를 많게 해야 하니 많다는 것은 9번을 말하고 적다는 것은 2번을 말한다. 기방을

써서 병이 낫지 않으면 우방을 쓰고, 우방을 써서 병이 낫지 않으면 반좌법(反佐法)을 써야 하니 이른바 "한열과 온량은 그 병에 따라 반치(反治)한다."는 말이 그것이다.

大方 대방

君一臣二佐九, 制之大也, 君一臣三佐五, 制之中也, 君一臣二, 制之小也, 假如小承氣湯、調胃承氣湯, 奇之小方也, 大承氣湯、抵當湯, 奇之大方也, 所謂因其攻裏而用之也, 桂枝、麻黃, 偶之小方也, 葛根、青龍, 偶之大方也, 所謂因其發表而用之也, 故曰, 汗不以奇, 下不以偶.

군약 2개, 신약 3개, 좌약 9개면 대방(大方)이다. 군약 1개, 신약 3개, 좌약 5개면 중방(中方)이다. 군약 1개, 신약 2개면 소방(小方)이다. 가령 소승기탕·조위승기탕은 기방(奇方)이면서 소방이고, 대승기탕·저당탕은 기방이면서 대방이니, 이증(裏症)을 치료하기 위해서 쓴다. 계지탕·마황탕은 우방(偶方)이면서 소방이고, 갈근탕과 청룡탕은 우방이면서 대방이니 표증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쓴다. 그러므로 한법(汗法)에는 기방을 쓰지 않고 하법(下法)에는 우방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小方 소방

小方有二, 有君一臣二之小方, 病無兼證, 邪氣專一, 可一二味治者宜之, 有分兩少而頻服之小方, 心肺及在上之病者, 宜之徐徐細呷是也.

소방(小方)에는 2가지가 있다. 군약 1개, 신약 2개로 쓰는 소방이 있는데, 병에 겹치는 증상이 없으면 사기(邪氣)가 오직 1가지이니 1 - 2가지 약재로도 치료할 수 있다. 용량을 적게 하여 자주 복용하는 소방이 있는데, 병이 심폐와 상부에 있으면 천천히 조금씩 마시게 해야 한다.

緩方 완방

緩方有五, 有甘以緩之之方, 甘草、糖、蜜之屬是也, 病在胸膈, 取其留戀也, 有丸以緩之之方, 比之湯散, 其行遲慢也, 有品性¹⁴衆多之緩方, 藥衆則遞相拘制, 不得各騁其性也, 有無毒治病之緩方, 無毒則性純功緩也, 有氣味俱薄之緩方, 氣味薄則長于補上治上, 比至其下, 藥力已衰矣.

완방(緩方)에는 5가지가 있다. 단맛으로 천천히 작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감초、설탕、꿀 같은 약재가 이것이다. 병이 흉격에 있을 때 이 약을 쓰면 오랫동안 머물게 할 수 있다. 환약으로 천천히 작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탕이나 산제에 비해서 약효가 천천히 돈다. 약품의 가짓수를 많게 하는 완방이 있으니 약재가 많으면 서로 견제하여 각각의 그 약성이 강하게 작용하지 못하게 한다. 독성이 없는 약재로 치료하는 완방이 있으니 독성이 없으면 약성이 순하여 치료가 느리다. 기미가 모두 얇은 완방이 있으니 기미가 얇으면 상부를 보하거나 상부를 치료하는 장점이 있고, 하부에 이르면 약력이 이미 쇠한다.

急方 급방

急方有四. 有急病急攻之急方, 中風關格之病是也. 有湯散蕩滌之急方, 下咽易散而行速也. 有毒藥之急方, 毒性能上涌下泄以奪病勢也. 有氣味俱厚之急方, 氣味俱厚, 直趨于下而力不衰也.

급방에는 4가지가 있다. 급병에 급히 공격하는 급방이 있으니 중풍이나 관격(關格)의 병에 쓰는 약이 이것이다. 탕이나 산제로 씻어내는 급방이 있으니 삼키면 쉽게 흩어져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독성이 있는 약을 쓰는 급방이 있으니 독성은 위로는 토하게 하고 아래로는 설사하게 하여 병세를 빼앗을 수 있다. 기미가 모두 두터운 급방이 있으니 기미가 모두 두터우면 곧바로 하부로 작용하고 약력이 쇠해지지 않는다.

奇方 기방

奇方有二. 有獨用一物之奇方, 病在上而近者宜之. 有藥合陽數一三五七九之奇方, 宜下, 不宜汗.

기방에는 2가지가 있다. 1가지 약물만 쓰는 기방이 있으니 병이 상부에 있어 병소가 가까울 때 써야 한다. 약재의 가짓수를 1、3、5、7、9처럼 홀수(陽數)로 합하여 쓰는 기방이 있다. 하법(下法)에 쓰고 한법(汗法)에는 쓰지 않도록 한다.

偶方 우방

偶方有三. 有兩味相配之偶方. 有古之二方相合之偶方, 皆病在下而遠者宜之. 有藥合陰數二四六八十之偶方, 宜汗, 不宜下.

우방에는 3가지가 있다. 2가지 약미를 서로 배합하는 우방이 있다. 또 옛날에는 2가지 처방을 서로 합하는 우방이 있었다. 모두 병이 하부에 있고 병소에서 거리가 먼 것을 치료할 때 적합하다. 약의 가짓수를 2、4、6、8、10처럼 짝수(陰數)로 배합하여 쓰는 우방이 있다. 한법(汗法)에 쓰고 하법(下法)에는 쓰지 않도록 한다.

複方 복방

複方有三. 有二方三方及¹⁵數方相合之複方, 如桂枝二越婢一湯、五積散之屬, 是也. 有本方之外別加餘藥, 如調胃承氣加連翹、薄荷、黃芩、梔子, 爲涼膈散之屬, 是也. 有分兩勻齊之複方, 如胃風湯, 各等分之屬, 是也.

복방에는 3가지가 있다. 두세 처방이나 여러 개의 처방을 서로 합하여 쓰는 복방이 있으니 계지이월비일탕、오적산 등이 이것이다. 본방 외에 따로 다른 약재를 더하여 쓰는 복방이 있으니 조위승기탕에 연교、박하、황금、치자를 더

하여 양격산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다. 약재의 분량을 동일하게 하는 복방이 있으니 위풍탕처럼 구성 약재를 각각 같은 양으로 쓰는 것이 이것이다.

十劑《本》

10제《본초강목》

藥有十種, 是藥之大體, 審而詳之, 靡所遺失矣.

약제에는 10종이 있으니 이것은 약제의 큰 틀이다. 자세하게 살핀다면 약을 잘못 쓰는 일이 없을 것이다.

宣劑 宣可去壅, 生薑、橘皮之屬, 是也.

선제 트이게 하면 막힌 것을 없애니 생강·귤피 등이 이것이다.

通劑 通可去滯, 通草、防己之屬, 是也.

통제 통하게 하면 체한 것을 없애니 통초·방기 등이 이것이다.

補劑 補可去弱, 人參、羊肉之屬, 是也.

보제 보하게 하면 약한 것을 없애니 인삼·양고기 등이 이것이다.

洩劑 洩可去閉, 葶藶、大黃之屬, 是也.

설제 새어나가게 하면 닫힌 것을 여니 정력·대황 등이 이것이다.

輕劑 輕可去實, 麻黃、葛根之屬, 是也.

경제 가벼운 것은 실한 것을 없애니 마황·갈근 등이 이것이다.

重劑 重可去怯, 磁石、鐵粉之屬, 是也.

중제 무거운 것은 겁을 없애니 자석·철가루 등이 이것이다.

滑劑 滑可去著, 冬葵子、榆白皮之屬, 是也.

활제 미끄러운 것은 붙은 것을 없애니 동규자·유백피 등이 이것이다.

潤劑 潤可去脫, 牡蠣、龍骨之屬, 是也.

습제 쫄끄러운 것은 빠져 나가는 것을 없애니 모려·용골등이 이것이다.

燥劑 燥可去濕, 桑白皮、赤小豆之屬, 是也.

조제 마른 것은 습(濕)을 제거하니 상백피·적소두 등이 이것이다.

潤劑 濕可去枯, 白石英、紫石英之屬, 是也.

윤제 습한 것은 마른 것을 적시니 백석영·자석영 등이 이것이다.

○制方之體, 欲成七方十劑之用者, 必本于氣味也. 寒熱溫涼四氣生于天, 酸苦辛鹹甘淡, 六味成乎地, 是以有形爲味, 無形爲氣, 氣爲陽, 味爲陰, 陽氣出上竅, 陰味出下竅, 氣化則精生, 味化則形長, 故地產養形, 形不足者, 溫之以氣, 天產養精, 精不足者, 補之以味, 辛甘發散爲陽, 酸苦通泄爲陰, 鹹味涌泄爲陰, 淡味滲洩爲陽, 辛散、酸收、甘緩、苦堅、鹹熯, 各隨五臟之病, 而制藥性之品味.

○처방을 잘 만드는 요체는 7방과 10제의 쓰임을 완성시키려는 것이니 반드시 기미(氣味)에 근본하여야 한다. 한·열·온·량의 4가지 기운은 하늘에서 생성되고 신맛·쓴맛·매운맛·짠맛·단맛·담담한 맛의 6미(味)는 땅에서 생성된다. 이로써 형태가 있는 것은 미(味)가 되고 형태가 없는 것은 기(氣)가 된다. 기(氣)는 양(陽)이 되고 미(味)는 음(陰)이 되며 양인 기(氣)는 상부의 구멍에서 나오고 음인 미(味)는 하부의 구멍에서 나온다. 기가 변화하면 정(精)이 생겨나고 미가 변화하면 형(形)이 자라난다. 그러므로 땅에서 생산된 것은 형을 길러주니 형이 부족한 것은 기로써 길러준다. 하늘에서 생산된 것은 정을 길러주니 정이 부족한 것은 미로써 보하여 준다. 매운맛과 단맛은 발산시키므로 양이 되고 신맛과 쓴맛은 잘 통하게 하여 배설시키니 음이 된다. 짠맛은 토하거나 설사시키니 음이 되고 담담한 맛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하니 양이 된다.

매운 맛은 발산시키고 신맛은 수렴하며 단맛은 이완시키고 쓴맛은 견고하게 하며 짠맛은 부드럽게 하니 각각 오장의 병에 따라 약성에 맞는 기질과 성미로 처방을 만들어야 한다.

六陳良藥《寶》

목을수록 좋은 약재 6가지 《동의보감》

狼毒、枳實、陳皮、半夏、麻黃、吳茱萸. 又, 荊芥、香薷、枳殼.

난독, 지실, 진피, 반하, 마황, 오수유. 또 형개, 향유, 지각.

救急法《寶》

구급법 《동의보감》

救急是急事也. 宜人人所講, 故特詳之.

구급(救急)은 위급한 일이고 사람들이 반드시 익혀야 하니 특별히 상세히 적는다.

中惡 중악

但腹不鳴, 心腹煖, 切勿移屍, 卽令衆人圍繞, 打鼓燒火, 或燒麝香、安息香, 候醒方移.

○先用銅器或瓦器, 盛熱湯, 用厚衣襯腹上熨之, 冷則易.

○半夏、皂角末吹鼻, 心頭溫, 可活.

중악에는 다만 배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고 명치는 따뜻하니 주검을 절대로 옮기면 안 된다. 즉시 여러 사람들이 에워싸고 북을 두드리고 불을 지피거나, 사향이나 안식향을 태워 냄새를 맡게 하여 깨어난 후에야 옮긴다.

○먼저 구리그릇이나 질그릇에 끓인 물을 담아 두꺼운 옷이나 속옷으로 배 위를 덮은 후 찜질하고, 식으면 갈아준다.

○반하, 조각가루를 콧속에 넣어 넣어 명치가 따뜻해지면 살아난다.

尸厥 시겔

竹管吹兩耳, 卽甦, 急取蘇合香元, 溫酒或薑湯調下.

죽관으로 양쪽 귀에 숨을 불어 넣으면 곧 깨어난다. 급히 소합향원을 따뜻한 술이나 생강탕에 타서 먹인다.

鬼魔 가위놀림

若元有燈, 不可吹滅, 如無燈, 切不可用燈照, 痛咬足跟及大拇指甲邊, 多唾其面.

만일 원래 등이 켜있었다면 끄지 말고, 등이 켜있지 않았다면 절대로 등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발뒤꿈치와 엄지손톱의 주변을 아프게 깨물고, 그 얼굴에 침을 많이 뱉는다.

鬱冒卒死 실신하여 갑자기 죽은 경우

藜蘆、菰蒂、雄黃、白礬等末少許, 吹鼻, 或溫酒灌之.

여로, 과체, 옹황, 백반 등의 가루 조금을 코에 불어 넣거나 따뜻한 술로 흘려 넣어준다.

自縊死 목을 매어 죽은 경우

自朝至暮, 雖已冷, 可治, 自暮至朝, 難治. 心下微溫, 一日已上, 猶活, 徐徐抱下解之, 不可截斷繩子, 安臥被中, 令一人以手掌掩其口鼻, 勿令透氣, 又令一人以脚踏其兩肩, 以手挽其¹⁶, 常令弦急, 勿使縱緩, 一人以手據按胸上, 數摩動之, 一人摩將臂脛屈伸之, 若已強直, 漸漸強屈之, 如此一炊頃, 雖得氣, 從口出呼吸眼開, 仍引按, 卽活.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목을 매었다면 비록 이미 몸이 싸늘하더라도 살릴 수 있다. 저녁부터 아침 사이에 목을 매었다면 살리기 어렵다. 명치 밑이 약간 따듯하면 하루가 지났어도 오히려 살 수 있다. 천천히 잡고 내려서 풀어야 하니 갑자기 줄을 끊어서 내리면 안 된다. 이불 속에 편안히 누인 후 한 사람이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고 숨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다. 또 한 사람은 양 어깨를 다리로 누르게 하고 손으로는 그 머리카락을 당겨 항상 팽팽한 상태로 유지하며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한 사람은 손으로 가슴 위를 누르며 자주 문질러 움직여주고, 한 사람은 문지르면서 팔과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해준다. 만약 이미 몸이 강직되었으면 점차 강하게 굽혔다 폈다 하기를 밥 지을 시간 정도로 한다. 비록 숨을 얻어 입으로 호흡을 하고 눈을 떴더라도 계속 해주어야 살 수 있다.

溺水死 익사

一宿尚可救, 急拯出, 先以刀¹⁷ 抗開口, 放筋一枚含之, 使可出水, 然後解去衣服, 多灸臍中二三百壯, 令兩人以筆管吹其兩耳, 皂角末綿裹納下部, 須臾出水即活.

익사한 사람은 하룻밤 정도 되었으면 구할 수 있으니 급히 건져낸다. 먼저 칼로 입을 벌리고 젓가락 1개를 물려 놓아 물이 나올 수 있게 한다. 그런 후 옷을 벗기고 배꼽 가운데에 200 - 300장 정도로 뜸을 많이 뜨고, 두 사람에게 붓대로 양쪽 귀에 바람을 불어넣도록 한다. 조각가루를 천에 싸서 항문에 넣으면 잠시 후에 물이 나오면서 곧 살아난다.

凍死 동사

炒灰囊盛, 熨心上, 冷則易, 口開氣出後, 溫粥或溫酒薑湯灌之. 若不先溫其心, 便火灸, 則冷氣與爭, 必死矣.

재를 볶아서 자루에 담아 심장 부위를 문지르고, 식으면 갈아준다. 입을 벌려 숨을 쉬면 따뜻한 죽이나 따뜻한 술, 생강 달인 물을 흘려 넣어준다. 만일 먼저 심장을 따뜻하게 하지 않고 바로 땀을 뜨면 냉기와 서로 다투어 반드시 죽는다.

餓死 굶어 죽은 경우

先以稀粥清, 稍稍嚥下, 令咽腸潤, 過一日, 頻與稀粥, 過數日, 乃與軟飯.

먼저 묽은 죽의 옷물을 조금씩 삼키게 하여 목구멍과 장을 윤활하게 한다. 하루가 지난 후 자주 묽은 죽을 먹고 며칠이 지난 후부터는 진밥을 준다.

壓死 압사

急扶坐起, 將手提其¹⁸, 半夏末吹鼻, 薑汁同香油灌之.

압사한 경우는 급히 부축해서 앉히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끌어당겨 반하가루를 코에 붙여넣고 생강즙에 향유를 타서 흘려 넣어준다.

入井塚卒死 우물이나 무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죽은 경우

凡入枯井古塚, 先以鷄鴨毛投之, 直下則無毒, 若槌¹⁹不下則有毒, 當以酒洒其中, 久乃入. 若誤觸毒而死, 卽取井水噴面, 又調雄黃末二三錢服之. 又濃煎鹽湯, 浸手足, 洗胸脇, 卽甦.

마른 우물이나 오래된 무덤에 들어가려면 먼저 닭이나 오리 깃털을 던져 본다. 깃털이 곧장 떨어지면 독이 없는 것이고 배회하면서 바로 떨어지지 않으면 독이 있는 것이다. 술을 그 속에 뿌린 후 오래 지난 뒤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잘

못하여 독에 닿아 죽으면 즉시 우물물을 얼굴을 뿜어준다. 또 옹황가루 2 - 3돈을 타서 먹인다. 또 소금을 진하게 달인 소금물에 손발을 담그고 가슴과 옆구리를 씻어주면 곧 깨어난다.

雷震死 벼락에 맞아 죽은 경우

蚯蚓搗融, 付臍上, 半日即活.

지렁이를 문드러지게 갈아 배꼽 위에 붙여두고 반나절이 지나면 곧 살아난다.

蛇入七竅 뱀이 몸의 7가지 구멍을 통해 들어간 경우

急以刀傷蛇尾, 納川椒或胡椒二三粒, 裹着即出, 後用雄黃末, 調人參湯服, 制蛇毒.

○爲蛇所繞, 熱湯淋, 無則令人尿之.

급히 칼로 뱀의 꼬리를 갈라 천초나 호초 2 - 3알을 넣고 감싸놓으면 곧 나온다. 나온 후에는 옹황가루를 인삼 달인 물에 타서 먹이면 뱀독을 억제한다.
○뱀이 몸을 감쌌을 때는 뜨거운 물을 뿌리고, 뜨거운 물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뱀 감긴 데에 소변을 누게 한다.

諸蟲入耳 각종 벌레가 귀로 들어간 경우

以竹管吸出, 香油及醋, 皆可灌之.

대나무 관으로 빨아들인다. 향유와 식초를 모두 귀에 흘려 넣어준다.

誤吞金銀 금이나 은을 잘못 삼킨 경우

砂仁煎服.

○若吞銅錢, 多食胡桃.

사인을 달여 먹인다.

○동전을 삼켰을 때에는 호도를 많이 먹도록 한다.

烟熏欲死 연기를 많이 마시고 죽은 경우

生蘿菹汁飲, 無則取子研水飲之, 亦可.

생나복즙을 마신다. 생나복즙이 없으면 나복자를 간 물을 마셔도 괜찮다.

乘船眩暈 뱃멀미

童便或自己尿飲.

○若飲水則死.

동변이나 자신의 소변을 마신다.

○만일 물을 먹으면 죽는다.

匙著口中 손가락이 입안에 붙은 경우

急針三里, 或灸匙頭七壯.

급히 삼리혈에 침을 놓거나 손가락 끝에 7장 뜸을 뜬다.

救飢捷法《寶》

굶주림을 구하는 방법《동의보감》

荒饑之歲, 奔竄之際, 數日絕粒, 便能致命, 良可哀哉. 今載其易爲者.

흉년이 들었거나 도망치느라 며칠 동안 밥알 하나 먹지 못하였을 때 곧 목숨을 잃게 되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여기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실어 둔다.

飢餓欲死, 便閉口, 以舌攪上下齒, 取津液而嚥之, 一日得三百六十嚥, 便佳, 漸習乃可至千, 自然不飢, 三五日小疲極, 過此, 便漸輕強. 若有水處, 卒無器, 便以左手掬水, 呪曰, 丞掾吏之賜, 眞乏糧正赤黃, 行無過城下, 諸醫以自防, 呪畢三叩齒, 右手指三叩左手, 如此三遍, 便飲之, 有杯器貯水, 尤佳, 如法日服三升, 便不飢.

○又取松栢葉, 細切和水, 服一合, 一日二三升, 最佳.

○又白茯苓四兩, 白麪二兩, 右水和得所, 以黃蠟代油燂, 成煎餅, 飽食一頓, 便絕食. 三日後, 飲脂麻湯少, 潤腸胃.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을 때는 곧 입을 다물고 혀로 상하의 치아를 문질러 침이 나오게 하여 삼킨다. 하루에 360번 삼키면 좋고 점차 익혀서 1000번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지 않다. 3 - 5일이 지나면 조금 피로한데 이 시기를 지나면 곧 점차 몸이 가벼워지고 강해진다. 물이 있는 곳이 있어 갑자기 그릇이 없으면 바로 왼손으로 물을 뜬 후 "승연리지사, 진핍량정적황, 행무과성하, 제의이자방(丞掾吏之賜, 眞乏糧正赤黃, 行無過城下, 諸醫以自防)"이라고 주문을 외운다. 주문을 마치면 세 번 이를 맞부딪치고(叩齒),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손을 세 번 두드린다. 이와 같이 3회 하고서 바로 마신다. 잔이나 그릇이 있으면 물을 저장해 두면 더욱 좋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하루에 3되를 마시면 곧 배가 고프지 않게 된다.

○또 소나무나 잣나무 잎을 잘게 썰어 물에 타서 1홉을 먹는다. 하루에 2 - 3되를 먹으면 가장 좋다.

○또 백복령 4냥, 밀가루 2냥을 물에 적당히 반죽한 것을 기름 대신 황랍에 지져 전병을 만들어 배불리 한번에 다 먹으면 바로 음식을 끊을 수 있다. 3일 후에 지마 달인 물을 약간 마셔서 위장을 적셔준다.

藥性綱領 完

약성강령 끝

¹. 氣味俱厚者, 能浮能沈, 氣味俱薄者, 可降. ※《의종손익부여》에는 다음과 같

이 되어 있으나 氣味俱薄者가 중복되는 오류가 있다. 이에 《방약합편》에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

2. 上下內外之別：藥有上下內外之別 ※《의종손익부여》 ←

3. ①：縱 ※중정본, 신정본 ←

4. 氣逆：氣上逆 ※《동의보감》 ←

5. 之 ① ※중정본, 신정본 ←

6. 棟：練 ※중정본, 신정본 ←

7. 茂 ① 茂 ※《본초강목》 ←

8. 川芎窮：촉천(蜀川)에서 나는 궁궁을 천궁궁이라고 한다. 出蜀中者, 爲川芎 ※《본초강목》, 궁궁 ←

9. 女 ① 皮 ※중정본, 신정본 ←

10. 葡萄 ① 萊葡 ※중정본, 신정본
蘿葡子 ※《본초강목》 ←

11. 少 ① 小 ※《본초강목》 ←

12. 一 ① 二 ※《본초강목》 ←

13. 王冰曰, 臟位有高下, 腑氣有遠近, 病證有表裏, 藥用有輕重. ※《본초강목》, 七方》♣※ 心肺爲近, 肝腎爲遠, 脾胃居中. 腸膈胞膽, 亦有遠近. ※《본초강목》, 七方》♣※ 近而奇偶엔 制小其服也오 遠而奇偶엔 制大其服也. ※《黃帝內經素問》♣※ 奇之不去則偶之, 是謂重方. ※《의학강목》♣※ 又《經》曰 "微者逆之, 甚者從之", 又曰 "逆者正治, 從者反治". 此謂以寒治熱, 以熱治寒, 逆其病者, 謂之'正治'

以寒治寒, 以熱治熱, 從其病者, 謂之'反治'. 如以熱治寒而寒拒熱, 則反佐以寒而入之. ※《景岳全書》, 反佐論》 ←

14. 件 : 件 ※《본초강목》, 《의학입문》

件 ※신정본 ←

15. 及 : 及 ※《본초강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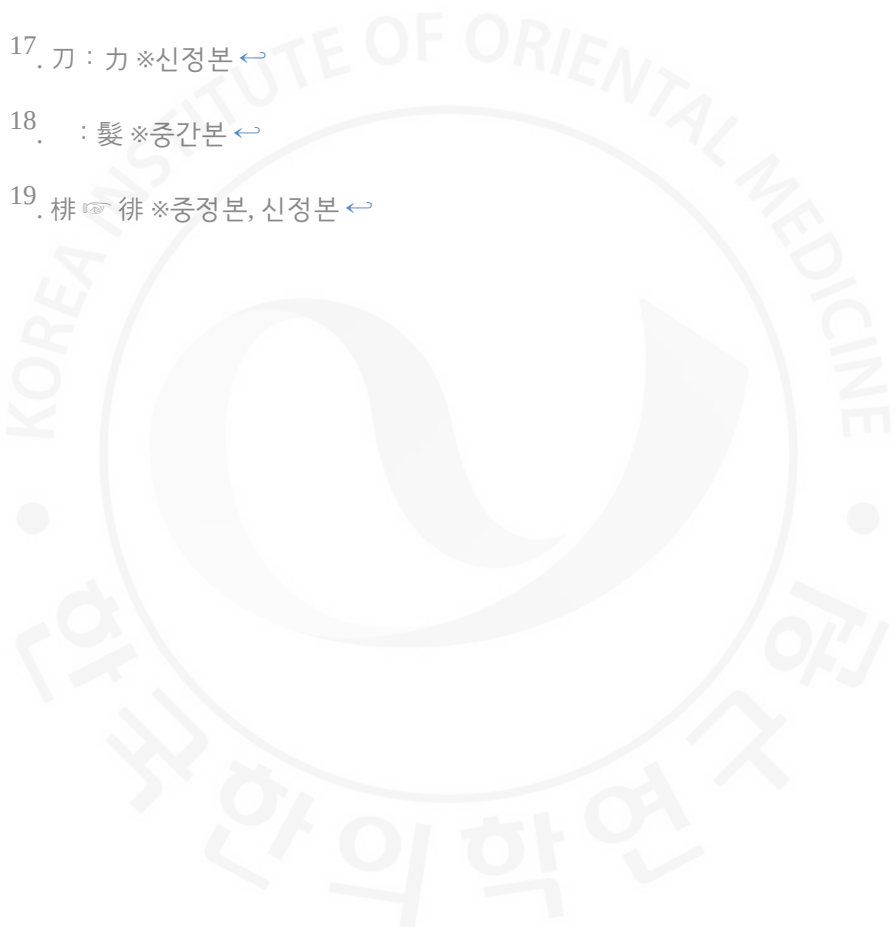
友 ※중정본, 신정본 ←

16. 鬚 : 鬚 ※중정본, 신정본 ←

17. 刀 : 力 ※신정본 ←

18. 髮 : 髮 ※중간본 ←

19. 排 𠂔 排 ※중정본, 신정본 ←



藥性歌 新補

약성가 새로 보탬

歌用七言爲句, 以便誦讀.

○外國所産之材, 依損益前例, 並標以〔陰刻〕¹

7언구의 노래로 만들어 송독하기 편하게 하였다.

○외국에서 생산된 약재는 《의종손익》의 예에 따라 모두 〔음각〕으로 표기하였다.

¹. 본문에는 없으나 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목차에서 가져온 것이다. ↩

山草 三十四¹種

산초 34²종

人蔘

인삼

人蔘味甘補元氣,
止渴生津調榮衛.

인삼은 성미가 달고 원기를 잘 보해주며
갈증을 멎게 하고 진액을 생성하여 영위를 조화롭게 한다.

심³

- 生凉熟溫.
- 入手太陰. 氣中血藥. ○《入門》
- 以細辛密封, 徑年不蛀.
- 反藜蘆, 畏五靈脂、皂角、黑豆、紫石英, 忌鐵.
- 補氣須用人蔘, 血虛亦須用之.
- 人蔘補五臟之陽, 沙蔘補五臟之陰.
- 回元氣於無何有鄉.
- 得升麻瀉肺脾火, 得茯苓瀉腎火, 得麥門冬生脈, 得乾薑補氣, 得芪、甘除大熱瀉陰火, 又瘡家聖藥. 《本草》
- 焙用. 《備要》
- 〈㉔⁴〉弱者, 以蔘蘆代瓜蒂, 痰畜胸中, 蔘蘆湯, 加竹瀝, 吐之. 《本草》
- 〈尾〉主下氣, 同橘薑服.
- 〈葉〉主產後感冒, 同白吉⁵服. 俗方

삼.

- 생것은 성질이 서늘하고 익힌 것은 따뜻하다.
- 수태음폐경에 들어간다. 기(氣)약 중에 혈약이다. ○《의학입문》.
- 세신과 함께 밀봉해 놓으면 몇 년이 지나도 썩먹지 않는다.
- 여로와 상반약이다. 오령지、조각、흑두、자석영과는 상외약이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 기를 보하려면 반드시 인삼을 써야 한다. 혈허(血虛)에도 인삼을 써야 한다.
- 인삼은 오장의 양기를 보하고 사삼은 오장의 음기를 보한다.
- 원기를 회복하는 데 이만한 약이 없다.
- 승마와 같이 쓰면 폐비(肺脾)의 화를 사한다. 복령과 같이 쓰면 신(腎)의 화를 사한다. 맥문동과 같이 쓰면 맥을 살린다. 건강과 같이 쓰면 기를 보한다. 황기、감초와 같이 쓰면 심한 열을 내리고 음화(陰火)를 사한다. 또한 헌 데를 치료하는 성약(聖藥)이다. 《본초강목》
- 결불에 말려서 쓴다. 《본초비요》
- 〈노두〉 약한 사람은 인삼 노두 대신 과채를 쓴다. 담(痰)이 가슴 속에 쌓여 있으면 인삼 노두를 달인 물에 죽력 탄 것을 써서 토하게 한다. 《본초강목》
- 〈잔뿌리〉 기를 내려준다. 굴피、생강을 함께 쓴다.
- 〈잎〉 산후 감기를 치료한다. 흰 길경을 함께 먹인다. 속방

甘草 國老

감초 국로

甘草甘溫和諸藥，
生能瀉火炙溫作。

감초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여러 약재와 화합한다.
생것은 화(火)를 사하고 구운 것은 속을 따뜻하게 한다.

一名國老.

○入足太陰、厥陰、手足十二經.

○惡遠志、大戟、芫花、甘遂、海藻, 忌猪肉、菰. ○《入門》.

○解百藥毒.

○可升可降, 除邪熱, 去咽痛, 緩正氣, 養陰血, 其性能緩急, 而協和諸藥, 使之不爭, 故熱藥得之, 緩其熱, 寒藥得之, 緩其寒, 寒熱相雜用之, 得平.

○〈稍〉主膈熱莖痛.

○〈頭〉主癰疽, 入吐藥. 《本草》

○自中原移種, 產咸鏡道. 《寶鑑》

국로(國老)라고도 한다.

○족태음경、족궐음경、수족 12경맥에 들어간다.

○원지、대극、원화、감수、해조는 상오약이고 돼지고기、송채는 금한다. ○《의학입문》.

○온갖 약독을 해독한다.

○오르게도 내리게도 할 수 있으며 사열(邪熱)을 내리고 인후통을 없앤다. 정기(正氣)를 완만하게 하고 음혈(陰血)을 길러준다. 성질이 완만하거나 급하게 할 수 있으니 여러 약재와 조화롭게 협력하여 다투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뜨거운 약재와 함께 쓰면 그 열을 완화시켜 주고 차가운 약재와 함께 쓰면 그 찬 성질을 완화시켜 준다. 뜨거운 약재와 차가운 약재를 서로 섞어 쓸 때는 화평하게 해 준다.

○〈가는 뿌리〉흉격의 열과 음경의 통증을 치료한다.

○〈머리 부분〉옹저를 치료하니 토약에 넣어서 쓴다. 《본초강목》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옮겨 심었다. 함경도에서 생산된다. 《동의보감》

黃芪 단너삼불휘

황기 단너삼뿌리

黃芪甘溫收汗表⁶,
托瘡生肌虛莫少.⁷

황기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땀을 거두어 겉을 든든하게 한다.

창(瘡)을 밀어내고 살이 돌아나게 하며 허할 때는 적게 쓰지 않도록 한다.

단너삼 불휘.

- 入足太陰、手少陽、足少陰、命門. 《本草》
- 達表生用, 補虛蜜灸.
- 治下鹽炒, 此說非也. 氣升則腎受蔭, 而崩帶等症自止. 《備要》
- 惡龜甲、白蘚皮. 得防風, 其功愈大, 乃相畏而相使也.
- 治諸虛, 益氣壯脾, 去熱排膿活血, 爲瘡家聖藥, 無汗則發之, 有汗則止之, 治小兒百病, 婦人崩帶諸疾. 《本草》
- 四君子湯, 去朮苓, 加黃芪, 名保元湯, 白朮燥濕, 茯苓滲水, 故痘症忌之. 《備要》
- 產寧越, 皮黃肉白軟綿者佳.⁸

단너삼 뿌리.

- 족태음경、수소양경、족소음경、명문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 체표에 도달하게 하려면 생것을 쓰고 허를 보하려면 꿀에 축여 볶은 것을 쓴다.
- 하초를 치료할 때 황기를 소금물에 축여 볶아서 쓴다는 것은 잘못된 설이다. 기가 오르면 신(腎)이 혜택을 받아서 봉루와 대하가 절로 멎는다. 《본초비요》
- 구갑、백선피는 상오약이다. 방풍과 같이 쓰면 효능이 더욱 커지니 상외약이면서 서로 사약(使藥)이 된다.
- 여러 허증을 치료하고 기를 보익하며 비(脾)를 튼튼하게 한다. 열을 내리고 농을 배출시키며 혈을 잘 돌게 한다. 또한 헌 데를 치료하는 성약(聖藥)이다. 땀이 없을 때는 땀을 내게 하고 땀이 너무 날 때는 멎게 해준다. 소아의 온갖 질병, 부인의 봉루、대하 등 여러 질병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 사군자탕에서 백출、복령을 빼고 황기를 더하면 보원탕이다. 백출은 습을 말

리고 복령은 수(水)를 빠져나가게 하므로 두창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본초비요》

○영월(寧越)에서 생산된다. 껍질이 누렇고 속이 희며 부드럽고 연한 것이 좋다.

齊芩 계로기

제니 계로기

齊芩甘寒嗽渴瘡，
解百藥毒蛇箭傷。⁹

제니는 성미가 달고 차며 기침, 소갈, 창독을 치료한다.

온갖 약의 독을 해독하고 뱀이나 전갈에 물린 상처도 치료한다.

계로기.

○似人參而葉小，似桔梗而無心. 《本草》

계로기.

○인삼과 비슷하나 잎이 작고 길경과 비슷하나 심이 없다. 《본초강목》

桔梗 도랏

길경 도라지

桔梗味苦療咽腫¹⁰，
載藥上升開胸壅.

길경은 성미가 쓰며 인후가 부은 것을 치료한다.

약을 싣고 위로 올라가서 흉격에 막힌 것을 열어 준다.

도랏.

- 微溫小毒, 一云無毒大寒.
- 入手太陰氣分, 及足少陰.
- 畏龍膽草、白芨, 忌猪肉.
- 去蘆米泔浸.
- 同甘草, 爲舟楫之劑. 《本草》

도라지.

-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독성이 약간 있다. 독성이 없고 대한(大寒)하다고도 한다.
- 수태음경의 기분(氣分)과 족소음경에 들어간다.
- 용담초·백급은 상외약이고, 돼지고기를 금한다.
- 노두를 제거하고 쌀뜨물에 담가 둔다.
- 감초와 함께 써서 배처럼 약 기운을 실어 나르는 약제로 삼는다. 《본초강목》

黃精 독덧불휘

황정 죽대뿌리

黃精味甘安臟腑,
五勞七傷皆可補.

황정은 성미가 달며 장부를 안정시킨다.

오로(五勞)와 칠상(七傷)에 모두 보할 수 있다.

독덧 불휘.

- 性平.
- 太陽之草黃精, 食之長生, 太陰之草鉤吻, 入口立死.
- 水洗蒸暴, 或九蒸九暴.

○下三尸蟲.《本草》

○陳藏器曰, 鉤吻乃野葛之別名, 二物全不相似, 不必疑也.《景岳》

○産平安道.《寶鑑》¹¹

죽대 뿌리.

○성질은 평하다.

○태양(太陽)의 풀인 황정은 먹으면 오래 살고 태음(太陰)의 풀인 구문(鉤吻)은 먹으면 곧 죽는다.

○물에 씻어서 찌다가 말리거나 구증구포(九蒸九暴)해서 쓴다.

○삼시충(三尸蟲)을 내려준다.《본초강목》

○진장기가 말하기를 "구문은 야갈(野葛)의 별칭으로 황정과 구문은 서로 전혀 비슷하지 않다."고 하였으니 의심할 필요가 없다.《경악전서》

○평안도(平安道)에서 생산된다.《동의보감》

知母

지모

知母味苦熱渴除¹²

骨蒸有汗痰咳舒.

지모는 성미가 쓰고 열과 소갈을 없애준다.

골증열로 땀이 나는 것을 치료하고 가래와 기침을 풀어준다.

辛寒.

○腎經本藥, 入足陽明、手太陰氣分.

○去皮毛, 忌鐵.

○得黃栢及酒良, 伏鹽及逢砂¹³.《本草》

○入補藥, 鹽水炒或蜜炒¹⁴, 上行酒炒.《寶鑑》

○瀉無根之腎火, 療有汗之骨蒸, 止虛勞之熱, 滋化源之陰.《本草》

○多産於黃海道.《寶鑑》

성미가 맵고 차다.

○신경(腎經)의 근본이 되는 약으로 족양명경·수태음경의 기분(氣分)으로 들어간다.

○껍질과 털을 제거하여 쓰고 철기 사용을 금한다.

○황백과 술을 함께 쓰면 좋다. 소금과 붕사의 성질을 억제한다. 《본초강목》

○보하는 약에 넣을 때는 소금물이나 꿀에 축여서 볶는다. 상초로 올라가게 하려면 술에 축여서 볶는다. 《동의보감》

○신장의 근원 모를 화(火)를 사하거나 골증열로 땀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허로로 인한 열을 내리고 음기를 자양한다. 《본초강목》

○황해도에서 많이 생산된다. 《동의보감》

肉蓯蓉 鎖陽

육종용 쇠양

〔蓯蓉〕味甘補精血，

若驟用之反便滑。

〔육종용〕은 성미가 달며 정(精)과 혈을 보해준다.

한꺼번에 몰아 쓰면 도리어 설사가 쏟아진다.

微溫.

○馬精落地所生.

○忌鐵.

○酒浸一宿，去鱗甲，蒸或酥灸.

○凡服蓯蓉以治腎，必妨心.

○〈鎖陽〉即蓯蓉之類. 《入門》云，蓯蓉根也. 里之淫婦，就而合之，一得陰氣，勃然怒長，功力百倍於蓯蓉. 《本草》¹⁵

성미가 약간 따뜻하다.

◦말의 정액이 떨어진 곳에서 자라난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하룻밤 술에 담가 두었다가 비늘 같은 껍질을 벗기고 찌거나 연유에 축여 굽는다.

◦육종용을 복용하여 신(腎)을 치료하면 반드시 마음이 방만해진다.

◦〈쇄양〉은 육종용의 종류이다. 《의학입문》에는 종용의 뿌리라고 하였다. 마을의 음란한 부인이 쇄양으로 자위를 하자 그것이 한 번 음기를 얻고 갑자기 불끈 커졌다고도 한다. 약효가 육종용보다 백 배는 세다. 《본초강목》

天麻 슈즈히쫇

천마 수자해쫇

天麻味辛毆頭眩,

小兒癇攣及癱瘓.

천마는 성미가 매우며 어지럼증을 치료한다.

소아의 경간과 사지 마비를 몰아낸다.

슈즈히쫇.

◦性平.

◦入肝經氣分.

◦糠火煨, 酒浸焙乾.

◦有自內達外之理. 《本草》

수자해쫇.

◦성미가 평하다.

◦간경(肝經)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쌀겨를 태운 잿불에 묻어 굽고 술에 담가 두었다가 곁불에 말린다.

◦약효가 안에서 바깥으로 도달하는 이치가 있다. 《본초강목》

赤箭 定風, 天麻苗

적전 정풍초, 천마의 싹

赤箭味苦號定風,

殺鬼蠱毒除疝癰.

적전은 성미가 쓰며 정풍(定風)이라고 부른다.

귀신、고독을 죽이고 산증(疝症)과 응종을 제거한다.

卽天麻苗也. 有自表入裏之功.

○此草有風不動, 無風自搖. 《本草》

즉, 천마의 싹이다. 약효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

○이 풀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없을 때 스스로 흔들린다. 《본초강목》

白朮 삼두불휘

백출 삼주 뿌리

白朮甘溫健脾胃,

止瀉除濕兼痰痞.

백출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비위(脾胃)를 튼튼하게 한다.

설사를 멎게 하고 습을 제거하며 검하여 담(痰)이 막힌 것을 치료한다.

삼두 불휘.

○入手太陽少陰、足三陰陽明.

○米泔浸, 去蘆, 潤燥, 人乳拌, 胃虛黃土炒.

○忌桃、李、菰、雀肉.

○古無蒼白之名, 陶弘景始分. 《本草》¹⁶

삽주 뿌리.

○수태양경、수소음경、족태음경、족궐음경、족소음경、족양명경으로 들어간다.

○쌀뜨물에 담가 두었다가 노두를 제거하고 쓴다. 마른 것을 축축하게 하려면 인유를 넣고 섞어서 쓴다. 위허(胃虛)에는 황토를 넣고 볶아서 쓴다.

○복숭아、자두、송채、참새고기를 금한다.

○옛날에는 창출이나 백출이란 이름이 없었으나 도홍경이 처음으로 구분하여 썼다. 《본초강목》

蒼朮

창출

蒼朮甘溫能發汗，
除濕寬中瘴可捍。¹⁷

창출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땀을 내게 한다.

습을 제거하고 속을 편하게 하며 장역(瘴疫)을 막아준다.

入足陽明、太陰、手太陰、陽明、太陽。

○糯米泔浸，去油。

○忌同白朮. 《本草》

○雄壯上行之藥.¹⁸ 《寶鑑》

족양명경、족태음경、수태음경、수양명경、수태양경으로 들어간다.

○찹쌀뜨물에 담가서 기름을 제거하고 쓴다.

○백출과 함께 쓰는 것을 금한다. 《본초강목》

○웅장하게 상초로 올라가는 기운이 있는 약이다. 《동의보감》

狗脊

구척

〔狗脊〕味甘治諸痺，
腰背膝疼酒蒸試。¹⁹

〔구척〕은 성미가 달며 여러 비증(痺證)을 치료한다.
허리、등、무릎이 아픈 것을 치료하며 술로 찌서 쓴다.

微溫，惡莎草。

○燎金毛用.《本草》

성미가 약간 따뜻하다. 사초(莎草)와 상오약이다.
○금빛 털은 태워버린 후 쓴다.《본초강목》

貫衆 회초밋불휘, 黑狗脊

관중 회초 밋뿌리, 흑구척

貫衆寒毒宜癰蟲，
漆瘡骨硬血症通。

관중은 성미가 차고 독성이 있으며 징가와 충에 쓴다.
칠창(漆瘡)과 뼈가 굳은 경우, 혈증(血證)에 두루 쓴다.

회초밋불휘.

○一名黑狗脊。

회초 밋뿌리.
○흑구척(黑狗脊)이라고도 한다.

巴戟

파극

〔巴戟〕辛甘補虛損，
精滑夢遺壯筋本。²⁰

〔파극〕은 성미가 맵고 달며 허손을 보한다.

유정(遺精)과 몽설(夢泄)을 치료하고 근력과 원기를 튼튼하게 한다.

微溫.

○入腎經血分.

○惡雷丸丹參.

○去心酒浸一宿用.《本草》

성질이 약간 따뜻하다.

○신경(腎經)의 혈분(血分)에 들어간다.

○뇌환·단삼과 상오약이다.

○심을 제거하고 술에 하룻밤 담가두었다가 쓴다.《본초강목》

遠志 아기풀불휘

원지 아기풀 뿌리

遠志氣溫毆悸驚，

安神鎮心益聰明.

원지는 성질이 따뜻하며 경계(悸驚)를 몰아낸다.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총명함을 더해준다.

아기풀 불휘.

○入腎經氣分，非心經藥也.

○甘草水浸一宿，去骨暴乾或焙乾.

○畏珍珠、藜蘆.

○苗名〈小草〉, 益精止虛夢泄. 《本草》

아기풀 뿌리.

○신경(腎經)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심경(心經)에 쓰는 약은 아니다.

○감초 달인 물에 하룻밤 담가두었다가 심을 빼고 벌에 말리거나 곁불에 말린다.

○진주、여로와 상외약이다.

○쌈은 〈소초(小草)〉라고 하며 정(精)을 보익하여 허로로 인한 몽설을 멎게 한다. 《본초강목》

淫羊藿 삼지구엽풀, 仙靈脾

음양곽 삼지구엽풀, 선령비

淫羊藿辛陰陽興,

堅筋益骨志力增²¹.

음양곽은 성미가 맵고 음양을 흥기시킨다.

힘줄을 튼튼하게 하고 뼈를 보익하며 의지와 힘을 더해준다.

삼지구엽풀. ○一名仙靈脾.

○小寒或微溫.

○入手足陽明、三焦、命門.

○得酒良.

○羊食此草, 一日百合. 《本草》

삼지구엽풀. ○선령비라고도 한다.

○조금 차거나 약간 따뜻하다.

○수양명경、족양명경、삼초경、명문에 들어간다.

◦술과 함께 마시면 좋다.

◦양이 이 풀을 먹으면 하루에도 백 번 교미를 한다. 《본초강목》

仙茅

선모

〔仙茅〕味辛腰足痺,

虛損勞傷陽道起.

〔선모〕는 성미가 매우며 허리·다리가 저린 증상을 낫게 한다.

허로로 몸이 손상된 경우와 노관상을 치료하며 양기를 일으킨다.

微溫, 小毒.

◦忌鐵.

◦黑豆水浸一宿, 酒拌蒸, 或米泔浸去赤汁.

◦十斤乳石, 不及一斤仙茅. 《本草》

성미가 약간 따뜻하고 독성이 조금 있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흑두 달인 물에 하룻밤 담가 두었다가 술로 버무려서 찌거나 쌀뜨물에 담가 우려낸 붉은 즙을 버리고 쓴다.

◦유석(乳石) 10근이 선모 1근만 못하다. 《본초강목》

玄參

현삼

玄參苦寒清相火,

消腫骨蒸補腎可.

현삼은 성미가 쓰고 차며 상화(相火)를 식혀준다.

부종과 골증열을 없애주고 신(腎)을 보해준다.

腎經之君藥也.

◦用蒲草蒸晒, 酒蒸亦好.

◦惡黃芪、乾薑、大棗、山茱萸, 反藜蘆, 忌銅鐵. 《本草》

◦乃樞機之劑, 管領諸氣上下, 清肅而不濁, 無根之火以爲聖藥. 湯液

◦産於慶尙道云. 《寶鑑》²²

신경(腎經)의 군약(君藥)이다.

◦창포와 함께 찌서 햇볕에 말려 쓰거나 술에 찌서 써도 좋다.

◦황기、건강、대추、산수유와 상오약이고 여로와는 상반약이다. 동이나 철기의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문의 지도리 같은 약재로서 여러 기를 거느려 오르내리게 하며 맑고 고요하여 탁하지 않으니 근원 모를 화를 치료하는 성약(聖藥)이다. 《탕액본초》

◦경상도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동의보감》

地榆 외나물불휘

지유 오이풀 뿌리

地榆沈寒血熱用,

痢崩金瘡並止痛.

지유는 성미가 가라앉으면서 차며 혈증이나 열증에 쓴다.

이질、붕루나 쇠붙이에 다친 곳을 치료하며 아울러 통증을 멎게 한다.

외나물불휘.

◦入下焦.

◦得²³ 良.

◦惡麥門冬、伏丹砂、雄黃、硫黃. 《本草》

오이풀 뿌리.

○하초(下焦)로 들어간다.

○난발과 함께 쓰면 좋다.

○맥문동과 상오약이다. 단사·웅황·유황의 성질을 억제한다. 《본초강목》

丹參

단삼

〔丹參〕味苦生新能,

破積調經除帶崩.²⁴

〔단삼〕은 성미가 쓰며 새로운 피를 생성시킨다.

적취를 깨뜨리고 월경을 고르게 하며 봉루·대하를 제거한다.

微寒.

○入心與包絡血分.

○畏鹹水, 反藜蘆.

○久服多眼赤, 性應熱, 今云微寒, 恐謬.

○一味丹參, 功同四物. 《本草》

성미가 약간 차다.

○심경(心經)과 포락(包絡)의 혈분(血分)에 들어간다.

○짠 물과 상외약이고, 여로와는 상반약이다.

○오래 복용하면 눈이 많이 충혈되니 성질이 열에 응하기 때문이다. 요즘 단삼이 약간 차다고 하는 것은 생각건대 잘못된 것이다.

○단삼, 한 가지 약재가 사물탕의 약효와 같다. 《본초강목》

紫草 지치

자초 지치

紫草苦寒通九竅,

利水消膨痘疹要.

자초는 성미가 쓰고 차며 9규를 잘 통하게 한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팽만을 없애며 두진 치료에 요긴한 약이다.

지치.

○入手足厥陰.

○陰乾酒洗.

○忌人尿馬糞烟氣.

○〈茸〉取其初得陽氣, 所以發痘瘡, 今人不達此理, 一概用之, 非矣. 《本草》

지치.

○수궤음경·족궤음경으로 들어간다.

○그늘에 말려 술로 씻어서 쓴다.

○인뇨·마분·연기를 금한다.

○〈자초용〉 애초에 자초용이 양기를 얻어 생긴다는 점을 취하여 두창을 발진 시킬 때 쓰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쓰니 잘못된 것이다. 《본초강목》

白芨 디암풀

백급 대암풀

白芨味苦收斂²⁵多,

腫毒瘡瘍主外科.²⁶

백급은 성미가 쓰고 수렴시키는 효능이 많다.

종독(腫毒)이나 악창, 가려움증을 없애며 주로 외과(外科) 질환을 치료한다.

디암풀.

○平微寒.

○入肺經.

○畏杏仁, 反烏頭. 《本草》

대암풀.

○성질이 평하고 약간 차다.

○폐경(肺經)으로 들어간다.

○행인과 상외약이며 오두와는 상반약이다. 《본초강목》

三七

삼칠

〔三七〕苦溫專主血,

外搽內服痛自掇.

〔삼칠〕은 성미가 쓰고 따뜻하며 혈증을 전문으로 치료한다.

외용으로 발라주거나 내복하면 통증이 저절로 사라진다.

入陽明厥陰血分. 《景岳》

○以末, 搽猪血中, 化爲水者眞.

○亦治虎咬蛇傷. 《本草》

양명경·궐음경의 혈분(血分)에 들어간다. 《경악전서》

○가루 내어 돼지피 속에 뿌렸을 때 녹으면서 물이 되면 진품이다.

○호랑이나 뱀에 물린 상처도 치료한다. 《본초강목》

黃連

황련

〔黃連〕味苦主清熱，
除痞明目止痢泄。²⁷

〔황련〕은 성미가 쓰고 주로 열을 식힌다.

속이 그득한 것을 없애주고 눈을 밝게 하며 이질과 설사를 멎게 한다.

小寒.

○入心經.

○本臟火生用, 肝胆火猪胆炒, 虛火醋炒, 上焦火酒炒, 中焦火薑炒, 下焦火鹽水炒, 氣分火吳茱萸湯炒, 血分火乾漆水炒, 食積火土炒.

○惡菊花、玄參、白蘚皮、芫花、白殭蚕、冷水, 畏款冬、牛膝, 勝烏頭, 解巴豆毒, 忌猪肉.

○古方有黃連猪肚丸, 豈只忌肉而不忌臟乎. 《本草》

○陶弘景有厚腸之一言, 而河間復證之曰, 苦寒藥多泄, 惟連栢性冷而燥, 因致後世視爲奇見, 凡治瀉痢者, 開手便是黃連一言之謬, 流染若此, 難洗若此, 悖理惑人, 莫此爲甚, 其有實熱猶可, 本無火邪而妄用, 則脾腎日敗, 百無一生, 凡患痢而死者, 率由此類, 可不寒心. 《景岳》²⁸

성미가 약간 차다.

○심경(心經)에 들어간다.

○심장의 화(火)에는 생것으로 쓰고 간담(肝胆)의 화에는 저담즙에 축여서 볶는다. 허화(虛火)에는 식초에 축여서 볶는다. 상초의 화에는 술에 축여서 볶고 중초의 화에는 생강즙에 축여서 볶으며 하초의 화에는 소금물에 축여서 볶는다. 기분(氣分)의 화에는 오수유 달인 물에 축여서 볶고 혈분의 화에는 건칠을 담갔던 물에 축여서 볶는다. 식적의 화에는 흙과 함께 볶는다.

○국화、현삼、백선파、원화、백강잠、냉수와 상오약이며 관동화、우슬과는 상외약이다. 오두의 성질을 이기고 파두독을 해독한다. 돼지고기와 함께 쓰는 것을 금한다.

○고방(古方)에 황련저두환이 있으니 어찌 돼지의 고기만 금하고 돼지의 내장

은 금하지 않는 것인가. 《본초강목》

○도홍경이 "황련은 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한 말에 대하여 유하간이 다시 논증하며 "성미가 쓰고 찬 약은 설사하게 하는 것이 많은데 황련·황백만은 성미가 냉하면서도 건조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후대에서는 탁월한 견해라고 보고 설사와 이질을 치료하려는 자는 처음부터 바로 황련을 쓴다. 황련에 대한 한마디 오류가 이처럼 오염되어 흘러 지금처럼 바로잡기 어렵게 되었다. 어긋난 이치가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실열(實熱)이 있을 때는 황련을 써도 괜찮지만 본래 화사(火邪)가 없었는데도 함부로 쓰면 비(脾)와 신(腎)이 날로 손상되어 백 명 중 한 명도 살아날 수 없다. 대개 이질 환자가 죽는 것은 대개 여기에서 비롯되니, 한심하지 않은가. 《경약전서》

胡黃連

호황련

〔胡黃連〕苦骨蒸類,
盜汗虛驚兒疳痢.

〔호황련〕은 성미가 쓰며 골증열 같은 병을 치료한다.

도한, 허하여 놀라는 증상, 소아가 감병으로 설사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大寒.

○惡忌同上, 解巴豆毒.

○心黑, 外黃, 折之塵出如烟者眞. 《本草》

약성이 크게 차다.

○상오약과 금기는 황련과 같다. 파두독을 해독한다.

○심은 검고 겉은 누런색이며 꺾었을 때 연기처럼 먼지가 날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본초강목》

黃芩 속서풀, 子芩, 條芩

황금 속서풀, 자금, 조금

黃芩苦寒瀉肺火,
子清大腸濕熱可.²⁹

황금은 성미가 쓰고 차며 폐화(肺火)를 사한다.

자금(子芩)은 대장을 씻어내고 습열에도 좋다.

속선³⁰ 풀.

○內實者, 名子芩・條芩.

○入手太陰血分、手少陽陽明. 《本草》

○酒炒上行, 便炒下行, 尋常生用. 《入門》

○惡蔥實, 畏丹砂、牡丹、藜蘆.

○得厚朴黃連, 止腹痛, 得五味、牡蠣, 有子, 得黃芪、白朮³¹、赤小豆, 療鼠瘻, 得酒上行, 得猪胆, 除肝胆火, 得柴胡, 退寒熱, 得芍藥, 治痢, 得桑白皮, 瀉肺火, 得白朮, 安胎. 《本草》

속서풀.

○속이 실한 것을 자금(子芩) 또는 조금(條芩)이라고 한다.

○수태음경、혈분、수소양경、양명경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술에 축여 볶으면 약 기운이 위로 올라간다. 동변에 축여서 볶으면 약 기운이 아래로 내려간다. 평소에는 생것을 쓴다. 《의학입문》

○총실(蔥實)과 상오약이며 단사、목단、여로와는 상외약이다.

○후박、황련과 함께 쓰면 복통이 멎는다. 오미자、모려와 함께 쓰면 임신하게 된다. 황기、백령、적소두와 함께 쓰면 서루(鼠瘻)를 치료한다. 술과 함께 쓰면 약 기운이 위로 올라간다. 저담과 함께 쓰면 간과 담의 화를 제거한다. 시호

와 함께 쓰면 한열을 없애준다. 작약과 함께 쓰면 이질을 치료한다. 상백피와 함께 쓰면 폐화(肺火)를 내린다. 백출과 함께 쓰면 태를 안정시켜 준다. 《본초강목》

秦芩 망초불휘

진교 망초 뿌리

秦芩微寒治濕功，
下血骨蒸肢節風。³²

진교는 성미가 약간 차며 습증을 잘 낮게 한다.

피를 설사하는 경우, 골증열, 사지 관절의 풍을 치료한다.

망초불휘.

○入手足陽明及肝胆.

○畏牛乳. 《本草》

망초 뿌리.

○수양명경、족양명경과 간담(肝膽)으로 들어간다.

○우유와는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柴胡 뭇미나리

시호 산미나리

柴胡味苦瀉肝火，
寒熱往來瘧疾可．

시호는 성미가 쓰며 간화(肝火)를 사해준다.

한열 왕래와 학질을 치료하는 데 좋다.

뫓미나리.

○微寒.

○入手足少陽厥陰行經. 《本草》

○外感生用, 內傷酒炒, 咳汗蜜水炒, 肝胆火猪胆炒. 《入門》

○惡皂角, 畏藜蘆, 忌銅鐵. 《本草》

○海藏曰, 苟無實熱而用柴胡, 不死何待. 《景岳》

산미나리.

○약간 차다.

○수소양경、족소양경、궤음경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외감(外感)에는 생것을 쓰고 내상(內傷)에는 술에 축여 볶아서 쓴다. 기침과 한(汗)증에는 꿀물에 축여 볶아서 쓴다. 간화(肝火)와 담화(胆火)가 있을 때는 저담즙에 축여 볶아서 쓴다. 《의학입문》

○조각과 상오약이고 여로와는 상외약이다. 동이나 철기의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해장이 말하기를 "실열이 없는데도 시호를 쓰면 어찌 죽지 않기를 기대하겠는가" 하였다. 《경약전서》

前胡 사양칫불휘

전호 사향취 뿌리

前胡微寒寧嗽痰,

寒熱頭痛瘧可堪.

전호는 성미가 약간 차며 기침과 가래를 안정시킨다.

오한발열과 두통, 뱃속이 답답한 증상을 낮게 한다.

사양칫불휘.

○入手足太陰陽明.

○惡皂角, 畏藜蘆.

○其功長于下氣, 氣下則火降痰降. 《本草》

사향취 뿌리.

○수태음경·족태음경·양명경에 들어간다.

○조각과 상오약이고 여로와는 상외약이다.

○전호는 기를 잘 내려주는 효능이 있다. 기가 내려가면 화(火)를 내리고 담(痰)도 내려준다. 《본초강목》

防風 병풍나모불휘

방풍 방풍나무 뿌리

防風甘溫骨節痺,

諸風口噤頭暈類.

방풍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뼈마디가 저린 증상에 쓴다.

각종 풍증과 구금(口噤), 머리 어지럼증 등을 치료한다.

병풍나모불휘.

○入手足太陽及足陽明太陰, 又入肝經氣分.

○惡白³³、乾薑、芫花、藜蘆, 畏葶藶, 殺附子毒, 解諸藥毒.

○叉頭發狂, 叉尾發痼疾.

○得蔥行, 周身, 得澤瀉、藁本, 治風, 得歸、芍、陽起石、禹餘糧, 治婦人子臟風.

○防風能制黃芪, 黃芪得防風, 其功愈大, 乃相畏而相使者也. 《本草》

○除上焦風邪之仙藥. 《入門》

방풍나무 뿌리.

○수태양경·족태양경·족양명경·족태음경으로 들어간다. 또한 간경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백렴·건강·원화·여로와 상오약이고 비해(葶藶)와는 상외약이다. 부자독을 없애고 여러 약의 독을 해독한다.

- 가닥진 노두는 사람을 미치게 하고 가닥진 잔뿌리는 고질병을 발생시킨다.
- 충백과 함께 쓰면 약 기운이 온몸을 돈다. 택사·고본과 함께 쓰면 풍증을 치료한다. 당귀·작약·양기석·우여량과 함께 쓰면 부인 자궁의 풍증을 치료한다.
- 방풍은 황기의 약성을 억제하지만 황기를 방풍과 함께 쓰면 약효가 더욱 커지니 이는 서로 상외약이면서도 서로 사약(使藥)되는 것이다. 《본초강목》
- 상초의 풍사(風邪)를 없애는 매우 좋은 약이다. 《의학입문》

羌活 강호리

강활

羌活微溫祛風濕，
身痛頭疼筋骨急。

강활은 성미가 약간 따뜻하며 풍습(風濕)을 제거한다.
몸과 머리가 아프고 근골이 당기는 증상을 치료한다.

강호리.

- 乃手足太陽，足厥陰少陰，表裏引經藥也。撥亂反正之主，大無不通，小無不入，故一身百節痛，非此不能治，羌活氣雄，故入足太陽，獨活氣細，故入足少陰，俱是治風，而表裏之殊. 《本草》
- 羌活、獨活，俱產江原道. 《寶鑑》

강활.

○이 약은 수태양경·족태양경·족궤음경·족소음경의 표리로 이끄는 인경약이다. 병이 발작하는 것을 다스려 정상으로 되돌리는 주된 약이다. 크게는 통하지 않는 데가 없고 작게는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으므로 몸에 있는 온갖 관절의 통증은 이 약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 강활은 기가 웅장하기 때문에 족태양경으로 들어가고 독활은 기가 약하기 때문에 족소음경으로 들어간다. 이

처럼 둘 다 풍증을 치료하며 표증에 쓰는지 이증에 쓰는지만 다르다. 《본초강목》

○강활, 독활은 모두 강원도에서 생산된다. 《동의보감》

獨活 뭇들흙

독활 산두릅

獨活甘苦項難舒,

兩足濕痺風可除.

독활은 성미가 달고 쓰며 목이 잘 펴지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양발에 생긴 습비(濕痺)와 풍증을 없앤다.

뭇들흙³⁴.

○微溫.

○足少陰行經藥.

○獨活不搖風而治風, 浮萍不沈水而利水. 《本草》³⁵

산두릅.

○약간 따뜻하다.

○족소음경을 지나는 약이다.

○독활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풍증을 치료할 수 있고, 부평은 물에 잠기지 않아 수기를 잘 통하게 할 수 있다. 《본초강목》

升麻 식덜가릿불휘

승마 끼덜가리 뿌리

升麻性寒清胃能,

解毒升舉並牙疼.³⁶

승마는 성미가 차며 위(胃)를 서늘하게 한다.

해독을 하고 원기를 끌어올려 주며 치통을 낮게 한다.

씩덜가릿불회³⁷.

○足陽明太陰經藥.《本草》

○發散生用, 補中酒炒, 止汗蜜炒.《入門》

○參芪非此引之不能上行, 同柴胡引生發之氣上行, 同葛根發陽明之汗, 瘀血入裡, 犀角地黃湯, 乃陽明聖藥, 如無犀角, 以升麻代之.《本草》

끼덜가리 뿌리.

○족양명경·족태음경에 들어간다.《본초강목》

○발산시킬 때는 생것을 쓰고 속을 보할 때는 술에 축여 볶아서 쓴다. 땀을 멎게 할 때는 꿀에 축여 볶아서 쓴다.《의학입문》

○인삼·황기는 승마가 아니면 약 기운을 이끌어 상행하게 할 수 없다. 시호와 함께 쓰면 성장하게 하는 기를 이끌어 위로 올라가게 한다. 갈근과 함께 쓰면 양명(陽明)의 땀을 발산시킬 수 있다. 어혈이 속으로 들어간 경우는 서각지황탕을 쓰니 양명병에 매우 좋은 약이다. 서각이 없을 때는 승마로 대신해서 쓴다.《본초강목》

苦參 쓴너슴불회

고삼 쓴너삼 뿌리

苦參味苦主外科,

眉脫腸風下血痢.³⁸

고삼은 성미가 쓰고 외과용으로 쓴다.

눈썹이 빠지는 증상이나 장풍(腸風)으로 피를 설사하는 오랜 병을 치료한다.

쓴너삼 불휘.

○足少陰君藥, 入足少陽.

○糯米泔浸, 蒸晒.

○惡貝母、兔絲子, 反藜蘆, 伏汞, 制雌黃、焰硝.

○能峻補陰氣, 治大風, 況風熱細疹乎.

○胃弱者慎用. 《本草》

쓴너삼 뿌리

○족소음경의 군약으로 족소양경으로 들어간다.

○찹쌀뜨물에 담갔다가 찌서 햇볕에 말려서 쓴다.

○패모、토사자와 상오약이며 여로와는 상반약이다. 수은을 굴복시키며 자황、염초의 약 기운을 억제한다.

○음기를 높게 보해주고 대풍(大風)을 치료하니 하물며 풍열(風熱)로 작게 발진하는 병들임에랴.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신중하게 써야 한다. 《본초강목》

白蘚皮 검환불휘

백선티 검화 뿌리

白蘚皮寒治疥癬,

疽淋痺癰功不淺.

백선티는 성미가 차며 개선을 치료한다.

황달, 임질, 비증, 반신불수에 약효가 낮지 않다.

검환불휘.

○入手太陰陽明.

○惡海螵蛸、桔梗、茯苓、萆薢.

○爲風痺要藥, 世醫止施之瘡科, 淺矣. 《本草》

검화 뿌리.

○수태음경、수양명경에 들어간다.

○해표초、길경、복령、비해와 상오약이다.

○풍증으로 저릴 때 중요한 약이다. 의사들이 백선파를 헌 데 치료에만 사용하는 것은 식견이 얇기 때문이다.《본초강목》

延胡索

현호색

延胡氣溫治撲跌,

心腹卒痛並諸血.

현호색은 기운이 따뜻하며 타박상을 치료한다.

멍치기 갑자기 아픈 증상을 치료하며 아울러 여러 혈증을 치료한다.

本名玄胡索.

○入手足太陰厥陰.《本草》

○醋煮用.《入門》

○行血中氣滯, 氣中血滯, 一身上下諸痛用之, 妙不可言.《本草》

○若產後血虛氣虛作【疒+百】³⁹大, 非所宜.《景岳》

본래 이름은 현호색이다.

○수태음경、족태음경、수궐음경、족궐음경에 들어간다.《본초강목》

○식초에 삶아서 쓴다.《의학입문》

○혈(血) 속에 기가 응체된 경우, 기(氣) 속에 혈이 응체된 경우를 운행시키니 온 몸의 상하부가 아픈 모든 경우에 쓰면 효과의 묘함을 말로 할 수 없다.《본초강목》

○산후의 혈허와 기허로 크게 아플 때는 쓰면 안 된다.《경약전서》

貝母

패모

〔貝母〕微寒痰嗽宜,

開鬱除煩肺癰痿.

〔패모〕는 성미가 약간 차고 가래와 기침에 쓴다.

막힌 것을 열어주고 번조를 없애주며 폐옹과 폐위를 치료한다.

入肺經氣分.

○去心, 薑汁炮.

○惡桃花, 畏秦艽、礬石, 反烏頭. 《本草》

폐경(肺經)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심을 제거하고 생강즙에 축여 습지에 싸서 굽는다.

○도화는 상오약이고 진교、반석은 상외약이다. 모두는 상반약이다. 《본초강
목》

慈菴 가치무릇

자고 까치무릇

慈菴辛苦疔腫疽,

蛇虺癰疹瘡可除.

자고는 성미가 맵고 쓰며 정종(疔腫)과 응저를 치료한다.

뱀에 물린 경우나 은진(癰疹), 창(瘡)을 낫게 한다.

가치무릇⁴⁰.

○小毒. 《本草》

까치무릇.

◦독성이 조금 있다.《본초강목》

茅根 씻불휘

모근 띠 뿌리

茅根味甘善通關,

吐衄客熱瘀並刪.

모근은 성미가 달고 혈관을 잘 통하게 해준다.

토혈·낙혈을 치료하고 객열과 어혈을 아울러 제거한다.

씻 불휘.

◦性寒.

◦卽白茅根, 可辟穀.

◦利小便, 治渴疸. 世人因忽之, 惟事苦寒, 致傷冲和之氣, 烏足知此哉. 《本草》⁴¹

띠 뿌리.

◦성질이 차다.

◦곧, 백모근(白茅根)이며 벽곡할 수 있다.

◦소변(小便)을 잘 통하게 하고 소갈과 황달을 치료한다. 세상 사람들이 모근을 소홀히 여기고 성미가 쓰고 찬 약재만 일삼아 써서 조화로운 기(氣)를 상하게 하니 어찌 모근을 충분히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본초강목》

龍胆 과남풀

응담초 관음풀

龍胆苦寒眼赤疼,

下焦濕腫肝熱⁴²乘.

용담초는 성미가 쓰고 차며 눈이 충혈되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하초가 습으로 붓는 경우와 간에 열이 오르는 데 쓴다.

관남풀⁴³.

○入足厥陰少陽氣分.

○忌鐵.

○甘草湯浸一宿, 暴乾, 酒炒, 上行. 《本草》

○虛人酒炒黑. 《湯液》

관음풀.

○족궐음경, 족소양경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감초 달인 물에 하룻밤 담가두었다가 햇볕에 말려서 술에 축여 볶으면 약 기운이 상초로 올라간다. 《본초강목》

○허한 사람에게는 술에 축여 검게 볶아서 쓴다. 《탕액본초》

細辛 족도리풀불휘

세신 족도리풀 뿌리

細辛辛溫通關竅,

少陰頭痛風濕要.

세신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관규를 통하게 한다.

소음(少陰) 두통과 풍습을 치료하는 중요한 약이다.

족도리풀불휘.

○入足厥陰少陰血分, 手少陰引經.

○惡黃芪、狼毒、山茱萸, 忌生菜, 畏消石、滑石, 反藜蘆.

○單用末, 不可過半錢匕, 多則氣塞死, 雖死無傷.

○頭面風痛, 不可缺. 《本草》

족도리풀 뿌리.

○족궐음경、족소음경의 혈분으로 들어가며 수소음경으로 이끄는 인경약이다.

○황기、낭독、산수유와 상오약이다. 생채소를 먹는 것을 금한다. 소석、활석과 상외약이다. 여로와는 상반약이다.

○단방으로 쓸 때는 세신을 가루 내어 쓴다. 0.5돈을 넘게 쓰지 말아야 하니 많이 쓰면 숨이 막혀서 죽으니 죽더라도 상한 곳은 없다.

○두면풍으로 아픈 증상에 필수약이다. 《본초강목》

白薇 이마존

백미 아마존

白薇大寒鬼邪却,

不省人事風與瘧.

백미는 성미가 크게 차며 귀사(鬼邪)를 물리친다.

인사불성이 되거나 풍(風)과 학질을 치료한다.

이마존.

○入陽明經.

○糯米泔水蒸晒, 或酒洗.

○惡黃芪、大黃、乾薑、大棗、乾漆、山茱萸. 《本草》

아마존.

○양명경으로 들어간다.

○찹쌀뜨물로 찌서 햇볕에 말리거나 술에 씻어서 쓴다.

○황기、대황、건강、대추、건칠、산수유와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1. 四 : 三 ※증정본, 신정본 ↔

2. 34종 : 실제로 산초(山草)부에는 43종이 있다. ←
3. 심 𠄎 삼 ※신정본 ←
4. ① 𠄎 蘆 ※증정본, 신정본 ←
5. 𠄎 更 ※증정본, 신정본 ←
6. 收汗表 𠄎 收汗固表 ※《제증신편》←
7. 甘溫 : 性溫 ※《제증신편》♣※ 收汗表 𠄎 收汗固表 ※《제증신편》♣※ 托瘡生肌虛莫少 : 托瘡生肌氣虛莫少 ※《제증신편》←
8. 入手足太陰氣分, 又入手少陽、足少陰命門. ※《본초강목》←
9. 主咳嗽消渴強中, 瘡毒疔腫 ※《본초강목》←
10. 療咽腫 : 療咽腫痛 ※《제증신편》←
11. 陳藏器曰, 鉤吻乃野葛之別名, 二物全不相似, 不必疑也. : 陳藏器曰 : "鉤吻, 乃野葛之別名. 二物, 全不相似, 不知陶公憑何說此", 是可見黃精之內, 本無鉤吻, 不必疑也. ※《경악전서》←
12. 熱渴除, : 消渴熱中 ※《본초강목》←
13. 逢砂 𠄎 礪砂 ※《본초강목》←
14. 炒 : 妙 ※신정본 ←
15. 鎖陽, 生韃靼田地, 野馬或與蛟龍遺精入地, 久之發起如筍, 上豐下儉, 鱗甲櫛比, 筋脈連絡, 絕類男陽, 卽肉蓯蓉之類. 或謂裹之淫婦, 就而合之, 一得陰氣勃然怒長. ※《본초강목》←
16. 產於大邱者, 佳. ※《의중손익부여》←
17. 除濕寬中瘡可捍 : 發汗寬中, 更祛瘡疫. ※《제증신편》←

18. 雄壯上行之藥. : 蒼朮別有雄壯上行之氣 ※《본초강목》↩
19. 治諸痺 : 酒蒸入劑 ※《의종손익부여》♣※ 酒蒸試 : 風寒濕痺 ※《의종손익부여》↩
20. 壯筋本 : 强筋固本 ※《의종손익부여》, 《제중신편》↩
21. 志力增 : 志强力增 ※《제중신편》↩
22. 須用蒲草重重相隔, 入甑蒸兩伏時, 晒乾用. ※《본초강목》↩
23. : 髮 ※중정본 ↩
24. 生新能 : 補新血, 安生胎. ※《본초강목》♣※ 調經 : 調婦人經脈不勻. ※《본초강목》↩
25. 斂 : 斂 ※신정본 ↩
26. 癰腫惡瘡敗疽 ※《본초강목》↩
27. 除痞 : 心下痞滿者, 須用黃連、枳實. ※《본초강목》↩
28. 猪胆炒 : 猪膽汁浸炒 ※《본초강목》↩
29. 瀉肺火, : 黃芩之中枯而飄者, 瀉肺火, ※《본초강목》↩
30. 서 : 서 ※신정본 ↩
31. 斂 : 斂 ※신정본 ↩
32. 腸風瀉血, 養血榮筋. ※《본초강목》↩
33. 斂 : 斂 ※신정본 ↩
34. 흡 : 흡 ※신정본 ↩
35. 兩足寒濕痺不能動, 非此不除. ※《의종손익부여》↩

36. 解毒元氣下陷諸病 ※《본초강목》

解毒升舉：解毒升提下陷 ※《제중신편》↩

37. \uea45덜가릿불휘：\uea45덜가릿물휘 ※중정본

\uea45덜가릿불휘 ※신정본 ↩

38. 赤癰眉脫.....治腸風瀉血並熱痢. ※《본초강목》↩

39. 【疒+百】：痛 ※중정본, 신정본 ↩

40. 가\uf353무릫：기\uf353무릫 ※신정본 ↩

41. 利小便, 治渴疸.：利小便, 故能止諸血噦逆、喘急消渴, 治黃疸水腫. ※《본초강목》♣※ 世人因忽之, 惟事苦寒, 致傷冲和之氣, 烏足知此哉.：世人因微而忽之, 惟事苦寒之劑, 致傷冲和之氣, 烏足知此哉. ※《본초강목》↩

42. 肝熱：肝經煩熱 ※《제중신편》↩

43. 과남풀：과남풀 ※중정본

과남풀 ※신정본 ↩

芳草 三¹十三種

향초 23종

當歸 승검초불휘

당귀 승검초 뿌리

當歸性溫主生血,
補心扶虛逐瘀結.

당귀는 성미가 따뜻하며 주로 혈을 생성한다.

심(心)을 보하고 허손을 돌보며 멎친 어혈을 몰아낸다.

승검초 불휘.

○入心以其心生血, 入脾以其脾裹血, 入肝以其肝藏血.

○痰用薑汁炒, 治上酒浸, 治外酒洗.

○惡藺茹、溫麴, 畏菖蒲、海藻、生薑, 制雄黃.

○〈頭〉止血.

○〈身〉養血.

○〈尾〉行血. 《本草》

승검초 뿌리.

○당귀가 심(心)으로 들어가면 그 심에 혈이 생성되고 비(脾)로 들어가면 그 비가 혈에 감싸이고 간(肝)으로 들어가면 그 간에 혈을 저장해둔다.

○담(痰)이 있을 때는 생강즙에 축여 볶아서 쓴다. 상초를 치료할 때는 술에 담가둔다. 외치용으로 쓸 때는 술에 씻어서 쓴다.

○여여(藺茹)、온면과는 상오약이고 창포、해조、생강과는 상외약이다. 옹황의 약기운을 억제한다.

- 〈당귀 노두〉지혈한다.
- 〈당귀신〉혈을 길러준다.
- 〈당귀미〉혈을 잘 돌게 한다. 《본초강목》

川芎 궁궁

천궁 궁궁

川芎性溫止頭疼，
養新生血開鬱升。

- 천궁은 성미가 따뜻하며 두통을 멎게 한다.
- 혈을 길러 새롭게 생성시키며 울결된 것을 열어주고 상승시킨다.

궁궁.

- 少陽引經藥，入手足厥陰氣分.
- 畏黃連.
- 色白不油者佳.
- 頭面風不可缺也. 單服久服，易致暴亡，骨蒸多汗，尤忌.
- 藜蘂卽其苗，治頭目風，去三蟲. 《本草》

궁궁.

- 소양경의 인경약이다. 수궐음경·족궐음경의 기분에 들어간다.
 - 황련과는 상외약이다.
 - 흰색 빛깔에 기름기가 없는 것이 좋다.
 - 두면풍(頭面風)에 필수적인 약이다. 단방으로 오래 복용하면 갑자기 죽기 쉽다. 골증열로 땀이 많이 날 때는 더욱 금한다.
 - 미무(藜蘂)는 천궁의 싹이다. 두목풍(頭目風)을 치료하고 삼시충을 없앤다.
- 《본초강목》

蛇床子 비암도랏씨

사상자 뱀도랏 씨

蛇床辛苦下氣快,

溫中祛風瘀瘡疥.²

사상자는 성미가 맵고 쓰며 기를 시원하게 내려준다.

속을 따뜻하게 하며 풍(風)·어혈·악창·개선을 제거한다.

비암도랏씨.

○腎命門三焦氣分藥.

○惡牡丹、貝母、巴豆、伏硫黃.

○微炒.

○令人陽事盛.

○不獨補助男子, 而能有益婦人, 捨此而求補於遠³, 豈非賤目貴耳乎. 《本草》

뱀도랏 씨.

○신(腎)·명문(命門)·삼초의 기분(分藥)으로 들어가는 약이다.

○목단·패모·파두와 상오약이며 유향의 약 기운을 억제한다.

○약간 볶아서 쓴다.

○성생활을 왕성하게 한다.

○남자의 원기를 북돋워줄 뿐 아니라 부인도 보익해준다. 이 약을 버리고 먼 지역에서 보하는 약을 구하니 어찌 본 것을 경시하고 들은 것만 귀하게 여기는가. 《본초강목》

藁本

고본

藁本氣溫祛風能，
兼治寒濕巔頂疼。

고본은 기운이 따뜻하며 풍증을 없앨 수 있다.
겸하여 한습(寒濕)과 정수리의 통증을 치료한다.

入足太陽。

○畏青箱子。《本草》

족태양경으로 들어간다.
○청상자와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白芷 구리땃불휘

백지 구릿대 뿌리

白芷辛溫排膿往，
陽明頭疼風熱痒。

백지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농양을 잘 배출시킨다.
양명 두통과 풍열증, 가려움증을 낮게 한다.

구리땃불휘.

○手陽明本經藥。同升麻，則行手足陽明及手太陰，惡旋覆花，制雄黃、硫黃。
○通九竅發汗，不可缺也。《本草》

구릿대 뿌리.
○수양명의 본경약이다. 승마와 함께 쓰면 수양명경、족양명경、수태음경으로 운행된다. 선복화와 상오약이고 옹황、유황의 약 기운을 억제한다.
○구구를 통하게 하고 땀을 내는 데 필수적인 약이다. 《본초강목》

白芍藥 함박꽃불휘

백작약 함박꽃 뿌리

白芍酸寒腹痛痢,

能收能補虛寒忌.⁴

백작약은 성미가 시고 차며 복통과 이질을 치료한다.

잘 수렴시키고 잘 보하지만 몸이 허한할 때는 쓰지 말아야 한다.

함박꽃불휘.

○小毒.

○手足太陰行經, 入肝脾血分.

○花紅單葉山中者佳. 白補, 赤瀉, 以竹刀刮皮, 蜜蒸. 避寒者, 酒炒. 《本草》

함박꽃 뿌리.

○독성이 조금 있다.

○수태음경, 족태음경으로 운행하며 간(肝)·비(脾)의 혈분으로 들어간다.

○꽃이 붉고 홀잎으로 산 속에 피어 있는 것이 좋다. 백작약은 보해주고 적작약은 사해준다. 대나무 칼로 껍질을 벗겨서 꿀을 발라서 찐다. 찬 것을 피해야 하면 술에 축여 볶아서 쓴다. 《본초강목》

赤芍藥

적작약

赤芍酸寒能散瀉,

破血通經產後怕.

적작약은 성미가 시고 차며 흠어주고 사해준다.

어혈을 깨뜨리고 월경을 통하게 하나 산후에는 조심해서 쓴다.

木香

목향

〔木香〕微溫能和胃，

行肝瀉肺散滯氣。

〔목향〕은 성미가 약간 따뜻하며 위(胃)를 조화롭게 한다.

간경(肝經)을 운행시켜 폐기(肺氣)를 사해주고 체기를 흩어준다.

入三焦氣分。

○理氣藥，生用不見火，若實大腸，麪煨。《本草》

삼초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기를 다스리는 약에는 생것으로 쓰고 불이 달지 않도록 한다. 대장을 견실하게 하려면 목향을 밀가루 반죽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굽는다. 《본초강목》

甘松

감송

〔甘松〕味香浴肌香，

除心腹痛惡氣良。

〔감송〕은 성미가 향기로우며 감송 달인 물로 목욕하면 피부가 향기롭다.

명치가 아픈 증상을 제거하고 나쁜 기운을 잘 없앤다.

良薑

양강

〔良薑〕性熱下氣良，

轉筋霍亂酒食傷。

〔양강〕은 성미가 뜨거우며 기를 잘 내려준다.

전근, 꺾란, 술이나 음식을 먹고 상한 것을 잘 낫게한다.

入足太陰陽明.

○子名〔紅豆蔻〕, 治同. 又解酒毒. 《本草》

족태음경·족양명경에 들어간다.

○양강의 씨를〔홍두구〕라고 하며 주치증은 양강 같다. 또한 주독(酒毒)을 풀어준다. 《본초강목》

草蔻 草果

초두구 초과

〔草蔻〕辛溫食無味,
嘔吐作痛寒犯胃.⁵

〔초두구〕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구토로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하고 한사(寒邪)가 위(胃)를 침범한 것을 낫게 한다.

麴裏煨.

○入太陰陽明.

○草豆蔻、草果, 雖是一種, 然產建寧者草豆蔻, 產滇廣者草果. 《本草》

밀가루 반죽에 싸서 잣불에 묻어 굽는다.

○태음경·양명경으로 들어간다.

○초두구와 초과는 비록 한 종류이지만 건녕(建寧)에서 생산된 것을 초두구라 하고 진광(滇廣)에서 생산된 것을 초과라고 한다. 《본초강목》

草果

초과

〔草果〕味辛消食脹,

截瘧逐痰辟瘟瘴.⁶

〔초과〕는 성미가 매우며 음식을 소화시켜 창만을 낮게 한다.

학질을 없애고 담(痰)을 몰아내며 온역과 산람장기를 물리친다.

麴煨研.《本草》

밀가루 반죽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구워서 간다.《본초강목》

白豆蔻

백두구

〔白蔻〕辛溫調元氣,

能祛瘴翳⁷嘔翻胃.

〔백두구〕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원기를 고르게 한다.

산람장기, 예막, 구토, 번위를 없애준다.

去皮炒研.《入門》

○有五專, 一入肺經, 二散胸滯, 三去寒腹痛, 四煖脾胃, 五去太陽經赤眼紅筋.《本草》

껍질을 벗기고 볶아서 간다.《의학입문》

○전문으로 치료하는 5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로 폐경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로 흉격에 막힌 것을 풀어주고, 세 번째로 한사로 인한 복통을 없애며, 네 번째로 비위(脾胃)를 따뜻하게 하고, 다섯째로 태양경병으로 눈이 벌겋고 붉게 찢줄이 서는 증상을 없애준다.《본초강목》

砂仁

사인

〔砂仁〕溫養胃進食，
善通經胎安痛息．

〔사인〕은 성미가 따뜻하며 위기(胃氣)를 길러주고 입맛을 돋운다.

경맥을 잘 통하게 하고 태를 안정시키며 통증을 멎게 한다.

入手足太陰、陽明、太陽、足少陰．

○得白檀、荳蔻，入肺，得人蔘益智，入脾，得黃栢、茯苓入腎，得赤石脂，入大小腸．

○化銅鐵，骨硬．《本草》

○慢火炒研．《入門》

수태음경、족태음경、양명경、태양경、족소음경에 작용한다.

○백단、육두구와 같이 쓰면 폐로 들어가고 인삼、익지인과 같이 쓰면 비(脾)로 들어가고 황백、복령과 같이 쓰면 신(腎)으로 들어간다. 적석지와 같이 쓰면 대장、소장으로 들어간다.

○구리、철을 녹이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본초강목》

○은근한 불에 볶아서 간다.《의학입문》

益智仁

익지인

〔益智〕辛溫治嘔要，
安神益氣遺精溺．

〔익지인〕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구역을 치료하는 중요한 약이다.

정신을 안정시키고 기를 북돋우며 유정(遺精)과 유뇨(遺溺)를 치료한다.

心者脾之母, 進食, 不止於和脾, 火能生土, 當使心藥, 入脾胃⁸中, 土中益火也. 補藥中兼用勿多服.

○去殼, 炒研. 《本草》⁹

심(心)은 비(脾)의 어머니이며 음식을 먹게 하려면 비장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화(火)가 토(土)를 생성하므로 심(心)에 쓰는 약을 비위약(脾胃藥)에 넣으면 토(土) 속에 화(火)가 북돋아진다. 보하는 약 속에 넣어서 쓰되 많이 먹지는 말아야 한다.

○껍질을 벗기고 볶아서 간다. 《본초강목》

葦撥

필발

〔葦撥〕辛溫下氣易,

疝瘕陰疝霍瀉痢.

〔필발〕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기를 쉽게 내린다.

현벽(疝瘕), 음산(陰疝), 괄란, 설사와 이질을 치료한다.

入手足陽明.

○醋浸一宿, 焙乾.

○多服, 目昏傷肺. 《本草》

수양명경、족양명경에 들어간다.

○식초에 하루밤 담가두었다가 결불에 말린다.

○많이 복용하면 눈이 흐려지고 폐(肺)를 상하게 된다. 《본초강목》

肉蔻

육두구

〔肉蔻〕辛溫胃虛¹⁰，

瀉痢不止功可¹¹等。

〔육두구〕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위(胃)가 허하고 찬 증상을 치료한다.

설사와 이질이 멎지 않을 때 금세 효과가 난다.

入手足陽明.

◦醋調麪包煨熟，取出，以紙槌去油，勿犯銅. 《本草》

수양명경、족양명경에 들어간다.

◦식초를 밀가루에 넣고 반죽한 것으로 싸서 잣불에 묻어 굽다가 익으면 꺼낸다. 종이에 싸서 두드려서 기름을 빼고 쓴다. 구리가 닿지 않도록 한다. 《본초강목》

破古紙 補骨脂

파고지 보골지

〔破古紙〕溫鹽酒炒，

腰膝痛及固精巧.

〔파고지〕는 성미가 따뜻하며 소금이나 술을 넣고 볶아서 쓴다.

허리나 무릎의 통증과 정(精)을 견고하게 하는 데 매우 효능이 좋다.

一名補骨脂.

◦使心包之火，通命門之火.

◦惡甘草，忌羊肉諸血，得胡桃、胡麻，良. 《本草》¹²

보골지(補骨脂)라고도 한다.

◦심포락의 화(火)와 명문(命門)의 화를 서로 통하게 한다.

◦감초와 상오약이고 양고기와 모든 피는 금한다. 호도、호마와 함께 쓰면 좋다. 《본초강목》

薑黃

강황

〔薑黃〕味辛能破血，

消癰下氣心腹結。

〔강황〕은 성미가 매우며 어혈을 깨뜨린다.

옹종을 없애고 기를 내려주며 명치 부위가 뭉친 것을 치료한다.

性熱不冷云，大寒誤矣。

○能入手臂。《本草》

○醋炒。《入門》

○功與鬱金稍同，而氣味尤烈《景岳》¹³

강황은 성미가 뜨거우며 냉하지 않다고 하였으니 크게 차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약 기운이 손과 팔로 들어간다. 《본초강목》

○식초에 축여서 볶는다. 《의학입문》

○약효는 울금과 다소 비슷하나 기미가 더욱 세다. 《경약전서》

鬱金 심황

울금 심황

鬱金味苦破諸血，

淋瀝見血及鬱結。

울금은 성미가 쓰고 여러 혈증을 깨뜨린다.

임증, 유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과 울결을 치료한다.

심황.

◦性寒. 景岳云, 氣溫

◦屬火與土有水, 其性輕揚上行. 《本草》¹⁴

심황.

◦성질이 차다. 장경악이 울금은 기(氣)가 따뜻하다고 하였다.

◦화(火)에 속하면서 토(土)와 수(水)에도 속하며 그 성질이 가벼워서 날아가 상부로 운행한다. 《본초강목》

◦〔增〕鬱金、薑黃, 既爲異草, 雲林以爲一類者, 誤矣.

◦市人多以薑黃僞之. 《備要》¹⁵

◦〔증보〕울금과 강황은 원래 다른 본초이니 윤림(雲林) 공정현(龔廷賢)이 한 종류라고 여긴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인들이 강황을 울금으로 속여서 판다. 《본초비요》

莪朮 蓬莪茂

아출 봉아술

〔莪朮〕溫苦破瘀癖,

消瘀通經止痛劇.¹⁶

〔아출〕은 성미가 따뜻하고 쓰며 현벽을 깨뜨린다.

어혈을 없애고 월경을 통하게 하며 극심한 통증을 멎게 한다.

一名蓬莪茂¹⁷.

◦入肝經, 治氣中之血.

◦得酒醋良. 《本草》

◦非頑積不宜用. 《景岳》

봉아술(逢莪朮)이라고도 한다.

○간경(肝經)에 들어가 기(氣) 속의 혈을 치료한다.

○술이나 식초와 함께 쓰면 좋다. 《본초강목》

○심한 적(積)이 아니면 쓰지 말아야 한다. 《경약전서》

三稜 미자기불회

삼릉 매자기 뿌리

三稜味苦利血癖,

氣滯作疼虛莫擲.¹⁸

삼릉은 성미가 쓰며 혈을 잘 통하게 하고 벽(癖)을 치료한다.

기(氣)가 막혀 생긴 통증을 치료하며 허한 경우에는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미자기불회¹⁹.

○入肝經血分.

○性溫, 一云瀟涼.

○醋浸炒, 或炮熟²⁰. 《本草》

매자기 뿌리.

○간경(肝經)의 혈분에 들어간다.

○성질이 따뜻하다. 껍끄럽고 서늘하다고도 한다.

○식초에 담가두었다가 볶아서 쓰거나 습지에 싸서 구워서 익힌다. 《본초강목》

香附 향부즈, 莎根

향부 향부자, 사초 뿌리

香附味甘消宿食,

開鬱調經痛可息.

향부자는 성미가 달며 숙식(宿食)을 제거한다.

울체된 것을 열어주고 월경을 고르게 하며 통증을 멎게 해준다.

향부자, 卽莎根.

○肝三焦藥, 兼行十二經八脉氣分.

○得童便、醋、川芎、蒼朮良.

○忌鐵.

○生則上行外達, 下走外徹, 炒黑止血, 童便²¹炒, 入血補虛, 鹽水炒, 入血潤燥, 酒炒行經, 醋炒消積, 薑炒化痰. 《本草》

향부자, 즉 사초 뿌리이다.

○간(肝)과 삼초의 약으로 12경 8맥의 기분에 들어간다.

○동변, 식초, 천궁, 창출과 함께 쓰면 좋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생것을 쓰면 약 기운이 위로 올라가 체외에 도달하거나 아래로 내려가서 체외로 통하기도 한다. 검게 볶아서 쓰면 지혈된다. 동변에 축여 볶아서 쓰면 혈로 들어가서 허를 보한다. 소금물에 축여 볶아서 쓰면 혈로 들어가 마른 것을 적서준다. 술에 축여 볶아서 쓰면 경맥을 잘 통하게 한다. 식초에 축여서 볶아서 쓰면 적(積)을 없앤다. 생강즙에 축여 볶아서 쓰면 담(痰)을 녹인다. 《본초강목》

藿香

곽향

〔藿香〕辛溫止嘔吐,

發散風寒霍亂主.

〔곽향〕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구토를 멎게 한다.

풍사(風邪)와 한사(寒邪)를 발산시키고 곽란을 주로 치료한다.

入手足太陰. 《本草》

수태음경、족태음경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澤蘭

택란

澤蘭甘苦消癰腫，
打撲損傷虛浮重.

택란은 성미가 달고 쓰며 응종을 없앤다.

타박으로 인한 손상, 몸이 허하고 붓고 무거운 증상을 치료한다.

小溫.

○入足太陰厥陰.

○防己爲使.

○婦人方中，最爲急用. 《本草》

조금 따뜻하다.

○족태음경、족궤음경에 들어간다.

○방기(防己)를 사약(使藥)으로 삼는다.

○부인의 처방 중에서 가장 급히 쓰는 약이다. 《본초강목》

香薷 노야기, 香茹

향유 노야기, 향여

香薷味辛治傷暑，
霍亂便澁腫煩去.²²

향유는 성미가 매우며 서증(暑症)에 상한 것을 치료한다.

곽란, 소변이 걸끄러운 증상, 부종과 번열을 없앤다.

소야기.²³

- 一名香茹.
- 微溫.
- 屬金與水, 有徹上徹下之功.
- 勿犯火, 陳者良.
- 氣虛不可多服. 《本草》
- 去梗, 薑炒. 《入門》

노야기.

- 향여(香茹)라고도 한다.
- 약간 따뜻하다.
- 금(金)과 수(水)에 속하므로 위·아래로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 불에 달지 않도록 하고 오래 묵은 것이 좋다.
- 기허(氣虛)에는 많이 복용할 수 없다. 《본초강목》
- 줄기를 제거하고 생강즙에 축여 볶아서 쓴다. 《의학입문》

荊芥 명가, 假蘇

형개 명가, 가소

荊芥味辛清頭目,

表寒²⁴祛風瘡癰瘻.

형개는 성미가 매우며 머리와 눈을 시원하게 한다.

체표에 땀을 내어 풍증을 없애고 창(瘡)과 어혈을 낫게 한다.

명가.

- 本名假蘇.
- 入足厥陰氣分.

- 忌無鱗魚, 與蟹同食動風, 食黃頰魚犯薑芥, 立死. 《本草》
- 治血炒黑. 梔子、乾薑、地榆、棕櫚、五靈脂等炒黑, 以黑借血也.
- 陳者良. 《備要》

명가.

- 원래 이름은 가소(假蘇)이다.
- 죽궤음경의 기분에 들어간다.
- 비늘 없는 해산물은 금하니 게와 함께 먹으면 풍(風)이 동하고 황상어를 먹고 생강이나 형개를 먹으면 곧 죽는다. 《본초강목》
- 혈증을 치료할 때는 형개를 검게 볶아서 쓴다. 치자、건강、지유、종려、오령지 등을 검게 볶아서 쓰는 것은 흑색이 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오래 묵은 것이 좋다. 《본초비요》

薄荷 영싱이

박하 영생이

薄荷味辛清頭目,
祛風化痰骨蒸俱可服.²⁵

박하는 성미가 매우며 머리와 눈을 시원하게 한다.

풍증, 담(痰), 골증열에 모두 복용할 수 있다.

영싱이.

- 辛凉.
- 入手足厥陰氣分.
- 引諸藥入營衛, 故發散風寒.
- 猫犬虎之酒也. 《本草》

영생이.

○맵고 서늘하다.

○수궐음경、족궐음경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여러 약을 이끌고 영위(營衛)로 들어가서 풍、한을 발산시킨다.

○고양이、개、호랑이가 먹으면 취한다. 《본초강목》

紫蘇 차조기

자소 차조기

紫蘇味辛解風寒,

梗能下氣脹可安.²⁶

자소는 성미가 매우며 풍한의 사기를 풀어준다.

자소 줄기는 기를 내려주며 창만을 안정시킨다.

차조기.

○辛溫.

○入氣分, 同橘、縮, 安胎, 同藿香、烏藥, 溫中止痛, 同香附、麻黃, 發汗, 同芎歸和血, 同木苿、厚朴, 解暑治霍亂脚氣, 同枳、梗利膈, 同杏仁、蘿菔子, 消痰.

○葉可生食, 與一切魚肉作羹食, 殺毒. 《本草》

차조기.

○맵고 따뜻하다.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굴、축사와 함께 쓰면 태를 안정시킨다. 곽향、오약과 함께 쓰면 속을 따뜻하게 하고 통증을 멎게 한다. 향부자、마황과 함께 쓰면 땀을 내게 한다. 천궁、당귀와 함께 쓰면 혈(血)을 고르게 한다. 목과、후박과 함께 쓰면 더위를 풀어주며 곽란과 각기를 치료한다. 지각、길경과 함께 쓰면 흉격을 통하게 한다. 행인、나복자와 함께 쓰면 담(痰)을 없애준다.

○자소엽은 생것으로도 먹으며 모든 생선、고기와 함께 국을 끓여서 먹으면 독을 없앤다. 《본초강목》

蘇子 차조기씨

소자 차조기 씨

蘇子味辛開痰氣，
止咳定喘潤心肺。²⁷

소자는 성미가 매우며 가래를 없애고 기를 내려준다.
기침을 멎게 하고 숨이 몹시 차는 증상을 안정시키며 심폐(心肺)를 원활하게 한다.

차조기씨.

- 下氣, 與橘皮同.
- 解魚蟹毒. 《本草》²⁸

차조기씨.

- 기를 내려주니 굴피와 함께 쓴다.
- 게, 생선의 독을 풀어준다. 《본초강목》

○〔增〕藥肆所存, 率多僞者, 嗅之有蘇臭, 方可用.

○〔증보〕약국에 있는 것들은 거의 가짜이다. 냄새를 맡아보아 자소의 냄새가 나는 것을 써야 한다.

大茴香

대회향

〔大茴〕味辛疝脚氣，
止膀胱痛嘔翻胃。²⁹

〔대회향〕은 성미가 매우며 산기(疝氣)와 각기를 낮게 한다.
방광의 통증을 멎게 하고 구토, 번위를 치료한다.

性平.

○入手足少陰太陽.

○酒浸一宿, 炒黃研. 《本草》

○一種八角茴香, 氣烈, 專主腰痛. 《入門》

성질이 평하다.

○수소음경、족소음경、수태양경、족태양경에 들어간다. 하룻밤 술에 담갔다가 누렇게 볶아서 간다. 《본초강목》

○대회향의 한 종류인 팔각회향은 약성이 강렬하며 요통(腰痛)을 전문으로 치료한다. 《의학입문》

小茴香

소회향

小茴性溫除疝氣,

治腰腹疼兼煖胃.

소회향은 성미가 따뜻하며 산기(疝氣)를 없애준다.

요통과 복통을 치료하고 위(胃)를 따뜻하게 한다.

我國隨處有之. 《寶鑑》

우리나라 어디서나 생산된다. 《동의보감》

百合

백합

百合味甘安心膽,

咳浮癰疽皆可啖.

백합은 성미가 달며 심(心)、담(膽)을 편안하게 한다.

기침、부종、옹저에 모두 먹을 수 있다.

花白者, 入藥. 《備要》

꽃이 흰 것을 약으로 쓴다. 《본초비요》

1. 三 二 ※실제로는 23종이 있다. 오기인 듯하다. 역자주 ←

2. 瘡疥：惡瘡疥癩 ※《제중신편》 ←

3. 遠：遠域 ※《의종손익부여》 ←

4. 能收能補虛寒忌：瀉痢腹痛，虛寒勿用 ※《제중신편》 ←

5. 嘔吐作痛：心腹痛，嘔吐 ※《본초강목》 ←

6. 消食脹：消食除脹 ※《의종손익부여》※ 截瘡逐痰辟瘟瘴：截瘡逐痰解瘟
辟瘴 ※《제중신편》 ←

7. 翳：腎 ※중정본, 신정본 ←

8. 脾胃：脾胃藥 ※《본초강목》 ←

9. 土中益火也：故古人進食藥中，多用益智，土中益火也 ※《본초강목》 ←

10. 冷：冷 ※신정본 ←

11. 功可等：功可立等 ※《제중신편》 ←

12. 使心包之火，通命門之火：能使心包之火與命門之火相通. ※《본초강목》
←

13. 性熱不冷云，大寒誤矣：藏器曰，辛少苦多，性熱不冷. 云大寒，誤矣. ※《본
초강목》 ←

14. 屬火與土有水：屬土與水 ※《본초강목(인문위생본)》↩
15. 雲林以爲一類者, 誤矣. : 雲林云, 大者薑黃, 小者鬱金, 以爲一類者, 誤矣.
※《의종손익부여》↩
16. 消瘀通經：通月經, 消瘀血 ※《본초강목》↩
17. 茂 𣎵 茂 ※《본초강목》↩
18. 虛莫擲：眞氣虛者勿用 ※《본초강목》↩
19. ㄹue57b자기 불휘 : ㄹue57b자깃 불휘 ※중정본, 신정본 ↩
20. 熟：熱 ※신정본 ↩
21. 童便：干汁炒 ※중정본
童便 ※신정본 ↩
22. 腫煩去：水腫除煩解熱 ※《제증신편》↩
23. 소야기. 𣎵 노야기 ※《동의보감》, 《제증신편》↩
24. 表寒 𣎵 表汗 ※《증보만병회춘》
表寒 ※《제증신편》↩
25. 風痰骨蒸：祛風化痰骨蒸 ※《제증신편》↩
26. 梗能下氣脹可安：梗下諸氣, 消除脹滿. ※《제증신편》↩
27. 蘇子味辛開痰氣：蘇子味辛, 毆痰降氣 ※《만병회춘》↩
28. 下氣, 與橘皮同. : 弘景曰 蘇子下氣, 與橘皮相宜. ※《본초강목》↩
29. 疝脚氣, : 疝氣脚氣 ※《제증신편》♣※ 止膀胱痛嘔翻胃. : 膀胱胃間冷氣及
育腸氣, 調中, 止痛、嘔吐.〔馬志〕治乾濕脚氣, 腎勞癰疝陰疹, 開胃下氣 ※《본
초강목》↩



隰草 四十九種

습초 49종

菊花 감국

국화 감국

菊花味甘除熱風,
頭眩眼赤收淚功.

국화는 성미가 달며 열과 풍(風)을 없애준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충혈된 것을 낫게 하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는 효능이 있다.

감국.

- 屬土¹ 與金, 有水與火. 《本草》
- 家園內味甘黃花者佳. 《保元》
- 作枕, 明目去頭眩.
- 百²菊去風頭不白.
- 野菊傷胃, 惟癰疽付服. 《本草》

감국.

- 토(土)와 금(金)에 속하며 수(水)와 화(火)의 기운이 있다. 《본초강목》
- 집의 정원에서 길러 성미가 달고 노란 꽃이 좋다. 《수세보원》
- 배개로 만들어 쓰면 눈이 맑아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진다.
- 흰 국화는 풍(風)을 제거하고 머리가 희어지지 않게 한다.
- 들국화는 위(胃)를 상하게 하니 응저(癰疽) 치료에만 붙이거나 복용한다. 《본초강목》

艾葉 사지발쑉

애엽 사재발쑉

艾葉溫平毆鬼邪,
胎漏心疼並可加.

애엽은 성미가 따뜻하고 평하며 귀신과 사기(邪氣)를 몰아낸다.
자궁 출혈과 심장 통증에 아울러 더하여 쓸 수 있다.

사지발쑉.

- 一云性熱.
- 入足三陰.
- 得米粉或白茯苓少許, 可搗爲末.
- 久服毒發, 熱氣上衝³, 甘豆湯菹豆汁飲. 《本草》
- 陳者良. 《備要》

사재발쑉.

- 성질이 뜨겁다고도 한다.
- 죽삼음경에 들어간다.
- 쌀가루나 백복령 약간을 넣고 찢어서 가루 낸다.
- 오랜 복용으로 독이 발생하여 열기가 상부로 치받으면 감두탕이나 녹두즙을 마신다. 《본초강목》
- 오래 묵은 것이 좋다. 《본초비요》

茵陳 더위지기

인진 더위지기

茵陳味苦退疸黃,
瀉濕利水清熱良.

인진은 성미가 쓰며 황달을 물러가게 한다.

습(濕)을 사하고 수기를 잘 통하게 하며 열을 없애는 데 좋다.

더워지기.

○微寒.

○入足太陽.

○勿犯火. 《本草》

더워지기.

○약간 차다.

○족태양경으로 들어간다.

○불에 닿지 않도록 한다. 《본초강목》

靑蒿 저비썩

청호 제비썩

靑蒿氣寒童熱膏,

虛寒盜汗骨蒸勞.⁴

청호는 성미가 차며 동변에 뜨겁게 달여 고를 내어 쓴다.

허증이나 한증의 골증노열을 치료한다.

저비썩⁵.

○入足少陽厥陰血分.

○童便浸七日, 晒乾.

○伏硫黃. 《本草》

제비썩.

○족소양경、족궐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동변에 7일 동안 담가 두었다가 햇볕에 찌어 말린다.

○유황의 약성을 억제한다. 《본초강목》

益母草 암눈바앗

익모초 암눈비앗

益母草甘最宜婦，
去瘀生新產前後。

익모초는 성미가 달며 부인의 병을 없애는 가장 좋은 약이다.

어혈을 없애고 새로운 피를 생산한다. 출산 전후에 쓴다.

암눈바앗⁶.

○微寒, 云⁷辛溫.

○入手足厥陰血分.

○制硫黃、雄黃、砒石, 忌鐵. 《本草》

암눈비앗.

○조금 차다. 맵고 따뜻하다고도 한다.

○수궤음경、족궤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유황、웅황、비석의 약성을 억제한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芫蔚子 암눈바앗씨

충울자 암눈비앗 씨

芫蔚子甘目可明，
生食潤肺兼填精。⁸

충울자는 성미가 달며 눈을 밝게 한다.

생것으로 쓰면 폐를 적셔주고 겸하여 정수를 채워준다.

암눈바앗씨⁹.

○微炒香或蒸熟, 烈日曝燥, 舂簸去殼, 取仁. 《本草》

암눈비앗의 씨.

◦향이 나도록 약간 볶거나 찌서 익힌 다음 강렬한 햇볕에 찌어 말려서 절구에 찧고 키질하여 껍질을 제거한 속씨를 쓴다. 《본초강목》

夏枯草 저비술

하고초 제비꽃

夏枯草苦癭癰瘤,

破癥散結濕痺瘰.

하고초는 성미가 쓰며 나력과 영류(癭瘤)를 치료한다.

징가를 깨뜨리고 맺힌 것을 풀어주며 습비(濕痺)를 낮게 한다.

저비술.

◦性寒.

◦稟純陽之氣, 得陰氣則枯, 有養厥陰血脈之功, 治目疼如神, 以陽治陰. 《本草》¹⁰

제비꽃.

◦성질이 차다.

◦순전히 양(陽)의 기를 품부 받은 식물로 음기(陰氣)를 만나면 곧 시든다. 꺾음의 혈맥을 길러주는 효능이 있다. 눈의 통증을 신기하게 치료하니 양기로 음증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본초강목》

金沸草 하국, 旋覆花

금비초 하국, 선복화

金沸草寒消痰嗽,

逐水明目風可救.

금비초는 성질이 차며 가래와 기침을 없애준다.

수(水)를 몰아내어 눈을 밝게 하고 풍증을 낮게 한다.

하국.

○一名旋覆花.

○微溫.

○入肺大腸. 《本草》

하국.

○선복화(旋覆花)라고도 한다.

○약간 따뜻하다.

○폐경과 대장경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靑箱子 민드라미씨

靑상자 맨드라미 씨

靑箱子苦肝臟熱,

赤障靑盲俱可設.¹¹

청상자는 성미가 쓰며 간장의 열독으로 인해

눈에 붉은 예장이나 청맹이 생겼을 때 모두 쓸 수 있다.

민드라미씨 ¹².

○入厥陰.

○炒用. 《本草》

○小兒切忌弄鷄冠花, 其子入目不可醫. 《傳家寶》

맨드라미씨.

○겉음(厥陰)경에 들어간다.

○볶아서 쓴다. 《본초강목》

○소아가 절대로 계관화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씨가 눈에 들어가면 치료할 수가 없다. 《전가보》¹³

紅花 닛

홍화 잇꽃

紅花辛溫消瘀熱，
多則通經少養血。¹⁴

홍화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어혈과 열을 없애준다.
많이 쓰면 월경을 통하게 하고 적게 쓰면 혈을 길러준다.

닛.

○入肝經血分.

○得醋良.

○〈子〉主痘瘡.

○〈臍脂〉紅花汁凝作，小兒聾耳，浸汁滴之，解痘毒. 《本草》

잇꽃.

○간경(肝經)의 혈분에 들어간다.

○식초와 함께 쓰면 좋다.

○〈씨〉두창을 치료한다.

○〈연지〉홍화즙을 응고시켜 만든다. 소아의 정이(聾耳)에는 연지를 물에 담가
넌 즙을 귀에 떨어뜨려준다. 두창 독을 해독한다. 《본초강목》

大薊 향가시、小薊 조방가시

대계 향가새、소계 조방가새

大小薊苦消腫血，
吐衄唾咯崩漏絕。¹⁵

대계、소계는 성미가 쓰며 응종과 어혈을 없애준다.

토혈、늑혈、타혈、객혈과 붕루를 멎게 한다.

大薊항가시, 小薊조방가시.

○根溫葉涼. 《本草》

대계의 향명은 항가새, 소계의 향명은 조방가새이다.

○뿌리는 성미가 따뜻하고 잎은 성미가 서늘하다. 《본초강목》

續斷 검산풀불휘

속단 검산풀 뿌리

續斷味辛接骨筋,

跌撲折傷固精勳.

속단은 성미가 매우며 근골을 이어준다.

타박상, 골절상을 치료하며 정(精)을 견고하게 한다.

검산풀불휘.

○微溫.

○酒浸焙乾.

○地黃爲使, 惡雷丸.

○血痢, 及婦人崩帶尿血, 產前後漏血, 最良. 《本草》

○與桑寄生同功.

○斷之節, 節有起者佳. ¹⁶ 《入門》

검산풀 뿌리.

○약간 따뜻하다.

○술에 담가 두었다가 겉불에 말린다.

○지황을 사약으로 삼는다. 뇌환과 상오약이다.

○혈리(血痢)와 부인의 붕루、대하、요혈(尿血), 산전산후의 하혈에 가장 좋은

약재이다. 《본초강목》

◦상기생과 효능이 같다.

◦속단의 마디를 꺾었을 때 연기 같은 먼지가 일어나는 것이 좋다. 《의학입문》

漏蘆 절국디

누로 절굿대

漏蘆性寒祛瘡毒,

補血排膿生肌肉.¹⁷

누로는 성미가 차며 창(瘡)과 독(毒)을 없애준다.

혈을 보하고 고름을 배출시키며 새살을 돋게 하고 살찌게 한다.

절¹⁸국디.

◦入足陽明.

◦殺蛔蟲. 《本草》

절굿대.

◦족양명경에 들어간다.

◦회충을 죽인다. 《본초강목》

苧根 모시불휘

저근 모시풀 뿌리

苧根味甘補陰血,

胎漏丹毒產後熱.¹⁹

저근은 성미가 달며 음(陰)과 혈(血)을 보한다.

태루、단독을 치료하고 산후열을 내린다.

모시불휘.

◦滑冷. 《本草》

모시풀 뿌리.

◦성질이 미끄러우며 냉하다. 《본초강목》

胡蘆巴

호로파

〔胡巴〕溫煖補腎臟,

脹痛諸疝自膀胱.²⁰

〔호로파〕는 성미가 온난하며 신장을 보한다.

배가 창만하고 아픈 증상과 방광기(膀胱氣), 여러 산증(疝症)을 낮게 한다.

酒蒸或炒.

◦得茴香・桃仁, 治膀胱氣甚效. 《本草》

술에 찌거나 볶아서 쓴다.

◦회향・도인과 함께 쓰면 방광기(膀胱氣)를 치료하는 데 효능이 매우 좋다.

《본초강목》

鼠黏子 우윙씨, 牛旁子, 惡實

서점자 우엥 씨, 우방자, 악실

鼠黏子辛消瘡毒,

風熱咽疼癰疹屬.²¹

서점자는 성미가 매우며 창독(瘡毒)을 제거한다.

풍열(風熱)로 인한 인후통과 은진(癰疹) 같은 병을 낮게 한다.

우옹씨²².

- 一名牛旁子.
- 一名惡實.
- 苦溫.
- 酒蒸研.
- 〈根、葉〉宜金杖瘡, 入鹽, 付一切腫. 《本草》

우옹 씨.

- 우방자(牛旁子)라고도 한다.
- 악실(惡實)이라고도 한다.
- 쓰고 따뜻하다.
- 술에 찌서 갈아서 쓴다.
- 〈뿌리、잎〉 쇠붙이나 몽둥이에 다친 곳에 쓴다. 소금을 섞어서 모든 종독에 붙여준다. 《본초강목》

蒼耳子 돛고마리, 茭耳, 卷耳

창이자 도꼬마리, 시이, 권이

蒼耳子苦疥癬瘡,
風濕痛痒無不當.

창이자는 성미가 쓰며 개선과 창(瘡)을 치료한다.

풍습(風濕)으로 인한 통증과 가려움증이 낫지 않는 경우가 없다.

돛고마리.

- 一名茭耳、卷耳.
- 溫有小毒, 或無毒.
- 炒熟或酒蒸.
- 忌猪馬肉米泔, 伏礪砂.
- 〈葉〉主風濕痺在骨髓. 《本草》

도꼬마리.

○시이(莢耳)·권이(卷耳)라고도 한다.

○성질이 따뜻하며 독성이 조금 있거나 독성이 없다.

○볶아서 익히거나 술에 찐다.

○돼지고기·말고기·쌀뜨물을 금한다. 요사(礲砂)의 악성을 억제한다.

○〈잎〉 주로 골수에 생긴 풍비와 습비를 치료한다. 《본초강목》

蒼 진두찰

희렴 진득찰

蒼味甘除風濕,

鬚髮耳目功皆及.

희렴은 성미가 달며 풍습증(風濕症)을 없애준다.

머리카락·귀·눈에 모두 효능이 미친다.

진두찰²³.

○苦寒有小毒.

○蜜酒蒸, 九蒸九曝, 補氣治風. 《本草》

진득찰.

○쓰고 차며 독성이 조금 있다.

○꿀이나 술에 축여서 구증구포하여 찐다. 기(氣)를 보하고 풍(風)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甘蕉 반초불휘, 芭蕉

감초 반초 뿌리, 파초

甘蕉大寒渴熱發,

葉主腫毒油生髮.²⁴

감초는 성질이 크게 차며 소갈과 열병을 발산시킨다.

잎은 주로 종독(腫毒)을 치료하고 기름은 머리카락을 나게 한다.

반초불회²⁵.

○一名芭蕉.

○取油, 以竹筒插皮中, 取出, 瓶盛.

○又治湯火瘡. 《本草》

반초 뿌리.

○파초(芭蕉)라고도 한다.

○기름을 낼 때는 대나무 대롱을 감초 껍질에 꽂아서 기름을 낸 후 병에 담아 둔다.

○또 뜨거운 물이나 불에 덴 상처를 치료한다. 《본초강목》

鶴蝮 여의오줌

학슬 여우오줌

鶴蝮味苦殺蟲毒,

心腹卒痛蛔堪逐.²⁶

학슬은 성미가 쓰며 벌레를 죽이고 독을 완화시킨다.

명치가 갑자기 아픈 것을 치료하며 회충을 몰아내는 데 적당하다.

여의오줌.

○凉小毒. 《本草》

여우오줌.

○서늘하고 독성이 조금 있다. 《본초강목》

麻黃

마황

麻黃味辛能出汗，
身熱頭疼風寒散.

마황은 성미가 매우며 땀이 나게 한다.

몸에 열이 나고 두통이 있는 것을 치료하고 풍한의 사기를 흩어준다.

性溫.

- 手太陰藥，入足太陽，走手少陰陽明，發太陽少陰汗.
- 去根節，水煮十餘沸，去上沫，根節止汗故也.
- 厚朴、白薇爲使，惡辛夷.
- 陳者良.
- 有麻黃之地，冬不積雪，爲泄內陽，故過用則泄眞氣.
- 傷寒解肌第一藥也. 《本草》
- 〔根〕止汗，夏月多汗用之，俱可. 《景岳》
- 自中原移植，惟江原道、慶尙道有之. 《寶鑑》

성미가 따뜻하다.

- 수태음경의 약으로 족태양경에 들어간다. 수소음경、수양명경에 달려가 태양증、소음증에 땀을 내게 한다.
- 뿌리와 마디를 제거하고 물에 삶아 10여번 끓어오를 때까지 달이면서 위에 거품을 걷어낸다. 뿌리와 마디는 땀을 멎게 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다.
- 후박、백미(白薇)를 사약으로 삼고, 신이(辛夷)와 상오약이다.
- 오래 묵은 것이 좋다.
- 마황이 자라는 땅은 겨울에도 눈이 쌓이지 않으니 안에서 양이 새어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황을 과하게 쓰면 진기가 새어 나간다.
- 상한의 병을 해기(解肌)시킬 때 가장 좋은 약이다. 《본초강목》

○〔뿌리〕땀을 멎게 하거나 여름에 땀이 많이 날 때 쓰면 모두 좋다.《경약전서》

○중국에서 옮겨 심었으며 강원도·경상도에만 있다.《동의보감》

木賊 속시

목적 속새

木賊味甘益肝臟，
退醫²⁷ 止經消積良。²⁸

목적은 성미가 달며 간장을 보익한다.

예맥을 낮게 하고 계속되는 월경을 멎게 하며 적취를 잘 없앤다.

속시.

○平溫.

○得牛角腮、麝香，治久痢，得禹餘糧、芎、歸，治崩中，得槐花、桑耳，治腸風，得槐子、枳實，治痔出血。

○與麻黃性同，發汗解肌.《本草》

○眼藥多用，童便浸一宿，晒乾.《寶鑑》

속새.

○성질이 평하고 따뜻하다.

○우각시(牛角腮)、사향과 함께 쓰면 오랜 이질을 치료하고, 우여량·천궁·당귀와 함께 쓰면 봉루를 치료한다. 괴화·상이와 함께 쓰면 장풍(腸風)을 치료한다. 괴화씨·지실과 함께 쓰면 치질로 피가 나는 것을 치료한다.

○마황과 성미가 같아서 땀을 내고 해기(解肌)시킨다.《본초강목》

○안약으로 많이 쓴다. 동변에 하루밤 담가두었다가 햇볕에 쬐어 말려서 쓴다.

《동의보감》

燈草 골속

등초 골속

燈草味甘利小水，
癰閉成淋濕腫止。

등초는 성미가 달며 소변과 수기를 잘 통하게 한다.
소변이 막혀 임증이 된 것을 치료하고 습종(濕腫)을 멎게 한다.

골속.

- 寒平.
- 瀉肺降心火.
- 難研，以米粉漿染，晒乾，研末，入水浮者，是燈心也.
- 取心爲燈炷. 《本草》

골속.

- 성질이 차고 평하다.
- 폐기를 사하고 심화(心火)를 내려준다.
- 가루 내기 어려우므로 쌀가루를 푼 물에 담갔다가 벌에 찍어 말린 후 가루 낸다. 물에 넣어 떠오르는 것을 등심(燈心)이라고 한다.
- 등심으로 등잔불의 심지로 삼는다. 《본초강목》

生地黃 芴

생지황 호

生地微寒清濕熱，
骨蒸煩勞消瘀血。

생지황은 성미가 약간 차며 습열(濕熱)을 내린다.
골증열, 번열, 노열을 치료하고 어혈을 없애준다.

一名芎.

○大寒.

○入手足少陰厥陰, 又手太陽之劑.

○得清酒²⁹、麥門冬良, 惡貝母, 畏蕪荑, 忌蔥、蒜、蘿菔、諸血、銅、鐵.

○大寒, 胃弱者, 斟酌用.

○又治心痛蛔蟲. 《本草》

○初採沈水浮者, 名天黃, 半浮半沈者, 名人黃, 沈者, 名地黃, 沈者佳, 半沈者次之, 浮者不堪用. 《寶鑑³⁰》

○多產於黃州.³¹

호(芎)라고도 한다.

○성질이 크게 차다.

○수소음경、족소음경、수궐음경、족궐음경에 들어간다. 또 수태양경의 약제이다.

○청주、맥문동과 함께 쓰면 좋다. 패모와 상오약이며 무이(蕪荑)와 상외약이다. 총백、마늘、나복、각종 피、구리、철기의 사용을 금한다.

○성질이 크게 차니 위가 약한 사람은 상태를 짐작하여 쓴다.

○또 심통(心痛)과 회충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막 캐어 물에 담갔을 때 뜨는 것을 천황(天黃)이라고 하고, 절반은 뜨고 절반은 잠긴 것을 인황(人黃)이라고 하며, 잠기는 것을 지황(地黃)이라고 한다. 잠긴 것이 좋고 반쯤 잠긴 것이 다음이며 뜨는 것은 쓸 수 없다. 《동의보감》

○황주(黃州)에서 많이 생산된다.

生乾地黃

생건지황

生乾地凉除寒熱,

心膽血虛肺吐血.³²

생견지황은 성미가 서늘하며 한열을 제거한다.

심장과 쓸개를 돕고 혈허, 폐의 손상, 토혈을 치료한다.

酒浸上行, 薑汁浸不泥膈.

○其法, 以一百斤內, 六十斤木臼取汁浸酒, 拌前生地黄, 晒乾或火焙. 《本草》³³

술에 담가서 쓰면 약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생강즙에 담가서 쓰면 흉격이 막히지 않는다.

○생견지황 만드는 방법. 100근 중에 60근은 나무절구로 찌서 즙을 낸 후 술에 담가둔다. 여기에 앞의 나머지 생지황 40근을 버무려 햇볕에 말리거나 겉불에 말려서 쓴다. 《본초강목》

熟地黄

숙지황

熟地微溫滋腎水,
補血烏髭益精髓.³⁴

숙지황은 성미가 약간 따뜻하며 신수(腎水)를 자운시켜 준다.

혈을 보하고 머리를 검게 하며 정(精)과 골수를 보익한다.

薑汁浸, 拌砂仁之香而竄, 合和五臟冲和之氣, 歸宿丹田故也. 得牧丹、當歸, 和血生血凉血, 滋陰補髓.

○臍下痛屬腎, 非熟地不能除, 乃通腎之藥也. 《本草》

○地黄産於中州之沃土, 色黃土色也, 味甘土味也, 得土之氣而曰非太陰陽明之藥, 吾不信也. 惟生者性凉, 脾陽不足者, 當慎用, 至若熟則性平, 稟至陰之氣, 能補五臟³⁵之眞陰, 又於多血之臟, 爲最要, 得非脾胃經藥耶. 人之生者, 氣與血耳, 補氣以人參爲主, 閏³⁶芩朮爲佐, 補血以熟地爲主, 而芎歸爲主³⁷, 人參熟地, 氣血之必不可無, 一陰一陽, 相爲表裏, 一形一氣, 互主生成, 性味中正, 無踰於此, 誠有不可假借而更代者矣. 《景岳》

생강즙에 담갔다가 사인과 섞으면 향이 잘 스며들어 오장의 온화한 기운과 잘 화합되니 단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목단·당귀와 함께 쓰면 혈을 고르게 하고 혈을 만들며 혈을 식혀주고 음(陰)을 적셔주며 수(髓)를 보충한다.

○아랫배가 아픈 것은 신(腎)의 병에 속하니 숙지황이 아니면 병이 나을 수 없다. 신장의 병에 두루 쓰는 약이다. 《본초강목》

○지황은 증주의 비옥한 땅에서 생산된다. 지황이 누런 것은 토(土)의 색깔이고 성미가 단 것은 토의 성미로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족태음경·족양명경의 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생지황만은 성미가 서늘하여 비(脾)에 양(陽)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신중하게 써야 한다. 숙지황 같은 성미가 평하고 천부적으로 지극한 음(陰)의 기운을 지니고 있으므로 능히 오장의 진음(眞陰)을 보해준다. 또 혈이 많은 장기에 가장 중요한 약이니 비위경(脾胃經)의 약이 아닐 수 있겠는가. 사람이 사는 것에는 기와 혈이 있을 뿐이니 기를 보할 때는 인삼을 주약(主藥)으로 삼고 황기·백출을 좌약으로 삼는다. 혈을 보할 때는 숙지황을 주약으로 삼고 천궁·당귀를 좌약으로 삼는다. 그러니 인삼과 숙지황은 기와 혈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나는 음(陰)이고 하나는 양(陽)이라서 서로 표리가 되고, 하나는 형(形)이고 하나는 기(氣)라서 서로 생장을 주관한다. 성미가 균형잡힌 약재로는 이보다 뛰어난 것이 없으니 진실로 빌려서라도 대신할 것이 없다. 《경약전서》

牛膝 쇠무릎디기

우슬 쇠무릎풀

牛膝味苦濕痺除,

補精强足下胎瘀.³⁸

우슬은 성미가 쓰며 습사(濕邪)로 팔다리가 오그라든 증상을 제거한다.

정(精)을 보해주고 다리를 강하게 하며 유산시키고 어혈을 깨뜨린다.

쇠무릎디기³⁹.

○得酒則補肝腎, 生用則去惡血, 滋補則酒蒸, 欲下行則生用.

○惡龜甲, 忌牛肉.

○助十二經脉, 活血生血之劑也. 引諸藥, 下行于腰腿. 《本草》

쇠무릎풀.

○술과 함께 먹으면 간(肝)、신(腎)을 보한다. 생것으로 쓰면 악혈을 제거한다.

몸을 자유했고 보하려면 술로 찌서 쓴다. 약 기운이 하부로 가게 하려면 생것으로 쓴다.

○구갑(龜甲)과 상오약이며, 쇠고기를 금한다.

○12경맥을 도와 혈을 잘 돌게 하고 생성시키는 약제이다. 여러 약의 기운을 하부로 이끌어 허리와 다리로 운행하게 한다. 《본초강목》

紫菀 텅말

자완 텅알

紫菀苦辛痰喘咳,

吐膿寒熱並痿肺.⁴⁰

자완은 성미가 쓰고 매우며 가래, 호흡 곤란, 기침으로 숨이 차는 증상을 치료한다.

고름을 토하는 증상, 오한발열을 치료하고 아울러 폐위(肺痿)를 낮게 한다.

텅말.

○性溫.

○蜜水浸, 焙乾.

○款冬爲使, 惡天雄、瞿麥、藁本、雷丸、遠志, 畏茵陳. 《本草》

탱알.

◦성질이 따뜻하다.

◦꿀물에 담갔다가 겉불에 말린다.

◦관동(款冬)을 사약(使藥)으로 삼는다. 천웅·구맥·고본·뇌환·원지와는 상오약이고 인진과는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麥門冬 겨으스리불휘

맥문동 겨우살이 뿌리

麥門甘寒除虛熱,

清肺補心煩渴撤.

맥문동은 성미가 달고 차며 허열(虛熱)을 제거한다.

폐를 식혀주고 심장을 보하며 번갈을 물리친다.

겨으스리불휘.

◦入手太陰氣分.

◦瓦焙乘熱去心, 補藥酒浸.

◦地黃、車前爲使, 惡款冬, 畏苦參、石鍾乳, 忌鐵.

◦氣弱胃寒者, 不可餌. 《本草》

◦産於慶尙、全羅、忠淸道及肥土海島中. 《寶鑑》

겨우살이 뿌리.

◦수태음경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기와 위에 놓고 겉불에 찌어 열이 오르면 심을 제거하여 쓴다. 보하는 약으로 쓰려면 술에 담가둔다.

◦지황·차전을 사약(使藥)으로 삼는다. 관동과 상오약이고 고삼·석종유와 상외약이다. 철기를 쓰는 것을 금한다.

◦기(氣)가 약하고 위(胃)가 찬 사람에게는 쓸 수 없다. 《본초강목》

◦경상도·전라도·충청도와 토양이 비옥한 섬에서 생산된다. 《동의보감》

葵花

규화

葵花味甘帶痢劇，
赤治赤者白治白。⁴¹

규화는 성미가 달며 대하와 이질이 심한 증상을 낮게 한다.

붉은 꽃은 적대하를 낮게 하고 흰꽃은 백대하를 낮게 한다.

규화.

○〈子、根〉同功，主利小便五淋. 《本草》

규화.

○〈씨、뿌리〉는 효능이 같으니 주로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오림(五淋)을 낮게 한다. 《본초강목》

龍葵 가마종이

용규 까마중

龍葵甘寒去熱睡，
跌撲傷損小便利.

용규는 성미가 달고 차며 열과 잠을 없앤다.

타박으로 인한 손상을 낮게 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가마종이.

까마중.

酸漿 꾸아리

산장초 팍리

酸漿酸寒益小兒,
熱煩難產水痘宜.⁴²

산장초는 성미가 시고 차며 소아를 보익한다.

번열, 난산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황달에 써야 한다.

꾸아리.

○〈莖、苗〉同功.

파리.

○〈줄기、싹〉은 효능이 같다.

旱蓮草 한년초, 鱧腸草

한련초 예장초

旱蓮草甘能止血,
生鬚黑髮赤痢泄.

한련초는 성미가 달며 지혈시킬 수 있다.

수염과 머리카락을 나게 하고 검게 하며 적리와 설사를 낮게 한다.

한년초⁴³, 卽鱧腸草.

한련초는 곧, 예장초(鱧腸草)이다.

款冬花

관동화

〔款花〕甘溫止喘咳,

補劣⁴⁴除煩且理肺.

〔관동화〕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호흡이 가쁘고 기침이 나오는 것을 멎게 한다.

허로를 보하고 번조를 없애며 또한 폐를 다스린다.

純陽, 入手太陰.

○杏仁爲使, 得紫菀良, 惡皂角、消石、玄參, 畏貝母、麻黃、黃芪、黃芩、連翹、青箱子. 《本草》

○《本經》云生我國, 今無. 《寶鑑》⁴⁵

순전한 양(陽)의 기운을 지녀 수태음경에 들어간다.

○행인을 사약(使藥)으로 삼는다. 자완과 함께 쓰면 좋다. 조각·초석·현삼과 상오약이다. 패모·마황·황기·황금·연교·청상자와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본경》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없다. 《동의보감》

決明子 초결명

결명자 초결명

決明子甘除肝熱,

目痛收淚止鼻血.

결명자는 성미가 달며 간열(肝熱)을 없앤다.

눈의 통증을 낮게 하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거두고 코피를 멎게 한다.

초결명.

○微寒.

○微炒研.

○作枕, 治頭風明目. 《本草》

초결명.

○약간 차다.

○약간 볶아서 간다.

○베개를 만들어 쓰면 두풍(頭風)을 치료하고 눈을 밝게 한다. 《본초강목》

地膚子 디뿌리씨

지부자 뎁싸리 씨

地膚子寒除癢痒,

去膀胱熱功最廣.

지부자는 성미가 차며 가려움증을 없앤다.

방광열(膀胱熱)을 내리는 데 가장 큰 효능이 있다.

디뿌리씨⁴⁶.

뎁싸리씨.

瞿麥 석독화, 石竹花

구맥 석죽화

瞿麥辛寒除淋零,

且能墮胎及通經.⁴⁷

구맥은 성미가 맵고 차며 임병으로 소변이 방울지는 증상을 없앤다.

또 유산시키며 월경을 통하게 한다.

석독화⁴⁸.

○一名石竹花.

○牧丹爲使, 惡海螵蛸、丹砂. 《本草》

석죽화.

◦석죽화(石竹花)라고도 한다.

◦목단을 사약(使藥)으로 삼는다. 해표초·단사와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王不留行 당고시

왕불류행 장고초

王不留行除風痺,

調經催產乳癰類.

왕불류행은 풍비(風痺)를 없앤다.

월경을 고르게 하고 출산을 촉진하며 유옹(乳癰) 같은 증상을 낮게 한다.

당고시⁴⁹.

◦苦平.

◦漿水浸焙.

◦陽明衝任之藥.

◦下乳用之, 取其利血脈. 《本草》

◦治淋最效. 《資生》

장고초.

◦성질이 쓰고 평하다.

◦장수(漿水)에 담갔다가 곁불에 말린다.

◦양명경과 충맥·임맥의 약이다.

◦젖이 잘 나오게 할 때 쓰니 혈맥을 잘 통하게 하기 때문이다. 《본초강목》

◦임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효능이 좋다. 《자생경》

葶藶 두르미나이씨

정력자 두루미냉이씨

葶藶苦辛利水腫⁵⁰,

痰喘肺癰癥瘕重.

정력자는 쓰고 매우며 수기를 잘 통하게 하여 부종을 치료한다.

담천(痰喘)·폐옹(肺癰)·징가에 중요한 약이다.

두르미나이씨⁵¹.

○大寒小毒. 得酒良. 炒用.

○宜大棗, 惡蠶蚤.

○虛者宜遠之, 且殺人甚捷. 《本草》

두루미냉이 씨.

○크게 차고 독성이 조금 있다. 술과 함께 먹으면 좋다. 볶아서 쓴다.

○대추와 함께 쓰면 좋다. 백강잠과 상오약이다.

○허한 사람은 정력자를 멀리해야 하니 또한 사람이 매우 갑자기 죽을 수 있다.

《본초강목》

罌粟殼 양귀비껍질, 御米殼

앵속각 양귀비 껍질, 어미각

粟殼性澁痢嗽神,

最能劫病亦殺人.

앵속각은 성질이 삭하고 이질과 기침을 귀신같이 낫게 한다.

병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약이면서 또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양귀비껍질.

○一名御米殼.

○去蒂筋膜, 取外薄皮, 醋炒亦蜜灸.

○得醋、烏梅、橘皮良.

○〈米〉씨⁵². 性寒, 多食利二便, 動膀胱氣.

○〈阿芙蓉〉진. 一名阿片. 前代無聞, 近有用者, 是罌粟花之津液, 結實青苞時, 午后以鍼刺外面青皮, 勿損裏硬皮, 三五處, 次早津出, 竹刀刮收, 陰乾, 俗用房術. 《本草》

○阿片毒, 雖七日亦生, 礪砂或砂糖冷水調服, 忌太陽. 《驗方》

양귀비 껍질.

○어미각(御米殼)이라고도 한다.

○꼭지와 근막을 버리고 얇은 겉껍질을 쓴다. 식초에 축여 볶거나 꿀에 축여 볶아서 쓴다.

○식초, 오매, 굴피와 함께 쓰면 좋다.

○〈속씨〉씨. 성질이 차다. 많이 먹으면 대소변이 잘 통하고 방광의 기를 동하게 한다.

○〈아부용〉진. 아편(阿片)이라고도 한다. 지난 시대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나 근래에는 쓴다. 이것은 앵속화의 진액이다. 열매가 퍼렇게 맺혔을 때 오후에 침으로 겉면의 푸른 껍질을 찌르되 속의 단단한 껍질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 5군데 찌른 다음 바로 나오는 진액을 대나무 칼로 긁어 모아 그늘에서 말린다. 민간에서는 성생활에 쓴다. 《본초강목》

○아편 중독은 비록 7일이 지났어도 살릴 수 있다. 봉사나 사당을 냉수에 타서 먹이고 햇빛을 쬌지 않도록 한다. 《경험방》

車前 길경이씨, 茺苢

차전자 질경이 씨, 부이

車前氣寒眼赤疾,

小便通利大便實.

차전자는 성질이 차며 눈이 충혈된 경우나 눈병을 치료한다.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대변을 견실하게 한다.

길경이썩⁵³.

○一名茱萸.

○炒過用.

○〈根葉〉主吐、衄、尿血、血淋, 取汁服⁵⁴. 《本草》

질경이 씨.

○부이(茱萸)라고도 한다.

○충분히 볶아서 쓴다.

○〈뿌리、잎〉 토혈、늑혈、요혈(尿血)、혈림(血淋)을 주로 치료한다. 즙을 내어 복용한다. 《본초강목》

連翹 이어리나모여름

연교 이어리나무 열매

連翹苦寒消癰毒,

氣聚血凝濕熱屬.

연교는 성미가 쓰고 차며 응종의 독을 제거한다.

기가 멎치고 혈이 응고된 것, 습증, 열증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이어리나모여름⁵⁵.

○入手足少陽、手陽明、手少陰.

○瀉心熱, 去上焦熱, 爲瘡家聖藥. 《本草》

이어리나무 열매.

○수소양경、족소양경、수양명경、수소음경을 치료한다.

○심열(心熱)을 사하고 상초열을 없애준다. 헌 데를 치료하는 성약(聖藥)이다.

《본초강목》

靑黛

청대

靑黛酸寒平肝木,

驚癇疳痢除熱毒.

청대는 성미가 시고 차며 간목(肝木)을 평하게 한다.

경간, 감질로 인한 이질을 치료하며 열독(熱毒)을 제거한다.

解諸藥毒, 殺蟲. 化爲水, 付熱瘡毒腫.

○〔藍實〕썩씨⁵⁶. 解毒殺蟲. 《本草》

여러 약의 독을 해독하고 충(蟲)을 죽인다. 청대를 물처럼 녹여서 열창(熱瘡)
· 종독(毒腫)에 바른다.

○〔남실〕썩씨. 해독하며 충(蟲)을 죽인다. 《본초강목》

虎杖根 감뎃불휘

호장근 감제풀 뿌리

虎杖溫平治煩渴,

諸淋可利通經血⁵⁷

호장근은 성질이 따뜻하고 평하며 번갈을 치료한다.

여러 임증을 치료하여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월경을 잘 통하게 한다.

감뎃불휘.

감제풀 뿌리.

蕭蓄 옥미답

편축 온매듭

篇蓄味苦癢疥息,
疽痔兒蛔女陰蝕.

편축은 성미가 쓰며 가려움과 개선을 낮게 한다.

옹저와 치질을 낮게 하고 아이의 회충과 여성의 음식창(陰蝕瘡)을 치료한다.

옥미답.

온매듭.

蒺藜 남가시

질려 남가새

蒺藜味苦癢瘙痒,
白癬頭痛瞤目朗.

질러는 성미가 쓰며 창(瘡)과 가려움증을 치료한다.

백반증, 두창, 예막을 치료하며 눈을 밝게 한다.

남가시.

◦性溫. 炒, 去刺, 研.

남가새.

◦성질이 따뜻하다. 볶아서 가시를 제거하고 갈아서 쓴다.

穀精草 고위깃몸

곡정초 고위깃몸 꽃

穀精草辛牙齒痛,
口瘡咽痺眼瞤瞢.

곡정초는 성미가 매우며 치통을 낮게 한다.

구창(口瘡), 인후마비, 눈이 예막으로 흐릿해진 증상을 치료한다.

고위귀뭉.

고위깃뭉 꽃.

海金沙

해금사

〔海金沙〕寒通小腸,

濕熱腫滿淋亦當.

〔해금사〕는 성질이 차며 소장을 잘 통하게 한다.

습증、열증으로 그득해진 증상을 치료하고 소변이 방울지는 증상에도 적당하다.

小腸膀胱血分藥.《本草》

소장과 방광의 혈분약이다.《본초강목》

蒲公英 안즌방이, 므음둘네

포공영 앓은뱅이, 민들레

蒲公英苦除食毒,

消腫潰堅結核屬.⁵⁸

포공영은 성미가 쓰며 식독을 제거한다.

종기를 없애고 단단한 멍울 같은 것을 터뜨린다.

안즌방이, 又名므음둘네.

앓은뱅이. 또는 민들레라고 한다.

1. 土 : 上 ※신정본 ←

2. 百 𐄂 白 ※《의종손익부여》←

3. 上衝 : 主行 ※중정본, 신정본 ←

4. 童熱膏 : 青蒿細剉, 水三升, 童子小便五升, 同煎取一升半. 去滓入器中煎成膏 ※《본초강목》←

5. 저비\ue75e : 저비쑥 ※신정본 ←

6. 암눈바얏 𐄂 암눈바얏 ※신정본
충위자, 향명 눈비얏(암눈비얏, 암눈비얏). ※《향약채취월령》←

7. 云 𐄂 一云 ※중정본
云 ※신정본 ←

8. 填精 : 填精髓 ※《본초강목》←

9. 암눈바얏\ue77c : 암눈바얏씨 ※신정본 ←

10. 稟純陽之氣, 得陰氣則枯, : 此草夏至後卽枯. 蓋稟純陽之氣, 得陰氣則枯, 故有是名. ※《본초강목》←

11. 治肝臟熱毒衝眼, 赤障青盲翳腫 ※《본초강목》
暴發赤障青盲可服 ※《의종손익부여》←

12. \ue57e\ue38a라미\ue77c : \ue57e\ue38a라미씨 ※신정본 ←

13. 《전가보》: 청대 성석금(石成金)이 편찬한 민간백과전서. ←

14. 紅花汁與之同類, 故能行男子血脈, 通女子經水. 多則行血, 少則養血.
※《본초강목》←

15. 腫血 : 大薊生山谷, 根療癰腫, 小薊生平澤, 不能消腫, 而俱能破血. ※《본

초강목》↩

16. 節有起者佳. ㉞ 節有煙塵起者佳 ※《의종손익부여》↩

17. 皮膚熱毒, 惡瘡疽痔 ※《본초강목》♣※ 生肌肉. : 生肌長肉 ※《제중신편》↩

18. 절 : 철 ※중정본

절 ※신정본 ↩

19. 補陰血 : 補陰行血 ※《의종손익부여》↩

20. 治腎虛冷, 腹脅脹滿.....治膀胱氣甚效.〔嘉祐〕治冷氣疝瘕. ※《본초강목》
↩

21. 鼠粘子其用有四, 治風濕癰疹, 咽喉風熱, 散諸腫瘡瘍之毒, 利凝滯腰膝之氣, 是也. ※《본초강목》↩

22. 우윳\ue77c : 우윳씨 ※중정본, 신정본 ↩

23. 진두찰 : 진득찰 ※신정본 ↩

24. 渴熱發, : 治天行熱狂, 煩悶消渴. ※《본초강목》↩

25. 반초불휘 : 반초불휘 ※중정본

만초불휘 ※신정본 ↩

26. 殺蟲毒 : 殺蟲追毒 ※《제중신편》↩

27. 醫 ㉞ 醫 ※중정본, 신정본 ↩

28. 消積 : 更消積聚 ※《제중신편》↩

29. 酒 : 洒 ※중정본 ↩

30. 寶鑑 : 보감 ※신정본 ↩

31. 芻 : 芻.〔音戶〕※《본초강목》↩

32

32. 心膽血虛肺吐血：助心膽氣，強筋骨長志，安魂定魄，治驚悸勞劣，心肺損，吐血鼻衄，婦人崩中血運. ※《본초강목》. <

33. 其法，以一百斤內，六十斤木臼取汁浸酒，拌前生地黃，晒乾或火焙：其法取地黃一百斤，擇肥者六十斤洗淨，晒令微皺. 以揀下者洗淨，木臼中搗絞汁盡，投酒更搗，取汁拌前地黃，日中晒乾，或火焙乾用. ※《본초강목》<

34. 補血氣，滋腎水，※《본초강목》<

35. 臟：藏 ※신정본 <

36. 間 而 ※중정본, 신정본 <

37. 主 佐 ※《의종손익부여》，중정본, 신정본 <

38. 濕痺除，：寒濕痿痺 ※《본초강목》※ 下胎：墮胎 ※《본초강목》<

39. \ue920무릅디기：\ue920무릅디기 ※중정본
\ue920무릅자기 ※신정본 <

40. 咳 咳逆 ※《본초강목》

欬逆 ※《제증신편》※ 痿肺：肺痿 ※《제증신편》<

41. 赤治赤者白治白：赤治赤帶，白治白帶 ※《의학입문》<

42. 熱煩難產水疸宜：熱煩，定志益氣，利水道，產難吞之立產.別錄 食之，除熱，治黃病，尤益小兒. ※《본초강목》<

43. 한년초：한년초 ※중정본
한년초 ※신정본 <

44. 劣 勞 ※《萬病回春》<

45. ♣○治嗽之最要. ※《의종손익부여》<

46. \ue3a8\ue786리\ue77c：\ue3a8싸리씨 ※신정본 <

47. 及通經. : 月經不通 ※《본초강목》↩

48. 석독화 : 석독화 ※중정본

석독화 ※신정본 ↩

49. 당고\ue999 : 장고\ue999 ※신정본 ↩

50. 利水腫 : 利水消腫 ※《제중신편》↩

51. 두르되나이\ue77c : 두르미나이씨 ※신정본 ↩

52. \ue77c : 씨 ※신정본 ↩

53. \ue77c : 씨 ※신정본 ↩

54. 服 : 脹 ※신정본 ↩

55. 이어리나모여름 : 이어리나모어름 ※신정본 ↩

56. \uec28\ue77c : \uf7ba\uf828\uf86b\ue77c ※중정본

\uec28씨 ※신정본 ↩

57. 通經血 : 治女人月經不通 : 《본초강목》

通經破血 ※《의종손익부여》↩

58. 消腫 : 消腫核 ※《본초강목》↩

毒草 二十種

독초 20종

大黃 장군품

대황 장군풀

大黃苦寒破血瘀,
快膈通腸積聚除.

대황은 성미가 쓰고 차며 어혈을 깨뜨린다.

홍격을 시원하게 하며 장(腸)을 잘 통하게 하고 적취를 제거한다.

장군품.

○入手足陽明, 酒浸入太陽, 酒洗入陽明, 下行生用.

○黃芩爲使, 忌冷水, 惡乾漆. 《本草》

○酌人虛實, 假虛誤用, 與鳩相類. 《景岳》

장군풀.

○수양명경·족양명경에 들어간다. 술에 담갔다가 쓰면 태양경에 들어가고, 술로 씻어서 쓰면 양명경에 들어간다. 약 기운을 아래로 보내려면 생것으로 쓴다.

○황금을 사약(使藥)으로 삼는다. 냉수와 함께 먹는 것을 금하며 건칠과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사람의 허실을 짐작해서 써야 하니 가령 허증에 잘못 쓰면 짐새의 독을 마신 것과 같다. 《경악전서》

商陸 자리공불휘

상륙 자리공뿌리

商陸辛甘赤白異,

赤者腫消白水利.¹

상륙은 성미가 맵고 달며 붉은 것과 흰 것이 다르다.

붉은 상륙은 부종을 없애주고 흰 상륙은 수기(水氣)를 잘 통하게 한다.

자리공불휘.

○大毒.

○菉豆蒸, 或黑豆葉蒸, 半日.

○忌犬肉及鐵, 得蒜良. 《本草》

○以水服殺人, 能行水而忌水服, 物性相惡而然也. 故方家多以外付, 不可輕用也.

《金匱》²

자리공 뿌리.

○독성이 크다.

○녹두와 함께 찌거나 검정콩 잎과 함께 한나절 동안 찐다.

○개고기와 철기를 금한다. 마늘과 함께 쓰면 좋다. 《본초강목》

○물로 복용하면 죽을 수 있다. 상륙이 수(水)를 잘 운행시키나 물과 함께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은 상륙과 물이 서로 상오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외용으로 붙이는 데 많이 썼으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금궤옥함경》

狼毒 오독또기

낭독 오독도기

狼毒味辛癥積衰,

鬼毒惡瘡及風痿.³

낭독은 성미가 매우며 징가와 적(積)을 쇠퇴시킨다.

귀신, 고독, 악창과 풍으로 사지가 무력한 증상을 없앤다.

오독또기⁴.

○醋炒.

○殺鳥獸及鼠, 陳者良. 《本草》

오독도기.

○식초에 축여서 볶는다.

○새, 짐승, 쥐를 죽인다. 오래 묵은 것이 좋다. 《본초강목》

大戟 버들웃

대극 버들웃

大戟甘寒最利便,

水腫癥堅功瞑眩.⁵

대극은 성미가 달고 차며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가장 좋은 약이다.

수종(水腫)과 심한 징가를 낮게 하며 어지럼증에 효능이 있다.

버들웃.

○大毒.

○漿水煮, 晒乾.

○畏菖蒲, 忌山藥.

○〔澤漆⁶〕大戟苗, 小毒, 治水腫, 利大小腸. 《本草》

버들웃.

○독성이 많다.

○장수(漿水)에 삶아서 볶에 찌어 말린다.

○창포와 상외약이다. 산약을 금한다.

○〔택칠〕은 대극의 싹이다. 독성이 조금 있다. 수종(水腫)을 치료하며 대소장을 잘 통하게 한다. 《본초강목》

甘遂

감수

〔甘遂〕苦寒破癥痰，

面浮蠱脹利水堪．

〔감수〕는 성미가 쓰고 차며 징가와 담(痰)을 깨뜨린다．

얼굴 부종이나 고창(蠱脹)을 치료하며 수기를 잘 통하게 한다．

甘草薺芫湯浸三日，水淘去黑汁取清，熬脆或麵裹，去其毒．

○惡遠志，反甘草．《本草》⁷

감초나 제니를 달인 물에 감수를 3일간 담갔다가 검게 된 물을 제거하고 맑아질 때까지 물에 일어 낸다．바짝 볶거나 밀가루 반죽에 싸서 독을 제거하고 쓴다．

○원지와 상오약이고 감초와 상반약이다．《본초강목》

續隨子 千金子

속수자 천금자

- 〔續隨子〕辛惡瘡蠱毒，
通經消積不可過服．⁸

- 〔속수자〕는 성미가 매우며 악창과 고독을 치료한다．

월경을 통하게 하고 적(積)을 없애나 지나치게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一名千金子．

○去殼，以紙包壓去油．

○下水最速，然有毒損人，不可過多．《本草》

천금자(千金子)라고도 한다.

○겉질을 제거하고 종이에 싸서 눌러서 기름을 제거한다.

○물을 내리는 데 가장 효과가 빠르나 독성이 있어서 사람에게 손상을 주므로
과다하게 쓰면 안 된다. 《본초강목》

萇蓍子 초우윙씨, 天仙子

낭당자 초우영 씨, 천선자

萇蓍子寒熏齒蟲,

通神除邪更逐風.⁹

낭당자는 성미가 차며 치아에 훈증하면 벌레가 나온다.

신명을 통하게 하며 사기를 제거하고 또한 풍증을 몰아낸다.

초우윙씨.

○一名天仙子.

○有毒, 醋煮用.

○多食狂走. 《本草》

초우영 씨.

○천선자(天仙子)라고도 한다.

○독성이 있으며 식초에 삶아서 쓴다.

○많이 먹으면 미쳐서 날뛰다. 《본초강목》

蓖麻子

비마자

蓖麻子辛滯崇開,

塗頂收肚足下胎.¹⁰

비마자는 성미가 매우며 체한 것을 열어준다.

정수리에 붙이면 위를 수렴하고 발에 붙이면 태를 내려오게 한다.

비마조.

○小毒.

○鹽水煮, 取仁.

○伏丹砂粉霜.

○服蓖麻者, 一生不得食炒豆, 脹死.

○油, 主風症失音.

○葉, 主脚氣風腫, 蒸裹.¹¹ 《本草》

비마자.

○독성이 조금 있다.

○소금물에 달여서 씨를 취한다.

○단사·분상(粉霜)의 약성을 억누른다.

○비마자를 먹은 사람은 평생 붉은 콩을 먹지 말아야 하니 창만이 되어 죽기 때 문이다.

○비마자유는 주로 풍증과 실음(失音)을 치료한다.

○비마 잎은 각기와 풍사로 부은 것을 주로 치료한다. 잎을 찌서 환부를 싸매준다. 《본초강목》

常山 조팝나모불휘

상산 조팝나무 뿌리

常山苦寒截痰瘧,

傷寒熱及水脹藥.¹²

상산은 성미가 쓰고 차며 담학(痰瘧)을 없앤다.

상한으로 인한 열을 내리고 수창(水脹)을 치료하는 약이다.

조팝나무모불휘.

○小毒, 微寒.

○酒蒸, 醋制.

○忌蔥蒜, 伏砒¹³.

○蜀漆, 苗也, 治同, 得甘草則吐, 得大黃則利. 《本草》

조팝나무 뿌리.

○독성이 조금 있다. 약간 차다.

○술에 찌서 쓰거나 식초로 법제한다.

○파, 마늘을 금한다. 비석의 약성을 억누른다.

○촉칠(蜀漆)은 상산의 싹으로 같은 증상을 치료한다. 감초와 함께 쓰면 토하게 하고, 대황과 함께 쓰면 설사시킨다. 《본초강목》

藜蘆 박시

여로 박새

藜蘆味辛能發吐,

腸澼瀉痢殺蟲蟲.¹⁴

여로는 성미가 매우며 토하게 한다.

장벽(腸澼), 설사와 이질을 치료하고 여러 벌레와 고독(蠱毒)을 죽인다.

박시.

○大毒, 糯米泔水煮, 微炒.

○反細辛、芍藥、人蔘、沙蔘、丹蔘、苦蔘及酒, 惡大黃, 畏蔥白. 《本草》

박새.

○독성이 크다. 찹쌀뜨물에 삶아서 약간 볶아서 쓴다.

○세신, 작약, 인삼, 사삼, 단삼, 고삼, 술과 상반약이다. 대황과 상오약이고 총백과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附子

부자

〔附子〕辛熱走不留：附子辛熱，
厥逆回陽宜急投。¹⁵

〔부자〕는 성미가 맵고 뜨거우며 멈추지 않고 돌아다니는 성질이 있다.
사지궤역에 양(陽)을 회복시킬 때 급히 투약하도록 한다.

大毒.

- 烏頭、烏喙¹⁶、天雄、附子、側子，皆一物也.
- 手少陰命門三焦藥也.
- 用生，引諸藥行經，麪裹煨，去皮，臍切，童便浸透，炒乾.
- 無乾薑不熱，得生薑發散，以熱攻熱，又導虛熱下行.
- 惡蜈蚣，畏防風、黑豆、甘草、人蔘¹⁷、黃芪、犀角、童便¹⁸、烏薤¹⁹，忌豉汁、棗肉、飴糖、井華水，亦解毒.《本草》
- 童便²⁰浸五日，切片，去皮臍，冷水又浸三日，黑豆、甘草同煎，待熟，晒乾或焙乾.

俗方

- 人蔘、熟地，治世之良相，附子、大黃亂世之良將.《景岳》²¹

독성이 크다.

- 오두、오웁(烏喙)、천웅、부자、측자는 모두 같은 식물이다.
- 수소음경、명문、삼초의 약이다.
- 생으로 쓸 때는 인경약으로서 약 기운이 경맥에 들어가게 한다. 밀가루 반죽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구워서 껍질을 벗기고 꼭지는 잘라낸 후 동변에 스며들도록 담갔다가 볶아서 말린다.
- 건강과 함께 쓰지 않으면 뜨거워지지 않는다. 생강과 함께 쓰면 발산시키니 열로써 열을 다스리는 것이다. 또한 허열(虛熱)을 이끌어 아래로 운행시킨다.
- 오공과 상오약이고 방풍、흑두、감초、인삼、황기、서각、동변、오구와

상오약이다. 두시 즙을 금한다. 대추살·이당·정화수는 부자독을 해독시킨다. 《본초강목》

○동변에 5일간 담갔다가 편으로 썰어서 껍질과 꼭지를 떼어내고 냉수에 다시 3일간 담갔다가 흑두·감초와 함께 달여 익으면 햇별이나 곁불에 말린다. **속방**

○인삼·숙지황은 치세(治世)의 좋은 재상과 같고 부자·대황은 난세(亂世)의 좋은 장수와 같다. 《경악전서》

川烏 烏頭

천오 오두

〔川烏〕大熱搜骨風，
濕痺寒疼破積功。²²

〔천오〕는 성미가 매우 뜨거우며 뼈에 든 풍사를 찾아낸다.

습비(濕痺), 한사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고 적취를 깨뜨리는 효능이 있다.

卽烏頭.

○製法同上，入鹽尤捷. 《本草》²³

곧, 오두이다.

○법제하는 방법은 위의 부자(附子)와 같다. 소금을 넣으면 더욱 효과가 빠르다. 《본초강목》

草烏 바곳

초오 바꽃

草烏熱毒治腫毒，
風寒濕痺皆可督.

초오는 성미가 뜨겁고 독성이 있으며 종독(腫毒)을 치료한다.

풍비, 한비, 습비를 모두 치료한다.

바곳.

○童便浸炒, 竹刀切或黑豆同煮. 《寶鑑》²⁴

○〈汁〉名, 射罔, 功用並同.

바꽃.

○동변에 담갔다가 볶아서 대나무 칼로 썰어서 쓰거나 흑두와 함께 삶아서 쓴다. 《동의보감》.

○〈바꽃즙〉은 사망(射罔)이라고 한다. 효능과 용법은 바꽃과 같다.

白附子 흰바곳

백부자 흰 바꽃

白附辛溫治面病,
血痺風瘡中風證.²⁵

백부자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얼굴에 생기는 병을 치료한다.

혈비(血痺)、풍창(風瘡)、중풍증을 낫게 한다.

흰바곳.

○入陽明.

○炮用.

○引藥上行. 《本草》

흰 바꽃.

○양명경에 들어간다.

○습지에 싸서 구워서 쓴다.

○약 기운을 이끌어서 상부로 올라가게 한다. 《본초강목》

南星 두어머조자기

남성 두어머조자기

南星性熱治痰厥,
破傷身強風搐發.

남성은 성미가 뜨거우며 담결(痰厥)을 치료한다.

파상풍으로 몸이 강직되었거나 풍사로 오그라드는 증상을 치료한다.

두어머조자기.

- 一名虎掌.
- 有毒.
- 入手足太陰.
- 炮用.
- 脾虛多痰, 以生薑滓和黃泥包煨.
- 薑汁白礬湯, 和南星末, 作餅, 包楮葉, 待上黃衣, 晒收, 名〈南星麴²⁶〉, 南星末, 納于臘牛膽, 懸風處乾, 名〈牛膽南星〉. 《本草》²⁷

두어머조자기.

- 호장(虎掌)이라고도 한다.
- 독성이 있다.
- 수태음경、족태음경에 들어간다.
- 습지에 싸서 구워서 쓴다.
- 비(脾)가 허하여 담이 많으면 생강 찌꺼기를 섞은 황토에 남성을 싸서 잿불에 묻어 구워서 쓴다.
- 생강즙이나 백반 달인 물에 남성 가루를 섞어서 떡을 만든 다음 닥나무 잎에 싸두었다가 윗부분에 누런 곰팡이가 끼면 꺼내어 햇볕에 쬘어 말려서 거둔다. 이것을 〈남성국(南星麴)〉이라고 한다. 남성을 가루 내어 납일(臘日)에 잡은 우담에 넣고 바람이 부는 곳에 매달아서 말린 것을 〈우담남성(牛膽南星)〉이라고 한다. 《본초강목》

半夏 식물웃

반하 끼무릇

半夏味辛咳嘔繩,
健脾燥濕痰頭疼.²⁸

반하는 성미가 매우며 기침과 구역을 멎게 한다.

비(脾)를 튼튼하게 하고 습을 말려주며 담결두통을 낮게 한다.

식물웃.

○入手太陽陽明太陰少陰.

○薑制者, 制其毒.

○陳者良.

○惡皂角, 畏雄黃、生薑、乾薑、秦皮、龜甲, 反烏頭, 忌羊血、海藻、飴糖.

○薑汁礬湯, 或加皂角汁, 或加竹瀝, 或加入白芥子, 隨症作麵²⁹, 名〔半夏麵³⁰〕. 《本草》³¹

끼무릇.

○수태양경、수양명경、수태음경、수소음경에 들어간다.

○생강으로 법제하면 반하독이 억제된다.

○오래 묵은 것이 좋다.

○조각은 상오약이고 웅황、생강、건강、진피、구갑은 상외약이며 모두는 상반약이다. 양의 피、해조(海藻)、이당을 금한다.

○생강즙과 백반을 넣고 달인 물에 조각즙이나 죽력이나 백개자 가루를 증상에 따라 더하여서 누룩을 만들어 쓴다.〔반하국(半夏麵)〕이라고 한다.《본초강목》

射干 범부채

사간 범부채

射干味辛通經瘀,
喉痺口臭癰毒除.³²

사간은 성미가 매우며 월경을 통하게 하고 어혈을 없앤다.
후비(喉痺)와 입 냄새를 없애고 응독을 제거한다.

범부채.

○寒毒.

범부채.
○성질이 차고 독성이 있다.

鳳仙子 봉선화씨, 急性子
봉선자 봉선화 씨, 급성자

鳳仙子溫能軟堅,
難產骨鯁噎可痊.³³

봉선자는 성미가 따뜻하며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한다.
난산을 치료하며 뼈나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을 낫게 한다.

봉선화씨³⁴.

- 一名急性子.
- 有小毒.
- 烹魚肉, 入數粒即爛.
- 服者不可着齒.
- 〈根葉〉治骨哽, 通經付杖腫. 《本草》³⁵

봉선화씨.
○급성자(急性子)라고도 한다.
○독성이 조금 있다.

- 생선이나 고기를 삶을 때 몇 알을 넣으면 곧 물러진다.
- 먹는 사람의 치아에 닿지 않아야 한다.
- 〈뿌리·잎〉 뼈가 목에 걸린 것을 치료한다. 경혈을 통하게 하니 맞아서 부은 곳에 붙여준다. 《본초강목》

芫花

원화

〔芫花〕苦寒消脹蠱，
瀉濕止咳嗽可吐。³⁶

〔원화〕는 성미가 쓰고 차며 고독으로 창만해지는 증상을 없애준다.
습사를 내려주며 기침을 멎게 하고 담을 토하게 한다.

溫毒.

- 醋煮.
- 反甘草. 《本草》

따뜻하고 독성이 있다.
○식초에 삶아서 쓴다.
○감초와 상반약이다. 《본초강목》

烟草 담배

연초 담배

烟草辛熱逐瘴痰，
寒毒風濕³⁷ 殺蟲堪.

연초(烟草)는 성미가 맵고 뜨거우며 산람장기와 담을 몰아낸다.
한사(寒邪)의 독과 풍습증을 없애고 벌레를 죽이는 데 쓸 만하다.

담비. 紀³⁸陽善行善散, 用於陰滯, 神效. 若陽盛氣越, 而多燥多火, 及氣虛多汗者, 不宜. 或多吸醉倒, 冷水一口解之, 卽醒, 若煩悶者, 用白糖解之. 《濟衆》

담배. 순정한 양(陽)의 기운을 지녀 잘 운행시키고 잘 발산시키니 음이 정체된 경우에 쓰면 신호하다. 양이 왕성하고 기가 넘쳐 많이 번조하고 화(火)가 많은 경우나 기가 허하고 땀이 많은 경우에는 쓰지 말아야 한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취하여 쓰러질 수 있다. 이 때는 냉수 한 모금을 먹이면 해독되어 곧 깨어난다. 담배를 피워서 가슴이 번조하고 답답한 경우에는 백당(白糖)을 먹이면 해독된다. 《제중신편》

1. 白水利 : 白利水氣 ※《제중신편》↩

2. 得蒜良 : 得大蒜良 ※《본초강목》↩

3. 鬼毒 : 鬼精蠱毒 ※《본초강목》↩

4. 오독\ue6bc기 : 오독\ueaab기 ※신정본 ↩

5. 蠱毒, 十二水, 腹滿急痛積聚, 中風皮膚疼痛, 吐逆. 本經 頸腋癰腫, 頭痛, 發汗, 利大小便. 瀉毒藥, 泄天行黃病溫瘡, 破癥結 ※《본초강목》↩

6. 漆 : 柒 ※신정본 ↩

7. 用生甘草湯、薺芎自然汁二味, 攪浸三日 ※《본초강목》♣※ 其水如墨汁, 乃漉出, 用東流水淘六、七次, 令水清爲度. ※《본초강목》↩

8. 通經 : 婦人血結月閉 ※《본초강목》↩

9. 熏齒出蟲 ※《의종손익부여》♣※ 通神 : 久服輕身, 使人健行, 走及奔馬, 強志益力, 通神見鬼. ※《본초강목》↩

10. 下胎 : 塗脚心, 若胎及衣下 ※《본초강목》↩

11. 蒸裹. : 蒸搗裹之 ※《본초강목》↩
12. 截痰瘡 : 截瘡吐痰 ※《본초강목》♣※ 傷寒熱 : 解傷寒熱 ※《본초강목》↩
13. 伏砒 : 伏砒石 ※《본초강목》↩
14. 腸澼瀉痢殺蟲蠱 : 蠱毒咳逆, 泄痢腸澼, 頭瘍疥癰惡瘡, 殺諸蟲毒 ※《본초강목》↩
15. 辛熱走不留 : 附子辛熱, 性走不守 ※《제중신편》♣※ 厥逆回陽 : 四肢厥逆, 回陽有功 ※《제중신편》↩
16. 啄 𪔑 喙 ※《본초강목》, 《동의보감》↩
17. 蔘 : 參 ※신정본 ↩
18. 童便 : ○○ ※중정본. 이미지에 "○○"로 표시되어 있음
童便 ※신정본 ↩
19. 烏薤 𪔑 烏韭 ※《본초강목》↩
20. 童便 : 干汁 ※중정본, 신정본 ↩
21. 棗肉、飴糖、井華水, 亦解毒. : 草烏、川烏、天雄、附子毒 ... 又棗肉、飴糖服之并解. 又乾薑煮汁冷飲之. 又多飲井水, 大吐瀉即愈. ※《동의보감》↩
22. 搜骨風 : 搜風入骨 ※《제중신편》
此類止能搜風勝濕 ※《본초강목》↩
23. 入鹽尤捷 : 且助下行之力. 入鹽尤捷. ※《동의보감》↩
24. 寶鑑 : 보감 ※신정본 ↩
25. 心痛血痺, 面上百病.....中風失音, 一切冷風氣.....疥癬風瘡 ※《본초강목》
↩
26. 麴 : 曲 ※신정본

麴 ※《본초강목》↩

27. 包楮葉, 待上黃衣, 晒收, : 楮葉包蓋, 待上黃衣, 乃取晒收 ※《본초강목》

♣※ 薑汁白礬湯 : 造南星麴法, 以薑汁、礬湯, 和南星末作小餅子... ↩

28. 健脾燥濕痰頭疼 : 健脾燥濕, 痰厥頭疼 ※《제중신편》↩

29. 麴 : 曲 ※신정본 ↩

30. 麴 : 曲 ※신정본 ↩

31. 治濕痰以薑汁、白礬湯和之, 治風痰以薑汁及皂莢煮汁和之, 治火痰以薑汁、竹瀝或荊瀝和之, 治寒痰以薑汁、礬湯, 入白芥子末和之, 此皆造麴妙法也. ※《본초강목》♣※ 痰病, 半夏爲主, 以生薑汁白礬湯浸制, 殺其辛味. 且造麴入藥, 尤佳. ※《동의보감》↩

32. 射干味辛 : 射干味苦 ※《제중신편》♣※ 通經 : 通女人月閉 ※《본초강목》↩

33. 軟堅 : 故能透骨軟堅 ※《본초강목》↩

34. 봉선화\ue77c : 봉선화씨 ※신정본 ↩

35. 通經, 付杖腫. : 杖撲腫痛, 散血通經. ※《본초강목》↩

36. 水蠱脹滿 ※《본초강목》↩

37. 寒毒風濕 : 一切陰邪寒毒, 山嵐瘴氣風濕 ※《본초강목습유》↩

38. 紀 純 ※중간본, 《의종손익부여》

紀 ※신정본 ↩

蔓草 三十一種

덩굴 31종

葦澄茄

필징가

〔葦澄茄〕辛消痰食,

逐鬼除脹噦可息.¹

〔필징가〕는 성미가 매우며 담을 삭이고 음식을 소화시킨다.

귀기(鬼氣)를 쫓아내고 창만을 제거하며 딸꾹질을 멎게 한다.

向陰者, 葦澄茄, 向陽者, 胡椒. 係嫩胡椒, 青時摘取者, 是也. 《本草》

음지를 향하여 자라는 것이 필징가(葦澄茄)이고, 양지를 향하여 자라는 것이 호초(胡椒)이다. 매달려 있는 여린 호초를 푸른빛일 때 채취한 것이 필징가이다. 《본초강목》

胡椒

호초

〔胡椒〕味辛下氣滯,

心腹冷痛跌撲劑.

〔호초〕는 성미가 매우며 응체된 기를 내려준다.

명치가 냉하고 아픈 경우와 타박상에 쓰는 약제이다.

多食損肺吐血, 殺魚肉鱉菌毒. 《本草》

많이 먹으면 폐가 손상되어 피를 토하게 된다. 생선·고기·자라·버섯의 독을 없앤다. 《본초강목》

薯蓣 마, 山藥

서여 마, 산약

薯蓣甘溫善補中，
理脾止瀉益腎功。

서여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속을 잘 보한다.

비(脾)를 다스려서 설사를 멎게 하고 신(腎)을 보익하는 효능이 있다.

마卽山藥，入手足太陰. 《本草》

마는 곧 산약(山藥)이다. 수태음경·족태음경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兔絲子 시삼씨

토사자 새삼 씨

兔絲甘平治夢遺，
添精强筋腰膝痠²。

토사자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몽설을 치료한다.

정(精)을 채워주고 근(筋)을 강하게 하며 허리와 무릎의 싸늘한 증상을 치료한다.

시삼씨³。

○酒浸四五日，蒸晒⁴作餅，入紙條數枚同搗，卽刻成粉. 《本草》

○古人不入煎藥，亦一失也。欲止消渴，煎湯，任意服之. 《景岳》⁵

새삼 씨.

◦술에 4 - 5일 담가두었다가 찌서 햇볕에 말려 갈아서 떡처럼 만든다. 볶에 말릴 때 종잇조각 몇 개를 넣고 함께 찢으면 곧바로 고운 가루가 된다. 《본초강목》

◦옛 사람들은 토사자를 전약(煎藥)에 넣지 않았으니 또 하나의 실수이다. 소갈을 멎게 하려면 토사자를 달인 탕을 임의대로 먹게 한다. 《경악전서》

沙參 더덕

사삼 더덕

沙參味苦風熱退,
消腫排膿補肝肺.⁶

사삼은 성미가 쓰며 풍증과 열증을 물리친다.

종독을 없애고 고름을 배출시키며 간과 폐를 보해준다.

더덕⁷.

◦微寒.

◦治疝久嗽. 《本草》

◦易老云, 人參補陽, 沙參補陰, 若對人參, 則相去遠矣. 《景岳》

더덕.

◦약간 차다.

◦산증(疝症)과 오랜 기침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역로가 "인삼으로 양(陽)을 보하고 사삼으로 음(陰)을 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삼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경악전서》

扁豆 번두콩

편두 번두콩

扁豆微凉酒毒却,

下氣和中轉筋霍.

편두는 성미가 약간 서늘하며 주독(酒毒)을 물리친다.

기를 내려주고 속을 고르게 하며 전근·곽란을 치료한다.

번두콩.

○〈花〉主帶下泄痢.

○〈藤、葉〉主霍⁸亂. 《本草》

번두콩.

○〈꽃〉 주로 대하와 설사·이질을 치료한다.

○〈덩굴·잎〉 주로 곽란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五味子 오미즈

오미자

五味酸溫能止渴,

久嗽虛勞金水竭.⁹

오미자는 성미가 시고 따뜻하며 갈증을 잘 멎게 한다.

오랜 기침·허로를 치료하고 폐금(肺金)과 신수(腎水)가 고갈된 것을 보한다.

오미즈.

○入手太陰血分、足太陰氣分.

○蜜蒸¹⁰, 入嗽藥生用.

○惡烏頭.

○味酸, 斂¹¹肺, 不宜多食, 恐成虛熱. 夏月常服, 以益肺金之氣, 在上滋源, 在下補腎.

○皮酸, 肉甘, 核辛苦, 都有醎, 此五味具. 《本草》¹²

오미자.

- 수태음경의 혈분과 족태음경의 기분에 들어간다.
- 꿀에 담갔다가 찐다. 기침을 치료하는 약에는 생것을 쓴다.
- 오두와 상오약이다.
- 성미가 시고, 폐기를 수렴하므로 많이 먹지 말아야 하니 허열이 생길 우려가 있다. 여름에 늘 먹으면 폐금(肺金)의 기를 보한다. 위로는 근원을 자유했주고 아래로는 신(腎)을 보해준다.
- 오미자 껍질은 성미가 시고, 과육은 성미가 달고, 씨는 성미가 맵고 쓰며, 전체적으로 짠 성미를 가지고 있으니 오미가 갖춰진 것이다. 《본초강목》

使君子

사군자

〔使君〕甘溫治諸蟲，
消痞清濁瀉痢功。¹³

〔사군자〕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각종 충병을 치료한다.

감병(痞病)을 없애고 소변이 탁한 것을 맑게 하며 설사와 이질 치료에 효능이 있다.

煨去殼.

- 治小兒百病，每月上旬侵晨，空腹食數枚¹⁴，或以殼煎湯嚥下，次日蟲皆死出。
- 〈殼〉亦殺蟲. 《本草》

젓불에 묻어 구워서 껍질을 벗겨서 쓴다.

- 소아의 온갖 병을 치료한다.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새벽마다 빈속에 몇 개를 먹거나 껍질을 달인 탕으로 삼키면 다음날 벌레가 모두 죽어서 나온다.
- 〈껍질〉도 벌레를 죽인다. 《본초강목》

木鱉

목별

〔木鱉〕甘溫追瘡毒，
消腫乳癰腰疼屬。¹⁵

〔목별〕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창독을 몰아낸다.

결종、유옹(乳癰)을 없애고 허리 통증 등을 낮게 한다.

狗食之立斃，非大毒，有如是乎。《景岳》

개가 목별을 먹으면 곧 죽으니 독성이 크지 않다면 이렇게 되겠는가. 《경악전서》

馬兜鈴 쥐방울

마두령 쥐방울

兜鈴苦寒熏痔漏，
定喘消痰肺熱嗽。

마두령은 성미가 쓰고 차며 치루에 훈증한다.

호흡이 가쁜 증상을 안정시키고 가래를 없애며 폐열로 인한 기침을 치료한다.

쥐방울¹⁶. 入手太陰. 《本草》

쥐방울. 수태음경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牽牛 黑丑

견우자 흑축

牽牛苦寒利水腫，
蠱脹疝癖散滯壅。¹⁷

견우는 성미가 쓰고 차며 수종(水腫)에 좋다.

고창(蠱脹)·헌벽(痲痺)을 치료하고 응종으로 막힌 것을 풀어준다.

一名黑丑.

○有毒, 白屬金, 黑屬水, 頭末用. 《本草》

흑축(黑丑)이라고도 한다.

○독성이 있다. 백축은 금(金)에 속하고 흑축은 수(水)에 속한다. 만물 가루를 쓴다. 《본초강목》

瓜蒌仁 하늘타리씨

과루인 하늘타리 씨

瓜蒌仁寒嗽痰剝,

傷寒結胸解煩渴.¹⁸

과루인은 성미가 차며 기침과 가래를 없앤다.

상한으로 인한 결흉을 치료하고 번갈을 풀어준다.

하늘타리씨¹⁹.

○以紙壓去油. 《本草》

하늘타리씨.

○종이로 눌러 기름기를 제거하고 쓴다. 《본초강목》

天花粉 하늘타리불휘, 苧蘿根

천화분 하늘타리 뿌리, 과루근

天花粉寒除熱痰,

排膿消毒煩渴堪.

천화분은 성미가 차며 열담(熱痰)을 제거한다.

고름을 배출시키고 독을 없애며 번갈에 쓸 만하다.

하늘²⁰타리불휘.

○卽苽蔓根.

○搗泥, 以絹濾汁, 澄粉晒乾.

○惡乾薑, 畏牛膝、乾漆, 反烏頭. 《本草》

하늘타리 뿌리.

○곧, 과루근이다.

○진흙처럼 질게 찼어 비단에 즙을 걸러내어 가라앉은 고운 가루를 햇볕에 말려서 쓴다.

○건강과 상오약이고 우슬、건칠과 상외약이며 오두와 상반약이다. 《본초강목》

葛根 츄불휘

갈근 칩 뿌리

葛根味甘解傷寒,

酒毒溫瘧渴並安.²¹

갈근은 성미가 달며 상한을 치료한다.

주독(酒毒)、온병(溫病)、학질、갈증을 아울러 안정시킨다.

츄²²불휘,

○入陽明.

○〈粉〉止渴利水, 解酒.

○〈花〉主消酒腸風.

○〈葉〉主金瘡止血. 《本草》²³

칫 뿌리,

○양명경에 들어간다.

○〈갈분〉 갈증을 멎게 하고 수기를 잘 통하게 한다. 주독을 해독한다.

○〈갈화〉 주로 주독과 장풍(腸風)을 풀어준다.

○〈잎〉 쇠붙이에 난 상처를 지혈시킨다. 《본초강목》

天門冬 홀아비쫄

천문동 홀아비쫄

天門甘寒肺癰痿,

喘嗽熱痰皆可宜.²⁴

천문동은 성미가 달고 차며 폐위(肺痿)로 폐옹(肺癰)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호흡이 가쁜 증상, 기침, 열증, 가래를 모두 치료한다.

홀아비쫄.

○入肺腎氣分.

○溫水浸, 去心.

○忌鐵.

○殺三蟲. 《本草》

홀아비쫄.

○폐경과 신경(腎經)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따뜻한 물에 담가두었다가 심을 빼내고 썬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삼시충을 죽인다. 《본초강목》

百部

백부

〔百部〕味甘骨蒸療,

殺疳蛔蟲久嗽解.

〔백부〕는 성미가 달며 골증열과 노채를 치료한다.

감병(疳病)과 회충(蛔蟲)을 없애고 오래된 기침을 낫게 한다.

微寒.

◦酒浸. 《本草》

성미가 약간 차다.

◦술에 담가두었다가 쓴다. 《본초강목》

何首烏 온조롱, 시박불휘

하수오 은조롱, 새박 뿌리

何首烏甘宜種子,

添精黑髮顏光美.

하수오는 성미가 달며 자식을 낳게 한다.

정(精)을 더해주며 머리를 검게 하고 얼굴빛을 좋게 한다.

江原道, 온조롱.

◦黃海, 시박불휘. 《寶鑑》

◦肝腎藥也. 白入氣, 赤入血.

◦米泔浸晒乾, 或米泔浸, 黑豆蒸, 晒乾, 再以豆蒸, 九蒸九晒.

◦忌鐵及諸血、無鱗魚、蘿菔、蔥、蒜, 伏朱砂. 《本草》²⁵

강원도에서는 '은조롱'이라고 한다.

◦황해도에서는 새박 뿌리라고 한다. 《동의보감》

◦간(肝)、신(腎)의 약이다. 백하수오는 기분에 들어가고 적하수오는 혈분에 들어간다.

○쌀뜨물에 담가두었다가 햇볕에 짚어 말린다. 또는 쌀뜨물에 담가두었다가 검은 콩과 같이 찐 후 하수오를 햇볕에 말린 후 다시 검은 콩과 함께 찐다. 이와 같이 구증구포한 다음에 쓴다.

○철기, 각종 피, 비늘 없는 해산물, 나복, 총백, 마늘을 금한다. 주사의 약성을 굴복시킨다. 《본초강목》

葶藶 열잇불휘, 竹木

비해 머래 뿌리, 죽목

〔葶藶〕甘溫三氣痺,

腰背冷疼添精餌.²⁶

〔비해〕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풍, 한, 습으로 인한 비증(痺症)을 치료한다. 허리와 등이 시리고 아픈 것을 낫게 하고 정(精)을 채우는 약이(藥餌)이다.

열잇불휘.

○一名竹木.

○入足陽明厥陰, 長于去風濕.

○酒浸.

○畏大黃、柴胡、前胡. 《本草》

머래 뿌리.

○죽목(竹木)이라고도 한다.

○족양명경, 족궤음경에 들어간다. 풍습을 제거하는 데 뛰어나다.

○술에 담가두었다가 쓴다.

○대황, 시호, 전호와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土茯苓 상비히, 仙遺糧

토복령 상비해, 선유량

土伏令淡可當穀,

止瀉去風輕粉毒.

토복령은 성미가 담담하며 곡식을 대신할 수 있다.
설사를 멎게 하고 풍증을 제거하며 경분독을 풀어준다.

상비하.

○一名仙遺糧.

○忌飲茶及牛、羊、鷄、鶩、魚肉、酒、麪、房事. 《本草》

상비해.

○선유량(仙遺糧)이라고도 한다.

○차를 마시는 것, 소, 양, 닭, 거위, 생선의 고기와 술, 밀가루 음식, 성생활을 금한다. 《본초강목》

白藪 가회톱

백렴 가회톱

白欬微寒癰疔聾,

兒瘡驚癇女陰腫.

백렴은 성미가 조금 차며 응종, 정창이 솟은 것을 치료한다.
소아의 학질, 경간, 여성의 음부가 붓는 증상을 치료한다.

가회톱.

가회톱.

山豆根 金鎖匙

산두근 금쇄시

〔山豆根〕苦咽腫痛,

蛇蟲所傷並可送.

〔산두근〕은 성미가 쓰며 인후가 붓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뱀이나 벌레에 물린 상처를 아물러 치료할 수 있다.

俗名金鎖匙.

민간에서는 금쇄시(金鎖匙)라고 한다.

葳靈仙 술위니모불휘

위령선 술위나물 뿌리

葳靈苦溫腰膝冷,

積痰瘀癰風濕並.

위령선은 성미가 쓰고 따뜻하며 허리와 무릎이 시린 증상을 치료한다.

적담(積痰)、헌벽(瘀癰)、풍습(風濕)을 아물러 낫게 한다.

술위니²⁷ 모 불휘.

○入太陽, 通十二經脉, 朝服暮效. 弱者不可服, 不聞水聲者佳.

○酒洗. 《本草》

술위나물 뿌리.

○태양경에 들어가며 12경맥을 통하게 한다.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효과가 난다. 허약한 사람은 먹을 수 없다. 물가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 캔 것이 좋다.

○술로 씻어서 쓴다. 《본초강목》

茜草 곡도손

천초 꼭두서니

茜草味苦主諸血，
損傷蟲毒及虛熱。

천초는 성미가 쓰며 여러 혈증을 치료한다.

다친 곳을 치료하고 고독과 허열을 낮게 한다.

꼭도손.

○入手足厥陰血分.

○忌鐵. 《本草》

꼭두서니.

○수궤음경、족궤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防己

방기

〔防己〕氣寒癰腫減，
風濕脚痛膀胱熱。

〔방기〕는 성질이 차며 옹종을 없앤다.

풍습으로 인한 다리 통증과 방광열을 치료한다.

入太陽，通行十二經.

○有下焦濕熱，然後審用. 《本草》

태양경에 들어가며 12경맥을 통하게 한다.

○하초에 습열이 있는 경우에만 조심해서 쓴다. 《본초강목》

通草 으름너출

통초 으름덩 굴

通草味甘治膀胱,

消癰散腫通乳房.

통초는 성미가 달며 방광을 치료한다.

옹을 없애고 부종을 흠어주며 젖을 잘 나오게 한다.

으름너출.

으름 덩쿨.

木通 으름나무모불휘

목통 으름나무 뿌리

木通性寒滯可寧,

小腸熱閉及通經.²⁸

목통은 성질이 차며 체한 것을 편하게 한다.

소장이 열로 막힌 것을 풀고 경락을 통하게 한다.

으름나무모불휘.

○入手厥陰、手足太陽.

○利水之功, 與琥珀同. 《本草》

으름나무 뿌리.

○수궐음경, 수태양경, 족태양경에 들어간다.

○수기를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호박(琥珀)과 같다. 《본초강목》

釣藤

조등

〔鉤藤〕微寒兒驚癇,

手足口眼痙攣刪.²⁹

〔조등〕은 성미가 약간 차며 소아의 경간을 치료한다.

손、발、입、눈에 생긴 경련을 없앤다.

入手足厥陰.

○取鉤用. 《本草》

수궐음경、족궐음경에 들어간다.

○가시가 달린 것을 쓴다. 《본초강목》

忍冬 겨우소리너출

인동 겨우살이 덩쿨

忍冬甘寒外感初³⁰,

熱痢熱渴並癰疽.

인동은 성미가 달고 차며 외감(外感)의 초기 증상을 치료한다.

열리, 열갈, 응저를 아울러 치료한다.

겨우소리너출.

○小寒, 一云溫, 卽金銀花³¹, 無毒, 忌鐵. 《本草》³²

겨우살이덩쿨.

○성질이 조금 차다. 따뜻하다고도 하다. 즉 금은화의 덩쿨이다. 독성이 없고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金銀花 겨우소리뽕, 忍冬花

금은화 겨우살이 꽃, 인동화

金銀花甘癰善退,

未成則散已成潰.

금은화는 성미가 달며 응저를 잘 낮게 한다.

응저가 아직 성하지 않은 것은 흠어주고 이미 돋은 것은 고름을 터뜨려준다.

겨우소리꽃³³.

○卽忍冬花, 四月采花, 陰乾. 忌鐵. 《本草》

겨우살이 꽃.

○즉, 인동화(忍冬花)다. 4월에 꽃을 캐어 그늘에 말려서 쓴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丁公藤 마가목, 南藤

정공등 마가목, 남등

丁公藤溫治腎衰,
風濕痺嗽及烏髭.³⁴

정공등은 성질이 따뜻하며 쇠해진 신장을 치료한다.

풍습비와 기침을 치료하고 머리를 검게 한다.

마가목.

○一名南藤.

마가목.

○남등(南藤)이라고도 한다.

絲瓜 수시외

사과 수세미오이

絲苳性冷主惡瘡,

痘疹乳瘤疔腫方.

사과(絲瓜)는 성미가 냉하며 주로 악창을 치료한다.

두진、유저(乳疽)、정종(疔腫)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수시외.

○解毒殺蟲, 通經下乳, 多燒存性. 《本草》³⁵

수세미 오이.

○해독 작용을 하고 충을 죽이며 경락을 잘 통하게 하여 젖이 잘 나오게 한다.

약성이 대부분 남도록 태워서 쓴다. 《본초강목》

1. 消痰食：化食, 消痰 ※《제중신편》♣※ 鬼：鬼氣 ※《본초강목》↩

2. 腰膝痠：腰疼膝冷 ※《본초강목》↩

3. ㄹue77c：씨 ※신정본 ↩

4. 研：斫 ※신정본 ↩

5. 入紙條數枚同搗：曝乾時, 入紙條數枚同搗 ※《본초강목》↩

6. 風熱退：退熱除風 ※《제중신편》♣※ 消腫：消腫毒 ※《본초강목》↩

7. 더덕： 더덕 ※신정본 ↩

8. 霍：藿 ※신정본 ↩

9. 益男子精.....生津止渴 ※《본초강목》↩

10. 蜜蒸：用蜜浸蒸 ※《본초강목》↩

11. 歛：斂 ※신정본 ↩

12. 蜜蒸：用蜜浸蒸 ※《본초강목》↩

13. 消疳清濁：小兒五疳, 小便白濁 ※《본초강목》↩

14. 枚 : 校 ※신정본 ←

15. 消腫 : 消結腫惡瘡 ※《본초강목》 ←

16. 을 : 울 ※신정본 ←

17. 水腫 : 療脚滿水腫 ※《본초강목》 ←

18. 解煩渴 : 消渴煩亂 ※《본초강목》

解渴止煩 ※《의종손익부여》 ←

19. \ue77c : 씨 ※신정본 ←

20. 날 : 날 ※증정본, 신정 ←

21. 溫瘡 : 解溫病發熱...亦療瘡及瘡 ※《본초강목》

溫瘡往來 ※《의종손익부여》 ←

22. 瘡 : 瘡 ※신정본 ←

23. 消酒〔別錄〕.....腸風下血. ※《본초강목》※ 金瘡止血, 按敷之 ※《본초강목》

←

24. 肺癰痿 : 肺萎生癰 ※《본초강목》

肺痿肺癰 ※《제중신편》※ 喘嗽熱痰皆可宜 : 消痰止嗽, 喘熱有功 ※《제중신편》 ←

25. 或米泔浸, 黑豆蒸, : 米泔浸一夜, 切片. 用黑豆三斗,.....砂鍋內鋪豆一層, 首烏一層, 重重鋪盡, 蒸之. ※《본초강목》 ←

26. 三氣痺 : 風寒濕周痺 ※《본초강목》 ←

27. 니 : 나 ※신정본 ←

28. 通經 : 血屬於心, 宜木通以通心竅, 則經絡流行也. ※《본초강목》 ←

29. 手足口眼瘖瘳 : 口眼相引, 目睛上搖, 手足掣縱 ※《本經續疏、釣藤》 ←

30

30. 外感初：或初起發熱 ※《본초강목·인동》↩

31. 滕 藤 ※《본초강목·인동》↩

32. 消腫散毒之要藥. ※《의종손익부여》↩

33. \ue688 : \ue9ea ※신정본 ↩

34. 風濕痺：風淫濕痺 ※《의종손익부여》↩

35. 通經：通經絡. ※《본초강목》↩



水草 十種

수초 10종

澤瀉 쇠귀늑 물불휘

택사 쇠귀나물 뿌리

澤瀉苦寒治腫渴,

除濕通淋陰汗過.¹

택사는 성미가 쓰고 차며 부종과 갈증을 치료한다.

습증을 제거하고 소변이 방울져 나오는 것을 통하게 하며 외음부 사이에 땀이 나는 증상을 멎게 한다.

쇠귀늑 물불휘.

○入足太陽少陰.

○酒浸一宿.

○畏文蛤.

○多服病眼.《本草》

쇠귀나물 뿌리.

○족태양경、족소음경에 들어간다.

○하룻밤 술에 담가두었다가 쓴다.

○문합과 상외약이다.

○많이 먹으면 눈병이 생긴다.《본초강목》

菖蒲 석창포

창포 석창포

菖蒲性溫開心竅，
去痺除風出聲妙。

창포는 성미가 따뜻하며 심규(心竅)를 열어준다.

저린 증상과 풍증을 제거하며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데 효능이 묘하게 좋다.

석창포.

○入手少陰厥陰.

○微炒.

○忌麻黃、飴糖、羊肉及鐵.

○解巴豆、大戟毒.《本草》

석창포.

○수소음경、수궐음경에 들어간다.

○약간 볶아서 쓴다.

○마황、이당、양고기와 철기 사용을 금한다.

○파두독、대극독을 해독한다.《본초강목》

蒲黃 부들싹

포황 부들 꽃

蒲黃味甘崩疹主，

生則破血炒可補。²

포황은 성미가 달며 붕루와 통증을 치료한다.

생것을 쓰면 어혈을 풀어주고 볶아서 쓰면 혈을 보해준다.

부들싹.

○入手足厥陰.《本草》

부들꽃.

○수곶음경, 족곶음경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浮萍 지구리밥

부평 개구리밥

浮萍辛寒利水腫,

暴熱身痒脚痺重.³

부평은 성미가 맵고 차며 수종을 잘 통하게 한다.

갑작스런 열, 몸이 가려운 증상, 각기, 마비에 쓰는 중요한 약이다.

지구리밥.

○入肺.

○楊花所化, 燒烟去蚊. 《本草》⁴

개구리밥.

○폐경(肺經)에 들어간다.

○버들나무 꽃이 변화한 것이라고도 한다. 부평 태운 연기는 모기를 쫓아낸다.

《본초강목》

海藻 물

해조 바닷말

海藻鹹寒消癭癰,

利水通關癥脹續.

해조는 성미가 짜고 차며 영류, 나력을 치료한다.

수기를 매끄럽게 하여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징가, 창만을 낮게 한다.

물.

○小毒.

○反甘草.

○黑色如亂髮. 《本草》

바닷말.

○독성이 약간 있다.

○감초와 상반약이다.

○뭉친 머리털 같은 검은색이다. 《본초강목》

海帶 다시마

해대 다시마

海帶味鹹疝可窒,

下水軟堅癭瘤結.⁵

해대는 성미가 짜며 산기(疝氣)를 막아준다.

수(水)를 내리고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하며 영류(癭瘤)와 결기를 풀어준다.

다시마. 下水, 勝海藻、昆布.

다시마. 수(水)를 내리는 효능이 해조(海藻)、곤포보다 낫다.

昆布

곤포

昆布鹹寒一切腫,

癭瘡癭瘤氣結壅.⁶

곤포는 성미가 짜고 차며 모든 부종을 치료한다.

누창(癭瘡), 영류, 결기, 응종을 낮게 한다.

곤포.

곤포.

海菜 머육, 甘霍

해채 미역, 감곽

海菜鹹寒下煩熱,

利水消癭及氣結.

해채는 성미가 짜고 차며 번열을 내린다.

수기를 잘 통하게 하고 영류와 결기(結氣)를 없애준다.

머육.

◦俗名甘霍.

미역.

◦민간에서는 감곽(甘霍)이라고 한다.

甘苔 단낙기

감태 단낙기

甘苔鹹寒痔與蟲,

霍亂吐瀉及熱中.⁷

감태는 성미가 짜고 차며 치질과 충병을 치료한다.

곽란、토사를 낮게 하며 속에서 열이 나는 증상을 제거한다.

단낙기.

단낙기.

鹿角菜 청각, 靑角

녹각채 청각

鹿角菜寒解麪毒,

小兒骨蒸與熱酷.

녹각채는 성미가 차며 면독(麵毒)을 풀어준다.

소아의 골증열과 심한 열에 쓴다.

청각.

○疑今靑角菜. 《寶鑑》

청각.

○지금의 청각(靑角)나물인 듯하다. 《동의보감》

1. 治腫渴：消腫脹，滲泄止渴 ※《본초강목》

消腫止渴 ※《제중신편》♣※ 治小便淋瀝，去陰間汗. ※《본초강목》↩

2. 崩疹主：止女子崩中.....止心腹諸痛 ※《본초강목》♣※ 炒可補：補血須炒

※《제중신편》↩

3. 脚痺重：主風濕麻痺，脚氣，打撲傷損，目赤翳膜，口舌生瘡，吐血衄血，癰

風丹毒. ※《본초강목》↩

4. 楊花所化：或云楊花所化. ※《본초강목》↩

5. 海帶味鹹疝可窒：海帶味鹹疝氣下水 ※《제중신편》♣※ 癭瘤結：癭瘤結氣

※《제중신편》↩

6. 一切腫：十二水腫 ※《제중신편》♣※ 癭瘤氣結：癭瘤聚結氣 ※《본초강목》

↩

7. 熱中 : 除心煩熱 ※《제중신편》↩



石草 二種

돌풀 2종

石斛 석곡풀

석곡 석곡풀

〔石斛〕味甘卻驚悸,
冷閉虛損壯骨餌.¹

〔석곡〕은 성미가 달며 경계(驚悸)를 물리친다.

냉하여 막힌 것, 허손을 치료하며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이(藥餌)이다.

석곡풀.

○入脾腎.

○酒浸或酥蒸.

○惡寒水石、巴豆, 畏雷丸蠶蚕. 《本草》

석곡풀.

○비경(脾經)、신경(腎經)에 들어간다.

○술에 담가두거나 연유를 발라 찌서 쓴다.

○한수석、파두는 상오약이고 뇌환、백강잠과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骨碎補

골쇄보

〔骨碎補〕溫骨節風,
折傷血積破血功.²

〔골쇄보〕는 성미가 따뜻하며 뼈마디에 풍이 든 것을 치료한다.

골절상, 뼈마디에 혈이 쌓인 것을 치료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

入腎.

◦酒蒸, 忌鐵. 《本草》

신경(腎經)에 들어간다.

◦술에 찌서 쓴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1. 卻驚悸 : 定志除驚 ※《본초강목》↩

2. 血積 : 風血積疼 ※《의종손익부여》♣※ 破血止血, 補傷折.〔開寶〕主骨中毒氣, 風血疼痛 ※《본초강목》↩

苔草 一種

이끼 1종

拳栢 부터손

권백 부처손

拳栢味苦癥瘕血¹,

風眩痿躄鬼疰截.²

권백은 성미가 쓰며 징가로 혈이 막힌 것을 치료한다.

두풍으로 어지러운 증상, 위궤(痿蹶)로 다리를 저는 증상, 귀주(鬼疰)를 없앤다.

부터손.

부처손.

1. 癥瘕血：癥瘕血閉 ※《본초강목》↩

2. 風眩痿躄：頭中風眩, 痿蹶 ※《본초강목》↩

香木 二十八種

향목 28종

側栢葉 측백낙모닙

측백엽 측백나무 잎

側栢葉苦生鬚眉,

吐衄崩痢濕並治.

측백엽은 성미가 쓰며 수염과 눈썹을 나게 한다.

토혈, 녹혈, 혈붕, 혈리, 습병을 아울러 치료한다.

측백낙모닙.

◦性溫, 一云寒.

◦酒蒸.

◦畏菊花、諸石、麪、麴, 伏砒、硝.

◦萬木向陽, 惟栢¹向西. 《本草》

측백나무 잎.

◦성질이 따뜻하다. 차다고도 한다.

◦술에 찌서 쓴다.

◦국화, 여러 광물, 밀가루, 누룩과 상외약이다. 비상, 초석의 약성을 굴복시킨다.

◦온갖 나무는 태양을 향하여 자라지만 오직 측백만 서쪽을 향하여 자란다.

《본초강목》

栢子

백자

〔栝子〕味甘汗可閉,

扶虛定悸補心劑.

〔백자〕는 성미가 달며 땀을 멎게 한다.

허로를 돕고 경계를 안정시키며 심(心)을 보하는 약제이다.

入肝經氣分.

○畏菊花.《本草》

간경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국화와 상외약이다.《본초강목》

松脂 송진, 瀝靑

송지 송진, 역청

松脂味甘補陰陽,

毆風安臟可貼瘡.

송지는 성미가 달며 음과 양을 모두 보해준다.

풍(風)을 몰아내고 장부를 편안하게 하며 상처에 붙여도 괜찮다.

송진.

○一名瀝靑.

○甘溫.

○伏汞.

○〈松節〉治脚痺風疰, 牙疼煎漱. 釀酒服, 治脚弱骨節風.

○〈花〉㉑²潤心肺, 多食發上焦熱.

○〈葉〉去風斷穀.《本草》

송진.

○역청(瀝靑)이라고도 한다.

○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수은의 약성을 굴복시킨다.

○〈송절(마디)〉 다리가 저리는 증상, 풍주(風疰)를 치료한다. 치아 통증이 있을 때 달여서 양치한다. 술을 빚어서 먹으면 다리가 무력해진 경우나 골절풍을 치료한다.

○〈송화〉 심폐를 자유했으며 많이 먹으면 상초에 열이 난다.

○〈송엽〉 풍증을 없애며 곡식을 낫을 수 있다. 《본초강목》

肉桂

육계

〔肉桂〕辛熱通血脈,

溫補虛寒腹痛劇.³

〔육계〕는 성미가 맵고 뜨거우며 혈맥을 통하게 한다.

속을 따뜻하게 보하여 허한(虛寒)하거나 배가 심하게 아픈 증상을 낫게 한다.

入足少陰太陰血分. 《本草》

○下焦虛寒, 法當引火歸元者, 則此爲要藥, 不可誤執. 《景岳》

○〈桂皮〉一名筒桂. 此桂嫩而易卷如筒, 故名. 爲諸藥先聘通使. 《本草》⁴

족소음경·족태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하초가 허하고 차면 당연히 화(火)를 이끌어 원기를 되돌려야 하니 육계가 중요한 약이 되지만 이 방법만을 고집하면 안 된다. 《경악전서》

○〈계피〉 통계(筒桂)라고도 한다. 이것은 계(桂)의 어린 껍질로 쉽게 대나무 통처럼 말려서 이름한 것이다. 여러 약의 선두에서 초빙하는 사신(使臣) 같은 약이다. 《본초강목》

桂心

계심

〔桂心〕苦辛心腹冷，
下胞失音蟲癰靖。⁵

〔계심〕은 성미가 쓰고 매우며 심장병과 뱃속이 찬 증상을 치료한다.
포의(胞衣)가 내려오게 하고 실음(失音), 충(蟲), 어혈을 평정한다.

入手少陰血分. 《本草》

수소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桂枝

계지

〔桂枝〕小梗行手臂，
止汗舒筋手足痺。

〔계지〕는 육계의 작은 가지로 손과 팔로 운행된다.
땀을 멎게 하고 근을 펴주며 손발이 저린 증상을 낮게 한다.

入足太陽. 《本草》

족태양경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辛夷 붓꽃

신이 붓꽃

辛夷味辛鼻流涕，
香臭不聞通竅劑。⁶

신이는 성미가 매우며 콧물이 흐르는 것을 멎게 한다.

코가 막혀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니 9궁(九竅)을 통하게 하는 약제이다.

붓꽃.

○入手太陰、足陽明.

○去毛微灸⁷.

○惡石脂, 畏菖蒲、黃連、石膏. 《本草》

붓꽃.

○수태음경、족양명경에 들어간다.

○잔털은 제거하고 약간 구워서 쓴다.

○적석지와 상오약이고, 창포、황련、석고와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沈香

침향

〔沈香〕煖胃兼逐邪,

降氣衛氣功難加.

〔침향〕은 위를 따뜻하게 하고 사기를 몰아낸다.

기를 내려주니 기를 지키는 데 이보다 효능이 좋은 것을 찾기 어렵다.

沈者上, 半沈次, 不見火. 《本草》⁸

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는 것이 상품(上品)이고 반만 가라앉는 것이 그 다음이

다. 불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한다. 《본초강목》

丁香

정향

〔丁香〕辛熱溫胃虛，
心腹疼痛寒嘔除。

〔정향〕은 성미가 맵고 뜨거우며 위허(胃虛)에 쓴다.
명치가 아프고 찬 증상을 치료하고 구역질을 없앤다.

雄爲丁香，雌爲鷄舌香，卽母丁香，氣味尤佳。

- 入手太陰. 足少陰陽明.
- 不見火.
- 畏鬱金. 《本草》
- 又治小兒吐瀉，痘瘡胃寒灰白不發. 《景岳》
- 〈皮〉主心腹冷氣. 《本草》⁹

숫꽃을 정향(丁香)이라고 한다. 암꽃을 계설향(鷄舌香), 곧 모정향(母丁香)이라고 하며 성미가 더욱 좋다.

- 수태음경、족소음경、족양명경에 들어간다.
- 불을 가까이하지 않도록 한다.
- 울금과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 소아의 구토、설사와 두창에 위가 차가워서 회백색을 띠며 수포가 돋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경약전서》
- 〈껍질〉 주로 명치에 냉한 기운이 있을 때 쓴다. 《본초강목》

檀香

단향

檀香味辛善治霍，
升胃進食鬼氣卻。

단향은 성미가 매우며 객란을 잘 치료한다.
위기를 올려주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며 귀기(鬼氣)를 물리친다.

〔白檀〕性溫, 氣分藥.

○入手太陰、足少陰, 通行陽明.

○〈紫檀〉鹹寒, 血分藥. 消腫, 治金瘡. 《本草》

○治霍亂心腹痛. 《神農》

〔백단향〕은 성미가 따뜻하며 기분(氣分)에 작용하는 약이다.

○수태음경、족소음경에 들어가며 양명경을 두루 돌아다닌다.

○〈자단향〉은 성미가 짜고 차며 혈분에 작용하는 약이다. 부종을 없애고 쇠붙이에 상한 것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곽란으로 명치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 《신농본초경》

川椒 초피나모여름, 蜀椒

천초 초피나무 열매, 촉초

川椒辛熱目可眇,

祛邪蟲冷溫不猛.¹⁰

천초는 성미가 맵고 뜨거우며 눈을 밝게 한다.

사기(邪氣), 충(蟲), 냉증을 없애준다. 성질이 따뜻하되 너무 뜨겁지는 않다.

초피나모여름.

○一名蜀椒.

○有毒.

○入手足太陰、腎命門氣分.

○閉口者, 殺人.

○得鹽味佳, 畏款冬花、防風、附子、雄黃, 可收水銀.

○微炒出汗.

○花椒卽秦椒, 葉實差大.

○〈椒目〉苦寒利水. 如人之瞳, 故謂之椒目. 《本草》¹¹

초피나무 열매.

○촉초(蜀椒)라고도 한다.

○독성이 있다.

○수태음경·족태음경·신경의 명분과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벌어지지 않은 것을 먹으면 죽는다.

○소금과 함께 쓰면 성미가 좋아진다. 관동화·방풍·부자·웅황과 상외약이다. 수은을 수렴할 수 있다.

○약간 볶아서 기름기가 나오게 한 후 쓴다.

○화초(花椒)는 곧, 진초(秦椒)인데 잎과 열매의 차이가 크다.

○〈초목(椒目, 천초씨)〉 성미가 쓰고 차며 수기를 잘 통하게 한다. 사람의 눈동자처럼 생겨서 초목(椒目)이라고 한다. 《본초강목》

吳茱萸

오수유

〔吳茱萸〕辛熱疝可安,

通治酸水臍腹寒.¹²

〔오수유〕는 성미가 맵고 뜨거우며 산증(疝症)을 안정시킨다.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과 배꼽 주위가 찬 증상을 두루 치료한다.

有小毒.

○入足太陰血分、少陰厥陰氣分.

○湯浸去苦烈汁七次, 始可焙用.

○惡丹參、消石, 畏紫石英.

○陳者良. 《本草》

독성이 조금 있다.

○족태음경의 혈분, 소음경·궤음경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뜨거운 물에 우려서 쓴맛을 빼내기를 7차례 하고 나서 비로소 곁불에 말려서

쓴다.

○단삼·소석과 상오약이고, 자석영과 상외약이다.

○오래 묵은 것이 좋다. 《본초강목》

檳榔

빈랑

〔檳榔〕辛溫痰水壅,

破氣殺蟲除後重.¹³

〔빈랑〕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담(痰)과 수(水)로 막힌 것을 치료한다.

울체된 기를 깨뜨리고 충을 죽이며 후중(後重)을 낮게 한다.

勿令經火, 近世亦有煨焙用者.

○向陽者, 檳榔. 向陰者, 大腹子. 《本草》

○陰¹⁴, 煎洗卽除. 《備要》

불에 익히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요즘에는 잿불에 묻어 굽거나 곁불에 찌어 말려서 쓴다.

○태양을 향하여 자라는 것이 빈랑이고 음지를 향하여 자라는 것이 대복자이다. 《본초강목》

○음슬창(陰蝨瘡)에 빈랑을 달여서 씻으면 바로 낫는다. 《본초비요》

腹皮

대복피

〔腹皮〕微溫下膈氣,

健脾消腫¹⁵ 且安胃.

〔대복피〕는 성미가 약간 따뜻하며 막힌 기를 내려준다.

비(脾)를 튼튼하게 하고 부종을 없애며 위(胃)를 편안하게 한다.

有鵝毒, 酒洗後大豆汁洗.¹⁶

짐새의 독이 묻어 있으므로 술로 씻은 후 대두 즙으로 씻어서 쓴다.

枳椇

지구

〔枳椇〕甘平解酒擅,

止渴去煩通二便.

〔지구〕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주독을 해독하는 데 효능이 뛰어나다.

갈증을 멎게 하고 번조를 없애며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枇杷葉

비파엽

〔枇杷葉〕苦偏理肺,

解酒清上兼吐穢.

〔비파엽〕은 성미가 쓰며 폐만 다스린다.

술을 해독하고 상초를 식혀주며 오물을 토하는 것을 치료한다.

平寒.

○火灸, 以布拭去毛.

○治肺胃病. 《本草》

성미가 평하고 차다.

○불에 구워서 베 보자기로 털을 훔쳐내고 쓴다.

○폐와 위(胃)의 병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烏藥

오약

〔烏藥〕辛溫心腹脹，
小便滑數順氣暢。¹⁷

〔오약〕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배가 창만한 증상을 치료한다.
소변이 빈번하게 줄줄 새는 것을 치료하고 기를 순환시켜 잘 열어준다.

入足陽明少陰.《本草》

족양명경、족소음경에 들어간다.《본초강목》

乳香 薰陸香

유향 훈륙향

〔乳香〕辛苦止痛奇，
心腹即安癰生肌。¹⁸

〔유향〕은 성미가 맵고 쓰며 통증을 신기하게 멎게 하니,
명치가 바로 편안해지고 상처에 새살이 돋는다.

一名薰陸香.

- 辛熱微毒.
- 善竄，入手少陰.
- 微炒不粘，或燈心或糯米數粒同研，易細.《本草》

훈륙향(薰陸香)이라고도 한다.

- 성미가 맵고 뜨거우며 독성이 약간 있다.
- 잘 스며들어 수소음경에 들어간다.

○끈적이지 않게 약간 볶거나 등심이나 찹쌀 몇 알을 넣고 함께 갈면 곱게 갈기 쉽다. 《본초강목》

沒藥

몰약

〔沒藥〕溫平能破血，
撲損瘡傷痛可絕.

〔몰약〕은 성미가 따뜻하고 평하며 어혈을 깨뜨린다.
타박으로 손상된 상처를 치료하고 통증을 멎게 한다.

血竭 騏驎竭

혈갈 기린갈

〔血竭〕味鹹跌撲傷，
破血功及惡毒瘡.

〔혈갈〕은 성미가 짜며 타박상에 쓴다.
어혈을 풀어주는 데 효능이 좋고 악독(惡毒)、악창(惡瘡)을 치료한다.

一名騏驎竭.

○入手足厥陰血分.

○得密陀僧良. 《本草》

기린갈(騏驎竭)이라고도 한다.

○수궐음경、족궐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밀타승과 함께 쓰면 좋다. 《본초강목》

安息香 북드모진

안식향 북나무 진

安息香辛辟邪惡，
逐鬼消蠱鬼胎落。¹⁹

안식향은 성미가 매우며 사기(邪氣)와 악기(惡氣)를 물리친다.
시체에서 전염된 주병(疰病)을 몰아내고 고독을 없애며 이상발육된 태막을 나
오게 한다.

북드모진²⁰.

○黑黃色燒熏，鬼悵²¹神散. 《本草》

북나무 진.

○다갈색이 되도록 태우면서 연기를 내면 귀신이 두려워하여 흩어진다. 《본초
강목》

蘇合香

소합향

〔蘇合香〕甘殺鬼惡，
蠱毒癰瘰夢魘藥.

〔소합향〕은 성미가 달며 귀기(鬼氣)와 악기(惡氣)를 없앤다.
고독, 간질, 가위 눌림을 낫게 하는 약이다.

龍腦 片腦, 氷片

용뇌 편뇌, 빙편

〔龍腦〕味辛治狂燥²²,

喉痺目痛妄言譟.

〔용뇌〕는 성미가 매우며 미쳐 날뛰는 증상을 치료한다.

후비(喉痺)와 눈의 통증을 치료하고 헛소리를 떠들어 대는 것을 낮게 한다.

一名片腦, 俗呼冰片.

○微寒, 或辛溫.

○合糯米炭貯之不耗. 《本草》

편뇌(片腦)라고도 한다. 민간에서는 빙편(冰片)이라고 부른다.

○성질이 약간 차다. 맵고 따뜻하다고도 한다.

○찹쌀을 태운 재와 함께 보관해두면 향이 소모되지 않는다. 《본초강목》

阿魏

아위

〔阿魏〕性溫除癥結,

却鬼殺蟲傳尸滅.²³

〔아위〕는 성미가 따뜻하며 징가와 뭉친 것을 제거한다.

귀사(鬼邪)를 물리치고 충(蟲)을 죽이며 전시(傳尸)를 사멸시킨다.

蘆薈

노회

〔蘆薈〕氣寒殺蟲疳,

癲癇驚搐俱可堪.²⁴

〔노회〕는 성미가 차며 충을 죽이고 감병(疳病)을 없앤다.

전간、경축(驚搐)에 모두 쓸 만하다.

入厥陰.

◦煨用. 《本草》

◦胃寒泄瀉者, 禁用. 《經疏》

꺇음경에 들어간다.

◦불에 달꺇서 쓴다. 《본초강목》

◦위한(胃寒)으로 설사할 때는 사용을 금한다. 《본경소증》

胡桐淚

호동루

〔胡桐淚〕寒風蟲齒,

殺火麪毒瘰癧始.

〔호동루〕는 성미가 차며 풍치·충치를 치료한다.

화독·면독을 없애고 나력 치료 초기에 쓴다.

投少許於醋中, 便沸者眞. 《本草》

약간을 식초에 떨어뜨려서 바로 끓어오르는 것이 진품이다. 《본초강목》

茶茗 작설차

다명 작설차

茶茗味苦熱渴息,

上清頭目下消食^{25 26}.

다명(茶茗)은 성미가 쓰며 열갈을 식혀준다.

상초를 식혀주고 머리와 눈을 치료하며 기를 내려주고 음식을 소화시킨다.

작설차.

◦早採爲茶, 晚採爲茗. 《本草》

작설차.

ㅇ이른 아침에 탄 잎을 다(茶)라고 하고 저녁에 탄 잎을 명(茗)이라고 한다. 《본초강목》

黃梅 싱강나모

황매 생강나무

黃梅微溫治腹痛,

産後寒熱痰瘀控.

황매는 성미가 약간 따뜻하며 복통을 치료한다.

산후 오한발열, 담(痰), 어혈을 없애준다.

싱강나모.

생강나무.

1. 柏 : 栝 ※신정본, 《의종손익부여》↩

2. ㉠ 主 ※증정본, 신정본
《의종손익부여》↩

3. 溫補虛寒腹痛劇. : 腹痛虛寒, 溫補可得. ※《제중신편》
心腹寒熱冷痰.....秋冬下部腹痛 ※《본초강목》↩

4. 爲諸藥先聘通使. : 宣導百藥, 爲之先聘通使, 如執圭之使也 ※《본초강목》
↩

5. 心腹冷 : 九種心痛, 腹內冷氣痛不可忍, 咳逆結氣壅痺. ※《본초강목》↩

6. 香臭不聞通竅劑 : 利九竅, 通鼻塞涕出 ※《본초강목》↩

7. 灸：灸 ※신정본 ←

8. 沈者上：木之心節置水則沈, 故名沈水 ※《본초강목》 ←

9. 痘瘡胃寒灰白不發：痘雖起發, 若灰白色或頂陷者, 氣虛也, 切不可用寒涼之藥. 須六氣煎加丁香、川芎、人乳、好酒主之. ※《경악전서》 ←

10. 溫不猛：溫而不猛 ※《제중신편》 ←

11. 入手足太陰、腎命門氣分：乃手足太陰、右腎命門氣分之藥 ※《본초강목》

男子以右腎爲命門 ※《동의보감》 ←

12. 疝可安：能調疝氣 ※《제중신편》 ←

13. 痰水壅：消穀逐水, 除痰癖 ※《본초강목》

逐水祛痰 ※《제중신편》※ 破氣：破胸中氣 ※《본초강목》 ←

14. 蟲：蟲 ※《본초강목》 ←

15. 消腫：浮腫消去 ※《제중신편》 ←

16. 大豆汁洗：大豆汁洗晒 ※《의종손익부여》 ←

17. 順氣暢：順氣通用 ※《제중신편》 ←

18. 止痛心腹尤良 ※《제중신편》

心腹痛要藥 ※《본초강목》 ←

19. 逐鬼：逐鬼疰 ※《본초강목》 ←

20. 북\ue38a모진：북\ue283모진 ※중정본, 신정본 ←

21. 惧：懼 ←

22. 燥：躁 ※《본초강목》 ←

23. 除癥結 : 除癥破結 ※《제중신편》↩

24. 殺蟲疳 : 療五疳, 殺三蟲 ※《본초강목》

殺蟲消疳 ※《제중신편》↩

25. 下消食 ㉞ 下氣消食 ※《본초강목》↩

26. 上清頭目 : 上清矣...利頭目 ※《본초강목》♣※ 下消食 ㉞ 下氣消食 ※《본초강목》↩



喬木 二十種

교목 20종

黃栢 황벽나보겍질, 黃蘗

황백 황벽나무 겍질, 황벽

黃栢苦寒主降火,

濕熱骨蒸下血可.

황백은 성미가 쓰고 차며 주로 화(火)를 내려준다.

습열(濕熱), 골증열(骨蒸), 하혈을 치료한다.

황벽나보¹ 겍질.

○一名黃蘗.

○入足少陰、足太陽, 引經藥.

○生用瀉實火, 熟用不傷胃, 酒制治上, 鹽制治下, 蜜制治中.

○惡乾漆, 伏硫黃, 忌鐵. 《本草》

○火盛, 童便² 蒸. 《入門》

○近時補陰藥, 往往以知栢爲君, 受傷眞陽, 致生他病. 《景岳》³

황벽나무 겍질.

○황벽(黃蘗)이라고도 한다.

○족소음경、족태양경으로 이끄는 인경약이다.

○생것으로 쓰면 실화(實火)를 사해주고 익혀서 쓰면 위(胃)가 상하지 않는다.

술로 법제하면 상초를 치료하고 소금에 법제하면 하초를 치료하며 꿀에 법제하면 중초를 치료한다.

○건칠과 상오약이다. 유향의 약성을 굴복시킨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

강목》

- 화(火)가 성할 때는 동변에 찌서 쓴다. 《의학입문》
- 요즘은 음(陰)을 보하는 약으로 종종 지모와 황백을 군약으로 쓰지만 진양(眞陽)이 상해서 다른 병이 생기게 된다. 《경약전서》

厚朴

후박

厚朴苦溫消脹滿，
痰氣瀉痢不可緩。⁴

- 후박은 성미가 쓰고 따뜻하며 창만을 없애준다.
- 담(痰)을 없애고 기를 내려주며 설사와 이질에 쓰면 효과가 빠르다.

屬土有火.

- 薑汁炒.
- 乾薑爲使, 惡澤瀉、消石、寒水石, 忌豆. 《本草》
- 產濟州.

- 토(土)에 속하며 화(火)를 지니고 있다.
- 생강즙에 축여 볶아서 쓴다.
- 건강을 사약(使藥)으로 쓴다. 택사、소석、한수석과 상오약이며 콩을 금한다. 《본초강목》
- 제주도에서 생산된다.

杜冲

두충

〔杜冲〕辛甘固精能，
小便淋瀝腰膝疼.

〔두충〕은 성미가 맵고 달며 정(精)을 견고하게 해준다.

소변을 찢끔찢끔 지리는 증상을 치료하고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없애준다.

性溫.

○入肝補腎.

○酥或蜜灸, 或薑汁炒, 以絲斷爲度.

○惡玄參、蛇皮.

○忌鐵. 《本草》

성미가 따뜻하다.

○간경으로 들어가 신(腎)을 보한다.

○연유나 꿀에 축여 굽거나 생강즙에 축여 볶아서 쓴다. 두충의 실이 제거될 때까지 여러 번 한다.

○현삼、사퇴과 상오약이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樗根 기죽나모불휘겍질

저근 가죽나무뿌리겍질

樗根味苦腸風痔,

瀉痢崩濕澁精髓.⁵

저근은 성미가 쓰며 장풍(腸風)과 치질에 쓴다.

설사、이질、붕루를 치료하며 습을 말리고 정(精)과 골수를 잘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기⁶ 죽나모불휘겍질. 炒或蜜灸. 《丹心》

가죽나무 뿌리겍질. 볶거나 꿀에 축여 구워서 쓴다. 《단계심법》

乾漆 마른옷

건칠 말린 옷

乾漆辛溫主殺蟲，
通經破瘀追積聚。⁷

건칠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주로 고독을 낮게 한다.
월경을 잘 통하게 하고 징가를 깨뜨리며 적취를 몰아낸다.

마른옷.

- 炒熟，不爾損人腸胃，或燒存性.
- 畏鷄子，忌油脂.《本草》
- 畏漆者，鷄子清和藥.《正傳》
- 〈生漆〉去長蟲⁸.
- 蟹黃化漆爲水.《入門》

말린 옷.

- 충분히 볶아서 쓰니 볶지 않으면 사람의 장위(腸胃)를 손상시킨다. 또는 약성이 남도록 태워서 쓴다.
- 계란과 상외약이다. 기름진 것을 금한다.《본초강목》
- 옷이 오를까 두려우면 달걀흰자를 약에 섞어서 쓴다.《의학정전》
- 〈생옷〉 회충을 제거한다.
- 해황(蟹黃)은 옷을 녹여 물이 되게 한다.《의학입문》

海桐皮 엄나무껍질

해동피 엄나무 껍질

海桐皮苦腰脚痺，
疳癰風氣瀉與痢。⁹

해동피는 성미가 쓰며 허리와 다리의 마비를 치료한다.

감병(疝病), 개선, 풍의 기운, 설사와 이질을 치료한다.

엄나무껍질.

엄나무 껍질.

練根

고련근

練根性寒迫諸蟲,

能止疼痛積聚功.

고련근은 성미가 차며 여러 충을 몰아낸다.

통증을 멎게 하고 적취를 없애는 효능이 있다.

雄者根赤有毒, 雌者入藥, 每一兩, 以糯米五十粒, 同煎殺毒. 《本草》

○惟濟州有之. 《寶鑑》

수련근은 뿌리가 붉고 독성이 있다. 암련근을 약에 넣는 데 1냥마다 찹쌀 50알

을 넣어 함께 달이면 독이 제거된다. 《본초강목》

○오직 제주도에서만 생산된다. 《동의보감》

楝子 金鈴子

연자 금령자

〔楝子〕味苦治傷寒,

膀胱疝氣水濕安.¹⁰

〔연자〕는 성미가 쓰며 상한을 치료한다.

방광의 산기(疝氣)를 낮게 하고 수습(水濕)을 안정시킨다.

一名金鈴子.

금령자(金鈴子)라고도 한다.

槐花 회화나모꽃

괴화 회화나무 꽃

槐花味苦殺蛔蟲,
熱痢痔漏及腸風.¹¹

괴화는 성미가 쓰며 회충을 죽인다.

열리(熱痢)·치루·장풍(腸風)을 치료한다.

회화나모꽃.

○入陽明厥陰血分.

○〈實〉治腸風, 殺蟲, 墮胎.

○〈枝〉煮洗陰濕, 〈白皮〉煎, 洗五痔. 《本草》¹²

회화나무 꽃.

○양명경·궐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열매〉장풍(腸風)을 치료하며 충을 죽인다. 유산시킨다.

○〈가지〉를 삶은 물로 음습창을 씻어 준다. 〈뿌리의 흰껍질〉 달여서 5치(五痔)의 환부를 씻어준다. 《본초강목》

秦皮 무릎에겍플

진피 물푸레 껍질

秦皮苦寒治熱痢,

煎洗目腫兼風淚.

진피는 성미가 쓰고 차며 열리를 치료한다.

진피를 달여서 눈을 씻어주면 부종과 풍루(風淚)가 낫는다.

무릎에 곱들.

물푸레 껍질.

牙皂 주엽나모여름

저아조협 주염나무 열매

牙皂味辛通關竅,

敷腫消痛吐痰妙.¹³

저아조협은 성미가 매우며 관절과 9구를 잘 통하게 해준다.

부종을 풀어주고 통증을 없애며 담을 게우게 하는 데 효과가 묘하게 좋다.

주엽나모여름.

○性溫.

○入手太陰陽明厥陰氣分.

○蜜炙¹⁴, 酥炙¹⁵.

○惡天門冬, 畏人參、苦參, 伏丹砂、硫黃、硃砂.

○〈子〉主治風, 潤腸. 《本草》

주염나무 열매.

○성질이 따뜻하다.

○수태음경、수양명경、수궐음경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꿀에 축여 굽거나 연유에 축여 구워서 쓴다.

○천문동과 상오약이고 인삼、고삼과 상외약이다. 단사、유황、요사의 약성을 굴복시킨다.

○〈씨〉풍(風)을 낮게 하고 장을 원활하게 한다. 《본초강목》

皂角刺

조각자

皂角刺溫下胞蟲,
妬乳癰瘡及大風.¹⁶

조각자는 성미가 따뜻하며 포의(胞衣)를 내려오게 하고 충을 없앤다.

젖몸살, 응종, 악창, 대풍창을 치료한다.

引藥上行.

○又能治癰疽潰處.《本草》

약 기운을 상초로 이끈다.

○또 응저로 문드러진 곳을 치료한다.《본초강목》

訶子 訶黎勒

가자 가리륵

〔訶子〕味苦澁腸可,
痢嗽痰喘降肺火.¹⁷

〔가자〕는 성미가 쓰고 장을 잘 새어나가지 않게 한다.

이질, 기침, 가래, 호흡이 가쁜 증상을 낮게 하고 폐화(肺火)를 내려준다.

性溫.

○一名訶黎勒.

○治崩帶安胎.

○泄氣氣虛者, 似難輕服.《本草》

○麪裹煨, 或酒蒸.《入門》

성미가 따뜻하다.

○가리락(訶黎勒)이라고도 한다.

○붕루·대하를 치료하고 태를 안정시킨다.

○기가 새어나가 허해진 사람에게는 경솔히 복용시키기 어려울 듯하다. 《본초강목》

○밀가루 반죽에 싸서 잣불에 묻어 굽거나 술에 찌서 쓴다. 《의학입문》

水楊 기버들

수양 갯버들

水楊苦平癰腫瘰,

久痢赤白浴發痘.

수양은 성미가 쓰고 평하며 옹종(癰腫)과 누창을 치료한다.

오래된 이질이나 적백리를 치료하고 수양 달인 물로 목욕하면 두창을 겉으로 돋아나게 한다.

기버들¹⁸

○〈垂絲柳〉甘溫, 解酒, 利小便.

○〈柳絮〉버들개야지, 治濕痺黃疸, 金瘡止血. 可以代羊毛爲茵蓐, 小兒臥, 尤佳, 着衣物生蟲, 入池沼, 化爲浮萍.

○〈葉〉主煎洗漆瘡.

○〈枝〉煮酒漱齒痛.

○〈白楊〉스시나모곶풀, 治脚腫風毒. 《本草》¹⁹

갯버들.

○〈수사류(垂絲柳, 능수버들)〉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주독을 해독하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유서(柳絮)〉버들강아지. 습비·황달을 치료하고 쇠붙이에 난 상처를 지혈시킨다. 양털을 대신해서 버들강아지로 요이불(茵蓐)을 만들 수 있으며 소아

가 눅기에 더욱 좋다. 옷에 들러붙으면 벌레가 생기고 연못에 들어가면 부평으로 변화된다.

○〈잎〉 달여서 칠창(漆瘡)을 씻어주면 낫는다.

○〈가지〉 치통에는 가지를 술에 삶은 물로 양치한다.

○〈백양〉 사시나무 껍질이다. 풍독(風毒)이나 다리가 부은 것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榆皮 늘음나무껍질

유피 느릅나무 껍질

榆皮味甘利關節,
通水除淋腫痛^{20 21}.

유피는 성미가 달며 관절을 부드럽게 한다.

수도를 잘 통하게 하여 소변이 방울지는 증상을 제거하며 부종과 통증을 멎게 한다.

늘음나무껍질.

○濕搗如糊, 粘瓦石. 《本草》

느릅나무 껍질.

○습기가 남아있을 때 찜으면 풀처럼되니 점성이 기와나 돌을 붙일 정도이다.

《본초강목》

蕪荑

무이

〔蕪荑〕味辛毆邪蟲,
疥癬痔瘻²²滯及風.²³

〔무이〕는 성미가 매우며 사기와 충을 몰아낸다.
개선, 치질, 영류, 체기와 풍증을 낮게 한다.

蘇木 다목, 蘇方木

소목 다목, 소방목

〔蘇木〕甘鹹行積血,
産後月經兼撲跌.²⁴

〔소목〕은 성미가 짜며 쌓인 혈을 풀어준다.
산후 월경을 고르게 하고 타박상을 치료한다.

다목.

- 一名蘇方木.
- 入三陰血分, 少用和血, 多用破血. 《本草》

다목.

- 소방목(蘇方木)이라고도 한다.
- 삼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조금 쓰면 혈을 고르게 하고 많이 쓰면 어혈을 풀어준다. 《본초강목》

樺皮 붓갹풀

화피 벗 갹질

樺皮苦平乳癰疽,
肺風癰疹痘毒散.

화피는 성미가 쓰고 성질이 평하며 유옹과 황달을 치료한다.
폐풍, 은진(癰疹), 두창 독을 흩어준다.

벗겉풀.

◦産咸鏡道.

벗 겉질.

◦함경도에서 생산된다.

棕櫚皮 종려

종려피 종려

棕櫚皮澁專主血,

吐衄崩帶血淋絶.

종려피는 성미가 짝으며 혈증을 전문으로 치료한다.

토혈, 녹혈, 봉루, 대하를 치료하고 소변에 피가 섞여 방울져 나오는 증상을 없애준다.

종려²⁵.

◦燒黑用, 與亂髮同用, 更良. 《本草》

종려.

◦검게 태워서 쓴다. 난발(亂髮)과 함께 쓰면 더욱 좋다. 《본초강목》

巴豆

파두

〔巴豆〕辛熱治痰崇,

胃寒癥積大通利.²⁶

〔파두〕는 성미가 맵고 뜨거우며 담(痰)과 사수(邪祟)를 치료한다.

위한(胃寒), 징가, 적취를 치료하며 크게 통리시킨다.

大毒.

- 畏大黃、黃連、藜蘆、²⁷、豉、冷水, 得火良, 與牽牛相反.
- 以紙壓去油, 謂之霜, 或燒存性用.
- 斬關奪命之將.
- 鼠食而肥. 《本草》²⁸

독성이 크다.

- 대황、황련、여로、장(醬)、두시、냉수와 상오약이다. 불과 함께 쓰면 좋다. 견우(牽牛)와는 서로 상반약이다.
- 종이로 눌러서 기름기를 제거한 것을 파두상(巴豆霜)이라고 한다. 혹은 약성이 남도록 태워서 쓴다.
- 파두는 빗장을 부수고 목숨을 빼앗는 장수처럼 위험하다.
- 쥐가 먹으면 살이 찐다. 《본초강목》

1. 보 : 모 ※신정보본 ←

2. 童便 : 人乳 ※중정보본

童便 ※신정보본 ←

3. 縱欲求嗣之人, 用補陰藥, 往往以此二味爲君, 日日服餌. 降令太過, 脾胃受傷, 眞陽暗損, 精氣不暖, 致生他病 ※《본초강목》←

4. 痰氣 : 消痰下氣 ※《본초강목》※ 瀉痢不可緩 : 瀉痢其功不緩 ※《제중신편》←

5. 利溺澀. 〈雷斅〉治赤白濁, 赤白帶, 濕氣下痢, 精滑夢遺, 燥下濕, 去肺胃陳積之痰. ※《본초강목》←

6. 기 : 가 ※중정보본, 신정보본 ←

7. 通經 : 女人經脈不通 ※《본초강목》←

8

8. 長蟲：經曰，蛔者，長蟲也 ※《동의보감》↩

9. 腰脚痺：腰脚麻痺 ※《의종손익부여》

腰脚麻痺 ※《제중신편》♣※ 疳癰風氣：瀉痢疳癰，善除風氣. ※《의종손익부여》

↩

10. 練子：苦棟《圖經》，實名金鈴子 ※《본초강목》↩

11. 熱痢痔漏：赤白痢，並炒研服.〈大明〉涼大腸. ※《본초강목》↩

12. 白皮：根白皮 ※《본초강목》♣※ 陰濕：陰囊下濕癢 ※《본초강목》↩

13. 通關竅：利九竅...通關節. ※《본초강목》♣※ 吐痰妙：此證風涎潮於上，胸痺氣不通，宜用急救稀涎散吐之. ※《본초강목》↩

14. 灸：灸 ※신정본, 《의종손익부여》↩

15. 灸：灸 ※신정본

灸 ※《의종손익부여》↩

16. 下胞：胎衣不下 ※《본초강목》♣※ 妬乳：或斷乳之時，捻出不盡，皆令乳汁停蓄其間，與血氣搏，始而腫痛，繼而結硬，至於手不能近，則謂之妬乳. ※《동의보감》♣※ 妬乳癰腫惡瘡大風 ※《의종손익부여》↩

17. 降肺火：降火欬肺 ※《제중신편》↩

18. 耑：耑 ※신정본 ↩

19. 可以代羊毛爲茵蓐，小兒臥，尤佳：柳絮可以捍氈，代羊毛爲茵褥，柔軟性涼，宜與小兒臥尤佳. ※《본초강목》，↩

20. 輶 輶 輶 ※《문맥상》↩

21. 敷腫痛定 ※《의종손익부여》↩

22. 癭：疾 ※신정본 ↩

23

23. 滯及風：化食除風 ※《의종손익부여》↩

24. 産後月經：月候不調 ※《본초강목》↩

25. 러：려 ※신정본 ↩

26. 除鬼毒蠱疰邪物 ※《본초강목》◆※ 巴豆主癥癖疰氣, 痞滿積聚,.....通利關竅 ※《본초강목》

大能通利 ※《제증신편》↩

27. 漿 𥔷 醬 ※《본초강목》↩

28. 斬關奪命之將.：元素曰, 巴豆乃斬關奪門之將, 不可輕用. ※《본초강목》

↩

灌木 二十種

관목 20종

桑椹子 오디

상심자 오디

桑椹子甘熱渴歇,

解金石毒染鬚髮.¹

상심자는 성미가 달며 열갈을 멎게 한다

금석의 독을 해독하며 수염과 머리를 검게 물들인다.

오디.

○箕星之精.《本草》²

오디.

○기성(箕星)의 정수이다.《본초강목》

桑皮 뽕나무껍질

상피 뽕나무뿌리 껍질

桑皮甘辛定嗽喘,

瀉肺火邪功不淺.

상피는 달고 매우며 기침과 호흡이 가쁜 증상을 안정시킨다.

폐화(肺火)의 사기를 쓸어내리는 데 효능이 적지 않다.

뽕나무 불휘겍폴.

○寒平.

○入手太陰.

○忌鐵. 《本草》

○利水生用, 咳嗽蜜蒸或炒. 《入門》

○〈葉〉消腫止渴利水. 洗目病.

○〈枝〉治水氣脚氣, 利小便, 臂痛.

○〈花〉主崩帶, 炒用.

○〈桑柴灰〉淋汁小毒. 煮赤小豆, 作粥, 下水腫. 《本草》³

뽕나무 뿌리 겍질.

○성질이 차고 평하다.

○수태음경에 들어간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수기를 잘 통하게 하려면 생것으로 쓰고 기침에는 꿀에 축여서 찌거나 볶아서 쓴다. 《의학입문》

○〈상엽(桑葉)〉 부종을 없애고 갈증을 멎게 하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눈병에는 눈을 씻어준다.

○〈상지(桑枝)〉 수기(水氣)·각기를 치료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팔의 통증을 낮게 한다.

○〈상화(桑花)〉 주로 봉루·대하를 치료하며 볶아서 쓴다.

○〈상시회(桑柴灰, 뽕나무 재)〉 상시회에 물을 뿌려서 낸 즙은 독성이 조금 있다. 이 잿물로 적소두를 삶아 죽을 쑤어 먹으면 수종(水腫)을 내려준다. 《본초강목》

桑螵蛸 뽕나무 우희 당외아지집

상표초 뽕나무 위 사마귀알집

桑螵蛸鹹腰痛疝,

淋濁精泄虛損患.

상표초는 성미가 짜며 허리 통증과 산증을 치료한다.

임증(淋症), 소변 백탁, 정(精)이 새는 증상, 허손 등의 질환을 치료한다.

뽕나무 우회 당외아지집.

뽕나무 위 사마귀알집.

寄生 뽕나무 우회 겨으사리

상기생 뽕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

寄生甘苦腰痛麻,

續筋壯骨風濕佳.

상기생은 성미가 달고 쓰며 허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을 치료한다.

근(筋)을 이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풍습증에도 좋다.

뽕나무 우회 겨으사리⁴.

○忌鐵.

○勿見火.《本草》

뽕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

○철기 사용을 금한다.

○불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한다.《본초강목》

楮實 닥나무여름

저실 닥나무 열매

楮實味甘治陰痿,

壯筋明目補虛奇.

저실은 성미가 달며 음위(陰痿)를 치료한다.

근(筋)을 튼튼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허를 보할 때 신기한 효능이 있다.

닥나무여름.

◦酒蒸.

◦〈皮〉治水腫, 利小便.

◦〈紙〉燒灰, 止血暈、血崩. 《本草》

닥나무 열매.

◦술에 찌서 쓴다.

◦〈닥나무 껍질〉수종(水腫)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닥종이〉닥종이를 태운 재는 혈훈(血暈)、혈붕을 멎게 한다. 《본초강목》

枳實 탕자여름

지실 탕자 열매

枳實味苦消食痞,

破積化痰是長技^{5,6}.

지실은 성미가 쓰며 음식이 막힌 것을 소화시킨다.

적(積)을 깨뜨리고 담을 녹이는 효능이 좋다.

탕자여름.

◦微寒.

◦麩炒用. 蜜灸則破水積.

◦陳者良. 《本草》

탕자 열매.

◦성미가 약간 차다.

◦밀기울과 함께 볶아서 쓴다. 꿀에 축여 구워서 쓰면 수적(水積)을 깨뜨린다.

◦오래 묵은 것이 좋다. 《본초강목》

枳殼

지각

枳殼微溫解氣結,

寬腸⁷脹不可缺.

지각은 성미가 약간 따뜻하며 기가 뭉친 것을 풀어준다.

장을 뚫어주고 창만을 없애는 데 꼭 필요한 약이다.

微寒.

○氣血弱者, 不可服, 以其損氣.

○枳殼主高主氣, 枳實主下主血.

○陳者良. 《本草》

○惟濟州有之. 《寶鑑》⁸

성미가 약간 차다.

○기혈(氣血)이 약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되니 기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지각은 주로 상부를 치료하고 기(氣)를 치료한다. 지실은 주로 하부를 치료하고 혈(血)을 치료한다.

○오래 묵은 것이 좋다. 《본초강목》

○제주도에서만 생산된다. 《동의보감》

梔子

치자

梔子性寒降小便,

吐衄鬱煩胃火煽.

치자는 성미가 차며 소변을 나오게 한다.

토혈과 녹혈, 울증과 번조를 낮게 하며 위화(胃火)가 성한 것을 치료한다.

치자.

○入肺血分. 《本草》

○入藥用山梔子. 《丹心》

○用仁, 去心腎熱, 用皮, 去肌表熱, 尋常生用, 虛火童便⁹炒, 止血炒黑, 涼肺胃酒炒.

《入門》

치자.

○폐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본초강목》

○약용에는 산치자를 쓴다. 《단계심법》

○치자 속씨는 심(心)과 신(腎)의 열을 제거하고 치자 껍질은 체표의 열을 내려 준다. 평상시에는 생것으로 쓰고 허화(虛火)에는 동변에 축여 볶아서 쓴다. 지혈할 때는 검게 볶아서 쓴다. 폐(肺)를 서늘하게 할 때는 술에 축여 볶아서 쓴다. 《의학입문》

酸棗 밧디초씨

산조인 밧대추 씨

酸棗味酸汗煩渴,
生能少睡炒多眠.¹⁰

산조인은 성미가 시며 땀과 번조를 없애준다.

생것으로 쓰면 잠이 줄고, 볶아서 쓰면 잠이 많아진다.

밧디초씨.

○益肝.

○惡防己. 《本草》

밧대추 씨.

○간(肝)을 보익한다.

○방기와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山茱萸

산수유

山茱性溫治腎虛，
精髓腰膝耳鳴如。¹¹

산수유는 성미가 따뜻하며 신허(腎虛)를 치료한다.

정(精)과 골수를 보하고 허리와 무릎이 아픈 증상과 이명 등을 치료한다.

入足厥陰少陰氣分.

○酒浸去核, 核反滑精.

○惡桔梗、防己、防風. 《本草》

족궐음경·족소음경의 기분에 들어간다.

○술에 담가 두었다가 씨를 빼고 쓴다. 씨는 도리어 정(精)을 새어나가게 한다.

○길경·방기·방풍과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金櫻子

금앵자

〔金櫻子〕甘禁滑通

夢遺遺尿寸白蟲.

〔금앵자〕는 성미가 달며 줄줄 새는 것을 멎게 하니

몽설·유뇨를 치료하고 촌백충을 죽인다.

固陰養陰之佳品, 咸宜珍之. 《景岳》

음기를 굳세게 하며 음기를 길러주는 좋은 물건이니 모두 귀하게 여겨야 한다.

《경약전서》

郁李仁

옥리인

郁李仁酸能潤燥,

破血消腫便可導.

옥리인은 성미가 시며 마른 것을 자윤시켜 준다.

어혈을 깨뜨리고 부종을 없애며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入脾氣分. 分浸陰乾.¹²

비경(脾經)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꿀에 담가두었다가 그늘에 말린다.

女貞實 冬青

여정실 동청

女貞實苦烏髭髮,

去風補虛壯筋骨.

여정실은 성미가 쓰며 수염과 머리를 검게 한다.

풍(風)을 제거하고 허를 보하며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

一名冬青.

○性平.

○乃少陰之精, 故冬不落葉, 其益腎之功, 可推. 《本草》¹³

동청(冬靑)이라고도 한다.

○성질이 평하다.

○소음(少陰)의 정수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신(腎)을 보익하는 효능이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본초강목》

五加皮 닻돌흙

오가피 땃두릅

五加皮寒祛風痺,
健步益精瀝餘備.¹⁴

오가피는 성미가 차며 풍비(風痺)를 없앤다.
걸음걸이를 힘차게 하고 정(精)을 채워주며 소변을 찝끔거리는 증상을 예방한다.

땃¹⁵돌흙.

- 性溫.
- 惡玄參、蛇皮.
- 應五車星精而生, 故葉五出. 《本草》

땃두릅.

- 성질이 따뜻하다.
- 현삼、사피(蛇皮)와 상오약이다.
- 오거성(五車星)의 정수에 응하여 자라기 때문에 잎이 5개가 난다. 《본초강목》

枸杞子 구기조여름

구기자 구기자 열매

枸杞甘溫添精髓,
明目祛風陽事起.

구기자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정(精)을 채워준다.
눈을 밝게 하고 풍을 없애며 성생활을 흥기시킨다.

구기자여름.

○忌鐵.

○酒潤搗.《本草》

구기자 열매.

○철기 사용을 금한다.

○술로 축축하게 적셔서 찜는다.《본초강목》

地骨皮 구기나모불휘

지골피 구기자나무 뿌리

地骨皮寒能解肌,

蒸汗熱血強陰宜.¹⁶

지골피는 성질이 차며 잘 해기시킨다.

골증열로 땀이 나는 것과 혈의 열기 치료하고 음경을 강하게 하는 데 알맞다.

구기나모불휘.

○入足少陰手少陽.

○制雄¹⁷黃、丹砂,忌鐵.

○甘草水浸製.《本草》¹⁸

구기자나무 뿌리.

○족소음경、수소양경에 들어간다.

○웅황、단사의 약성을 억제하고 철기 사용을 금한다.

○감초 달인 물에 담가서 법제한다.《본초강목》

蔓荊子 승범실

만형자 승범실

蔓荊子苦頭痛瘥,

眼淚濕痺並拘攣.

만형자는 성미가 쓰며 두통을 고친다.

눈물이 나는 증상, 습비(濕痺)와 경련으로 오그라드는 증상을 아울러 치료한다.

승범실.

○微寒.

○入太陽.

○酒蒸.

○去白蟲、長蟲¹⁹. 胃虛人, 不可服, 恐生痰. 《本草》²⁰

승범실.

○성질이 약간 차다.

○태양경에 들어간다.

○술에 찌서 쓴다.

○촌백충、회충을 없애준다. 위(胃)가 허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되니 담이 생길 우려가 있다. 《본초강목》

牧丹 모란꽃불휘

목단 모란꽃 뿌리

牧丹苦寒通經血,

無汗骨蒸血分熱.²¹

목단은 성미가 쓰고 차며 경혈을 잘 통하게 한다.

골증열에 땀이 나지 않는 증상과 혈분에 열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모란꽃불휘.

○入足太陰、手厥陰.

○白補, 赤利.

○治無汗之骨蒸.

○畏貝母、大黃、兔絲子, 伏砒²², 忌蒜及鐵. 《本草》²³

모란꽃 뿌리.

○죽태음경、수궐음경에 들어간다.

○흰 꽃이 피는 것은 보해주고 붉은 꽃이 피는 것은 잘 통하게 한다.

○골증열인데 땀이 나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패모、대황、토사자와 상외약이다. 비상의 약성을 굴복시킨다. 마늘과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密蒙花

밀몽화

〔密蒙花〕甘能明目,

虛翳青盲效最速.

〔밀몽화〕는 성미가 달며 눈을 밝게 한다.

허예(虛翳), 청맹에 효능이 가장 빠르다.

酒浸蜜拌蒸. 《本草》

술에 담가두었다가 꿀에 반죽하여 찌서 쓴다. 《본초강목》

寶豆

보두

〔寶豆〕溫毒治喉痺,
蛔痛蟲傷並瘡痢.²⁴

〔보두〕는 성미가 따뜻하고 독성이 있으며 후비(喉痺)를 치료한다.
회충으로 배가 아픈 증상과 벌레 물린 상처를 치료하며 아울러 학질과 이질을
낮게 한다.

壯者二三分, 老弱一分或一二里而止, 孕婦忌服. 俗方

장성한 사람에게는 2 - 3푼 쓰고, 노약자에게는 1푼이나 1 - 2리까지만 쓴다.
임신부는 복용을 금한다. 속방

1. 熱渴歇：治服金石發熱口渴, ※《본초강목》※ 染鬚髮：以染白髮如漆《본초강목》↩

2. 箕星之精：桑乃箕星之精, 能助藥力 ※《본초강목》↩

3. 洗目病：每以一合, 於瓷器內煎減二分, 傾出澄清, 溫熱洗目 ※《본초강목》
※ 淋汁：以桑柴灰熱湯淋取汁 ※《본초강목》↩

4. ㄱ나모 우\uf550 겨으사리：ㄱ나모우희기으사리 ※증정본
ㄱ나모우희겨으사리 ※신정본 ↩

5. 技：枝 ※신정본 ↩

6. 消食痞：消食除痞 ※《제증신편》↩

7. ㉠ 消 ※증정본, 신정본 ↩

8. 枳殼主高主氣, 枳實主下主血：枳殼主高, 枳實主下, 高者主氣, 下者主血
※《본초강목》↩

9. 童便：人乳 ※증정본

童便 ※신정본 ←

10. 汗煩：斂汗祛煩 ※《의종손익부여》

虛汗煩渴 ※《본초강목》蠲 ←

11. 腰膝：腰膝痛止 ※《제중신편》

暖腰膝 ※《본초강목》 ←

12. 分浸陰乾. 蜜浸陰乾. ※증정본, 신정본, 《의종손익부여》 ←

13. 乃少陰之精, 故冬不落葉：《典術》云, 女貞木乃少陰之精, 故冬不落葉
※《본초강목》 ←

14. 瀝餘：小便餘瀝 ※《본초강목》 ←

15. 닷：딛 ※신정본 ←

16. 蒸汗熱：汗之骨蒸 ※《본초강목》♣※ 血：涼血 ※《본초강목》, 《제중신편》

♣※ 强陰：强盛陰道也 ※《본초강목》 ←

17. 雄： ※신정본 ←

18. 甘草水浸製：以熟甘草湯浸一宿. ※《본초강목》 ←

19. 長蟲：經曰, 蛔者, 長蟲也 ※《동의보감》 ←

20. 長蟲：經曰, 蛔者, 長蟲也 ※《동의보감》 ←

21. 通經血：通關腠血脈, 排膿, 消撲損瘀血 ※《본초강목》 ←

22. 砒： ※신정본 ←

23. 時珍曰, 牡丹皮.....赤花者利, 白花者補. ※《본초강목》 ←

24. 蟲傷並瘡痢：糝刀蟲傷竝治瘡痢 ※《의종손익부여》 ←



寓木 五種

나무에 기생하는 것 5종

茯苓

복령

茯苓味淡利竅美,

白化痰涎赤通水.¹

복령은 성미가 담담하며 9규를 잘 통하게 한다.

백복령은 담연(痰涎)을 녹이고 적복령은 소변을 통하게 한다.

白入壬癸手太陰足太陰氣分, 赤入丙丁足太陰手少陰太陽氣分.

○去皮爲末, 水飛, 去膜晒乾.

○惡白欬, 畏地榆、雄黃、秦艽、龜甲, 忌米醋醃物.

○〈皮〉治水腫, 開水道. 《本草》

백복령은 임일(壬日)과 계일(癸日)에 왕성해지는 수태음경·족태음경의 기분(氣分)에 들어가고 적복령은 병일(丙日)과 정일(丁日)에 왕성해지는 족태음경·수소음경·수태양경의 기분(氣分)에 들어간다.

○껍질을 벗기고 가루 내어 수비(水飛)한 후 막을 제거하고 별에 찌어 말린다.

○백령과 상오약이고 지유·웅황·진교·구갑과 상외약이다. 쌀식초·신 것을 금한다.

○〈껍질〉수종(水腫)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본초강목》

茯神 神木, 心木, 黃松節

복신 신목, 심목, 황송절

茯神補心善鎮驚，
恍惚健忘怒恚情。

복신은 심(心)을 보하며 놀란 것을 잘 진정시킨다.

넋이 나간 증상과 건망을 치료하고 쉽게 화를 내는 성질을 다스린다.

〈神木〉即心木. 名黃松節, 治偏風脚氣筋攣. 《本草》

〈신목〉 곧 심목(心木)이다. 황송절(黃松節)이라고도 한다. 편풍(偏風), 각기, 근이 당기는 증상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琥珀

호박

〔琥²〕味甘定魂魄，
利水破瘀消癥積。

〔호박〕은 성미가 달며 혼백을 안정시킨다.

수기를 잘 통하게 하며 어혈을 풀어주고 징가와 적취를 제거한다.

吸草芥者眞. 《本草》

초개(草芥, 호박에 달라 붙은 겨자씨)가 붙어 있는 것이 진품이다. 《본초강목》

豬苓

저령

〔豬苓〕味淡水濕緊，
消腫通淋多損腎。³

〔저령〕은 성미가 담담하며 수습(水濕)으로 몸이 오그라든 증상을 치료한다.
부종을 없애고 임증(淋症)을 잘 통하게 하나 많이 먹으면 신(腎)을 손상시킨다.

入足太陽少陰.

○忌鐵. 《本草》

죽태양경·족소음경에 들어간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雷丸

뇌환

〔雷丸〕味苦善殺蟲,
癰癤蠱毒治兒功.

〔뇌환〕은 성미가 쓰며 충을 잘 죽인다.

전간·고독을 낮게 하며 소아의 병을 치료하는 데 효능이 있다.

小毒.

○甘草水蒸, 或炮.

○忌鐵, 惡葛根. 《本草》

독성이 조금 있다.

○감초를 우려낸 물로 찌거나 습지에 싸서 굽는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갈근과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1. 利竅美：瀉心小腸膀胱濕熱，利竅行水. ※《본초강목》↩

2. ① 珀 ※중정본, 신정본 ↩

3. 水濕緊：風冷外傷, 水濕內滲, 變成風搐. ※《醫宗損益、初生洗浴法》←



苞木 五種

대나무 5종

竹葉

죽엽

竹葉味甘止煩渴,
定喘安眠痰可剝.

죽엽은 성미가 달며 번갈을 멎게 한다.

호흡이 가쁜 증상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편안하게 하며 담을 삭인다.

竹瀝

죽력

竹瀝味甘除痰火,
虛熱渴煩汗亦妥.¹

죽력은 성미가 달며 담화(痰火)를 제거한다.

허열, 소갈, 번민, 땀이 나는 증상에도 알맞다.

卽青大竹, 火逼承瀝者.

○薑汁爲使. 《本草》

곧, 청대죽을 불에 찌어 진액을 받은 것이다.

○생강즙을 사약(使藥)으로 삼는다. 《본초강목》

竹茹

죽여

竹茹止嘔除寒痰，
胃熱欬噦不寐堪。

죽여는 구역을 멎게 하고 한담(寒痰)을 제거한다.

위열(胃熱)로 딸꾹질이 나는 것을 치료하며 불면증을 낮게 할 만하다.

卽竹上青皮，刮下入用。《本草》

곧, 대나무 겉의 푸른 껍질이니, 긁어내서 약에 넣어 쓴다. 《본초강목》

竹筍, 죽순

죽순

竹筍甘寒煩渴省，
利水益氣過發冷。²

죽순은 성미가 달고 차며 번조, 소갈을 치료한다.

수기를 잘 통하게 하며 기를 보익하나 지나치게 먹으면 냉증이 생긴다.

죽순.

○〈仙人杖〉筍欲成竹時立死，色黑如漆。五六月收，治小兒吐乳，大人吐食。《本草》

죽순.

○〈선인장〉 죽순은 대나무가 되는 시기에 바로 죽어서 색이 옅처럼 검게 변한 것이다. 5 - 6월에 채취한 것은 소아가 젖을 토하거나 어른이 먹은 것을 토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天竺黃

천축황

〔天竺黃〕甘急慢風,
鎮心解熱毆邪功.

〔천축황〕은 성미가 달며 급경풍과 만경풍을 치료한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열을 내리며 사기를 몰아내는 효능이 있다.

1. 竹瀝味甘性緩, 能除陰虛之有大熱者. ※《본초강목》

胸中大熱, 止煩悶, 消渴, 勞復.....養血清痰, ※《본초강목》↩

2. 諸筍皆發冷血及氣.....消渴, 利水道, 益氣, 可久食. ※《본초강목》

除煩益氣多食發冷 ※《제증신편》↩

葷辛菜 十六種

매운 향이 나는 채소 16종

韭菜 부치

구채 부추

韭菜辛溫除胃熱,

能治骨鯁清瘀血.¹

구채는 맵고 따뜻하며 위열(胃熱)을 제거한다.

목에 걸린 뼈를 치료하며 맑은 좁은 어혈을 흡어준다.

부치.

○反蜜.

○久服, 不利病人. 《本草》

○今人多以韭炒牛肉, 其味甚佳, 未見作害. 《備要》²

부추.

○꿀과 상반약이다.

○병이 있는 사람이 오래 먹으면 좋지 않다. 《본초강목》

○요즘 사람들은 소고기를 구울 때 부추를 같이 먹으니 그 맛은 매우 좋으나 해

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본초비요》

韭子 부치씨

구자 부추 씨

韭子甘溫尿不禁,

腰膝夢遺女白淫.³

구자(韭子)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요실금을 치료한다.

허리와 무릎을 치료하고 몽설과 여성의 백음증(白淫症)을 낮게 한다.

부치씨.

○入厥陰及命門.

○炒黃.

○伏鍾乳乳⁴乳香.《本草》

부추 씨.

○겉음경의 명문(命門)에 들어간다.

○누렇게 볶아서 쓴다.

○종유석·유향의 약성을 굴복시킨다.《본초강목》

蔥白 파 흰빛

총백 파 흰밀

蔥白辛溫能發汗,

傷寒頭疼腫痛散.⁵

총백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땀을 내게 한다.

상한(傷寒)으로 머리가 아픈 증상과 붓고 아픈 것을 흩어준다.

파흰빛.

○入足太陰陽明.

○合棗食, 令人病, 合犬雉食, 令人病血. 服地黃、常山, 忌食蔥及蜜, 解魚肉毒.

○〈鬚〉通氣.《本草》

파 흰밀.

○족태음경·족양명경에 들어간다.

○대추와 함께 쓰면 병이 생기고 개고기·꿩고기와 함께 먹으면 혈병이 생긴

다. 지황(地黃)·상산을 먹을 때는 총백과 꿀을 금한다. 생선독·고기독을 해독한다.

○〈파뿌리〉기를 통하게 한다. 《본초강목》

大蒜 마늘

대산 마늘

大蒜辛溫化肉穀，
解毒散癰過損目。^{6,7}

대산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고기와 곡식을 소화시킨다.

해독 작용을 하며 응(癰)을 흩어주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눈을 손상시킨다.

마늘. 獨頭者入藥. 《本草》

마늘. 외톨마늘을 약에 넣어 쓴다. 《본초강목》

蕢薑 평지

운대 평지

蕢薑辛溫宜丹腫，
乳癰癰外莫久奉。⁸

운대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단독으로 부은 것을 치료한다.

유옹(乳癰)·징가를 치료하며 그 외에는 오래 복용하는 것을 삼간다.

평지.

평지.

菘菜 白菜

송채 백채

菘菜甘涼清利極，
下氣止渴解酒食。⁹

송채는 성미가 달고 서늘하며 맑게 통리시키는 효능이 매우 크다.
기를 내려주고 갈증을 멎게 하며 주독·식독을 해독한다.

一名白菜。

○微毒。

○多食發皮風冷，有足疾者，忌之，多食以生薑解之。

○〈子油〉長髮，塗劍不銹¹⁰。《本草》¹¹

백채(白菜)라고도 한다.

○독성이 약간 있다.

○많이 먹으면 피부에 풍증과 냉증을 발생시키며 발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복용을 금한다. 많이 먹었을 때는 생강으로 해독한다.

○〈배추씨기름〉머리를 자라게 하고, 칼에 발라두면 녹이 슬지 않는다. 《본초강목》

芥菜 비즈

개채 겨자

芥菜味辛利九竅，
除邪通鼻最爲妙。

개채는 성미가 매우며 9구를 통하게 한다.

사기를 제거하고 막힌 코를 뚫는 데 가장 효능이 신묘하다.

비즈¹².

○痔疾便血忌之. 同鯽魚食, 發水腫. 《本草》

겨자.

○치질이나 혈변이 있을 때는 복용을 금한다. 즉어와 함께 먹으면 수종(水腫)이 생긴다. 《본초강목》

白芥子

백개자

〔白芥子〕辛化脅痰,

瘰癧蒸痞塊皆可戢.¹³

〔백개자〕는 성미가 매우며 옆구리에 생긴 담을 녹인다.

학질, 골증열, 비괴를 모두 평정한다.

入肺.

○微炒. 《本草》

폐경(肺經)에 들어간다.

○약간 볶아서 쓴다. 《본초강목》

蔓菁 슷무우

만청 순무

蔓菁甘溫利五臟,

下氣消食治疸恙.

만청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오장을 잘 통하게 한다.

기를 내려주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황달을 치료한다.

췌무우.

◦性冷, 而云溫恐誤. 《本草》

순무.

◦성질이 냉하며 혹은 따뜻하다고도 하나 아마 오류인 듯하다. 《본초강목》

蔓菁子 췌무우씨

만청자 순무 씨

蔓菁子平明目藥,
治癰利水腹脹霍.¹⁴

만청자는 성질이 평하며 눈을 밝혀주는 약이다.

항달(癰)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복창과 객란을 낮게 한다.

췌무우씨¹⁵.

◦蜘蛛咬, 爲末酒服.

◦〈油〉點燈, 甚明而損目. 《本草》

순무씨.

◦거미에게 물렸을 때는 가루 내어 술에 타서 먹는다.

◦〈순무우씨기름〉으로 등불을 켜면 너무 밝아서 시력이 손상된다. 《본초강목》

萊菔根 단무우, 蘿菔

내복근 단무, 나복

萊菔根甘下氣篤,
消食痰嗽解麪毒.¹⁶

내복근은 성미가 달며 기를 잘 내려준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가래와 기침을 치료하며 밀가루 독을 해독시킨다.

단무¹⁷.

- 一名蘿菔.
- 苦溫, 一云冷. 不可與地黃, 同食令人髮白.
- 生薑制毒, 伏礪砂. 《本草》

단무.

- 나복(蘿菔)이라고도 한다.
- 성미가 쓰고 따듯하다. 냉하다고도 한다. 지황과 함께 쓰지 않아야 하니 함께 먹으면 백발이 된다.
- 생강으로 무의 독을 억제한다. 요사(礪砂)의 약성을 굴복시킨다. 《본초강목》

萊菔子 단무우씨, 蘿菔子

내복자 댄무우 씨, 나복자

萊菔子辛治喘欬,
下氣消張¹⁸功難對.

내복자는 성미가 매우며 호흡이 가쁜 증상과 기침을 치료한다.
기를 내려주며 창만을 없애는 효능에는 내복자를 상대하기 어렵다.

단¹⁹ 무우씨. 卽蘿菔子.

댄무우 씨. 곧 나복자이다.

生薑 싱강

생강

生薑性溫能祛穢,
暢神開胃吐痰咳.

생강은 성미가 따뜻하며 더러운 기운을 없애준다.

신명을 통하게 하고 위(胃)를 열어주며 가래를 토하게 하고 기침을 낫게 한다.

생강.

◦要熱去皮, 要冷留皮.

◦秦椒爲使, 殺半夏、狼毒, 惡黃芩、黃連. 《本草》

생강.

◦열을 내게 하려면 껍질을 벗겨서 쓰고, 차게 하는 효과를 내려면 껍질째 쓴다.

◦진초(秦椒)를 사약으로 삼는다. 반하독·낭독을 없애 준다. 황금·황련과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乾薑

건강

乾薑味辛解風寒,

炮苦逐冷²⁰ 虛熱安.<u>²¹²²

건강은 성미가 매우며 풍사·한사를 풀어준다.

습지에 써서 구운 것은 성미가 써지고 냉기를 몰아낸다. 건강은 허열(虛熱)을 안정시킨다.

心脾氣分藥, 入肺開胃.

◦多用耗氣. 《本草》

◦見火則止而不移, 所以能治裏寒. 《丹心》²³

심경(心經)·비경(脾經)의 기분에 들어가는 약이다. 폐경(肺經)에 들어가 위(胃)를 열어준다.

◦많이 쓰면 기를 소모시킨다. 《본초강목》

◦불에 찌면 약성이 한곳에 머물면서 옮겨가지 않게 되어 속이 찬 것을 치료한다. 《단계심법》

胡荽 고시

호유 고수

胡荽味辛發痘極,

上止頭疼內消食.

호유는 성미가 매우며 두진을 잘 올라오게 한다.

위로는 두통을 멎게 하고 안으로는 음식을 소화시킨다.

고시.

◦〈子〉亦發痘. 《本草》

고수.

◦〈열매〉 고수씨도 두창을 잘 올라오게 한다. 《본초강목》

水芹 마나리

수근 미나리

水芹甘平益精髓,

利大小腸煩可止.²⁴

수근은 성미가 달고 평하며 정수(精髓)를 채워준다.

대소장을 잘 통하게 하고 번조를 멎게 한다.

만²⁵나리.

◦〈汁〉去伏熱, 殺石藥毒. 治尿血淋痛黃病. 《本草》

미나리.

○〈즙〉 잠복해 있는 열을 제거하고 광물성 약재의 독성을 없애준다. 요혈(尿血), 임병으로 인한 통증, 황달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1. 淸瘀血：汁淸血瘀 ※《제증신편》

搗汁淸淸, 和童尿飲之, 能消散胃脘瘀血, 甚效 ※《본초강목》

2. 今人多以韭炒牛肉, 其味甚佳, 未見作害. : 不可與蜜, 及牛肉同食. ※《본초강목》

3. 腰膝：暖腰膝 ※《본초강목》

4. 乳 及 ※증정본, 신정본

5. 傷寒頭疼腫痛散. : 治傷寒寒熱, 中風面目浮腫.....治傷寒頭痛 ※《본초강목》

6. 過損目：多用傷目 ※《제증신편》

7. 過損目：多用傷目 ※《제증신편》

8. 丹腫：風游丹腫 ※《본초강목》

9. 通利腸胃, 除胸中煩, 解酒渴. 別錄 消食下氣, ※《본초강목》

10. 綉 縮 ※《본초강목》

11. 訖曰, 發風冷內虛人不可食.....瑞曰, 夏至前食, 發氣動疾. 有足疾者忌之. ※《본초강목》

12. 비\uf1fc : 계\uf1fc ※증정본, 신정본

13. 脅痰：痰在脅下及皮裏膜外, 非白芥子莫能達. ※《본초강목》

14. 治瘰：療黃膽 ※《본초강목》利水腹脹霍.※ 明目別錄 療黃膽, 利小便. 水

煮汁服, 主癥瘕積聚. 少少飲汁, 治霍亂心腹脹. ※《본초강목》↩

15. \ue77c : 씨 ※신정본 ↩

16. 痰嗽 : 痰癖利關, 肺痿勞嗽 ※《제증신편》

痰癖欬嗽 ※《의종손익부여》↩

17. \ue3aa무우 : 단무우 ※중정본

\ue3aa무우 ※신정본 ↩

18. 張 脹 ※《본초강목》, 중정본, 신정본 ↩

19. 딘 : 단 ※중정본, 신정본 ↩

20. 炮苦逐冷 : 乾薑生辛炮苦, 陽也. 生則逐寒邪而發表, 炮則除胃冷而守中.
※《본초강목》↩

21. 乾薑入肺中利肺氣, 入腎中燥下濕, 入肝經引血藥生血, 同補陰藥亦能引
血藥入氣分生血, 故血虛發熱、産後大熱者用之. ※《본초강목》↩

22. 炮苦逐冷 : 乾薑生辛炮苦, 陽也. 生則逐寒邪而發表, 炮則除胃冷而守中.
※《본초강목》虛熱安. ♠※ 乾薑入肺中利肺氣, 入腎中燥下濕, 入肝經引血藥生
血, 同補陰藥亦能引血藥入氣分生血, 故血虛發熱、産後大熱者用之. ※《본초
강목》↩

23. 乾薑本辛, 炮之稍苦, 故止而不移, 所以能治裏寒 ※《본초강목》↩

24. 止血養精, 保血脈, 益氣, 令人肥健嗜食. ※《본초강목》↩

25. 마 : 미 ※중정본, 신정본 ↩

柔滑菜 十種

잎채소 10종

薺菜 냉이

제채 냉이

薺菜甘溫明目易,

利臟和中燒治痢.¹

제채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눈을 쉽게 밝게 한다.

오장을 잘 통하게 하고 속을 조화롭게 하며 태워서 쓰면 이질을 치료한다.

냉이.

○凌冬不死, 煮粥食, 能引血歸肝. 《本草》

냉이.

○겨울을 나도 죽지 않는다. 삶아서 죽을 쑀어 먹으면 혈을 이끌어 간(肝)으로 돌아가게 한다. 《본초강목》

菥蓂子 남아씨

석명자 냉이 씨

菥蓂子溫能益精,

去翳解熱淚目明.²

석명자는 성미가 따뜻하며 정(精)을 채워준다.

예막을 없애고 열과 눈물을 해소하며 눈을 밝게 한다.

냉안³씨.

◦得蔓荊、細辛良, 惡乾薑. 《本草》

냉이 씨.

◦만형、세신과 함께 쓰면 좋다. 건강과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蓴菜 순채

순채

蓴菜性冷亦能補,

渴疸藥毒並可愈.⁴

순채는 성질이 냉하고 몸을 잘 보해준다.

소갈、황달、약독을 아울러 낫게 한다.

순치.

순채.

苜蓿 거어목

목숙 고어목

苜蓿性凉胃邪散,

利大小腸熱毒疽.

목숙은 성미가 서늘하며 위(胃)의 사기를 흩어준다.

대소장을 잘 통하게 하며 열독과 옹저를 낫게 한다.

거어목.⁵

고어목. 많이 먹으면 냉기가 근(筋) 속으로 들어간다.

馬齒莧 쇠비름

마치현 쇠비름

馬齒莧寒消腫痢,
渴淋毒蟲皆得利.⁶

마치현은 성미가 차며 부종과 이질을 제거한다.
소갈, 임병, 중독, 충병에 모두 이롭다.

쇠비름.

쇠비름.

葛苣 성취

와거 상추

葛苣苦冷胸膈醒,
通利五臟過發冷.

와거는 성미가 쓰고 차며 흉격을 낮게 한다.
오장을 잘 통하게 하며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냉증이 생긴다.

상⁷취. 〈子〉下乳, 通小便.

상추. 〈씨〉젖이 잘 나오게 하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蕨菜 고사리

겉채 고사리

蕨菜甘寒水熱却⁸,
久食消陽反脚弱.⁹

겉채는 성미가 달고 차며 수(水)를 잘 통하게 하고 열을 내려준다.
오래 먹으면 양기가 줄어들어 오히려 다리를 약해지게 한다.

고스리.

고사리.

芋子 土卵

우자 토란

芋子辛平腸可糲,
充肌破血葉止瀉.

우자(芋子)는 성미가 맵고 평하며 장을 크게 통하게 한다.
살찌게 하며 어혈을 풀어준다. 얇은 설사를 멎게 한다.

小毒.

○一名土卵.

○解諸藥毒. 《本草》

독성이 조금 있다.
○토란(土卵)이라고도 한다.
○각종 약독을 해독한다. 《본초강목》

甘藷

감저

甘藷甘平能救荒,
强腎健脾補虛良.

감저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구황 작물로 쓸 수 있다.
신(腎)을 강하게 하고 비(脾)를 튼튼하게 하며 허를 보해줄 때 좋다.

功同山藥.

○海中人不食五穀, 食此多壽. 《本草》

산약과 효능이 같다.

○바다 가운데 사는 섬사람들은 오곡을 먹지 않고 이것을 먹어서 대부분 오래 산다. 《본초강목》

冬葵子 아욱씨, 露葵

동규자 아욱 씨, 노규

冬葵子寒治癰方,
滑胎易產通乳房.¹⁰

동규자는 성미가 차며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태(胎)를 매끄럽게 하여 출산을 쉽게 하며 젖을 잘 나오게 한다.

아욱씨¹¹.

○一名露葵.

○〈葉〉脾之菜也, 宜脾利胃. 霜後不可食, 動痰. 《本草》

아욱 씨.

○노규(露葵)라고도 한다.

○〈잎〉비(脾)의 채소이다. 비(脾)에 적합하며 위(胃)를 이롭게 한다. 서리가 내린 후에는 먹지 않아야 하니 담이 생긴다. 《본초강목》

1. 利肝和中. 利五臟.....根、葉燒灰, 治赤白痢極效. ※《본초강목》↩

2. 熱淚: 眼目熱痛, 淚出不止 ※《본초강목》↩

3. 아: 이 ※신정본 ↩

4. 渴疸：消渴熱痺.....治熱疸. ※《본초강목》↩

5. 多食冷入筋.：多食令冷氣入筋中. ※《본초강목》↩

6. 渴：止消渴 ※《본초강목》↩

7. 성：상 ※중정본, 신정본 ↩

8. 水熱却：去暴熱, 利水道 ※《본초강목》↩

9. 水熱却：去暴熱, 利水道 ※《본초강목》↩

10. 治癰方,：治五癰 ※《본초강목》↩

11. \ue77c：씨 ※신정본 ↩

茭菜 四種

오이과 채소 4종

茄子 가지

가자 가지

茄子甘寒傳尸勞,
多食動氣女傷胞.

가자는 성미가 달고 차며 전시와 노채를 치료한다.
많이 먹으면 기병(氣病)이 생기고 여성은 자궁을 상한다.

가지.

가지.

冬瓜 동화

동과 동아

冬瓜甘寒熱渴釋,
利大小腸壓丹石.

동과는 성미가 달며 열갈증을 풀어준다.
대소장을 잘 통하게 하고 단석(丹石)의 독을 억제한다.

동화. 冷人食之瘦. 《本草》

동아. 냉증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몸이 야윈다. 《본초강목》

南瓜 호박

남과 호박

南瓜甘溫能補中,

同食羊肉氣不通.

남과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속을 잘 보해준다.

양고기와 함께 먹으면 기가 막혀 통하지 않는다.

호박.

○同猪肉食良, 亦可蜜煎. 多食發脚氣、黃疸. 《本草》

호박.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다. 꿀에 축여 달여 먹어도 또한 괜찮다. 많이 먹으면 각기병과 황달이 생긴다. 《본초강목》

胡瓜 외

호과 오이

胡瓜甘寒莫多食,

能發寒熱瘡亦或.

호과는 성미가 달고 차며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하니

한열이나 학질이 생길 수도 있다.

외. 多食, 動氣瘡痢. 《本草》

오이. 많이 먹으면 기병을 동하고 학질과 이질이 생긴다. 《본초강목》



芝栢 二種

버섯 2종

松耳

송이

松耳味香能實胃，
進食止瀉且益氣.

송이는 성미가 향기로우며 위(胃)를 실하게 한다.
식욕을 돋우고 설사를 멎게 하며 또한 기를 보익한다.

石耳

석이

石耳甘平視不艱，
久食益力且益顏.

석이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시력이 나빠지지 않는다.
오래 먹으면 힘을 더해주고 안색도 좋게 한다.

五果 六種

오과 6종

李 외얏

이 자두

李甘骨節勞熱痢,
亦能益氣不可多.

이(李)는 성미가 달며 오랜 골증노열을 치료한다.
또한 기를 잘 보익하지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외얏¹.

- 不沈水者, 有毒.
- 不可合蜜食. 《本草》

자두.
◦물에 담가놓지 않은 것은 독성이 있다.
◦꿀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본초강목》

杏仁 솔고삐

행인 살구 씨

杏仁苦溫風痰喘,
大腸氣閉便可輒.

행인은 성미가 쓰고 따뜻하며 풍담과 호흡이 가쁜 증상을 치료한다.
대장의 기가 막힌 것을 풀며 변을 무르게 한다.

솔고삐².

○入手太陰.

○去皮尖, 麩炒.

○得火良, 惡黃芩、黃芪、葛根. 殺狗³, 雙仁殺人. 《本草》

○有火有汗, 童便浸三日. 《入門》

○〈實〉小毒, 多食損筋, 產婦尤忌. 《本草》

살구 씨.

○수태음경에 들어간다.

○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하고 밀기울과 함께 볶는다.

○불에 익혀서 쓰면 좋다. 황금、황기、갈근과 상오약이다. 개고기의 독을 없애며, 씨가 두개 들어있는 것을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 《본초강목》

○화가 있거나 땀이 나는 사람은 동변에 3일 담갔다가 쓴다. 《의학입문》

○〈열매〉독성이 약간 있다. 많이 먹으면 근(筋)을 손상시킨다. 임산부는 더욱 금한다. 《본초강목》

烏梅 미화열음

오매 매화 열매

烏梅酸溫收斂肺,

止渴生津瀉痢退.

오매는 성미가 시고 성질이 따뜻하며 폐를 수렴한다.

갈증을 멎게 하고 진액을 생성하며 설사와 이질을 물리친다.

미화열음.

○忌猪肉.

○〈葉〉主休息痢霍亂. 《本草》

매화 열매.

○돼지고기를 금한다.

○〈잎〉 주로 휴식리, 꺾란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桃仁 복송화씨

도인 복송아 씨

桃仁甘寒潤大腸,

通經破血癥瘕良.⁴

도인은 성미가 달고 차며 대장을 윤활하게 한다.

월경을 통하게 하고 어혈을 깨뜨리며 징가, 어혈에 좋다.

복송화씨⁵.

○入手足厥陰.

○去皮尖雙仁, 麪⁶炒.

○〈實〉有損無益.

○〈花〉主殺蟲, 利水.

○〈葉〉功同.

○〈膠〉下石淋, 破血.

○〈桃奴〉即經霜不落者, 主破血. 《本草》

복송아 씨.

○수꺽음경, 족꺽음경에 들어간다.

○꺽질과 뽕족한 꺽, 씨가 두 개 들어있는 것은 제거하고 밀기울과 함께 볶아서 쓴다.

○〈열매〉 해롭고 유익함이 없다.

○〈꽃〉 주로 충을 죽이고 수기를 잘 통하게 한다.

○〈도엽〉 효능이 복송아꽃과 같다.

- 〈도교(桃膠, 복숭아나무 진)〉 석림을 치료하고 어혈을 풀어준다.
- 〈도노(桃奴)〉는 곧 서리 내린 후에도 매달린 복숭아이다. 주로 어혈을 깨뜨린다. 《본초강목》

栗子 밤

율자 밤

栗子鹹溫益氣奇,
厚腸補腎亦耐飢.

- 밤은 성미가 짜고 따뜻하며 기를 신기하게 보익한다.
- 장을 두텁게 하고 신(腎)을 보해주며 배고픔을 견디게 한다.

밤.

- 乾食補益, 生食發氣, 煮蒸壅氣, 惟煨半熟食, 小兒亦不可多食, 令齒不生, 生則難化, 熟則滯氣隔食生蟲.
- 潤沙中藏之, 至夏如初. 《本草》

밤.

- 말린 것을 먹으면 보익하고 생것을 먹으면 기를 발산시킨다. 삶거나 찢는 것을 먹으면 기를 막으니 반만 익도록 잿불에 묻어 구워서 먹는다. 소아는 또한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하니 치아가 나지 않게 한다. 생것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익혀서 먹으면 기를 정체시키고 음식을 막히게 하여 충이 생기게 한다.
- 습한 모래 속에 저장해 두면 여름까지 처음처럼 보관된다. 《본초강목》

大棗

대추

大棗味甘和百藥,

益氣養脾滿休嚮.⁷

대추는 성미가 달며 온갖 약과 잘 조화된다.

기를 보익하고 비(脾)를 길러주지만 속이 더부룩할 때는 먹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屬土有火, 助十二經脉.

○久食損脾助濕, 小兒尤不宜食.

○〈生棗〉服瘦.

○〈皮〉北向者燒灰, 煎洗目, 昏者復明. 《本草》

토(土)에 속하면서 화(火)의 성질이 있으며 12경맥을 돕는다.

○오래 먹으면 비(脾)를 손상시키고 습을 생성한다. 소아는 더욱 먹지 않도록 한다.

○〈생대추〉 생대추를 먹으면 몸이 수척해진다.

○〈대추껍질〉 북쪽을 향하여 자라는 대추 껍질을 태운 재를 물에 달여서 눈을 씻어주면 흐려졌던 눈이 다시 밝아진다. 《본초강목》

1. 𦍋 : 𦍋 ※증정본

𦍋 ※신정본 ←

2. 𦍋 : 𦍋 ※신정본 ←

3. 殺狗 𦍋 殺狗毒 ※《본초강목》←

4. 瘀血血閉, 癥瘕邪氣, ※《본초강목》←

5. 𦍋 : 𦍋 ※신정본 ←

6. 麴 𦍋 麴 ※《본초강목》←

7. 益氣養脾滿休噲 : 益氣養脾, 中滿休噲 ※《제중신편》↩



山果 十七種

산과 17종

梨 비

이 배

梨味甘酸善解酒,
渴嗽煩熱痰亦蝕.

이(梨, 배)는 성미가 달고 시며 주독을 잘 해독한다.

갈증, 기침, 번열, 가래를 또한 몰아낸다.

비.

○〈葉〉主霍亂.《本草》

배.

○〈배 잎〉 주로 곱란을 치료한다.《본초강목》

木苳

목과

木苳味酸脚腫濕,
霍亂轉筋膝拘急.¹

목과는 성미가 시며 다리가 습으로 붓는 것을 치료한다.

곱란과 전근을 낮게하고 무릎이 당기고 경련이 이는 것을 치료한다.

목과.

○入手足太陰, 得²之正, 入肝.

○忌鐵.

○〈枝·葉〉主霍亂轉筋服. 《本草》³

목과.

○수태음경·족태음경에 들어간다. 목(木)의 정(正)을 얻어 간으로 들어간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가지·잎〉 주로 팍란·전근에 복용한다. 《본초강목》

山楂 아가외, 棠棣子

산사 아가위, 당구자

山查味甘磨肉食,

療疝健胃膨瘡息.⁴

산사는 성미가 달며 고기와 음식을 소화시킨다.

산증(疝症)을 치료하고 위(胃)를 건강하게 하며 배가 팽만한 증상과 창(瘡)을 없애준다.

아가외⁵.

○一名棠棣子.

○陳者良.

○〈核〉主化食磨積. 《本草》

아가위.

○당구자(棠棣子)라고도 한다.

○오래 묵은 것이 좋다.

○〈씨〉 주로 음식을 소화시키고 적취를 없앤다. 《본초강목》

林檎 임금, 來禽, 文林郎

임금 내금, 문림랑

林檎酸溫治霍亂,

痰氣渴痢頭痛散.⁶

임금(林檎)은 성미가 시고 따뜻하며 객란을 치료한다.

담을 삭이고 기를 내려주며 소갈·이질·두통을 흩어준다.

임금.

○一名來禽. 一名文林郎.

○多食, 發熱動冷痰.

○〈根〉殺蛔白蟲. 《本草》

임금.

○내금(來禽), 또는 문림랑(文林郎)이라고도 한다.

○많이 먹으면 열이 나고 냉담(冷痰)이 생긴다.

○〈뿌리〉회충·촌백충을 죽인다. 《본초강목》

柿子 감

시자 감

柿子氣寒潤心肺,

泄腸禁痢渴痰退.

시자(柿子, 감)는 성질이 차며 심폐를 자윤시킨다.

장을 잘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이질과 갈증을 멎게 하며 담을 없애준다.

감.

○屬金而有土.

○〈烏柿〉火熏乾者, 性溫, 殺蟲止嘔.

○〈白柿〉日乾者, 性冷.

○〈霜〉清上焦, 生津止渴, 咽喉口舌瘡.

○〈葢⁷〉即小蓼, 枳實⁸ 止咳逆. 《本草》⁸

감.

○금(金)에 속하면서 토(土)의 성질이 있다.

○〈오시〉 불로 훈증하여 말린 것으로, 성질이 따뜻하며 충을 죽이고 구역을 멎게 한다.

○〈백시〉 햇볕에 말린 것으로 성질이 냉하다.

○〈시상(柿霜, 말린 감에 얹은 흰 가루)〉 상초의 열을 식히고 진액을 생성하며 갈증을 멎게 한다. 인후, 입, 혀가 허는 증상을 치료한다.

○〈시체(柿蒂)〉 곧 소체(小蓼), 감꼭지 기침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石榴

석류

石榴酸溫痢崩帶,

制殺三蟲過損肺.

석류는 성미가 시고 따뜻하며 이질, 붕루, 대하를 치료한다.

삼시충을 죽이며 지나치게 먹으면 폐가 손상된다.

〈皮、根〉同功.

○忌鐵. 《本草》

〈껍질, 뿌리〉 약의 효능이 석류와 같다.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陳皮 동정귤, 橘皮

진피 동정귤, 귤피

陳皮甘溫順氣功,
和脾留白痰取紅.⁹

진피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기를 순조롭게 하는 효능이 있다.
비(脾)를 조화롭게 할 때는 굴껍질에 흰 부분을 남겨두고 쓰고 담을 삭일 때는
흰 부분을 제거하고 굴홍만 쓴다.

동정굴.

- 一名橘皮.
- 入手足太陰.
- 去白, 名橘紅.
- 陳者良.
- 有白朮補脾胃, 無白朮瀉脾胃, 有甘草補肺, 無甘草瀉肺. 《本草》
- 下焦鹽水炒, 肺燥童便炒. 《入門》
- 〈核〉主疝氣腎冷. 《本草》
- 濟州産橘、青橘、柚子、柑子. 《寶鑑¹⁰》

동정굴.

- 굴피(橘皮)라고도 한다.
- 수태음경、족태음경에 들어간다.
- 흰 부분을 제거한 것을 굴홍(橘紅)이라고 한다.
- 오래 묵은 것이 좋다.
- 백출과 같이 쓰면 비위(脾胃)를 보하고 같이 쓰지 않으면 비위를 사한다. 감초와 같이 쓰면 폐를 보하고 같이 쓰지 않으면 폐를 사한다. 《본초강목》
- 하초를 치료할 때는 소금물에 축여 볶아서 쓰고, 폐(肺)가 마른 증상에는 동변에 축여 볶아서 쓴다. 《의학입문》
- 〈굴씨〉 주로 산기(疝氣)와 신(腎)의 냉증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 제주에서 굴、청굴、유자、감자(柑子, 굴과 열매)가 생산된다. 《동의보감》

靑皮 청굴피

청피 청굴피

靑皮苦寒攻氣滯,

平肝安脾下食劑.

청피는 성미가 쓰고 차며 기체(氣滯)를 잘 열어준다.

간(肝)을 평화롭게 하고 비(脾)를 안정시키며 먹은 것을 내려주는 약제이다.

청굴피.

○入肝經氣分及手少陽.

○醋炒. 《本草》

청굴피.

○간경(肝經)의 기분(氣分)과 수소양경에 들어간다.

○식초에 축여 볶아서 쓴다. 《본초강목》

柑子 감조

감자(굴과 열매)

柑子大寒腸胃熱,

止渴利溲解酒結.

감자(柑子, 굴과 열매)는 성질이 크게 차며 장위(腸胃)의 열을 치료한다.

갈증을 멎게 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술로 맺힌 것을 잘 풀어준다.

감조.

감자.

柚子 유주

유자

柚子味甘即大橘,

去胃惡氣壓酒密.

유자는 성미가 달며 곧 대귤(大橘)이다.

위(胃)의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 주독을 빈틈없이 몰아낸다.

유주.

유자.

櫻桃 잉도

앵도

櫻桃甘熱水穀痢,

調中益脾令顏媚.¹¹

앵도는 성미가 달고 뜨거우며 수곡리(水穀痢)를 치료한다.

속을 고르게 하고 비(脾)를 보익하여 안색을 좋게 한다.

잉도.

○經雨則蟲自內生, 水浸良久皆出, 不可多食, 發熱肺癰.

○〈東行根〉殺白蟲. 《本草》

앵두.

○비가 내리면 자연히 앵두에 충이 생기고 물에 오래 담가두면 벌레가 나온다.

많이 먹지 않아야 하니 열이 나고 폐옹이 생긴다.

○〈동행근(東行根, 동쪽으로 뻗은 뿌리)〉촌백충을 죽인다. 《본초강목》

白果 은형, 銀杏

백과 은행

白果甘苦喘嗽毆,
能治白濁且壓酒.

백과는 성미가 달고 쓰며 호흡이 가쁘고 기침하는 증상을 몰아낸다.
백탁을 치료하고 또한 주독을 푼다.

은형.

- 一名銀杏.
- 不可多食, 氣壅. 《本草》

은행.

- 은행(銀杏)이라고도 한다.
- 많이 먹으면 안 되니 기가 웅체된다. 《본초강목》

胡桃 호도

호도

胡桃肉甘能補腎,
黑髮猶復過莫緊.

호도육은 성미가 달며 신(腎)을 보한다.
머리카락을 검게 되돌리나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아야 한다.

호도.

- 屬土, 有火性.
- 多食, 動風生痰.
- 〈油〉有毒, 殺蟲. 《本草》

호도.

◦토(土)에 속하면서 화(火)의 성질이 있다.◦많이 먹으면 풍이 동하고 담이 생긴다.

◦〈호도기름〉 독성이 있으며 충을 죽인다. 《본초강목》

榛 기암

진 개암

榛甘平寬腸益氣,

不飢健行且開胃.

진(榛)은 성미가 달고 평하며 장을 잘 통하게 하고 기를 보익한다.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하며 걸음걸이를 힘차게 하며 또한 위(胃)를 열어준다.

기암.

개암.

落花生

낙화생

〔落花生〕溫果中奇,

性能潤肺香舒脾.

〔낙화생〕은 성미가 따뜻하며 진기한 과일이다.

성질이 능히 폐를 자유했으며 향기가 비(脾)를 열어준다.

出閩廣, 藤落地結. 《備要》¹²

중국 민(閩)·광(廣) 지역에서 생산되며 덩굴 위의 꽃이 떨어져 땅속에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낙화생(落花生)이라고 한다. 《본초비요》

覆盆子 나모뽕기

복분자 나무딸기

覆盆子甘益腎精,
續嗣烏鬚目可明.

복분자는 성미가 달며 신(腎)과 정(精)을 보익해준다.
후사를 이어주며 수염을 검게 하며 눈을 밝게 해준다.

나모뽕기.

○酒蒸.

○〈蓬蘽¹³〉 멧덕 뽕기. 功同. 《本草》

나무딸기.

○술로 찌서 쓴다.

○〈봉류〉 멧덕딸기. 복분자와 효능이 같다. 《본초강목》

橡實 상소리

상실 상수리

橡實微溫澁腸痢,
氣味俱佳荒可備.

상실은 성미가 약간 따뜻하며 장을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이질을 낫게 한다.
약성과 약미가 모두 좋아서 구황으로 대비할 수 있다.

상소리.

○水浸十五日, 去澀味, 蒸食.

○〈榲桲〉 도토리, 功同. 《本草》

상수리.

○15일 동안 물에 담가 떫은맛을 제거하고 찌서 쓴다.

○〈곡실〉 도토리. 상실과 효능이 같다. 《본초강목》

1. 濕痺脚氣, 霍亂大吐下, 轉筋不止. ※《본초강목》↩

2. 水 𣎵 木 ※《본초강목》↩

3. 水 𣎵 木 ※《본초강목》"木瓜得木之正, 酸能入肝"↩

4. 化飲食, 消肉積癥瘕 ※《본초강목》♣※ 健胃膨 : 消膨健胃 ※《제증신편》↩

5. 외 : 와 ※신정보 ↩

6. 痰氣渴 : 下氣消痰, 治霍亂肚痛.〔大明〕消渴者, 宜食之. ※《본초강목》↩

7. 蒂 : 蒂 ※신정보 ↩

8. 白柿 : 時珍曰, 白柿即乾柿生霜者. ※《본초강목》♣※ 霜 : 其霜謂之柿霜.
※《본초강목》↩

9. 和脾留白痰取紅 : 凡橘皮入和中理胃藥則留白, 入下氣消痰藥則去白 ※《본초강목》↩

10. 寶鑑 : 보감 ※신정보 ↩

11. 令顏媚 : 能悅顏色 ※《제증신편》↩

12. 藤落地結 : 枝上不結實, 其花落地, 即結實於泥土 ※《본초강목습유》↩

13. 藟 : 藟 ↩



夷果 五種

남만 과일 5종

荔枝 레지

여지

〔荔枝¹〕甘平智神益，
止渴好顏疔用核。

〔여지〕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지혜와 정신을 길러준다.

갈증을 멎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한다. 산증(疔症) 치료에는 여지의 씨를 쓴다.

레지.

○〔核〕入肝，治疔. 《本草》

여지.

○〔여지핵〕간경(肝經)에 들어가며 산증(疔症)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龍眼 圓眼

용안 원안

〔龍眼〕味甘主歸脾，
健忘怔忡益智宜。

〔용안〕은 성미가 달며 약성이 주로 비장으로 들어간다.

건망、정충을 치료하며 지혜를 더해준다.

一名圓眼。

원안(圓眼)이라고도 한다.

橄欖

감람

〔橄欖〕酸溫治諸毒,

河豚及酒喉痺屬.

〔감람〕은 성미가 시고 따뜻하며 여러 독을 치료한다.

복어독·주독을 해독하고 후비(喉痺)를 치료한다.

〔核〕主骨哽.

〔씨〕 주로 목에 뼈가 걸렸을 때 쓴다.

榧實 비즈

비실 비자

榧實味甘療五痔,

蠱毒三蟲差卽止.

비실(榧實, 비자열매)은 성미가 달며 5가지 치병(痔病)을 치료한다.

고독·삼시충을 치료한다. 나오면 곧 복용을 멈춘다.

비즈.

○産濟州.

비자.

○제주에서 생산된다.

海松子 잣

해송자 잣

海松子溫能補虛,

骨節風痺頭眩除.

해송자는 성미가 따뜻하며 허를 보해준다.

골절풍으로 저리거나 마비가 생긴 증상,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을 제거한다.

잣.

잣.

1. 枚 枝 ※《본초강목》↩

苳果 七種

오이과 과일 7종

甜苳 참외

참과 참외

甜苳甘寒渴煩消，
能利小便通三焦。¹

참과는 성미가 달고 차며 갈증과 번열을 없앤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삼초를 통하게 한다.

참외.

○忌麝香與酒，消苳勝於鹽水。《本草》²

참외.

○사향과 술을 금하니 참외의 약성을 없애는 데 소금물보다 우위이다. 《본초강목》

苳蓐 참외꼭지

과체 참외 꼭지

苳蓐苦寒善吐痰，
浮腫黃疸并可堪。

과체는 성미가 쓰고 차며 가래를 잘 토하게 한다.
부종과 황달에 아울러 쓸 만하다.

참외꼭지.

◦性急損胃.《本草》

참외 꼭지.

◦성질이 급하여 위(胃)를 손상시킨다.《본초강목》

西苳 슈박

서과 수박

西苳甘寒治暑毒,

煩渴血痢利溲足.³

서과는 성미가 달고 차며 서독(暑毒)을 치료한다.

번갈, 혈리를 치료하고 소변을 통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슈박.

◦胃弱不可.《本草》

수박.

◦위(胃)가 약한 사람은 쓸 수 없다.《본초강목》

葡萄 포도

포도

葡萄甘平痺淋透,

益氣强志乾發痘.⁴

포도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습비와 임증(淋症)에 침투한다.

기를 보익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말려서 쓰면 두창을 잘 올라오게 한다.

포도.

○多食眼昏.

○〈根〉止嘔噦, 治子懸. 《本草》

포도.

○많이 먹으면 눈이 흐려진다.

○〈뿌리〉 구역과 딸꾹질을 멎게 하고 태기가 위로 치받는 증상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蔓萸 밋머루, 山葡萄

영옥 산머루, 산포도

蔓萸味酸止渴優,

作酒益氣藤利洩.⁵

영옥은 성미가 시며 갈증을 멎게 하는 데 뛰어나다.

술로 만들어 쓰고 기를 보익하며 덩굴은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밋머루.

○卽山葡萄.

○〈根〉主熱淋. 《本草》

산머루.

○즉, 산포도(山葡萄)이다.

○〈뿌리〉 주로 열림(熱淋)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獼猴桃 다리

미후도 다래

獼⁶猴桃寒治渴煩,
熱壅石淋及胃反.⁷

미후도는 성질이 차며 갈증과 번조를 치료한다.

열응, 석림(石淋)과 번위를 치료한다.

다리.

다래.

砂糖 甘蔗

사당 감자

〔砂糖〕甘潤肺及中,
多食損齒濕熱蟲.⁸

〔사당〕은 성미가 달며 폐와 속을 자유키킨다.

많이 먹으면 치아가 손상되니 습열로 인해 충이 생기는 것이다.

卽甘蔗汁煎成者, 多食生蟲發疳⁹. 《本草》

곤, 감자(甘蔗, 사당수수) 즙을 끓여서 만든다. 많이 먹으면 충이 생기고 감닉(疳蠱)이 생긴다. 《본초강목》

1. 渴煩消, : 止渴, 除煩熱. ※《본초강목》↩

2. 忌麝香與酒, 消苾勝於鹽水. : 瓜最忌麝香與酒, 凡食瓜過多, 但飲酒及水服麝香, 尤勝於食鹽、漬水也. ※《본초강목》↩

3. 血痢利溲足. : 利小水, 治血痢 ※《본초강목》↩

4. 痺淋透 : 濕痺治淋 ※《제증신편》

筋骨濕痺.....調中治淋. ※《본초강목》♣※ 乾發痘：乾則發痘 ※《제중신편》↩

5. 作酒：亦堪爲酒. ※《본초강목》↩

6. 獮 𪛗 獮 ※《본초강목》↩

7. 獮 𪛗 獮 ※《본초강목》♣※ 治渴煩：止暴渴, 解煩熱 ※《본초강목》↩

8. 潤肺及中：潤肺和中 ※《제중신편》♣※ 濕熱蟲.：饕生胃火, 乃濕土生熱, 故能損齒生蟲 ※《본초강목》↩

9. 疳慝 𪛗 疳蠹 ※《제중신편》↩

水果 三種

물에서 나는 과일 3종

藕 련순

우 연근

藕味甘寒能清熱,

解酒消煩治諸血.

우(藕, 연근)는 성미가 달고 차며 열을 내려준다.

주독을 해독하고 번조를 없애주며 각종 혈증을 치료한다.

련순.

○〈節〉主諸血症.

○〈藥〉瀉溫. 清心固精, 治血崩吐血.

○〈房〉主破血, 胞衣不下.

○〈葉〉主血脹腹痛. 《本草》

연근.

○〈연근마디〉여러 혈증(血症)을 치료한다.

○〈연꽃술〉성미가 곱고럽고 따뜻하다. 심(心)을 맑게 하며 정(精)을 견고하게 하고 혈붕·토혈을 치료한다.

○〈우방(藕房)〉주로 어혈을 깨뜨리고 산후 태반이 내려오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잎〉혈창(血脹)으로 배가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蓮肉 련밤

연육 연밥

蓮肉味甘健脾胃,

止瀉澀精養心氣.¹

연육은 성미가 달며 비(脾)와 위(胃)를 튼튼하게 한다.

설사를 멎게 하고 정(精)이 새는 것을 거두어 들이며 심(心)과 기(氣)를 길러준다.

련밤.

○補十二經血脈.

○水沈者, 謂之石蓮.

○〈薏〉卽蓮心, 治血疾. 《本草》

연밥.

○12경의 혈맥을 보한다.

○물에 담가둔 것을 석련(石蓮)이라고 한다.

○〈연의(蓮薏)〉 곧, 연심(蓮心)이다. 혈병(血病)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芡實 거식련밤, 鷄頭實

검실 가시연밤, 계두실

芡實味甘能益精,²

腰膝濕痺酸疼并.³⁴

검실은 성미가 달며 정(精)을 잘 북돋운다.

허리와 무릎이 습으로 인해 저리고 시고 아픈 증상을 아울러 치료한다.

거식련밤.

○一名鷄頭實, 小兒多食, 不長. 《本草》

가시연밥.

○계두실(鷄頭實)이라고도 한다. 소아가 많이 먹으면 성장하지 않는다. 《본초강목》

1. 健脾胃：健脾理胃 ※《제중신편》♣※ 養心氣：清心養氣 ※《제중신편》↩

2. 能益精：益精氣 ※《본초강목》,《제중신편》↩

3. 腰膝濕痺酸疼并：腰膝酸疼, 皆主濕痺 ※《제중신편》↩

4. 能益精：益精氣 ※《본초강목》,《제중신편》♣※ 腰膝濕痺酸疼并：腰膝酸疼, 皆主濕痺 ※《제중신편》↩

麻麥稻 九種

깨, 보리, 벼 9종

胡麻仁 검은 참씨, 巨勝

호마인 검은 참깨, 거승

胡麻仁甘疔腫瘡,

熟¹補虛損筋力強.²

호마인은 성미가 달며 정종(疔腫)과 창(瘡)을 치료한다.

익힌 것은 허손을 보하고 근(筋)을 강력하게 한다.

검은 참씨.

○一名巨勝.

○〈葉〉名青囊, 治風寒濕痺. 《本草》

검은 참깨.

○거승(巨勝)이라고도 한다.

○〈 잎〉 청양(靑囊)이라고도 한다. 풍, 한, 습으로 인한 비증(痺症)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麻油

마유

麻油性冷善解毒,

能除百病無不足.

마유는 성질이 냉하며 잘 해독한다.

온갖 병을 잘 없애는 데 부족함이 없다.

참인³름.

○麻溫而油寒. 《本草》

참기름.

○참깨는 성질이 따뜻하나 참기름은 성질이 차다. 《본초강목》

火麻 삼삐, 大麻

화마 삼씨, 대마

火麻味甘澁可泄,

下乳催生潤腸結.⁴

화마(火麻)는 성미가 달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젖이 잘 나오게 하고 출산을 촉진시키며 대장을 윤활하게 하여 막힌 변을 잘 나오게 한다.

삼삐.

○一名大麻.

○〈根〉主瘀血石淋. 《本草》

삼씨.

○대마(大麻)라고도 한다.

○〈뿌리〉어혈, 석림(石淋)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小麥 밀

소맥 밀

小麥微寒除煩熱,

止渴利澁養肝血.⁵

소맥은 성미가 약간 차며 번열을 없애준다.

번갈을 없애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간기(肝氣)를 길러주고 혈증을 낮게 한다.

밀.

○入少陰太陽.

○麥涼而麴熱.

○〈浮少麥〉 밀^{밤복이} 除熱止汗.

○〈麴〉 補氣消癰散血, 忌蘿菹. 《本草》

밀.

○소음경、태양경에 들어간다.

○밀은 성질이 서늘하나 밀가루는 뜨겁다.

○〈부소맥〉 밀^{감부기} 열을 내려주고 땀을 멎게 한다.

○〈밀가루〉 기를 보해주고 응을 없애주며 어혈을 풀어준다. 나복을 금한다.

《본초강목》

大麥 보리, 牟麥

대맥 보리, 모맥

大麥鹹溫能補虛,

益氣調中泄可除.

대맥은 성미가 짜고 따듯하며 허를 보해준다.

기를 북돋우고 속을 조화롭게 하며 설사를 멎게 한다.

보리.

○一名牟麥.

보리.

○모맥(牟麥)이라고도 한다.

蕎麥 모밀

교맥 메밀

蕎麥甘寒鍊五臟，
益氣動病類相當。⁶

교맥은 성미가 달고 차며 오장을 정제한다.

기를 보익하나 일으키는 병이 상당하다.

모밀.

○久食動風.

○〈麩〉發起諸瘡. 以砂糖水調服, 治痢. 炒焦熱湯調服, 治絞腸沙.

○解此毒, 用蘿菔搗汁飲, 如無, 取子研水服. 《本草》

메밀.

○오래 먹으면 풍증이 생긴다.

○〈메밀가루〉여러 창증(瘡症)을 일으킨다. 설탕물에 타 먹이면 이질을 치료한다. 검게 볶아서 뜨거운 물에 타서 먹으면 교장사(絞腸沙)를 치료한다.

○메밀 독을 풀려면 나복을 찢어 나온 즙을 마신다. 나복이 없으면 나복자를 물에 갈아서 먹는다. 《본초강목》

糯米 찹쌀, 稻

나미 찹쌀, 찰벼

糯米甘寒久反熱，
亦能補益霍並輟.

나미(糯米, 찹쌀)는 달고 차며 오래 복용하면 도리어 열이 난다.

또한 잘 보익하며 곽란을 아울러 멎게 한다.

찰쌀.

○一名稻.

○脾穀.

○壅諸經絡, 四肢不遂, 發風動氣, 不可多食.

○〈米泔〉止渴解毒. 《本草》⁷

찰쌀.

○도(稻)라고도 한다.

○비(脾)의 곡식이다.

○찰쌀은 여러 경락을 막고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하며 풍을 유발하여 기를 동하게 하므로 많이 먹지 않아야 한다.

○〈찰쌀뜨물〉 갈증을 멎게 하고 해독 작용을 한다. 《본초강목》

粳米 멧쌀

강미 멥쌀

粳米甘平和胃主,

壯骨益陽⁸ 渴瀉愈.⁹

강미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주로 위(胃)를 조화롭게 한다.

뼈를 튼튼하게 하며 장(腸)을 유익하게 하며 갈증과 설사를 낮게 한다.

멧쌀.

○入手太陰少陰.

○〈飯〉乘熱, 付腫毒.

○〈泔二泔〉止渴, 利小便. 《本草》

멥쌀.

○수태음경、수소음경에 들어간다.

○〈쌀밥〉 밥이 뜨거울 때 종독(腫毒)에 붙여준다.

○〈석이감(浙二甘, 두 번째 일어 낸 쌀뜨물)〉 갈증을 멎게 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본초강목》

荳子 들씨

임자 들깨

荳子辛溫補精髓,
潤肺下氣渴嗽止.¹⁰

임자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정(髓)과 골수를 더해준다.
폐를 순환하게 하고 기를 내려주며 갈증과 기침을 멎게 한다.

들씨.

들깨.

1. 熟 : 熱 ※신정본 ←

2. 胡麻仁甘疔腫瘡 : 胡麻仁甘, 疔腫惡瘡 ※《제중신편》 ←

3. 이 : 기 ※중정본, 신정본 ←

4. 火麻味甘, 下乳催生, 潤腸通結, 小水能行 ※《제중신편》 ←

5. 止渴利溲養肝血 : 止煩渴咽燥, 利小便, 養肝氣, 止漏血唾血 ※《본초강목》
←

6. 鍊五臟 : 蕎麥能鍊五臟滓穢 ※《본초강목》♣※ 動病類相當 : 雖動諸病, 能鍊五臟 ※《제중신편》
久食動風, 令人頭眩. ※《본초강목》 ←

7. 訖曰涼. 發風動氣, 使人多睡, 不可多食. ※《본초강목》 ←

8. 益陽 益腸 ※《본초강목》↩

9. 渴瀉愈. : 止煩止渴止泄. ※《본초강목》↩

10. 補精髓 : 填精髓 ※《본초강목》↩



稷粟 八種

기장·조 8종

稷米 피쌀, 粢

직미 피쌀, 자

稷米甘冷能補益,

過雖發冷壓丹石.¹

직미는 성미가 달고 냉하며 잘 보익한다.

지나치게 먹으면 냉증이 생기며 단석의 독성을 눌러준다.

피쌀. 一名粢. 脾穀. 《本草》

피쌀. 자(粢)라고도 한다. 비(脾)의 곡식이다. 《본초강목》

黍米 기장쌀

서미 기장쌀

黍米甘溫縱補益,

久食令人且煩劇.

서미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잘 보익한다.

오래 먹으면 사람에게 또 심한 번조증을 생기게 한다.

기장²쌀.

○肺穀. 《本草》

기장쌀.

○폐(肺)의 곡식이다. 《본초강목》

玉蜀黍 옥수수

옥촉서 옥수수

玉蜀黍平能開胃，
治淋偏宜根葉味。³

옥촉서는 성질이 평하며 위(胃)를 잘 열어준다.

임병(淋病)을 치료하며 약용으로는 뿌리와 잎의 약미만 써야 한다.

옥수수.

옥수수.

黃粱 누른 조밭

황량미 누런 좁쌀

黃粱甘平除煩渴，
益氣止霍吐瀉關。⁴

황량미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번갈을 없애준다.

기를 북돋아주고 객란, 구토, 설사를 그치게 한다.

누른 조밭.

○勝於靑白粱. 《本草》

누런 좁쌀.

○청량미와 백량미보다 좋다. 《본초강목》

靑粱 싱동찰

청량미 생동잡쌀

靑梁微寒止泄痢，
利溲消渴熱胃痺。⁵

청량미는 성질이 약간 차며 설사와 이질을 멎게 한다.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소갈, 열중(熱中), 위비(胃痺)를 치료한다.

싱동찰.

생동찹쌀.

粟米 조 쌀

속미 좁쌀

粟米鹹寒能益氣，
利⁶溲養腎治熱胃。

속미는 성미가 짜고 차며 기를 잘 북돋운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신(腎)을 길러주고 위(胃) 속의 열을 다스린다.

조 쌀.

좁쌀.

秬萄 슈슈

출촉 수수

秬萄甘溫能溫中，
澀腸止霍與黍同。⁷

출촉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속을 따뜻하게 한다.
장을 잘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객란을 멎게 하며 점성이 기장(黍)과 같다。⁸

슈슈.

○功效同黍.

수수.

○효능이 기장(黍)과 같다.

薏苡仁 울무쌀

익이인 울무쌀

薏苡味甘除濕痺,

治肺癰痿拘攣類.⁹

익이인은 성미가 달며 습비(濕痺)를 제거한다.

폐옹(肺癰), 폐위(肺痿)와 경련이 이는 증상들을 치료한다.

울무쌀.

○屬土, 陽明藥.

○利水, 殺蟲, 輕身, 勝瘴氣.

○〈根〉下三蟲, 治疸, 墮胎. 《本草》

울무쌀.

○토(土)에 속하며 양명경의 약이다.

○수기를 잘 통하게 하며 충을 죽이고 몸을 가볍게 하며 산람장기를 억누른다.

○〈뿌리〉삼시충을 없애고 황달을 치료하며 유산시킨다. 《본초강목》

1. 壓丹石 : 壓丹石毒發熱 ※《본초강목》↩

2. 장 : 장 ※신정본 ↩

3. 治淋偏宜根葉味. : 藥用根葉, 治淋氣味 ※《의종손익부여》↩

4. 止霍亂下痢, 利小便, 除煩熱. ※《본초강목》↩

5. 消渴熱胃痺. : 青梁米, 味甘微寒無毒. 主胃痺熱中, 除消渴, 止泄利. ※《천금요방》

胃痺熱中消渴, 止泄痢 ※《본초강목》↩

6. 利 : 和 ※신정본 ↩

7. 與黍同. 粘者同黍. ※《제증신편》↩

8. 점성이 기장(黍)과 같다. : 여기서는 기장(黍)과 점성이 같다고 하였지만 《본초강목》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면서 《이아》 손염(孫炎)이 말한 "속(粟)과 점성이 같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

蘇頌《圖經》謂稭爲黍之粘者...皆誤也.....孫炎注《爾雅》謂稭爲粘粟者, 得之.

※《본초강목》↩

9. 治肺癰痿拘攣類. : 筋脈拘攣, 肺癰肺痿 ※《제증신편》↩

菽豆 四種

콩 4종

大豆 흰콩

대두 흰콩

大豆甘平中可鞏,
補臟煖胃久身重.

대두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속을 튼튼하게 한다.

오장을 보하고 위(胃)를 따뜻하게 하며 오래 먹으면 몸을 무겁게 한다.

흰콩. 生平. 炒熱黑色者, 解百藥毒.

○腎穀.

○小兒, 以炒豆猪肉同食, 必壅氣致死, 十有八九, 十歲以上, 不畏.

○〈櫛豆〉자근검은콩. 此雄黑豆也. 俗稱쥐눈이콩. 治風痺, 產後冷血. 炒焦熱, 投酒中飲之. 《本草》

흰콩. 생것은 성질이 평하다. 검게 되도록 뜨겁게 볶아서 쓰면 온갖 약독을 해독한다.

○신(腎)의 곡식이다.

○소아에게 볶은 콩과 돼지고기를 함께 먹이면 반드시 기가 막혀서 십중팔구 죽게 된다. 10살 이상부터는 같이 먹어도 괜찮다.

○〈노두(櫛豆)〉작은 검정콩. 이것은 숫검정콩이다. 민간에서는 '쥐눈이콩'이라고 한다. 풍비(風痺)·산후 냉혈을 치료한다. 검게 되도록 뜨겁게 볶아서 술에 넣어두고 그 술을 마신다. 《본초강목》

大豆黃卷 콩기름순

대두황권 콩나물 순

大豆黃卷治筋攣,
消水脹滿膝痛痊.¹

대두황권은 근의 경련을 치료한다.
수병(水病)으로 배가 창만한 것과 무릎 통증을 낮게 한다.

콩기름순.

콩나물 순.

赤豆 불근팻

적소두 붉은 팻

赤豆酸平腫滿收,
排膿消渴並利溲.²

적소두는 성미가 시고 평하며 부종과 창만을 거둔다.
고름을 배출하고 소갈을 치료하며 아울러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불근팻.

붉은 팻.

菥豆 녹두

녹두

菥豆氣寒解百毒,
並治煩渴諸熱屬.³

녹두는 성질이 차며 온갖 독을 해독한다.

아울러 번열과 소갈, 여러 열증들을 치료한다.

녹두.

○〈粉〉解百藥毒. 痘瘡濕爛, 糝之.

○〔皮〕解熱退腎. 《本草》

녹두.

○〈녹두분〉 온갖 약독을 해독한다. 두창이 짓무른 곳에 뿌려준다.

○〔녹두껍질〕 열을 내리고 예막을 없애준다. 《본초강목》

1. 消水脹滿：消水病脹滿 ※《본초강목》↩

2. 腫滿收：下水腫.....下腹脹. ※《본초강목》↩

3. 並治煩渴：治丹毒煩熱風疹.....止消渴. ※《본초강목》↩

造釀 九種

조양 9종

淡豆豉 약전국

담두시 약전국

淡豆豉寒懊¹懣²,
傷寒頭疼兼理瘴.

담두시는 성미가 차며 오뇌(懊懣)를 치료한다.

상한 두통을 치료하고 겸하여 산람장기를 다스린다.

약전국.

약전국.

豆腐

두부

豆腐甘平脾和暢,
清熱散血過則脹.

두부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비(脾)를 조화롭게 한다.

열을 내려주고 어혈을 흠어준다. 지나치게 먹으면 바로 창만해진다.

두부.

○蘿菔治毒, 忌酒.

○暑月恐有人汗, 尤慎之. 《本草》

○漿水治毒. 俗方

두부.

○나복으로 두부 독을 다스린다. 술을 금한다.

○여름에 먹으면 땀이 나게 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서 써야 한다. 《본초강목》

○장수(漿水)로 두부 독을 다스린다. 속방

陳倉穀米 칭의드러무근쌀

진창곡미 창고의 묵은 쌀

陳倉穀米調和脾,

渴煩瀉痢皆可醫.³

진창곡미는 비(脾)를 조화롭게 한다.

갈증, 번조증, 설사, 이질을 모두 낫게 한다.

칭의드러무근쌀⁴.

창고의 묵은 쌀

神麴 약의드논누룩

신국 약누룩

神麴味甘善開胃,

消食破結下痰氣.⁵

신국은 성미가 달며 위(胃)를 잘 열어준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뭉친 것을 깨뜨리며 담(痰)과 기(氣)를 내려준다.

약의 드논 누룩.

○入足陽明.

○入藥, 炒令黃, 以助土氣.

○〈寒食麪〉 한식날 만단 밀가루 국수. 主破積行氣.

○〔紅麴〕 主消食燥胃, 治赤白痢.

○陳者良. 《本草》

약 누룩.

○조양명경에 들어간다.

○약에 넣을 때는 누렇게 되도록 볶아서 토(土)의 기운을 돕는다.

○〈한식면〉 한식날 만든 밀가루 국수. 주로 적(積)을 풀어주고 기(氣)를 잘 운행되게 한다.

○〔홍국〕 주로 음식을 소화시키며 위(胃)를 말려준다. 적백리를 치료한다.

○오래 묵은 것이 좋다. 《본초강목》

麥芽 보리길음

맥아 보리질금

麥芽甘溫消宿食,

行血散滯腹脹息.

맥아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묵은 체증을 소화시킨다.

혈을 잘 운행되게 하며 체기를 흠어주고 배가 더부룩한 증상을 낮게 한다.

보리길음.

○炒黃.

보리질금.

○누렇게 볶아서 쓴다.

飴糖 엿

이당 엿

飴糖味甘潤肺脾,

止渴消痰滿休施.⁶

이당은 성미가 달며 폐와 비(脾)를 자운시킨다.

갈증을 멎게 하며 담을 녹인다. 창만이 있는 사람은 처방을 중단해야 한다.

엿.

○入太陰.

○多食甘, 甘傷腎, 骨痛齒落. 《本草》

엿.

○태음경에 들어간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단맛이 신(腎)을 상하게 하여 뼈가 아프고 치아가 빠진다. 《본초강목》

醬 장

장

醬性冷利除煩熱: 除熱止煩,

魚菜毒與火毒滅.⁷

장(醬)은 성질이 냉하고 미끄러우며 번만과 열을 없애준다.

생선독, 채소독과 화독(火毒)을 없애준다.

장.

○殺飲食百藥毒, 故聖人不得其醬, 不食.⁸

장.

○장은 음식독과 온갖 약독을 해독한다. 그러므로 공자는 음식에 알맞은 장이 없으면 먹지 않았다.

醋 초

초

醋消腫毒積瘕良,

産後血暈並金瘡.⁹

식초는 종독(腫毒), 적취, 징가에 좋다.

산후의 혈혼을 치료하고 아울러 금창으로 다쳐서 생긴 혈혼도 치료한다.

초.

○多食傷筋骨.

○王戩不食醋, 年踰九十.

○殺魚肉蔬菜毒. 《本草》

식초.

○많이 먹으면 근골이 상한다.

○왕전(王戩)은 초(醋)를 먹지 않았으니 90세까지 살았다.

○생선독, 고기, 채소독을 풀어준다. 《본초강목》

酒 술

술

酒通血脈上行性,

少飲壯神過損命.

술 혈맥을 통하게 하며 위로 운행하는 성질이 있다.

조금 마시면 정신을 단단하게 하나 지나치게 마시면 수명이 단축된다.

술.

○〈燒酒〉自元時始創, 大熱大毒, 殺蟲辟瘴, 洗目赤腫.

○〈糟〉去草菜毒, 罨撲損瘀血. 《本草》

○入藥, 用無灰酒.

술.

○〈소주〉원(元)나라 때부터 소주가 만들어졌다. 성질이 크게 뜨겁고 독성이 많다. 충을 죽이며 산람장기를 물리친다. 눈이 붉게 부었을 때 소주로 씻어준다.

○〈조(糟, 술지게미)〉풀독과 채소독을 없앤다. 타박상으로 어혈이 생긴 부위에 덮어준다. 《본초강목》

○약에 넣을 때는 무회주(無灰酒)로 쓴다.

1. 懷懷：懷惱 ←

2. 兼理瘴：兼理瘴氣 ※《제중신편》 ←

3. 調和脾：調和脾胃 ※《제중신편》♣※ 渴煩：解渴除煩 ※《제중신편》 ←

4. 창의드러무근\ue789：창의드러무근\ue789 ※증정본
창의드러무근\uebd8 ※신정본 ←

5. 下痰氣：逐痰調中下氣 ※《제중신편》♣※ 消食下氣, 除痰逆霍亂 ※《본초강목》 ←

6. 滿休施：時珍曰, 凡中滿吐逆...切宜忌之. ※《본초강목》 ←

7. 除煩熱：除熱止煩 ※《제중신편》

除熱, 止煩滿 ※《본초강목》 ←

8. 故聖人不得其醬, 不食：割不正, 不食, 不得其醬, 不食. ※《논어(論語)·향당(鄉黨)》 ←

9. 産後血暈並金瘡：産後金瘡血暈皆治 ※《제중신편》

産後及傷損金瘡出血昏運 ※《본초강목》 ←



卵蟲 十種

난충 10종

石蜜 술

석밀 꿀

石蜜甘平須煉熟,

潤燥解毒補中速.¹

석밀은 성미가 달고 평하며 반드시 불에 졸인다.

마른 것을 윤활하게 하고 해독 작용을 하며 속을 빠르게 보해준다.

술.

○蜂寒而蜜溫.

○〈蠟〉主下痢膿血, 胎動下血. 以鷄子大, 煎三五沸, 投酒半升服, 立差. 《本草》

꿀.

○벌은 성질이 차지만 꿀은 성질이 따뜻하다.

○〈밀랍〉 주로 이질과 설사, 농혈(膿血), 태동(胎動)으로 하혈하는 증상을 낮게 한다. 달걀 만한 밀납을 3 - 5번 끓여오르도록 달여서 술 0.5되를 넣어 먹으면 곧 낫는다. 《본초강목》

蜂房 말벌의 집

봉방 말벌 집

蜂房鹹苦治癰瘰,

腸癰瘰癧牙疼劑.²

봉방은 성미가 짜고 쓰며 경간과 계종을 치료한다.

장웅, 나력, 치통에 쓰는 약제이다.

말벌의집.

○惡乾薑、丹參、黃芩、芍藥.《本草》

말벌 집.

○건강, 단삼, 황금, 작약과 상오약이다.《본초강목》

五倍 복나모여름, 文蛤

오배자 붉나무 열매, 문합

五倍苦酸療齒疳,

痔癰瘡膿風熱覃.³

오배자는 성미가 쓰고 시며 충치로 인한 감닉을 치료한다.

치질, 선창(癰瘡), 농양, 풍열을 안정시킨다.

복나모 여름.

○一名文蛤.《本草》

붉나무 열매.

○문합(文蛤)이라고도 한다.《본초강목》

百藥煎

백약전

百藥煎酸治嗽痰,

下血久痢渴亦堪.⁴

백약전은 성미가 시며 기침과 가래를 치료한다.

피를 설사하거나 오래된 이질을 치료하며 또한 갈증을 멎게 할 만하다.

蠶 누에죽어믈르니

백강잠 죽은 누에를 말린 것

〔蠶〕味鹹治風癰,

濕痰喉痺瘡毒癰.⁵

〔백강잠〕은 성미가 짜며 풍증과 경간을 치료한다.

습담, 후비(喉痺), 창독으로 생긴 흉터를 치료한다.

누에죽어믈르니.

○〈原蠶蛾〉 도나기누에나빈⁶, 第二番也. 益精壯陽.

○〈蠶沙〉 누에똥⁷. 以麻油, 浸二三宿, 研細, 塗爛弦風, 隔宿即愈.

○〈繰絲湯〉 고치컨⁸물, 止消渴, 大驗. 《本草》

죽은 누에를 말린 것.

○〈원잠아〉 되내기누에나방. 두 번째 치는 누에이다. 정(精)을 더해주고 양(陽)을 튼튼하게 한다.

○〈잠사〉 누에 똥. 마유(麻油)에 2 - 3일 담가두었다가 잘게 갈아서 난현풍(爛弦風) 환부에 바르고 하룻밤 지나면 곧 낫는다.

○〈조사탕(繰絲湯)〉 고치에서 켜낸 실을 달인 물. 소갈을 없애는 데 효험이 매우 크다. 《본초강목》

蜻蛉 존지리

청령 잠자리

蜻蛉微寒能壯陽,

止精煖下青者良.⁹

청령은 성질이 약간 차며 양(陽)을 튼튼하게 한다.

정(精)이 새는 것을 멎게 하고 하초를 따뜻하게 하며 약용으로는 푸른 빛깔의 잠자리가 좋다.

존진¹⁰리.

○去翅足, 炒用.

○〈樗鷄〉 팻비히, 今所謂莎鷄, 一名紅娘子. 主陰痿, 益精, 微炒用. 《本草》

잠자리.

○날개와 다리를 떼어내고 볶아서 쓴다.

○〈저계〉 팻비히. 지금은 사계(莎鷄)라고도 한다. 홍낭자(紅娘子)라고도 한다.

음위(陰痿)를 치료하며 정(精)을 더해준다. 약간 볶아서 쓴다. 《본초강목》

斑猫 갈외

반묘 가뢰

斑猫有毒主破血,

諸瘡癰癰水道沒.¹¹

반묘는 독성이 있으며 주로 어혈을 풀어준다.

여러 창(瘡)과 나락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

갈외.

○性寒.

○二三月芫青, 四五月王不留行蟲, 六七月葛上亭長, 八九月斑猫, 九十月地膽, 主治皆相似.

○去翅足, 同糯米炒熟用, 生則吐瀉. 《本草》

가뢰.

○성질이 차다.

○2 - 3월에는 원청(芫青), 4 - 5월에는 왕불류행충(王不留行蟲), 6 - 7월에는

갈상정장(葛上亭長), 8 - 9월에는 반묘, 9 - 10월에는 지담(地膽)이라고 부르며
주치증은 모두 서로 같다.

○날개와 다리를 떼어내고 쓴다. 찹쌀과 함께 익도록 볶아서 쓴다. 생것으로 쓰
면 구토·설사가 난다. 《본초강목》

全蝎 전갈

전갈

〔全蝎〕味辛却風痰,

口眼喎斜癰瘡戩.¹²

〔전갈〕은 성미가 매우며 풍담(風痰)을 물리친다.

구안와사와 풍간으로 생긴 경련에 적당하다.

전갈.

○有毒.

○入肝血分.

○水洗, 去腹中土.

○〔稍〕其方无切¹³. 《本草》

전갈.

○독성이 있다.

○간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물에 씻어서 뱃속의 흙을 빼내고 쓴다.

○〔꼬리〕 약의 효력이 더욱 좋다. 《본초강목》

水蛭 거머리

거머리

水蛭味鹹破積瘀，
通經墮產折傷除。¹⁴

수질(水蛭)은 성미가 짜며 적취와 어혈을 없애준다.
월경을 잘 통하게 하고 유산시키며 골절상을 치료한다.

거머리. 畏石灰鹽. 《本草》

거머리. 석회、소금과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蜘蛛 말거미

지주 말거미

蜘蛛氣寒宜狐疝，
並治蛇咬疔腫患。¹⁵

지주(蜘蛛)는 성질이 차며 호산(狐疝)¹⁶에 쓴다.
아울러 뱀에 물린 곳이나 정종(疔腫)의 환부를 치료한다.

말거미.

○〈壁錢〉납거미, 無毒. 金瘡血不止, 取汁點之.

○〈錢幕〉主小兒嘔吐. 《本草》

말거미.

○〈벽전(壁錢)〉납거미. 독이 없다. 쇠붙이에 다쳐 피가 멎지 않을 때 납거미의
즙을 내어 상처에 떨어뜨려 준다.

○〈납거미집〉 주로 소아의 구토를 치료한다. 《본초강목》

1. 潤燥：潤心肺燥熱 ※《본초강목》↩

2. 癰瘕：驚癰瘕瘕 ※《본초강목》↩

3. 齒疳：齒宣疳蠱 ※《본초강목》♣※ 痔癰瘡膿風熱覃：肺臟風毒流溢皮膚，作風濕癰，疥癢膿水，五痔下血不止 ※《본초강목》↩
4. 下血：大腸便血.....腸風下血.....腸風臟毒下血者. ※《본초강목》↩
5. 治風癰：諸風驚癰 ※《제증신편》♣※ 瘡毒癰：瘡毒癰痕 ※《제증신편》↩
6. \ue668：비 ※신정본 ↩
7. \ueabe：\ueab3 ※신정본 ↩
8. 𢶏：𢶏 ※신정본 ↩
9. 强陰，止精.(別錄) 壯陽，暖水臟. ※《본초강목》♣※ 靑者良：古方惟用大而靑者，近時房中術，亦有用紅色者. ※《본초강목》↩
10. 지：자 ※신정본 ↩
11. 水道没：水道能行 ※《제증신편》
通利水道 ※《본초강목》↩
12. 却風痰：却風痰毒 ※《제증신편》♣※ 口眼喎斜癰搐戇：口眼喎斜風癰發搐 ※《제증신편》↩
13. 方无切 𢶏 力尤功 ※《본초강목》
方尤切 ※중간본
力尤切 ※신정본 ↩
14. 破積瘀：除積瘀堅 ※《의종손익부여》♣※ 墮胎.....治女子月閉.....治折傷墜蹠畜血有功. ※《본초강목》↩
15. 狐疝：張仲景治陰狐疝氣，偏有大小，時時上下者，蜘蛛散主之. ※《본초강목》♣※ 蛇虺咬塗，疔腫敷用 ※《의종손익부여》↩
16. 호산(狐疝)：탈장으로 음낭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아픈 증상(陰狐疝氣) ↩



化蟲 四種

화충 4종

蟬退 미아미허물

설퇴 매미 허물

蟬退甘平除風驚,

並治疳熱腎侵睛.¹

설퇴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풍증과 경증(驚症)을 없애준다.

아울러 감병(疳病)과 열증을 치료하고 예막이 눈동자를 침범한 것을 낮게 한다.

미아미허물.

○去翅足, 湯洗用. 《本草》

매미 허물.

○날개와 다리를 떼어내고 끓는 물에 씻어서 쓴다. 《본초강목》

蟾蜍 뱀거비

섬여 두꺼비

蟾蜍氣凉殺疳癖,

瘡毒可祛解瘟疫.²

섬여는 성질이 서늘하며 감식창(疳蝕瘡)과 옆구리가 뭉친 것을 제거한다.

창독(瘡毒)을 물리치며 온역을 풀어준다.

뚝거비.

○有毒.

○酒炙去骨, 或燒存性.

○〈蝦蟇〉 지고리, 塗惡瘡癰癤.

○〈青蛙〉 머구리, 治單腹脹.

○黑者, 南人食之, 補虛損. 《本草》

두꺼비.

○독성이 있다.

○술에 축여서 구운 다음 뼈를 제거하고 쓴다. 또는 약성이 남도록 태워서 쓴다.

○〈하마〉 개구리. 악창과 나력에 발라준다.

○〈청와〉 머구리. 복창 증상만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검은 빛이 도는 청와를 남쪽 지방 사람들은 먹는다. 허손을 보해준다. 《본초강목》

蜈蚣 진에

오공 지네

蜈蚣味辛蛇虺毒,

墮胎逐瘀鬼邪觸.³

오공은 성미가 매우며 뱀이나 독사의 독을 해독한다.

낙태시키고 어혈을 풀어주며 귀신이나 사기(邪氣)에 감촉된 것을 낮게 한다.

진에.

○赤者, 薑汁炙, 去頭足, 末.

○畏蜘蛛、鷄屎、桑皮、白鹽. 《本草》

지네.

◦붉은 지네를 생강즙에 구워서 머리와 다리를 제거하여 가루 낸다.

◦지주, 닭똥, 상피, 흰소금과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蚯蚓 지렁이

구인 지렁이

蚯蚓氣寒治大熱,

傷寒瘟疫狂譫絕.⁴

구인은 성질이 차며 심한 열을 내려준다.

상한이나 온역, 헛소리를 하는 증상을 멎게 한다.

지렁이.

◦畏蔥鹽.

◦殺三蟲. 《本草》

지렁이.

◦충백, 소금과 상외약이다.

◦삼시충을 죽인다. 《본초강목》

1. 風驚：消風定驚 ※《제증신편》※ 治疳熱：殺疳除熱 ※《제증신편》↩

2. 殺疳癖：殺疳蝕癖 ※《의종손익부여》↩

3. 啖諸蛇、蟲、魚毒, 殺鬼物老精溫瘧. ※《본초강목》↩

4. 傷寒瘟疫狂譫絕.：療傷寒.....溫病, 大熱狂言, 飲汁皆瘥. ※《본초강목》↩



龍 四種

용 4종

龍骨 용의뼈

용골 용의 뼈

〔龍骨〕味甘精可慳,
崩帶腸癰風熱癰.¹

〔용골〕은 성미가 달며 정(精)을 견고하게 한다.

붕루, 대하, 장옹(腸癰), 풍열(風熱), 경간(驚癇)을 치료한다.

용의뼈².

○入手足厥陰沙³陰.

○煨或酒浸.

○得人參、牛黃良, 畏石膏, 入補藥神效.

○〔齒〕大寒, 忌鐵, 鎮心安魂, 定癰. 《本草》⁴

용의 뼈.

○수궤음경, 족궤음경, 수소음경, 족소음경에 들어간다.

○불에 달궈서 쓰거나 술에 담가서 쓴다.

○인삼, 우황과 함께 쓰면 좋다. 석고와 상외약이다. 보하는 약에 넣으면 신기한 효능이 있다.

○〔용치(龍齒)〕성질이 크게 차며 철기 사용을 금한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혼(魂)과 경간(驚癇)을 안정시킨다. 《본초강목》

紫稍花

자초화

〔紫稍花〕溫秘精澁，
小便不禁囊濕痒。⁵

〔자초화〕는 성질이 따뜻하며 정(精)이 흐르는 것을 간직하게 한다.
소변을 지리는 증상과 음낭이 습하고 가려운 증상을 낫게 한다.

弔之精，一云與⁶龍涎。⁷

자초화는 조(弔)⁸의 정액을 말하며 용의 침이라고도 한다.

穿山甲

천산갑

〔穿山甲〕毒痔癰瘡，
吹奶腫痛鬼魅藏。

〔천산갑〕은 독성이 있으며 치질, 개선, 창(瘡)을 치료한다.
젖몸살로 붓고 아픈 것을 치료하고 귀매(鬼魅)를 없애준다.

微寒。

○土炒，或蛤粉炒。

○尾甲有力。《本草》

성질이 약간 차다.

○흙과 함께 볶거나 합분(蛤粉)과 함께 볶아서 쓴다.

○꼬리、갑피에 약의 효력이 있다.《본초강목》

蛤蚧

합개

〔蛤蚧〕鹹平嗽肺痿，
下淋通水助陽奇。⁹

[합개]는 성미가 짜고 성질이 평하며 기침과 폐위(肺痿)를 치료한다.
수도를 통리시켜 소변이 방울지는 것을 잘 나오게 하고 양기를 북돋는 데
좋다.

其毒在眼, 去眼及毛, 酒浸焙乾, 勿傷尾. 《本草》

합개의 독은 눈에 있으므로 눈과 털을 제거하고 쓴다. 술에 담갔다가 곁불에
말려서 쓴다. 꼬리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 《본초강목》

1. 崩帶腸癰風熱癰. : 崩帶腸癰驚癰風熱. ※《제증신편》↩
2. 𩇛 : \ueb51 ※신정본 ↩
3. 沙 少 ※중정본, 신정본, 《의종손익부여》↩
4. 入手足少陰、厥陰經. ※《본초강목》※ 安魂, 定癰. : 安魂, 驚癰 ※《의종손
익부여》↩
5. 秘精盪 : 秘精益陽 ※《의종손익부여》
益陽秘精 ※《의종손익부여》↩
6. 與 : 類 ※신정본 ↩
7. 弔之精 : 弔. ... 精名紫稍花. ※《본초강목》※ 或云紫稍花與龍涎相類, 未知
是否. ※《본초강목》↩
8. 조(弔) : 길조(吉弔)로 용의 일종이다. ↩
9. 下淋通水 : 下淋瀝, 通水道 ※《본초강목》※ 助陽奇. : 助陽道 ※《본초강목》
↩



蛇 二種

뱀 2종

蛇退 비암의허물

사퇴 뱀의 허물

蛇退辟惡能除腎,

腸痔蟲毒癰瘡¹.

사퇴는 악기(惡氣)를 물리치고 예막을 제거한다.

치질, 벌레의 독, 경간, 경련을 치료한다.

비암의허물.

○畏磁石及酒. 《本草》

뱀의 허물.

○자석、술과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花蛇 산므애비암, 褰鼻蛇

화사 산무애뱀, 건비사

〔花蛇〕溫毒治大風,

癰瘡喎斜癰疥通.

〔화사〕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성이 있으며 대풍증을 치료한다.

반신불수〔癰瘡〕、구안와사、나병、옴에 두루 쓴다.

산므애비암.

○一名褰鼻蛇.

○去頭尾, 只用中段, 酒浸, 去骨炙.

○〈烏蛇〉功相似. 〈黑〉質白〈章〉太毒, 治風, 速於諸蛇, 惟鼻向上. 《本草》

산무애뱀.

○건비사(褰鼻蛇)라고도 한다.

○머리와 꼬리를 제거하고 중간 부분만 쓴다. 술에 담가 두었다가 뼈를 발라내고 구워서 쓴다.

○〈오사(烏蛇)〉 효능이 화사와 같다. 〈검은〉 바탕에 흰 〈점〉이 있다. 강한 독이 있다. 풍을 치료하는 데 각종 뱀들보다 효능이 빠르다. 뱀 중에 오사만 코가 위로 향하고 있다. 《본초강목》

○〈增〉蛇, 有毒無緊, 只可療大風癰疾, 柳文捕蛇者說, 亦云是, 已是用古方罕用, 至近者, 稱爲滋陰補血, 而陰虛勞損等症, 例爲仙藥, 甚者, 以爲平日自奉之食品, 此果因何以然歟. 未見其效, 徒增其害, 用藥者, 宜慎之.²

○〈증보〉 뱀은 독이 있어서 요긴하지 않고 다만 대풍·나병 치료에만 쓴다. 유종원의 〈포사자설(捕蛇者說)〉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으니 이처럼 고방(古方)에는 오사를 드물게 썼다. 요즘에는 음(陰)을 자윤하고 혈을 보한다고 일컬으면서 음허(陰虛)와 과로로 손상된 증상 등에 으레 쓰는 선약(仙藥)이 되었고 심지어 평소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으로 여기니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된 것인가. 그 약의 효과는 보지 못하고 다만 그 해로움만 더할 수 있으니 오사를 약으로 쓸 때는 신중히 써야 한다.

1. 癰瘡瘻：小兒百二十種驚癰蛇癰，癰疾瘻瘻 ※《본초강목》↩

2. 유종원의 〈포사자설(捕蛇者說)〉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으니：永州之野，產異蛇，黑質白章，觸草木，盡死，以齧人，無禦之者，然得而腊之，以爲餌，

可以已大風攣踠癭癘, 去死肌殺三蟲. ※《고문진보후집·포사자설》[↩](#)



魚 十三種

어류 30종

鯉魚 니어

이어 잉어

鯉魚味甘消水腫,

下氣安胎功最重.

잉어는 성미 달며 수종(水腫)을 없앤다.

기를 내려주며 태를 안정시키는 효능이 가장 크다.

니어.

○去脊上兩筋及黑血, 毒故也.

○〈膽〉主眼赤腫痛. 《本草》

잉어.

○등뼈 위 양쪽의 힘줄과 검은 피를 제거하고 쓰니 독이 있어서이다.

○〈잉어쓸개〉 주로 눈이 붓고 충혈되어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鱣魚 연어

연어

鱣魚性平味亦甘,

如珠紅卵尤可饕.¹

연어는 성질이 평하며 성미 또한 달다.

붉은 빛이 도는 진주 같은 알을 뱀 것은 더욱 먹기 좋다.

련어.

련어.

石魚 조기

석어 조기

石魚甘平且益胃，
腹脹暴痢消食氣。²

석어는 성미가 달고 성질이 평하며 또한 위(胃)를 보익한다.
배의 창만과 갑작스런 이질을 치료하며 음식을 소화시킨다.

조기.

○〈頭中骨〉燒灰，治淋. 《本草》

조기.

○〈대가리 속의 뼈〉재가 되도록 태워서 쓰면 임증(淋症)을 치료한다. 《본초강
목》

鯽魚 부어, 鮒魚

즉어 붕어, 부어

鯽魚味甘能補虛，
理胃進食瀉痢除.

즉어는 성미가 달며 허를 잘 보한다.

위(胃)를 다스려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설사와 이질을 멎게 한다.

부어.

○一名鮒魚.

○諸魚屬火，此獨屬土，多食能動火. 《本草》

붕어.

○부어(鮒魚)라고도 한다.

○각종 물고기는 화(火)에 속하며 붕어만 홀로 토(土)에 속한다. 많이 먹으면 화(火)가 동한다. 《본초강목》

魮魚 슈어, 秀魚

치어 승어, 수어

魮魚甘平健脾胃,
不忌百藥是爲貴.

치어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비위(脾胃)를 튼튼하게 한다.

온갖 약재가 치어를 금하지 않으니 귀한 약재이다.

슈어.

○一名秀魚.

승어.

○수어(秀魚)라고도 한다.

魴魚 방어

방어

魴魚味甘調脾胃,
和芥食之助肺氣.

방어는 성미가 달며 비위(脾胃)를 조화롭게 한다.

개(芥)와 함께 먹으면 폐기(肺氣)를 북돋운다.

방어.

○病人, 不可食.

방어.

○이질이 있는 사람은 먹지 않도록 한다.

鱸魚 로어

노어 농어

鱸魚甘平補五臟,

益筋補骨胃和暢.³

노어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오장을 보해준다.

근과 골을 보익하고 위와 장을 조화롭게 한다.

로어.

○小毒, 作膾佳.

농어.

○독성이 조금 있다. 회로 먹으면 좋다.

鰻魚 소가리, 錦鱗魚

겔어 쏘가리, 금린어

鰻魚甘平治腸風,

補勞益脾去腹蟲.

겔어는 달고 평하며 장풍(腸風)을 치료한다.

허로를 보해주고 비(脾)를 보익하며 뱃속의 충을 제거한다.

소가리.

○卽錦鱗魚.

쏘가리.

○곧 금린어(錦鱗魚)이다.

大口 𩺰구

대구

大口鹹平能補氣,

腸脂尤良和滋味.

대구는 성미가 짜고 평하며 기(氣)를 잘 보해준다.

내장과 지방이 더욱 좋으며 입맛을 조화롭게 한다.

𩺰구.

대구.

鮠魚 江鰮, 魚鰮, 民魚

회어 강표, 어표, 민어

鮠魚味美腠宜膠,

治破傷風兼充庖.

회어는 맛이 좋고 부레는 아교를 만들어 쓴다.

파상풍을 치료하며 겸하여 식재료로 쓰인다.

一名江鰮魚鰮.

○疑今民魚. 《寶鑑》

강표(江鰮), 어표(魚鰮)라고도 한다.

○아마 지금의 민어(民魚)인 듯하다. 《동의보감》

鰮膠

표교

鰾膠鹹平產後風，
散瘀消腫伏礪功。

표교(鰾膠)는 성미가 짜고 평하며 산후풍을 치료한다.
어혈을 흡어주고 부종을 없애주며 망사(礪砂)의 악성을 굴복시키는 효능이 있다.

靑魚 비웃

청어 비웃

靑魚微冷開胃良，
且能消食過滑腸。

청어는 성질이 약간 냉하며 위(胃)를 잘 열어준다.
또한 음식을 잘 소화시키며 지나치게 먹으면 물설사를 한다.

비웃.

○産黃海、慶尙、咸鏡道。

비웃.

○황해도、경상도、함경도에서 생산된다.

北魚 명태, 無泰魚

북어 명태, 무태어

北魚鹹溫虛勞風，
多食動蛔卵和中。

북어는 성미가 짜고 따뜻하며 허로와 풍(風)을 치료한다.
많이 먹으면 회충이 동한다. 알(명란)은 속을 조화롭게 한다.

명태.

○産明川, 卽無泰魚.

명태.

○명천(明川)에서 생산된다. 즉, 무태어(無泰魚)이다.

1. 味亦甘, : 時珍曰 : 酒之美者曰, 魚之美者曰鱖. ※《본초강목》↩

2. 腹脹暴痢 : 治暴下痢, 及卒腹脹 ※《본초강목》※ 消食氣. : 開胃益氣 ※《본초강목》↩

3. 胃和暢. 和腸胃 ※《본초강목》

和胃調腸. ※《제증신편》↩

無鱗魚 十九種

비늘 없는 생선 19종

蠡魚 가물치, 鰻魚

여어 가물치, 예어

蠡魚甘寒腫痔類,

瘡者當忌膽喉痺.¹

여어는 성미가 달고 차며 부종과 여러 치질을 치료한다.

창(瘡)이 있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도록 한다. 여어 쓸개는 후비(喉痺)를 치료한다.

가물치.

○一名鰻魚. 是蛇所變, 至難死, 猶有蛇性. 《本草》

가물치.

○예어(鰻魚)라고도 한다. 가물치는 뱀이 변해서 된 것으로 잘 죽지 않으며 뱀과 유사한 성질을 지녔다. 《본초강목》

○〔增〕蠡是性寒, 利水之魚, 不必有補, 而俗用產後, 若有熱氣實者, 雖無所害, 氣弱虛冷者, 非徒無益, 必有所損, 此皆不讀本草, 而失於傳聞之謬者也, 覽者宜慎之.

○〔증보〕가물치는 성질이 차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물고기이다. 반드시 보해주는 것이 아닌데도 속방에서는 산후에 쓰는데, 열이 많고 기가 실한 사람에게는 해가 없지만 기가 약하고 허냉한 사람에게는 이로울게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손상이 생긴다. 이는 모두 본초서를 읽지 않고 잘못 전해 들어서 생긴 실수이니 이 책을 본 자는 조심해서 써야 한다.

鰻鱺魚 비암장어

만리어 뱀장어

鰻鱺魚甘勞療蟲,

痔漏瘡疹崩有功.

만리어는 성미가 달며 노채와 충을 치료한다.

치루、창진(瘡疹)、봉루 치료에 효능이 좋다.

비암장어.

뱀장어.

鱒魚 드렁허리

선어 드렁허리

鱒魚味甘善補中,

能祛狐臭散濕風.

선어는 성미가 달며 속을 잘 보해준다.

액취를 잘 제거하고 습사와 풍사를 흩어준다.

드렁허리.

○血塗口眼喎斜, 左患塗右, 右患塗左. 《本草》

드렁허리.

○선어의 피를 구안와사 걸린 사람의 입과 눈에 발라준다. 구안와사가 왼쪽이면 오른쪽에 발라주고, 오른쪽이면 왼쪽에 발라준다. 《본초강목》

鰯魚 미시리, 鰺魚

추어 미꾸라지, 추어

鰮魚甘平能益氣，
解酒消渴且煖胃。²

추어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기를 잘 보익한다.

술 기운과 소갈을 풀어주고 또한 위(胃)를 따뜻하게 한다.

미씨리.

○一名鰮魚.《本草》

미꾸라지.

○추어(鰮魚)라고도 한다.《본초강목》

黃鯪魚 자가스리

황상어 자가사리

黃鯪魚甘醒酒功，
祛風消腫小便通。

황상어는 성미가 달며 술을 잘 깨워 주는 효능이 있다.

풍을 제거하고 부종을 없애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자가스리.

자가사리.

鱣魚 전어

전어

鱣魚肥美動風氣，
又生熱痰無足貴。³

전어는 기름지고 맛이 좋으나 풍과 기(氣)를 동하게 한다.
또 열담을 발생시키므로 귀하게 여길 것은 아니다.

전어.

전어.

鮎魚 머역이, 鰮魚

점어 메기, 이어

鮎魚甘溫利水腫,

無脛⁴殺人宜慎重.⁵

점어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수종을 치료한다.
아가미가 없는 점어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머역이.

○鰮魚. 赤目赤鬚, 殺人. 不可與牛肝、野鷄、野豬同食. 《本草》

메기.

○곰, 이어(鰮魚)이다. 눈갈이 붉은 것과 수염이 붉은 것을 먹으면 죽는다. 소의 간, 야계(野鷄)、멧돼지와 함께 먹지 않아야 한다. 《본초강목》

魮魚 아오리

公魚 가오리

魮魚益人尾有毒,

煮飲獺皮解其觸.⁶

공어는 사람에게 이롭지만 꼬리에 독이 있다.

해달 가죽을 삶아서 마시면 꼬리에 찔린 독이 해독된다.

악⁷오리.

가오리.

河豚 복

하돈 복어

河豚甘溫肝卵毒,
亦治虛濕脚痺屬.⁸

복어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간과 알에는 독이 있다.

또한 허증, 습기를 치료하고 다리를 편하게 하며 치질 등을 치료한다.

복.

○橄欖香油解毒.

○肝及子, 入口爛舌, 入腸爛腸, 無藥可解. 《本草》

복어.

○감람, 참기름으로 복어독을 해독한다.

○복어의 간과 알은 입에 들어가면 혀가 문드러지고 창자에 들어가면 창자가 문드러지니 해독할 수 있는 약이 없다. 《본초강목》

比目魚 가좁미

비목어 가자미

比目魚甘能開胃,
補虛多食反動氣.⁹

비목어는 성미가 달며 위(胃)를 열어 준다.

허를 보하며 많이 먹으면 도리어 기를 동하게 한다.

가좁미.

가자미.

鮫魚 스어

교어 상어

鮫魚性平益五臟,
皮主吐血魚毒防.¹⁰

교어는 성미가 평하고 오장을 보익한다.

교어의 껍질은 토혈을 치료하며 생선독을 해독한다.

스어.

상어.

烏賊魚 오징어

오적어 오징어

烏賊魚平能通經,
益氣益精骨主崩.¹¹

오적어는 성질이 평하며 월경을 통하게 한다.

기를 북돋우고 정(精)을 더해주며 오적어 뼈는 붕루를 치료한다.

오징어.

오징어.

海螵蛸 오징어뼈

해표초 오징어 뼈

海螵蛸咸消腎功,
心疼水腫經癥通.¹²

해표초는 성미가 짜며 예막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다.

심장의 통증、수종(水腫)을 치료하고 월경과 징가를 통하게 한다.

오징어썩¹³.

오징어 뼈.

鰕 시오

하 새우

鰕則甘平五痔醫,
多食動風莫與兒.

하(鰕)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오치(五痔)를 치료한다.

많이 먹으면 풍증을 동하게 하니 소아에게는 먹이지 않도록 한다.

시오.

○無鬚及煮色白者, 不可食. 《本草》

새우.

○수염이 없거나 삶았을 때 흰색이 되는 것은 먹지 않아야 한다. 《본초강목》

海馬

해마

〔海馬〕甘溫催產奇,
或用燒服或手持.¹⁴

〔해마〕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출산을 촉진시키는 신기한 효능이 있다.

불에 태워서 복용하거나 손에 쥐고 있게 한다.

壯陽道.

음경을 튼튼하게 한다.

八稍魚 문어

팔초어 문어

八稍甘平治肉滯,

卵是補陽成胎劑.

팔초어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고기를 먹고 체한 것을 치료한다.

팔초어의 알은 양(陽)을 보하여 임신을 성공하게 하는 약제이다.

문어.

○能治眩氣.《本草》

문어.

○어지럼증을 잘 치료한다.《본초강목》

小八稍魚 락데

소팔초어 낙지

小八稍¹⁵魚甘平味,

供之食品調血氣.¹⁶

소팔초어는 성미가 달고 평하다.

식품으로 쓰며 혈과 기를 고르게 한다.

락데.

낙지.

白魚 빙어

백어 뱅어

白魚性平助肝脾,

下食去水明目奇.

백어는 성질이 평하며 간과 비(脾)를 돕는다.

먹은 것을 내려주고 수기(水氣)를 제거하며 눈을 신기하게 밝게 해준다.

빙어.

○生漢江者¹⁷ 尤好, 冬月鑿氷取之. 《濟衆》

뱅어.

○한강에서 생산된 것이 더욱 좋다. 겨울에 얼음을 뚫고 잡는다. 《제중신편》

銀條魚 銀口魚

은조어 은구어

銀條魚平能健胃,

和薑作羹信美味.

은조어는 성질이 평하며 위(胃)를 튼튼하게 한다.

생강과 함께 국을 끓여 먹으면 맛이 정말 좋다.

疑今銀口魚. 《濟衆》

지금의 은구어(銀口魚)인 듯하다. 《제중신편》

1. 腫痔類：浮腫五痔 ※《제중신편》↩

2. 解酒消渴：醒酒, 解消渴 ※《본초강목》↩
3. 動風氣：發氣動風 ※《본초강목》, 《제중신편》, ↩
4. 腮 𩺰 腮 ※《본초강목》↩
5. 利水腫：療水腫, 利小便. ※《본초강목》↩
6. 益人尾有毒：食之益人, 尾有大毒 ※《동의보감》♣※ 煮飲獺皮解其觸：刺在尾中, 人被刺, 煮海獺皮及魚簾竹, 解之. ※《동의보감》↩
7. 아：가 ※신정본 ↩
8. 肝卵毒：肝及子有大毒. ※《본초강목》♣※ 亦治虛濕脚痔屬：補虛, 去濕氣, 理腰脚, 去痔疾 ※《본초강목》↩
9. 補虛益氣力. 多食動氣. ※《동의보감》↩
10. 魚毒防：解鰕鱖魚毒 ※《본초강목》↩
11. 通經：通月經 ※《본초강목》↩
12. 女子赤白漏下, 經汁血閉.....寒熱癥瘕. ※《본초강목》↩
13. \ueb4c：\ueb3d ※신정본 ↩
14. 婦人難産割裂而出者, 手持此蟲, 卽如羊之易産也. ※《본초강목》↩
15. 梢 𩺰 稍 ※신정본 ↩
16. 供之食品調血氣：養血益氣, 只供食品. ※《제중신편》↩
17. 生漢江者：我國漢江生者 ※《제중신편》↩

龜鱉 五種

거북·자라 5종

龜甲 남성의 등껍질

구갑 남생이 등껍질

龜甲味甘滋陰迅,

逐瘀續筋醫顱頤.

구갑은 성미가 달며 음(陰)을 빠르게 자양한다.

어혈을 몰아내고 근을 이어주며 정수리의 병을 낫게 한다.

남성의 등껍질.

○酥炙或酒炙.

○〈板〉即下甲, 主治同.

○龜乃陰中至陰之物, 稟北方而生, 故大有補陰之功. 《本草》

○〈膠〉取龜板十箇, 入水五十斤銅鍋內, 熬至一晝夜, 去殼再熬, 成膠爲度, 桑柴爲上, 柳枝爲次, 用時炒成珠. 燕市俗方

○〈玳瑁〉야기껍질, 解百藥毒. 《本草》¹

남생이 등껍질.

○연유에 축여 굽거나 술에 축여 구워서 쓴다.

○〈구판〉곧, 배딱지이다. 등껍질과 주치증이 같다.

○남생이는 음(陰) 중에서도 지극히 음(陰)인 생물이다. 북방(北方)의 기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음(陰)을 크게 보하는 효능이 있다. 《본초강목》

○〈구갑교〉구판 10개와 물 50근을 구리냄비에 넣고 1일 동안 졸여서 껍질을 제거하고 다시 졸인다. 아교가 될 때까지 졸인다. 땀감으로는 뽕나무 가지가

가장 좋고 버드나무 가지가 다음으로 좋다. 구갑교를 쓸 때는 볶아서 구슬처럼 만들어 쓴다. 연경 저자의 속방.

○〈대모〉야귀 껍질. 온갖 약독을 해독한다. 《본초강목》

鱉肉 자라고기

별육 자라고기

鱉肉性冷能補陰,

孕婦癥瘕俱當禁.

별육은 성질이 냉하고 음(陰)을 잘 보한다.

임신부나 징가가 있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한다.

자라고기.

○不可合鷄子食, 殺人, 又忌芥子同食. 《本草》

자라고기.

○달걀과 함께 쓰지 않아야 하니 먹으면 죽는다. 또한 개자(芥子)와 함께 먹는 것을 금한다. 《본초강목》

鱉甲 자라등껍질, 團魚

별갑 자라 등껍질, 단어

鱉甲酸平嗽骨蒸,

散瘀消腫除痞崩.²

별갑은 성미가 시고 평하며 기침과 골증열을 치료한다.

어혈을 흡어주고 부종을 없애며 막힌 것과 봉루를 제거한다.

자라등껍질.

○一名團魚.

○入厥陰血分, 去裙醋炙黃. 《本草》

자라등 껍질.

○단어(團魚)라고도 한다.

○궤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등껍질 부근의 군살을 제거하고 식초에 축여 누렇게 볶아서 쓴다. 《본초강목》

蟹 게

해 게

蟹則鹹寒治胃足,

除熱消食霜前毒.³

해(蟹)는 성미가 짜고 차며 위기를 치료하기에 충분하다.

열을 내리고 음식을 소화시킨다. 서리 내리기 전에 잡은 것에는 독이 있다.

게.

○傷筋搗付.

○獨螯獨目, 四目六足, 皆有毒.

○反荊芥及柿.

○其黃, 化漆爲水.

○燒可集鼠. 《本草》

게.

○힘줄이 다친 곳에 짓찧어서 붙여준다.

○집게발이 하나인 것, 눈이 하나인 것, 눈이 네 개인 것, 다리가 여섯 개인 것은 모두 독이 있다.

- 형개, 감과 상반약이다.
- 게 내장은 옷을 녹여 물이 되게 한다.
- 게를 태우면 쥐가 모여든다. 《본초강목》

螃蟹 방게

방해 방게

螃蟹味鹹散血結,
益氣養筋除胸熱.⁴

방해는 성미가 짜며 어혈과 뭉친 것을 흩어준다.
기를 보익하고 근을 길러주며 가슴의 열을 내려준다.

방게.

방게.

1. 燕市俗方：燕俗市俗方 ※《의종손익부여》↩

2. 除痞：去痞疾息肉 ※《본초강목》↩

3. 治胃足，：治胃氣 ※《제중신편》↩

4. 散血結，：散血解結 ※《제중신편》

解結散血 ※《본초강목》↩

蚌蛤 十二種

조개 12종

白蛤肉 껍질흔조개

백합육 껍질흰조개

白蛤肉平藥毒除,
能治疥瘡味勝猪.

백합육은 성질이 평하며 약독을 제거한다.

개창(疥瘡)을 잘 치료하며 맛이 돼지고기보다 좋다.

껍질¹흔조개.

껍질 흰 조개.

蛤蜊肉 춤조기

합리육 참조개

蛤蜊肉冷能止渴,
解酒開胃覺快豁.²

합리육은 성질이 차며 소갈을 잘 멎게 한다.

주독을 해독하고 위(胃)를 크게 활짝 열어준다.

춤조기.

○反醋.《本草》

참조개.

○식초와 상반약이다.《본초강목》

牡蠣 굴조기껍질

모려 굴조개 껍질

牡蠣微寒主澀精,
痰汗崩帶脅痛平.

모려는 성미가 약간 차며 주로 정(精)을 새어나가지 않게 한다.

담(痰)、땀、붕루、대하、옆구리의 통증을 편안하게 한다.

굴조기껍질.

○入足少陰, 爲軟堅之劑.

○火煨.

○左顧者, 佳.³

○〈肉〉卽石花, 食之, 令人細肌膚美顏色. 《本草》⁴

굴조개 껍질.

○족소음경에 들어가며 단단한 것을 무르게 하는 약제이다.

○불에 달궈서 쓴다.

○입이 왼쪽으로 돌아간 것이 좋다.

○〈굴조개살〉 곧, 석화(石花)이다. 먹으면 피부가 고와지고 안색이 좋아진다.

《본초강목》

海粉

해분

海粉味鹹治頑痰,
婦人白帶軟堅堪.⁵

해분은 성미가 짜며 진득한 담(痰)을 치료한다.

부인의 백대하를 치료하며 단단한 것을 무르게 한다.

紫海蛤所造.

자해합(紫海蛤)으로 만든다.

珍珠

진주

珍珠氣寒鎮驚癇,
開龔磨腎渴痰刪.⁶

진주는 성질이 차며 경간을 진정시킨다.

귀가 먹은 것을 들리게 하고 예막을 마멸시키며 소갈과 담을 제거한다.

瓦礫肉 강요주, 江瑤柱

와룡육 강요주

瓦礫肉溫腹冷除,
健胃消食補中虛.⁷

와룡육은 성질이 따뜻하며 배가 찬 증상을 없애준다.

위(胃)를 튼튼하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허한 속을 보해준다.

강요주. 一名江瑤柱.

강요주. 강요주(江瑤柱)라고도 한다.

石決明 싱복, 全鰓

석결명 생복, 전복

石決明肉鹹涼劑,
最能明目殼消腎.⁸

석결명 살은 성미가 짜고 서늘한 약제이다.

살은 눈을 밝게 하는 데 가장 효능이 좋으며 껍질은 예장을 없애준다.

생복.

○一名全鰓.

○〈殼〉麪裹煨熟, 或鹽水煮研細. 《本草》

생복.

○전복(全鰓)이라고도 한다.

○〈전복껍질〉 밀가루 반죽에 싸서 잿불에 묻어 익혀서 쓰거나 소금물에 삶아서 곱게 갈아서 쓴다. 《본초강목》

蠣 가리맛

정 가리맛

蠣甘溫治心胸煩,

產後虛損及補元.⁹

정(蠣)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심흉(心胸)의 번민을 치료한다.

산후 허손을 치료하며 원기를 보해준다.

가리맛.

가리맛.

貝子 굴근조기

패자 붉은 조개

貝子味鹹解肌結,

利水消腫目瞤挾.¹⁰

패자는 성미가 짜며 해기시켜 주고 뭉친 것을 풀어준다.
수기를 잘 통하게 하며 부종을 없애고 눈의 예막을 제거한다.

굴근조지.

○火燂.

굴은 조개.

○불에 달궈서 쓴다.

淡菜 홍합, 紅蛤, 東海夫人

담채 홍합, 동해부인

淡菜甘溫痢日久,

補虛消食大益婦.

담채는 달고 따뜻하며 오래된 이질을 치료한다.

허를 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부인에게 매우 좋다.

홍합.

○一名東海夫人, 又名紅蛤.

○治崩漏帶下癥瘕產後血結冷痛. 《本草》

홍합.

○동해부인(東海夫人)이라고도 한다. 또한 홍합(紅蛤)이라고도 한다.

○붕루、대하、징가、산후에 혈이 뭉쳐서 뱃속이 냉하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海參 미

해삼 미

海參鹹平清潤津¹¹,

能補脾腎宜婦人.

해삼은 성미가 짜고 평하며 진액을 깨끗하고 매끄럽게 해준다.

비(脾)와 신(腎)을 잘 보해주며 부인에게 쓴다.

익.

◦性滑, 患泄痢勿食. 《本草》

익.

◦성질이 미끄러우니 설사와 이질이 있는 환자는 먹지 말아야 한다. 《본초강목》

田螺 우렁이

전라 우렁이

田螺性冷通二便,

消腫除熱醒酒饑.

전라는 성질이 냉하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부종을 없애주고 열을 내려주고 술을 깰 때 먹는다.

우렁이.

◦癰疽拔根神效, 爲末糝之, 或生搗付. 俗方

우렁이.

◦옹저의 뿌리를 뽑아내는데 신기한 효능이 있다. 가루를 내어서 옹저에 뿌려 주거나 생것을 짓찧어서 붙여준다. 속방

1. 흔 : 은 ※중간본

흔 ※신정보 ←

2. 能止渴, : 能止消渴 ※《제중신편》▲※ 胃覺快豁 : 開胃頓豁 ※《제중신편》
止消渴, 開胃, 解酒毒, 能醒酒. ※《본초강목》↩
3. 左顧者, 佳. : 弘景曰.....其生著石, 皆以口在上. 舉以腹向南視之, 口斜向東,
則是左顧. ※《본초강목》↩
4. 左顧者, 佳. : 弘景曰.....其生著石, 皆以口在上. 舉以腹向南視之, 口斜向東,
則是左顧. ※《본초강목》↩
5. 治頑痰, : 熱痰濕痰, 老痰頑痰. ※《본초강목》▲※ 軟堅堪. : 堅者軟之以鹹,
取其屬水而性潤也. ※《본초강목》↩
6. 磨翳墜痰.....合知母, 療煩熱消渴. ※《본초강목》↩
7. 腹冷除, : 心腹冷氣 ※《제중신편》↩
8. 最能明目殼消翳. : 啖之明目, 殼消翳障 ※《제중신편》↩
9. 心胸煩, : 心胸煩悶 ※《제중신편》↩
10. 解肌結 : 解肌, 散結熱 ※《본초강목》↩
11. 清潤津 : 清潤津液 ※《제중신편》↩

水禽 二種

물새 2종

白鵝肉 거의고기

백아육 거위고기

白鵝肉甘補臟腑,
且發瘡毒不宜癩.

백아육은 달며 오장육부를 보해준다.

또한 창독(瘡毒)을 발생시키므로 고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도록 한다.

거위고기.

○止消渴.《本草》

거위고기.

○소갈을 멎게 한다.《본초강목》

鴨肉 오리고기

압육 오리고기

鴨肉酸寒¹補虛勞,
水腫驚癇熱脹消.²

압육은 찬 것을 흠어주며 허로를 보해준다.

수종(水腫), 경간, 열증, 창만을 없애준다.

오리고기.

○靑頭鴨佳, 老者良, 嫩者毒.

○〈血〉解毒. 《本草》

오리고기.

○청둥오리와 늙은 오리가 좋다. 어린 오리는 독이 있다.

○〈오리의 피〉해독 작용을 한다. 《본초강목》

1. 酸寒 散寒 ※《제중신편》

2. 酸寒 散寒 ※《제중신편》※ 水腫驚癇熱脹消. : 消水腫脹, 退驚癇熱 ※《제중신편》

原禽 七種

들새 7종

雄鷄 슈닭

응계 수닭

雄鷄味甘補虛可,

縱治血漏動風火.¹

수닭는 성미가 달며 허를 보할 수 있다.

비록 혈루를 치료하지만 풍과 화(火)를 동하게 한다.

슈닭.

○鷄屬巽, 佐肝火. 《丹心》

○丹入心, 白入肺, 黑入腎, 黃入脾, 總歸於肝也. 《入門》

○〈烏雌鷄〉排膿安胎, 補產後虛.

○〈黃雌鷄〉主消渴泄痢, 補陽.

○〈肝〉主起陰.

○〈腸〉主遺尿.

○〈翮翎〉起陰, 小兒夜啼, 安席下, 勿令母知. 〈窠中草〉亦同.

○〈屎白〉微寒, 無毒, 主消渴消脹.

○〈卵〉白象天, 黃象地. 精不足者, 補之以氣.

○〈殼中白皮〉卽鳳凰衣, 治久嗽, 得麻黃、紫菀服之, 無不立效. 《本草》²

수닭.

○닭은 손괘(巽卦☴)에 속하며 간화(肝火)를 돕는다. 《단계심법》

○붉은 닭의 약성은 심경(心經)으로 들어가고 흰 닭은 폐경으로 들어가며 검은

닭은 신경(腎經)으로 들어가고 누런 닭은 비경(脾經)으로 들어가서는 모두 간

경(肝經)으로 돌아간다. 《의학입문》

○〈검은 암탉〉 농을 빼내고 태를 안정시킨다. 산후 허로를 보한다.

○〈누런 암탉〉 주로 소갈, 설사와 이질을 치료하고 양(陽)을 보해준다.

○〈닭 간〉 주로 음(陰)을 일으킨다.

○〈닭 내장〉 주로 유노를 치료한다.

○〈닭 깃털〉 음(陰)을 일으킨다. 소아의 야제를 치료할 때는 닭 깃털을 아이가 자는 곳 아래에 놓아둔다. 엄마가 알지 못하게 해야한다. 〈닭둥지 속의 풀〉 또한 효능이 같다.

○〈계시백〉 성질이 약간 차며 독성이 없다. 주로 소갈을 치료하고 창만을 없애 준다.

○〈계란〉 흰자는 하늘의 형상이고 노른자 땅의 형상이다. 정(精)이 부족한 경우에 기를 보해준다.

○〈달걀 흰 속껍질〉 곧, 봉황의(鳳凰衣)이다. 오랜 기침을 치료하니 마황·자완과 함께 먹으면 낫지 않는 경우가 없다. 《본초강목》

鷄內金 닭의 멀더군이 속에 누른 껍질

계내금 닭의 모래주머니 안쪽의 누런 껍질

鷄內金寒溺精洩,

噤痢崩漏更除熱.³

계내금은 성질이 차며 소변을 지리고 정(精)이 새는 것을 치료한다.

금구리(噤口痢)와 봉루를 치료하며 또한 열을 제거한다.

닭의 멀더군이 속에 누른 껍질.

○久滯不消, 取一錢, 燒末, 水服. 俗方

닭의 모래주머니 안쪽의 누런 껍질.

○오래된 체기가 소화되지 않을 때 계내금 1돈을 태워서 가루 내어 물로 먹는다. 속방

雉肉 싱치고기

치육 생뽕고기

雉肉微寒補益奇，
止泄除癰三冬宜。⁴

치육은 성미가 약간 차며 보익하는 데 신기한 효능이 있다.

설사를 멎게 하고 누창을 제거한다. 겨울 3개월 동안에 먹어야 한다.

싱치고기.

○自正月至八月，不宜食，發五痔瘡疥. 《本草》

생뽕고기.

○1월부터 8월까지의 먹지 않아야 하니 먹으면 오치(五痔)와 창개가 생긴다.

《본초강목》

鶉肉 뽕초라기고기

순육 메추라기고기

鶉肉甘平消熱痰，
補臟益氣兒痢疳。⁵

순육은 성미가 달고 평하며 열담(熱痰)을 제거한다.

오장을 보하고 기를 더해주며 소아의 이질과 감병(疳病)을 치료한다.

뽕초라기고기.

메추라기고기.

雀肉 참시고기

작육 참새고기

雀肉性煖善壯陽，
且煖腰膝益精良。

작육은 성미가 따뜻하며 양(陽)을 매우 튼튼하게 한다.

또한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며 정(精)을 보익하는 데 좋다.

참시고기.

○正月以前, 十月以後, 宜食, 取其陰陽, 靜定未洩也.

○〈屎〉名白丁香, 決癰, 和乳汁點目, 弩肉赤脈即消. 《本草》⁶

참새고기.

○1월 이전, 10월 이후에 먹어야 하니 음양의 기운이 고요히 안정되어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의미를 취한 것이다.

○〈참새똥〉백정향(白丁香)이라고도 한다. 옹(癰)을 터뜨린다. 유즙에 타서 눈에 점안하면 노육(弩肉)과 눈에 핏발이 선 것을 곧 없애준다. 《본초강목》

雀卵 참시알

작란 참새 알

- 雀卵氣溫扶陽痿,
可致堅強奇莫奇.
- 작란은 성질이 따뜻하며 음경이 발기하지 않는 것을 잘 도와서 견고하게 하니 신기한 효력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참시알.

참새알.

夜明砂 박쥐똥, 伏翼, 蝙蝠, 天鼠

야명사 박쥐 똥, 복익, 편복, 천서

夜明砂能下死胎,

小兒無辜瘰癧材.

야명사는 사산된 태아를 내보내 준다.

소아의 무고감(無辜瘡)과 나력에 쓰는 약재이다.

박쥐똥.

○一名伏翼. 一名蝙蝠. 一名天鼠.

○主明目, 五淋. 《本草》

박쥐 똥.

○복익(伏翼), 편복(蝙蝠), 천서(天鼠)라고도 한다.

○주로 눈을 밝게 하며 5가지 임병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五靈

오령지(五靈脂)

〔五靈〕味甘血痢絶,

炒則止血生行血.

〔오령지(五靈脂)〕는 성미가 달며 혈리를 멎게 한다.

볶아서 쓰면 지혈시키고 생것으로 쓰면 피를 생성해 잘 돌게 한다.

寒號蟲糞, 惡人參. 《本草》

한호충(寒號蟲)의 똥이다. 인삼과 상오약이다. 《본초강목》

1. 動風火. : 故能生熱動風, 風火相扇, 乃成中風. ※《본초강목》↩

2. 亦同. : 頭瘡白禿, 和白頭翁草燒灰, 豬脂調敷. 日華 天絲入眼, 燒灰淋清汁洗之, 良. ※《본초강목》↩

3. 噤痢：噤口痢疾 ※《본초강목》↩

4. 止泄除癰：止泄痢，除蟻癰 ※《본초강목》※ 三冬宜：九月至十一月稍有補，他月則發五痔、諸瘡疥. ※《본초강목》↩

5. 消熱痰：能消熱結 ※《제중신편》↩

6. 洩：泄 ※《의종손익부여》, 《본초강목》↩



林禽 三種

숲에 사는 새 3종

鴉肉 가마귀고기

아육 까마귀고기

鴉肉酸平治癰疾,
風咳骨蒸蟲血溢.

아육(鴉肉)은 성미가 시고 평하며 간질을 치료한다.

풍증, 기침, 골증열, 충병, 출혈증을 치료한다.

가마귀고기.

까마귀고기.

鵲肉 가치고기

작육 까치고기

鵲肉甘寒風熱消,
渴痰可治淋用燒.¹

작육은 성미가 달고 차며 풍증, 열증을 치료한다.

소갈, 담증을 치료하며 임증(淋症)을 치료하려면 태워서 쓴다.

간²치고기.

까치고기.

鳩肉 비둘기고기

구육 비둘기고기

鳩肉甘平能補胃,
調病明目且益氣.³

구육은 성미가 달고 평하며 위(胃)를 잘 보한다.

병을 조섭하고 눈을 밝게 하며 또한 기를 복돋운다.

비둘기고기. 助陰陽.⁴

비둘기고기. 음양의 기를 돕는다.

1. 石淋, 消結熱.....治消渴疾, 去風及大小腸澀.....胸膈痰結 ※《본초강목》↩

2. 가 : 간 ※신정본 ↩

3. 調病明目且益氣 : 主明目、益氣하며 助陰陽하니 久病虛損人이 食之면 最補. ※《의학입문》↩

4. ♠○仲春, 羅氏獻鳩以養老. 《本草》※《의종손익부여》↩

畜 九種

가축 9종

豬肉 돛티고기

저육 돼지고기

豬肉味甘肥暴覃,
縱能補虛動風痰.

돼지고기는 성미가 달며 갑자기 살이 찌게 한다.

비록 허를 잘 보하지만 풍(風)과 담(痰)을 동하게 한다.

돛티고기.

○反烏梅、桔梗、黃連、胡黃連.

○〈脂〉主癰瘡殺蟲, 胞衣不下.

○〈 〉在兩腎間, 似脂似肉, 主肺痿咳嗽, 下乳汁.

○〈腸脬〉止遺尿.

○〈膽〉主傷寒熱渴, 通二便, 去目腎疳蟲.

○〈蹄〉下乳托癰, 解百藥毒. 《本草》

돼지고기.

○오매、길경、황련、호황련과 상반약이다.

○〈돼지비계〉 주로 웅저와 창(瘡)을 치료하고 충을 죽인다. 산후 태반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이()〉 양쪽 콩팥 사이에 있으며 비계나 살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주로 폐위와 기침을 치료하고 젖이 잘 나오게 한다.

○〈창자、방광〉 유노를 멎게 한다.

○〈쓸개〉 주로 상한 열갈을 치료하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눈의 예막, 감충

(疳蟲)을 치료한다.

◦〈발급〉 젖이 잘 나오게 하며 응(癰)을 밀어내며 온갖 약독을 풀어준다. 《본초강목》

犬肉 지고기

견육 개고기

犬肉性溫雖壯陽，
陽虛忌食炙渴亢.

견육은 성미가 따뜻하며 비록 양기를 강하게 하지만
양이 허한 사람은 금하도록 하며 구워서 먹으면 목에 갈증이 난다.

지고기.

- 與蒜同食, 損人.
- 九月勿食, 傷神.
- 不可去血, 去血力少, 不益人.
- 治脾胃虛寒之疾.
- 蹄 主下乳.
- 〈白犬乳〉 青盲點之, 又斷酒.
- 〈膽〉 主明目殺蟲, 治惡瘡.
- 〈陰莖〉 主陽痿帶下. 〈狗寶〉 一名狗砂. 治肺經風毒痰火, 癰疽惡瘡. 入豆腐中, 半日煮熟用. 〈《本草》〉
- 見月¹ 狂吠不已者, 有寶. 〈《丹心》²

개고기.

- 마늘과 함께 먹으면 몸이 상한다.
- 9월에 먹지 말아야 하니 정신이 상하기 때문이다.
- 피를 빼지 말고 먹어야 하니 피를 빼면 약효가 줄어들어 먹어도 이로움이 없다.

- 비위(脾胃)가 허한하여 생긴 질병을 치료한다.
- 발굽 젖이 잘 나오게 한다.
- 〈흰 개의 젖〉 청맹(靑盲)에 눈에 점안한다. 또한 술을 끓을 때 쓴다.
- 〈쓸개〉 주로 눈을 밝게 하며 충을 죽이고 악창을 치료한다.
- 〈개의 음경〉 양위(陽痿)·대하를 치료한다. 〈구보(狗寶, 개 뱃속의 담석)〉 구사(狗砂)라고도 한다. 폐경의 풍독, 담화, 응저, 악창을 치료한다. 두부 속에 구보를 넣고 반일동안 푹 삶아서 쓴다. 《본초강목》
- 달을 보고 미친 듯이 짚는 것을 멈추지 않는 개에게 구보가 있다. 《단계심법》

양육 양의고기

양육 양고기

羊肉味甘補虛羸,
開胃益腎起陽痿.³

양육은 성미가 달며 허하고 마른 것을 보해줄 때 쓴다.
위(胃)를 열어주고 신(腎)을 보익하며 양위(陽痿)를 일으킨다.

양의 고기.

- 大熱屬火.
- 〈血〉主產後血悶. 熱飲.
- 久服猪羊血, 鼻中生毛.
- 〈腎〉主耳聾, 壯陽虛損.
- 〈肝〉補肝明目. 《本草》

양고기.

- 성질이 크게 뜨겁고 화(火)에 속한다.
- 〈양혈〉 주로 산후 출혈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치료한다. 뜨겁게 해서 마신다.

- 돼지피나 양피를 오래 복용하면 콧속에 털이 난다.
- 〈양신〉 이롱(耳聾)을 치료하고 양(陽)을 튼튼하게 하며 허손을 치료한다.
- 〈양간〉 간을 보하며 눈을 밝게 한다. 《본초강목》

牛肉 쇠고기

우육 쇠고기

牛肉屬土補脾胃，
乳養虛羸滋血毅。

- 우육은 토(土)에 속하며 비위(脾胃)를 보해준다.
- 우유는 허하고 수척한 몸을 길러주며 혈을 강하게 자양한다.

쇠고기.

- 〈鼻〉 主下乳.
- 〈腎〉 主補腎益精.
- 〈肚〉 양. 益胃止渴.
- 〈膽〉 止渴明目殺蟲.
- 〈乳〉 補虛止渴.
- 〈血〉 解毒, 治血痢.
- 〈皮〉 消腫利水.
- 〈角腮〉 止崩, 帶, 血痢.
- 〈口涎〉 主利水消脹, 損目破睛, 點之.
- 〈尿〉 治水腫, 利小便.
- 〈屎〉 霍亂, 利水, 消渴, 軟癰. 《本草》

쇠고기.

- 〈코〉 젖이 잘 나오게 한다.
- 〈신(腎)〉 주로 신을 보하고 정(精)을 더해준다.
- 〈소배통〉 양. 위(胃)를 보익하고 갈증을 멎게 한다.

- 〈우담〉 갈증을 멎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충을 죽인다.
- 〈우유〉 허를 보하고 갈증을 멎게 한다.
- 〈소피〉 해독 작용을 하며 혈리를 치료한다.
- 〈소가죽〉 부종을 없애고 수기를 잘 통하게 한다.
- 〈소뿔심〉 봉루、대하、혈리를 멎게 한다.
- 〈소의 침〉 주로 수기를 잘 통하게 하며 창만을 없앤다. 눈이 손상되었거나 눈 동자가 터졌을 때 소 침을 눈에 점안한다.
- 〈소오줌〉 수종(水腫)을 치료하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 〈소똥〉 객란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소갈을 치료하고 옹(癰)을 무르게 한다. 《본초강목》

阿膠 갓풀

아교 갓풀

阿膠甘溫欬膿宜，
吐衄胎崩並虛羸。⁴

아교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기침과 농혈에 쓴다.
토혈、늑혈을 치료하고 태를 안정시키며 봉루를 치료한다. 아울러 허로로 수
척해진 사람에게 쓴다.

갓풀.

○蛤粉炒成珠.

갓풀.

○합분(蛤粉)과 함께 볶아서 구슬처럼 만들어 쓴다.

牛黃 쇠속이황

우황 우담 속의 누런 돌

牛黃味苦治驚癇,
安魂定魄風痰刪.

우황은 성미가 쓰며 경간을 치료한다.
혼백을 안정시키고 풍과 담을 없애준다.

쇠속이황.

우담 속의 누런 돌.

馬肉 물고기

마육 말고기

馬肉味辛強腰脊,
自死老死棄勿惜.

마육은 성미가 매우며 허리와 척추를 강하게 한다.
자연적으로 죽은 말이나 늙어서 죽은 말의 고기는 버리고 아까워하지 말아라.

말고기.

○血與肝, 大毒.

○〈白馬通〉止消渴. 主崩漏吐衄血. 治暑最佳.

○〈腫骨⁵〉性寒, 補陰瀉火. 可代芩連用. 《本草》

말고기.

○말의 피와 간은 독성이 크다.

○〈백마의 똥〉소갈을 멎게 하고 주로 봉루, 녹혈, 토혈을 치료한다. 서증(暑症)을 치료하는 데 가장 좋다.

○〈경골(脛骨)〉성질이 차고 음(陰)을 보하며 화(火)를 사해준다. 황금이나 황련을 대신할 수 있다. 《본초강목》

驢肉 나귀고기

여육 나귀고기

驢肉微寒安心煩,

發癰動風不須言.

나귀고기는 성질이 약간 차며 가슴이 답답한 것을 안정시키나,
고질병을 발생시키고 풍증을 동하게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귀고기.

○〈屎〉主治反胃. 《本草》

나귀고기.

○〈나귀똥〉번위를 치료한다. 《본초강목》

酥油

수유

酥油甘寒除客熱,

治虛嗽渴且潤血.

수유는 성미가 달고 차며 객열(客熱)을 제거한다.

허로, 기침, 갈증을 치료하고 또한 혈을 윤활하게 한다.

以牛羊乳所作.

소나 양젖으로 만든다.

1. 見月 ㄱ 犬月 ※《의종손익부여》, 《동의보감》↩

2. 犬吠月, 發狂者, 多有之. ※《동의보감》

犬夜吠月發狂者, 多有之. ※《의학입문》↩

3. 羸 : 羸瘦 ※《동의보감》↩

4. 女子下血, 安胎.....虛勞羸瘦.....療吐血衄血. ※《본초강목》↩

5. 腫骨 𩚑 脛骨 ※《본초강목》, 《의종손익부여》↩



獸 十一種

들짐승 10종

虎骨 갈범의 뼈

호골 칩범의 뼈

虎骨味辛治脚膝，
壯筋定痛追風疾。¹

호골은 성미가 매우며 다리와 무릎을 치료한다.

근(筋)을 튼튼하게 하고 통증을 안정시키며 풍질(風疾)을 몰아낸다.

갈범의² 뼈.

○酥醋或酒炙.

○氣力皆出前足. 《本草》

칩범의 뼈.

○연유나 식초, 또는 술을 축여 구워서 쓴다.

○기운과 근력이 모두 앞다리에 있다. 《본초강목》

犀角 무소뿔

서각 무소뿔

犀角酸寒化毒邪，
消腫血熱並制蛇。³

서각은 성미가 시고 차며 독과 사기(邪氣)를 풀어준다.

부종을 없애고 지혈시키며 열을 내리고 아울러 뱀독을 제거한다.

무소뿔.

○入陽明.

○以升麻爲使, 惡烏頭, 忌鹽. 《本草》

무소뿔.

○양명경에 들어간다.

○승마를 사약(使藥)으로 삼고, 오두와 상반약이다. 소금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熊膽 곰의 쓸기

웅담 곰의 쓸개

熊膽味苦熱蒸疸,

惡瘡蟲痔疔癰散.⁴

웅담은 성미가 쓰며 열이 심해 황달로 변한 것을 치료한다.

악창, 충병, 치질, 감질, 경간을 흠어준다.

곰의 쓸기.

○入手少陰厥陰、足陽明.

○〈肉〉主風痺補虛.

○〈脂〉長髮. 《本草》

곰의 쓸개.

○수소음경、수궐음경、족양명경에 들어간다.

○〈곰의 고기〉 주로 풍비를 치료하고 허를 보해준다.

○〈곰 비계〉 머리를 잘 자라게 한다. 《본초강목》

羚羊角

영양각

羚羊角寒明目睛,
清肝解毒且却驚.⁵

영양각은 성미가 차며 눈을 밝게 한다.

간(肝)을 식혀주고 해독하며 또한 놀라서 생긴 증상을 물리친다.

夜宿以角掛樹.《本草》

밤에 영양각을 나무에 걸어두고 잔다.《본초강목》

鹿茸

녹용

鹿茸甘溫滋陰主,
泄精溺血崩帶愈.

녹용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주로 음(陰)을 자양한다.

정(精)이 새는 증상,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봉루, 대하를 낮게 한다.

사슴의 고은뿔.

○一名斑龍.

○〈肉〉甘溫, 補中, 强五臟.

○〈血〉陰痿, 治崩帶, 大補虛損, 益精血.

○〈腎〉補腎壯陽.

○〈糞〉治經日不產. 乾濕各三錢, 爲末, 薑湯服, 立產.《本草》⁶

사슴의 고은뿔.

○반룡(斑龍)이라고도 한다.

○〈사슴고기〉성질이 달고 따뜻하며 속을 보하고 오장을 강하게 한다.

○〈사슴피〉음위(陰痿)에 쓴다. 봉루·대하를 치료하고 허손을 크게 보하고 정(精)과 혈을 더해준다.

- 〈신(腎)〉 신(腎)을 보하고 양(陽)을 튼튼히 한다.
- 〈사슴뿔〉 출산일이 지나도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마른 것과 습한 것을 각 3돈씩 가루 내어 생강탕으로 복용하면 곧 출산할 수 있다. 《본초강목》

鹿角膠 사슴의 뿔 고은 것

녹각교 사슴의 뿔을 고아 만든 아교

鹿角膠溫吐衄血，
安胎崩帶虛羸跌。

- 녹각교는 성질이 따뜻하며 토혈과 녹혈을 치료한다.
- 태를 안정시키며 붕루, 대하, 허약하여 몸이 마르는 증상, 타박상을 치료한다.

사슴의 뿔 고은 것.

- 사슴의 뿔을 고아 만든 아교.

鹿角霜 사슴의 뿔 고은 뿔

녹각상 사슴뿔로 만든 아교를 가루 낸 것

鹿角霜平補諸虛，
安胎腰痛崩漏除。

- 녹각상은 성질이 평하며 여러 허증을 보한다.
- 태를 안정시키고 허리 통증과 붕루를 제거한다.

사슴의 뿔 고은 뿔.

- 사슴뿔로 만든 아교를 가루 낸 것.

麝香 국눌의 비쌘

사향 궁노루의 배꼽

麝香辛煖善通關,

伐鬼安驚毒可刪.⁷

사향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관규(關竅)를 잘 통하게 한다.

귀기(鬼氣)를 정벌하고 경간을 안정시키고 독을 제거한다.

국눌의 비쌘. 𪚩蒜⁸ 《本草》

궁노루의 배꼽. 마늘을 금한다. 《본초강목》

兔肉 토끼고기

토육 토끼고기

兔肉味辛補益摯,

健脾止渴孕婦忌.

토육은 성미가 매우며 매우 잘 보익한다.

비(脾)를 튼튼하게 하고 갈증을 멎게 한다. 임신부는 먹지 않도록 한다.

토끼고기.

○春夏忌食. 《本草》

토끼고기.

○봄、여름에는 먹는 것을 금한다. 《본초강목》

脛肭臍 海狗腎

을눌제 해구신

膾膈熱補元陽,

邪鬼疰癰並勞傷.

울눌제는 성미가 뜨거우며 근원의 양기를 보해준다.

사기(邪氣)와 귀기(鬼氣)를 몰아내고 현벽(疰癰)을 치료한다. 아울러 노관상을 치료한다.

一名海狗腎.

○酒浸一日, 微火炙令香.

○如無眞者, 以黃狗腎三枚, 代一枚用.

○欲驗其眞, 置睡犬傍, 其犬忽驚跳者, 佳. 《本草》

○出平海郡. 《寶鑑》⁹

해구신(海狗腎)이라고도 한다.

○하루 동안 술에 담가 두었다가 향이 나도록 약한 불에 구워서 쓴다.

○진품이 없으면 울눌제 1개 대신 황구신(黃狗腎) 3개를 쓴다.

○진품을 가려내려면 울눌제를 자는 개의 옆에 놓아두었을 때 그 개가 갑자기 놀라 도망가면 좋은 것이다. 《본초강목》

○평해군(平海郡)에서 산출된다. 《동의보감》

獐肉 오소리고기

단육 오소리고기

獐肉甘平水脹困,

並治久痢且肥健.

단육은 성미가 달고 평하며 수창(水脹)으로 괴로운 증상을 치료한다.

아울러 오랜 이질을 치료하고 살찌고 튼튼하게 한다.

오소리고기.

오소리고기.

1. 壯筋 : 能壯筋力 ※《제중신편》↩

2. 의 : 외 ※신정본 ↩

3. 消腫血熱並制蛇 : 解熱止血, 消腫毒蛇. ※《제중신편》↩

4. 熱蒸疸 : 時氣熱盛, 變爲黃疸. ※《본초강목》♣※ 疳癰 : 五疳驚癰 ※《제중신편》↩

5. 却驚. : 除邪氣驚夢.....治小兒驚癰.....治驚悸煩悶. ※《본초강목》↩

6. 사슴의 고운 뿔. : 사슴의 뿔을 고은 것은 녹각교이다. 반룡은 녹용의 이명이다. ↩

7. 殺鬼精物, 去三蟲蠱毒, 溫瘡驚癰 ※《본초강목》↩

8. 忌蒜. : 忌大蒜 ※《의종손익부여》↩

9. 寶鑑 : 鑑 ※증정본

寶鑑 ※신정본 ↩

鼠 二種

쥐 2종

鼠肉 슈쥐고기

서육 숫쥐고기

鼠肉味甘兒腹膨,
治勞殺蟲炙或烹.

서육은 성미가 달며 소아의 복부 팽만을 치료한다.

허로를 치료하고 충을 죽이며 굽거나 삶아서 쓴다.

슈쥐고기.

○〈脊骨〉齒折, 爲末揩之. 《本草》

숫쥐고기.

○〈쥐등뼈〉부러진 이빨에 쥐등뼈를 가루 내어 문지른다. 《본초강목》

刺猬皮 고슴도치 껍질

자위피 고슴도치 껍질

刺猬皮苦主五痔,

開胃陰腫癰痛止.¹

자위피는 성미가 쓰며 주로 오치(五痔)를 치료한다.

위(胃)를 열어 주고 음종(陰腫)으로 붓고 아픈 증상을 멎게 한다.

고슴도치 껍질.

고슴도치 껍질.

1. 開胃 : 能開胃氣 ※《의종손익부여》↩



人 六¹種

인 6종²

紫河車 즙식나은티

자하거 산후 태반

紫河車甘療虛損,
勞療骨蒸培根本.

자하거는 성미가 달며 허손을 치료한다.

노채·골증열을 치료하고 근본을 복돋워준다.

즙식 나온 티.

○忌銅鐵. 《本草》

○予初年惑於以人補人之說, 用之再三, 既無其效, 又胡忍食之, 以殘厥子之先天, 勸人少用, 可也. 《景岳》

○〈胞水〉 티사근물. 主諸熱毒, 小兒丹毒. 《本草》

○胞水稟至陰之氣, 眞小兒胎熱良劑, 但不可多食, 致胃寒. 《及幼》

○〈月水〉 解毒箭, 女勞復. 《本草》

○月經治熱之說, 古方亦無, 而近世無論大人小兒新舊, 諸熱用之有效, 何也. 竊想, 凡下竅出者, 稟至陰之氣, 女屬陰, 血亦屬陰, 故借陰氣而然耶. 《及幼》

산후 태반.

○구리와 철기 사용을 금한다. 《본초강목》

○나는 초년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한다"는 설에 미혹되어 태반을 2 - 3번 써보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또 어찌 야만스럽고 잔인하게 그 아이가 하늘에게 받은 것을 먹겠는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되도록 쓰지 않기를 권한다. 《경악전서》

○〈포수(胞水)〉 양수. 주로 여러 열독과 소아의 단독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양수는 천부적으로 지음(至陰)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참으로 소아의 태열을 치료하는 좋은 약재이다. 다만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하니 위(胃)가 차가워진다. 《급유방》

○〈월경수〉 화살독과 여로복(女勞復)을 풀어준다. 《본초강목》

○월경수가 열을 치료한다는 설은 고방(古方)에는 없었으나 요즘에는 어른·소아·신병·구병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열증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어째서인가. 가만히 생각건대 아래쪽의 구멍은 천부적으로 지음(至陰)의 기운을 지녔고 여자도 음(陰)에 속하며 혈도 음(陰)에 속하니 그러므로 음(陰)의 기운을 빌어서 그런 것인가 싶다. 《급유방》

頭髮 절로 써러진 머리털

두발 저절로 빠진 머리카락

頭髮補陰功難說,

吐衄血暈風癇熱.³

사람의 머리카락은 음(陰)을 보하는 효능을 이루 설명할 수 없다.

토혈, 늑혈, 혈훈, 풍간, 열증을 치료한다.

절로 써러진 머⁴리털.

○一名血餘.

○男二十已來無疾髮, 或自己髮, 以皂角水洗淨, 燒存性.

○〈垢〉主通淋. 《本草》

저절로 빠진 머리카락.

○혈여(血餘)라고도 한다.

○20세 이후에 모발 질환이 없었던 남자의 머리카락이나 자기 머리카락을 조각 달인 물로 씻은 후 약성이 남도록 태워서 쓴다.

○〈머리때〉 주로 임병(淋病)을 잘 통하게 치료한다. 《본초강목》

人屎 슻람의똥, 人糞

인시 사람의 똥, 인분

人屎苦寒解諸毒,
瘟熱癰腫痘瘡屬.

인시는 성미가 쓰고 차며 각종 독을 해독한다.

온병, 열증, 응종(癰腫), 두창 등을 치료한다.

스람의 똥.

○一名人糞.

○封疔腫, 則根拔. 《本草》

사람의 똥.

○인분(人糞)이라고도 한다.

○정종(疔腫)이 생긴 곳을 덮어 봉하면 곧 뿌리가 뽑힌다. 《본초강목》

童便 아희 오줌

동변 아이 오줌

童便氣涼撲損瘀,
虛勞骨蒸熱嗽除.

동변은 성질이 서늘하며 타박상과 어혈을 치료한다.

허로, 골증열, 기침을 낫게 한다.

아희 오줌.

○自己尿, 名輪迴酒.

○⁵陰降火甚速, 殺蟲解⁶, 療瘧暑.

○〈秋石〉오줌 ⁷히 안초와 고은 것. 性溫. 治虛勞尿頻, 遺精白濁, 壯陽補陰.

○〈人中白〉 오란⁸ 달분지 미터 얼원젓⁹.

○煨研.

○瀉肝三焦膀胱火, 降火消瘀, 咽喉口舌瘡. 《本草》

아이 오줌.

○자기 소변을 윤회주(輪廻酒)라고 한다.

○음(陰)을 자운하고 화(火)를 내리는 효과가 매우 빠르다. 충을 죽이고 해독 작용을 하며 학질과 서증을 치료한다.

○〈추석(秋石)〉 아이 오줌을 구워서 만든 결정. 성질이 따뜻하며 허로, 소변이 잦은 증상, 유정(遺精), 백탁을 치료하며 양(陽)을 튼튼히 하고 음(陰)을 보해 준다.

○〈인중백〉 오래된 대소변통 밑에 엉겨 붙은 것.

○불에 달궈 갈아서 쓴다.

○간(肝)、삼초、방광의 화(火)를 사해준다. 화를 내려주고 어혈을 풀어주며 인후、입、혀가 험 것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人乳 젓

인유 젓

人乳味甘補陰陽,

悅顏明目却老方.

인유는 성미가 달며 음양을 보해준다.

얼굴이 윤택해지고 눈이 밝아지며 노화를 물리치는 처방이다.

젓.

○療目赤多淚. 《本草》

○乳酪之中, 牛乳上, 羊乳次, 馬又次¹⁰, 衆乳之功, 總不及人乳. 《食物》

젓.

○눈이 충혈 되고 눈물이 많이 흐르는 것을 치료한다. 《본초강목》

○유제품 중에서 우유가 상품이며 양젓이 다음이고 말젓이 그 다음이지만 여러 젓의 효능은 모두 인유에 미치지 못한다. 《식물본초》

口津 입에 침

구진 입의 침

口津甘鹹可塗瘡,

解毒辟邪却¹¹賢¹²良.

구진은 성미가 달고 짜며 다친 곳에 발라준다.

해독 작용을 하며 사기(邪氣)를 물리치고 예막을 없애는 데 좋다.

입에 침.

입의 침.

1. 六 : 三 ※중정본

六 ※신정본 ←

2. 중정본에서는 人部에서 紫河車, 人屎, 童便의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에 따로 '原本人部六種'의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다. 내용은 조금 다르다. ←

3. 風癇熱. : 風驚癇熱 ※《의종손익부여》 ←

4. 며 : 머 ※중정본, 신정본 ←

5. ① 滋 ※신정본 ←

6. ① 毒 ※신정본 ←

7. ⑩ 만 ※신정보본 <

8. 란 : 랜 ※신정보본 <

9. 원젓 : 윈적 ※신정보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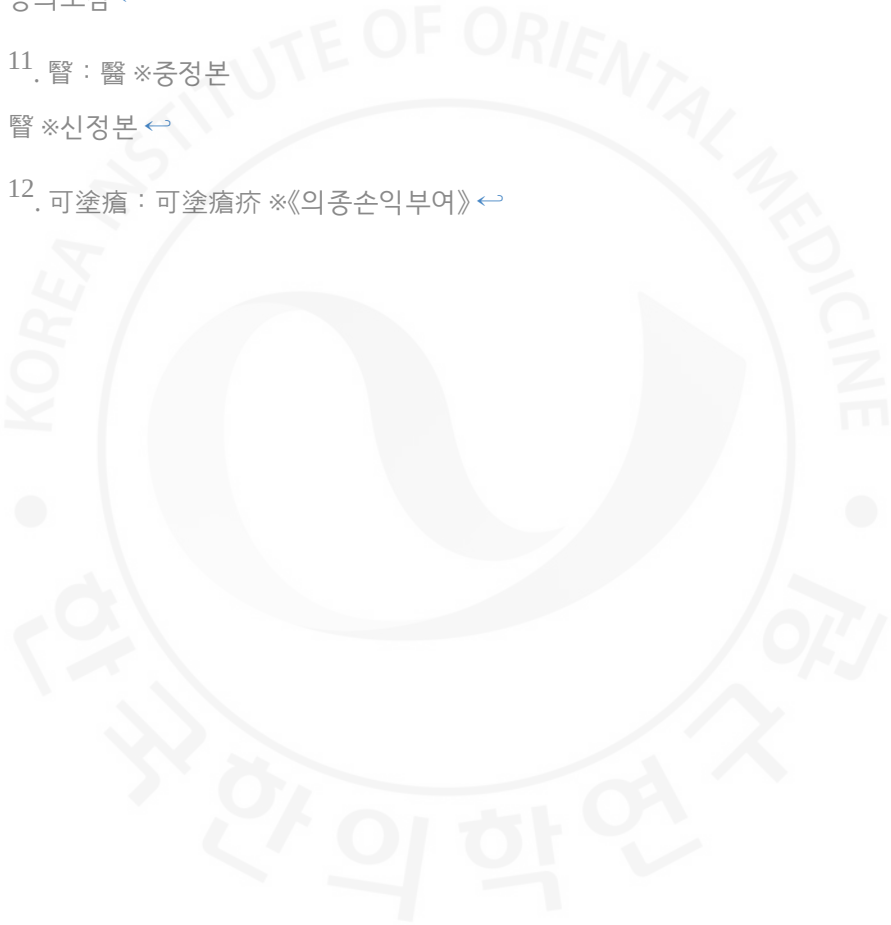
10. 馬又次 : 馬乳又次之 ※중정보본

동의보감 <

11. 醫 : 醫 ※중정보본

醫 ※신정보본 <

12. 可塗瘡 : 可塗瘡疥 ※《의종손익부여》<



水 一種¹

수 1종

臘雪水

납설수

臘雪水冷治瘟疫，
解毒殺蟲退目赤。

납설수는 성질이 냉하며 온역을 치료한다.

해독 작용을 하고 충을 죽이며 눈이 충혈된 것을 낫게 한다.

설탕 납일에 온 눈이 녹은 물.

설탕 납일에 온 눈이 녹은 물.

○〈立春雨水〉夫妻各飲一盃還房，有子。

○〈雹〉우박. 醬味不正，入之。

○〈夏氷〉解煩消暑，解燒酒毒。²

○〈半天河水〉卽空樹穴中水，洗瘡體白駁。

○〈甘爛水〉동덩이쳐 거품진 물. 揚之萬遍者，性溫，主陽盛陰虛。

○〈井華水〉시벌³에 처음 기른 우물물. 治酒後熱痢，又洗目。

○〈溫泉〉더운 시암물. 辛熱微毒，治諸風筋攣不遂等症，入浴，大虛，不宜輕入。

○〈地漿〉누른 흙물. 解諸毒，療霍亂中噎。

○〈百沸湯〉助陽行經。

○〈生熟湯〉끓은 물과 찬물 탄 것. 治霍亂嘔吐。

○〈漿水〉조밭⁴. 主解渴化滯。

○〈長流水〉卽千里水. 治手足四末之病，通大小便。《本草》

- 〈입춘에 내리는 비〉 부부가 각각 1잔씩 마시고 성관계를 하면 자식이 생긴다.
- 〈박〉 우박. 장(醬) 맛이 이상해졌을 때 넣어준다.
- 〈여름철 얼음〉 번조를 풀어주고 서증을 없애며 소주독을 해독한다.
- 〈반천하수〉 곧 나무 구멍에 고인 물이다. 상처나 백전풍을 씻으면 낫는다.
- 〈감란수〉 휘저어 거품진 물. 수만 번 휘저은 것으로 성질이 따뜻하다. 주로 양이 성하고 음이 허한 증상에 쓴다.
- 〈정화수〉 새벽에 처음 길어온 우물물. 술을 마신 후 생긴 열리를 치료하고 또한 눈병에 눈을 씻어준다.
- 〈온천〉 더운 샘물. 성질이 맵고 뜨거우며 독성이 약간 있다. 여러 풍증과 근에 경련이 일어 쓰지 못하는 증상 등에 온천에 목욕하면 치료된다. 몸이 크게 허할 때는 함부로 온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지장〉 누런 흙물. 여러 중독을 해독하며 객란·중갈을 치료한다.《본초강목》
- 〈백비탕〉 양기를 돕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한다.
- 〈생숙탕〉 끓인 물과 찬물을 탄 것. 객란·구토를 치료한다.
- 〈웃물〉 좁쌀. 주로 갈증을 풀고 체기를 풀어준다.
- 〈장류수〉 곧 천리수이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말단에 생긴 병을 치료하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본초강목》

1. 중정본에서는 초간본의 人部六種을 人部三種으로 바꾸고 본래 人部六種의 내용을 ""原本人部六種"이란 제목으로 이곳 수부(水部) 앞에 따로 기록해 두었다. ←

2. 解燒酒毒. : 중정본에서는 水部부터 여기 酒毒까지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 ←

3. 벽 : 빅 ※신정본 ←

4. \ue789 : \uebd8 ※신청본 ←



土 二種

토 2종

伏龍肝 오런 솟 밋희 누른 흙

복룡간 오래된 솔 밑의 누런 흙

伏龍肝溫心煩寬,

胎疫血咳俱可安.¹

복룡간은 성미가 따뜻하며 심번(心煩)을 열어준다.

태기(胎氣), 전염병, 기침으로 피를 토하는 증상을 모두 안정시킨다.

오런 솟 밋희 누른 흙.

○〈黃土〉 물은 흙. 甘平, 主泄痢熱毒, 解諸藥毒, 中肉毒, 𪚗²口椒菌毒.

○〈東壁土〉 히 먼³저 씨인 동벽흙. 甘溫, 主泄瀉霍亂.

○〈千步峰〉 卽行步地土高起上者, 便毒, 薑醋調付.

○〈百草霜〉 오란 부엌에 검딧영. 性溫, 消積, 止上下血崩帶, 治痘瘡口舌瘡. 《本草》

오래된 솔 밑의 누런 흙.

○〈황토〉 누런 흙. 성미가 달고 평하며 주로 설사·이질·열독을 치료하고 여러 약독과 고기독, 입이 벌어지지 않은 산초열매독, 버섯독을 해독한다.

○〈동벽토〉 햇볕을 쬔 동쪽벽 흙.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설사·곽란을 치료한다.

○〈천보봉〉 곧, 신발에서 떨어진 흙이 높이 쌓인 흙이다. 변독(便毒)에 중독되었을 때 천보봉의 흙을 생강이나 식초에 개어서 붙인다.

○〈백초상〉 부엌의 오래된 검댕. 성질이 따뜻하며 적체를 소화시킨다. 상초와 하초의 혈붕과 대하를 멎게 한다. 황달·학질·구설창을 치료한다. 《본초강

목》

京墨 송연먹

경묵 송연묵

京墨辛溫專主血,

吐衄腸風崩中撤.

경묵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혈증을 전문으로 치료한다.

토혈, 늑혈, 장풍(腸風), 붕루를 낮게 한다.

송연먹.

송연묵.

1. 血咳 : 婦人崩中吐血, 止咳逆血 ※《본초강목》↩

2. 숨 : 숨 ※신정보 ↩

3. 면 : 민 ※중정보

면 ※신정보 ↩

金石 三十五種

금석 35종

金箔 금

금박 금

金箔味甘安魂魄,
癲狂驚癇調血脈.

금박은 성미가 달며 혼백을 안정시킨다.

전광(癲狂)과 경간을 치료하고 혈맥을 고르게 한다.

금.

금.

銀屑 은

은조각 은

銀屑味辛除譫嚙,
定志鎮心明目劑.

은조각은 성미가 매우며 헛소리와 잠꼬대를 없애준다.

의지를 바로잡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눈을 밝게 하는 약제이다.

은.

은.

黑鉛 납

흑연 납

黑鉛味甘止反胃,

鬼疰癭瘤定神氣.¹

흑연은 성미가 달며 번위를 멎게 한다.

귀주(鬼疰)·영류(癭瘤)를 치료하고 정신을 안정시킨다.

납.

납.

自然銅 산골

자연동 산구리

自然銅涼續筋骨,

積瘀折傷痛不發.²

자연동은 성질이 서늘하며 근골을 이어준다.

적(積)과 어혈을 풀어주고 골절을 치료하며 통증을 멎게 한다.

산골.

○醋煨七次, 水飛用. 《本草》

산구리.

○불에 달궂서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7번하여 수비한다. 《본초강목》

黃丹

황단

黃丹微寒消積瘰,
止痛生肌痰蟲却.³

황단은 성미가 약간 차며 소갈, 적취, 학질을 치료한다.
통증을 멎게 하며 살찌게 하고 담(痰)과 충을 물리친다.

無毒.《本草》

○有毒.《雷公》

독성이 없다.《본초강목》
○독성이 있다.《뇌공포자론》

密陀僧

밀타승

〔密陀僧〕鹹止痔痢,
白癰諸瘡並可試.

〔밀타승〕은 성미가 짜며 치질과 이질을 멎게 한다.
백반증과 여러 상처에 모두 쓸 수 있다.

小毒.《本草》

○外付生用, 內服火煨.《入門》

독성이 조금 있다.《본초강목》
○외용으로 붙일 때는 생것을 쓰고 내복할 때는 불에 달궜서 쓴다.《의학입문》

鐵漿 무쇠 당가 울닌물

철장 생철을 담가 우린 물

鐵漿鹹寒治癰瘤,
鎮心明目諸毒刪.

철장은 성미가 짜고 차며 전간을 치료한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눈을 밝게 해주며 여러 독을 제거한다.

무쇠 당가 올닌 물.

○〈古文錢〉有毒. 主赤眼通淋去翳. 《本草》

생철을 담가 우린 물.

○〈고문전(古文錢)〉독성이 있다. 눈이 충혈된 것을 치료하고 소변이 찝끔찝끔 나오는 것을 잘 통하게 하며 예막을 제거한다. 《본초강목》

雲母 돌비늘

운모 돌비늘

雲母甘平治勞傷,


除邪益精明目良.

운모는 성미가 달고 평하며 노권상을 치료한다.

사기(邪氣)를 제거하고 정(精)을 더해주며 눈을 밝게 하는 데 좋다.

돌비늘.

○⁴, 主肺.

○鹽湯煮, ⁵.

○制汞, 伏丹砂. 《本草》

돌비늘.

○금(金)에 속하며 주로 폐(肺)를 치료한다.

○소금 달인 물에 삶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쓴다.

○수은의 약성을 억제하고 단사를 굴복시킨다. 《본초강목》

紫石英 자슈정

자석영 자수정

紫石英溫心脾定,
寒熱邪及女無孕.

자석영은 성미가 따뜻하며 심비(心脾)를 안정시킨다.

한사와 열사를 없애고 여성의 불임을 치료한다.

자슈점⁶.

○入手少陰、足厥陰.

○醋煨七次. 《本草》

자수정.

○수소음경、족궐음경에 들어간다.

○불에 달궈서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7번 해서 쓴다. 《본초강목》

朱砂 丹砂, 辰砂

주사 단사, 진사

〔朱砂〕味甘定魂魄,
鎮心養神鬼邪辟.⁷

〔주사〕는 성미가 달며 혼백을 안정시킨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길러주며 귀사(鬼邪)를 물리친다.

一名丹砂, 又名辰砂.

○惡磁石, 畏鹹水. 忌一切血. 《本草》

단사(丹砂)라고도 하며 또한 진사(辰砂)라고도 한다.

○자석과 상오약이고 소금물과 상외약이다. 모든 피를 금한다. 《본초강목》

水銀 汞

수은 홍

〔水銀〕性寒治疥證,

催生殺蟲絕胎孕.⁸

〔수은〕은 성미가 차며 개선증을 치료한다.

출산을 촉진시키고 충을 죽이며 임신을 단절시킨다.

一名汞.

○大毒.

○畏磁石、礞礪, 忌一切血. 《本草》

홍(汞)이라고도 한다.

○독성이 크다.

○자석、비상과 상외약이다. 모든 피를 금한다. 《본초강목》

輕粉 汞粉

경분 홍분

輕粉性燥外科藥,

楊梅諸瘡殺蟲托.

경분은 성질이 조(燥)하며 외형증에 쓰는 약이다.

양매창과 여러 창증을 치료하며 충을 죽일 때 쓴다.

有毒.

○一名汞粉, 又名膩粉.

○畏磁石, 忌一切血. 《本草》

독성이 있다.

○홍분(汞粉)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분(膩粉)이라고도 한다.

○자석과 상외약이다. 모든 피를 금한다. 《본초강목》

靈砂, 二氣砂

영사, 이기사

靈砂性溫通血脈,

殺鬼辟邪安魂魄.

영사는 성미가 따뜻하며 혈맥을 통하게 한다.

귀신을 몰아내고 사기(邪氣)를 물리치며 혼백을 안정시킨다.

一名二氣砂.

이기사(二氣砂)라고도 한다.

雄黃

웅황

〔雄黃〕甘辛邪毒息,

更治蛇虺喉風.^{9 10}

〔웅황〕은 성미가 달고 매우며 사기(邪氣)와 중독을 없애준다.

또한 독사의 독을 치료하고 전후풍과 코의 군살을 치료한다.

有毒.

○〔雌黃〕主惡瘡.

독성이 있다.

○〔자황〕악창을 주로 치료한다.

石膏

석고

石膏大寒瀉胃火，
發渴頭痛解肌可。¹¹

석고는 크게 차며 위화(胃火)를 내려준다.
소갈과 두통이 나는 것을 치료하고 잘 해주시킨다.

入手太陰少陽、足陽明.

- 火燉. 《本草》
- 但用之甚少, 則難見功. 《備要》

수태음경、수소양경、족양명경에 들어간다.
○불에 달궈서 쓴다. 《본초강목》
○단, 너무 적게 쓰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본초비요》

滑石 곱돌

활석 곱돌

滑石沈寒滑利竅，
解渴除煩濕熱療.

활석은 성미가 침(沈)하고 차며 구규를 원활히 통하게 한다.
갈증을 해소하고 번조를 제거하며 습증과 열증을 치료한다.

곱돌.

- 入足太陽、陽明.
- 色白者佳, 雜色者有毒. 《本草》

굽돌.

○족태양경·족양명경에 들어간다.

○흰빛이 도는 것이 좋고 여러 색이 섞인 것은 독성이 있다.《본초강목》

赤石脂

적석지

〔赤石脂〕溫固腸胃，
潰瘍生肌止瀉利。¹²

〔적석지〕는 성질이 따뜻하며 장위(腸胃)를 튼튼하게 한다.

궤양에 새살이 돋게 하며 설사를 멎게 한다.

火煨.

○反官桂, 畏芫花、大黃、黃芩、松脂.《本草》

불에 달궈서 쓴다.

○관계와 상반약이고, 원화·대황·황금·송지와 상외약이다.《본초강목》

爐甘石

노감석

〔爐甘石〕溫善止血，
消腫明目弦腎撤。¹³

〔노감석〕은 성미가 따뜻하며 지혈시킨다.

부종을 없애고 눈을 밝게 하며 난현풍과 예막을 제거한다.

入陽明.

○火煨童便浸七次, 水飛.《本草》

양명경에 들어간다.

◦불에 달궈서 동변에 담금질하기를 7번 하고 수비한다. 《본초강목》

石鍾乳

석종유

石鍾乳甘氣慄悍,
固精明目可延筭.¹⁴

석종유는 성미가 달며 기질이 매우 사납다.

정(精)을 견고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수명을 늘려준다.

一云大毒.

◦可柔五金.

◦惡牧丹, 畏石英, 忌參朮, 犯者死. 《本草》

독성이 많다고도 한다.

◦5가지 금속을 부드럽게 한다.

◦목단과 상오약이고, 석영과 상외약이다. 인삼·백출을 금해야 하니 어기면 죽게 된다. 《본초강목》

陽起石

양기석

〔陽起石〕甘腎氣乏,
陰痿不起效甚捷.¹⁵

〔양기석〕은 성미가 달며 신기(腎氣)가 결핍된 것을 치료한다.

음위(陰痿)로 발기되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능이 빠르다.

火煨醋淬七次.

○惡澤瀉·桂, 畏兔絲. 《本草》¹⁶

불에 달궂다가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7번 한다.

○택사·계피와 상오약이고, 토사자와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磁石 지남석

자석 지남석

磁石味鹹療金瘡,

補腎益精醫勞傷.

자석은 성미가 짜며 쇠붙이에 다친 상처를 치료한다.

신(腎)을 보하고 정(精)을 더해주며 노권상을 치료한다.

지남석.

○入腎.

○火煨醋淬九次.

○惡牧丹, 伏丹砂. 《本草》

지남석.

○신경(腎經)에 들어간다.

○불에 달궂서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9차례 한다.

○목단과 상오약이고, 단사의 약성을 굴복시킨다. 《본초강목》

代赭石

대자석

代赭石寒下胎崩,

疳痢驚癇殺鬼能.¹⁷

대자석은 성미가 차며 태를 내려오게 하며 봉루를 치료한다.

감병(疔病)·이질·경간을 치료하고 귀사(鬼邪)를 능히 없앤다.

入手少陰、足厥陰, 血分.

◦火煨醋淬七次.

◦畏附子. 《本草》

수소음경·족궐음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불에 달궂었다가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7번 한다.

◦부자와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禹餘糧

우여량

〔禹餘糧〕寒除煩良,

血閉腹疼痢固腸.¹⁸

〔우여량〕은 성질이 차며 번조를 없애는 데 좋다.

혈폐, 복통, 이질을 치료하고 대장을 견고하게 한다.

入手足陽明血分.

◦伏五金, 制三黃. 《本草》

수양명경·족양명경의 혈분에 들어간다.

◦5가지 금속의 약성을 굴복시키고 황금·황련·황백의 약성을 억제한다. 《본초강목》

礞霜 人言, 信石

비상 인언, 신석

礞霜有毒風痰吐，
截瘧除哮消沈痼.¹⁹

비상은 독성이 있으며 풍담(風痰)을 토하게 한다.
학질을 멎게 하고 효전을 제거하며 심한 고질병을 낫게 한다.

一名人言，又名信石.

○醋煮.

○畏菉豆、冷水.《本草》

인언(人言) 또는 신석(信石)이라고도 한다.

○식초에 삶아서 쓴다.

○녹두、냉수와 상오약이다.《본초강목》

青礞石

청몽석

〔青礞石〕寒煨金色，
墜痰却又消宿食.²⁰

〔청몽석〕은 성질이 차며 불에 달구면 금빛이 돈다.
담을 잘 내리며 또한 먹은 지 오래된 음식을 소화시킨다.

用焰硝同入鍋內，火煨如金色者佳.《本草》

청몽석을 염초와 함께 구리 냄비에 넣고 불에 달궈보아 금빛이 도는 것이 좋다.《본초강목》

花藥石

화예석

〔花藥石〕寒止諸血，
治金瘡出產後洩。²¹

〔화예석〕은 성질이 차며 여러 출혈증을 멎게 한다.

쇠불이에 다친 상처를 치료하고 산후 패혈이 다 나오지 않은 것을 끌어낸다.

火煨研.

불로 달궈서 갈아서 쓴다.

食鹽 소금

식염 소금

食鹽味鹹吐痰頑，
心腹卒痛過損顏。²²

식염은 성미가 짜며 진득한 담(痰)을 토하게 한다.

명치가 갑자기 아픈 것을 치료하며 지나치게 먹으면 안색이 손상된다.

소금.

○病嗽及水腫，全禁.

○明目固齒. 每朝用鹽擦齒吐水洗目，夜見細字.

○〈青鹽〉卽戎鹽. 止心腹痛，明目，除諸血. 《本草》

○〈鹽鹵〉간수. 婦人服之垂死，取活鴨或鷄刺頭，塞口中以熱血灌之. 若毒甚，必盡數
隻. 《景岳》²³

소금.

○기침과 수종(水腫)에는 소금을 일절 금한다.

○눈을 밝게 하고 치아를 단단하게 한다. 매일 아침 치아를 문지르고 토해낸 물
로 눈을 씻어주면 밤에 작은 글씨도 잘 보인다.

○〈청염〉 곧 용염(戎鹽)이다. 명치가 아픈 것을 멎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여러

혈증을 없앤다. 《본초강목》

◦〈염로〉 간수. 부인이 먹고 거의 죽으려 할 때는 살아있는 오리나 닭의 대가리를 잘라 닫힌 입안에 뜨거운 피를 흘려 넣어준다. 만약 간수 중독이 심하면 반드시 독이 다 나갈 때까지 여러 마리를 쓴다. 《경악전서》

凝水石

응수석

〔凝水石〕寒壓丹石,
堅牙明目熱渴辟.²⁴

〔응수석〕은 성질이 차며 단석의 독성을 억누른다.

치아를 단단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열과 갈증을 물리친다.

一名寒水石.

◦火煨.

◦解巴豆毒, 畏地榆. 《本草》

한수석(寒水石)이라고도 한다.

◦불에 달궈서 쓴다.

◦파두독을 해독하고 지유와 상외약이다. 《본초강목》

芒硝

망초

芒.²⁵ 苦寒除實熱,
積聚燥痰及便壅.²⁶

망초는 성미가 쓰고 차며 실열을 없앤다.

적취, 조증(燥證), 담증을 치료하며 막힌 변을 통하게 한다.

卽朴硝用再煎燥²⁷, 傾入盆內結成, 芒硝也.

○〈朴硝〉初得一煎而成者.

○〈風化硝〉取朴硝, 以沸湯浸化, 結成, 牙子瑩白者.

○〈焰硝〉煉朴硝, 結如石者.

○反三稜·硫黃. 《本草》

곧, 박초를 다시 끓여 녹여서 그릇 안에 부어 결정이 생긴 것이 망초이다.

○〈박초〉처음에 한 번 끓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풍화초〉박초를 끓는 물에 담가서 녹은 후 결정이 생긴 것으로 치아처럼 하얗게 빛난다.

○〈염초〉박초를 녹여 돌처럼 결정이 생긴 것이다.

○삼릉·유황과 상호약이다. 《본초강목》

玄明粉

현명분

玄明粉辛除宿垢,

化積消痰諸熱毆.

현명분은 성미가 매우며 묵은 때를 제거한다.

적(積)과 담(痰)을 녹이고 여러 열증을 몰아낸다.

用朴硝一斤, 蘿菔一斤, 同煮, 蘿菔熟爲度, 綿紙濾過, 甕盆內, 露²⁸宿收之, 宜冬月製. 《本草》

박초 1근과 나복 1근을 넣고 나복이 익을 때까지 함께 삶은 후, 천이나 종이에 여과하여 항아리에 담아 하룻밤 밖에 두었다가 거두어 쓴다. 겨울에 제조해야 한다. 《본초강목》

礞砂 礞砂, 北亭砂

망사 요사, 북정사

〔礞砂〕有毒破癰瘡,
消毒生肌除腎良.

〔망사〕는 독성이 있으며 응창을 터뜨린다.
독을 없애며 살찌게 하고 예막을 없애는 데 좋다.

一名礞砂. 又名北亭砂.

○柔金銀, 可爲鋸藥. 《本草》

요사(礞砂)라고도 한다. 또한 북정사(北亭砂)라고도 한다.
○금과 은을 무르게 하며 땀질하는 약으로 쓴다. 《본초강목》

礞砂 逢砂, 盆砂

봉사 봉사, 분사

〔礞砂〕味辛喉腫解,
膈上熱痰噤即瘥.²⁹

〔봉사〕는 성미가 매우며 인후가 부은 것을 풀어준다.
흉격 위의 열담을 없애며 녹여서 먹으면 곧 낫는다.

一名逢砂.

○又名盆砂. 《本草》

봉사(逢砂)라고도 한다.
○또한 분사(盆砂)라고도 한다. 《본초강목》

硫黃 석유황

유황 석유황

硫黃性熱除疥瘡,

逐冷^{30 31}.

유황은 성질이 뜨거우며 개창(疥瘡)을 제거한다.

냉기와 한사(寒邪)를 몰아내며 양(陽)을 튼튼하게 한다.

³²

³³童便浸七日, 研細, 水飛.

○³⁴反朴硝. 《本草》

석유황.

○녹여서 마유(麻油)를 넣고 쓰거나 동변에 7일간 담갔다가 곱게 갈아서 수비한다.

○박초와 상반약이다. 《본초강목》

白礬 빙번

백반

白礬味酸解諸毒,

治證難以盡記錄.

백반은 성미가 시며 여러 독을 해독한다.

치료하는 증상이 많아 다 기록하기 어렵다.

빙번³⁵.

○〈枯礬〉即火煨如粉者.

○〈綠礬〉火煨用, 治咽喉口齒瘡惡瘡, 及治痘.

○〈皂礬〉染髮. 《本草》

백반.

○〈고백반〉 곧, 백반을 불에 달궈 고운 가루처럼 만든 것이다.

○〈녹반(綠礬)〉 불에 달궈서 쓴다. 인후, 입, 잇몸에 생긴 창이나 악창을 치료하고 황달을 치료한다.

○〈조반(皂礬)〉 머리를 염색하는 데 쓴다. 《본초강목》

石油

석유

〔石油〕辛毒兒驚風,

塗疥癬癩及殺蟲.

〔석유〕는 성미가 맵고 독성이 있으며 소아의 경풍을 치료한다.

개선과 나력 환부에 바르며 충을 죽인다.

性走竄, 諸器皆滲, 惟瓷器琉璃不漏.

○其烟甚濃, 沈存中 宋人, 宦西時, 掃其煤作墨, 光黑如漆, 勝于松烟.

○化銅, 制砒.

○入水魚鱉皆死. 《本草》

○燃燈甚明, 但嫌雄硫氣, 以燈心作炷, 能免此臭. 俗方

성질이 잘 퍼져나가 모든 그릇에 스며들지만 오직 도자기와 유리그릇에는 스며들지 않는다.

○석유의 연기는 매우 진하다. 심존중(沈存中) 송나라 사람이 서쪽지방에서 벼슬할 적에 그 그을음을 모아서 먹을 만들어 써보니 빛깔이 칠흑같이 검고 송연묵(松烟墨)보다 좋았다.

○구리를 녹이고 비상의 약성을 억제한다.

○석유를 물에 넣으면 물고기와 자라가 모두 죽는다. 《본초강목》

○등불로 태우면 매우 밝다. 다만 웅황과 유황의 줄지 않은 냄새가 나니 등심으로 심지를 만들면 이런 냄새를 없앨 수 있다. 속방

惠庵心書方藥合編成

혜암심서방약합편 완성

甲申涂月治洞新刊³⁶³⁷

갑신제월 야동신간

1. 止反胃：止嘔反胃 ※《제중신편》↩
2. 折傷痛不發：療折傷, 散血, 止痛 ※《본초강목》↩
3. 消積瘕：消渴.....治瘕及久積. ※《본초강목》
積消瘕治 ※《의종손익부여》↩
4. ㉠㉡：屬金 ※중정본, 신정본 ↩
5. ㉠㉡ 成粉 ※중정본, 신정본 ↩
6. 정：정 ※신정본 ↩
7. 鬼邪辟：殺精魅邪惡鬼 ※《본초강목》↩
8. 治疥證：治惡瘡癩疥, 殺蟲 ※《본초강목》※ 絶胎孕.：婦人多服絶娠 ※《본초강목》↩
9. 臍：臍 ↩
10. 邪毒息：辟邪解毒 ※《제중신편》※ 喉風：纏喉風痺 ※《본초강목》↩
11. 發渴頭痛：除時氣頭痛身熱.....解肌發汗, 止消渴煩逆 ※《본초강목》↩
12. 固腸胃：保固腸胃 ※《제중신편》※ 止瀉利.：下痢赤白, 小便利.....其性澀. 澀而重, 故能收濕止血而固下 ※《본초강목》↩
13. 明目弦腎撤.：明目去腎, 爛弦可壅 ※《의종손익부여》
治風眼流淚, 爛弦. ※《본초강목》↩

14. 氣慄悍, : 石鍾乳爲剽悍之劑 ※《본초강목》♣※ 筭 : 算
增延壽算 ※《경악전서》↩
15. 腎氣乏, : 腎氣乏絶 ※《의종손익부여》↩
16. 惡澤瀉、桂 : 惡澤瀉、菌桂、雷丸、石葵、蛇蛻皮 ※《본초강목》↩
17. 下胎 : 産難胞不出. 墮胎.....安胎健脾. ※《본초강목》↩
18. 咳逆寒熱煩滿.....固大腸 ※《본초강목》↩
19. 風痰吐 : 風痰可吐 ※《제증신편》↩
20. 青礞石同焰硝煨如金色 ※《제증신편》
以礞石四兩打碎, 入消石四兩拌勻. 炭火十五斤簇定, 至消盡, 其石色如金爲
度. ※《본초강목》↩
21. 産後洩. : 婦人産後敗血不盡 ※《본초강목》↩
22. 西北方人食不耐鹹, 而多壽少病好顔色. 東南方人食絶欲鹹, 而少壽多病,
便是損人傷肺之效. ※《본초강목》↩
23. 若毒甚, 必盡數隻. : 若飲鹵多, 必盡數隻收毒. ※《의종손익부여》↩
24. 熱渴辟. : 除熱止渴 ※《의종손익부여》↩
25. 硃硝 ※신정본 ↩
26. 燥痰 : 蠲痰潤燥 ※《제증신편》↩
27. 燥 硃煉 ※증정본, 신정본, 《의종손익부여》↩
28. 一 : 一 ※《의종손익부여》
十 ※증정본, 신정본 ↩
29. 喉腫解, : 療喉腫痛 ※《제증신편》↩

30. ㉠㉡㉢㉣㉤ ㉥ 寒邪及壯陽 ※중정본, 신정본 ←

31. ㉠㉡㉢㉣㉤ ㉥ 寒邪及壯陽 ※중정본, 신정본
逐冷寒邪敢當 ※《제증신편》 ←

32. ㉠㉡㉢ ㉥ 석류황 ←

33. ㉠㉡㉢㉣㉤㉥㉦ : ㉧熔化入麻油, 或 ※중정본, 신정본 ←

34. 反 : 反 ※《의종손익부여》
入 ※중정본, 신정본 ←

35. 번 : 빈 ※중정본
번 ※신정본 ←

36. 甲申涂月冶洞新刊 : 乙酉仲秋美洞新刊 ※중정본
里洞新刊 ※신정본 ←

37. 중정본, 신정본에는 간기가 석은보유방(石隱補遺方) 아래에 위치해 있다.

←

해제

저자

저자 혜암(惠庵) 황도연(黃道淵)은 1808년 출생하여 내의원 의관을 지낸 인물로 《부방편람附方便覽》(1855), 《의종손익醫宗損益》(1868), 《손익부여損益附餘》(1868), 《의방활투醫方活套》(1869) 등 활용성이 높은 의서들을 저술하였다. 《방약합편方藥合編》은 황도연이 기존 저서인 《의방활투醫方活套》와 《의종손익醫宗損益》의 〈약성가藥性歌〉의 내용을 합본하고 용약강령, 구급, 금기 등을 더 보태고 새로운 체재로 엮어 아들 황필수가 황도연 사후에 편집(1884년)하여 출간한 의서이다.

판본

본 국역서는 방약합편 초간본(야동冶洞 간본, 1884.4)을 저본으로 하고 중정방약합편(미동美洞 간본, 1885.8, 이하 중정본)과 신정방약합편(서계서포 간본, 1915 추정, 이하 신정본)을 참고본으로 교감하여 번역을 진행하였다. 교감할 판본의 선정은 서지학연구에 게재된 「방약합편」 목판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박훈평, 서지학연구, 2018)를 참고하여 중정류, 증맥류 방약합편을 한 가지씩을 골랐다. 논문에 따르면 [중정본]은 한양의 미동서방에서 간행된 것으로 〈석은보유방石隱補遺方〉과 〈윤증곽란輪症霍亂〉이 처음 추가되고 기존의 오각(誤刻)에 대해 전면 수정이 있어 중정류 방약합편의 효시가 된다. 또다른 교감본인 [신정본]은 앞의 [중정본]을 저본으로 삼으면서, 신증증맥의 내용이 담긴 〈잡병제강雜病提綱〉과 〈맥법脈法〉 10면을 처음으로 추가했던 증맥방약합편(야동 간본, 1887.9 이후)을 참고로 오류를 교정하였으므로 미동과 야동계열을 반영한 공로가 크며 이전 간본의 오류를 답습하지 않아 증맥류 방약합편의 선본(善本)이라고 할 수 있다.

[중정본]은 <석은보유방>과 <윤증곽란>이 추가된 것 외에는 초간본과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초간본 인부(人部) 6종을 인부 3종으로 바꾸어 구진(口津)·인유(人乳)·두발(頭髮)만 싣고 "原本人部六種"이라는 제목 하에 자하거(紫河車), 동변(童便), 인시(人屎) 세 가지를 옮겨 적었다. 초간본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되도록 약으로 쓰지 않기를 권한 데서 기인한 것 같다. [신정본]에서는 다시 인부(人部) 6종에 포함시켰다. 또 중정본에서는 동변(童便)을 인유(人乳)로 바꾸어 썼고 신정본에서는 이것이 다시 동변(童便)으로 변경되었다. [신정본]은 여기에 <잡병제강>과 <맥법>이 추가되어 있다.

구성 및 특징

서문

본래 초간본에는 서문이 따로 없고 <의방활투 원서(醫方活套原序)>가 서문으로 실려 있다. 《방약합편》이 완성되던 당시 황도연이 별세하였으므로 따로 서문을 쓰지 못하고 이전에 간행했던 <의방활투>의 서문을 가져다 놓은 듯하다. 본 국역서에 실어둔 <중정방약합편 서문>과 <방약합편 원인源因>은 중정본에 추가로 실려 있던 것으로 문하생 미은생(溟隱生)과 아들 황필수(黃泌秀)가 각각 쓴 것이다. <방약합편 원인>에는 아들 황필수가 황도연의 명으로 《방약합편》을 편집하게 된 내용이 담겨 있다. 서문에 따르면 책의 형식을 왕인암(汪忍庵)이 《본초비요本草備要》와 <의방집해醫方集解>를 합편하였던 것을 모방하여 저술하였고, 황도연의 저술인 <의종손익>(1867)의 본초 부분을 앞에 두고 뒤에 <용약강령用藥綱領>·<구급救急>·<금기禁忌> 등을 덧붙여 <방약합편>이라 이르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또 다른 서문인 <신증증맥방약합편 유재酉齋>는 신정본에만 실려 있으며 역시 제자 미은생이 쓴 것이다. 본 국역서에서는 이해에 도움이 되므로 4가지 서문을 본 국역서에 모두 실어 두었다.

의방활투(醫方活套)

《의방활투》는 본래 고종 6년(1869)에 황도연이 저술했던 의방서로 <활투活套>와 <침선針線>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투>는 처방을 증상에 맞추어 가감한 것이고, <침선>은 병증에 쓸 수 있는 처방명을 나열해 놓은 것으로 방약합편에서는 <활투침선>과 <활투상중하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투침선>에서 색인처럼 증상에 맞는 처방을 찾아 <활투상중하통>에서 주치증과 상세한 처방구성, 용약법, 증상에 따른 가감법을 찾아볼 수 있다. 《방약합편》 목록 소주(小註)에 "下三層醫方活套 因舊"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활투 3통은 이전에 간행했던 《의방활투》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방은 각각 활투상통 123개, 중통 181개, 하통 163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서문인 <의방활투원서>에 "처방을 상·중·하 3통(統)으로 차등을 두어 보익·화해·치료하는 세 가지 품목으로 나타내고, 별도로 침선(鍼線)을 두어 모두 치료할 수 있게 하였다"고 적혀 있다. 간혹 [활투活套]라는 소제목 하에 추가 활용 방법을 적어두기도 하였다. 상중하통 각 뒷부분에는 남는 지면을 이용하여 <부방附方>과 <부제종금기附諸種禁忌>를 적어두었다. <부방>은 제상문(諸傷門), 해독문(解毒門), 잡방(雜方), 제조문(製造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국역서에 서는 활투하통 다음에 부록으로 모아 번역해 두었다.

손익본초(損益本草)

<손익본초>는 약성강령(藥性綱領)과 7언구의 약성가(藥性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중신편》·《본초강목》·《동의보감》·《의종손익》 등을 출전으로 한다. [약성강령]은 약의 성미와 성질, 오장, 오미, 보사·수증용약·제허용약·한제(汗劑)·토제(吐劑)·하제(下劑)·7방(七方)·10제(十劑)·목을수록 좋은 약 6가지·구급법·끓주림을 면하는 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전에 황도연이 출간하였던 《의종손익부여》<약성가> 앞에도 <강령>이 있는데 범례에 "약을 쓰면서 마땅함을 분명하게 밝힐 수 없다면 그 대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강령(綱領)으로 삼을만한 것을 간략하게 모아 본초서를 읽는 예제로 삼아 두었다"고 하였다. 《방약합편》 목록 소주(小

註)에 "隨症用藥, 比舊加詳."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수증용약>의 내용은 기존 내용보다 상세하게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약성가]는 약재별로 7연구로 된 가결(歌訣)과 여러 인용서적에서 발췌한 약재에 대한 상세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도연은 1968년에 《의종손익부여醫宗損益附餘》에 8연구의 약성가 1권을 이미 완성하였는데 이것을 토대로 《방약합편》을 편집하면서 7연구로 가결을 축약한 것으로 보인다. 《의종손익부여》의 약성가는 범례에 따르면 윤림(雲林) 공정현(龔廷賢)의 《수세보원》에 나오는 가결을 각 조문에 따라 분류하여 약성가를 완성하고 《제중신편》의 <약성가>에서 적당한 구절을 보입하였으며 새로 증보한 내용도 추가했다고 하였다. 또 약재의 목차 순서는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을 따르면서 조목의 위치를 바꾸거나 본초의 분류를 옮겨 오류를 바로잡으려 했다. 《제중신편》에서 인용한 것에는 [衆]자를, 새로 증보한 것에 대해서는 [增]자를 표기했다고 하였는데 《방약합편》에도 인용표기를 그대로 적혀있다. 글자수만 7연구, 8연구로 다르고 인용문의 글자 출입은 있지만 본초의 분류와 기록 순서는 같다. 《방약합편》에는 금석류(金石類) 약재 마지막에 석유(石油)가 추가되어 있다.

석은보유방(石隱補遺方)·윤증곽란(輪症霍亂)

<석은보유방>과 <윤증곽란>은 중정류 방약합편 이후로 추가된 것으로 <석은보유방>에는 19가지 처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새로 증보된 19개의 처방은 풍문, 한문, 적취문, 혈문, 조문, 화문, 내상문, 부종문, 허로문, 창만문, 학질문, 곽란문, 구토문, 신문, 담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조문마다 1,2개씩 처방을 추가해 뒷장에 추가되어 있다. <윤증곽란>은 유행성 곽란에 대한 내용으로 신사(辛巳)년부터 수집한 경험방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중 견효제방(見效諸方)에는 유행성 곽란에 효과를 본 여러가지 처방이 적혀 있는데 혜암(惠庵) 선생 덕에서 가전(家傳)되어 온 경험방이라고 부기하고 있다. 곽란의 원인과 치료법, 금기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잡병제강(雜病提綱)·맥법(脈法)

〈잡병제강〉과 〈맥법〉은 증맥류 방약합편에만 추가된 10면으로 중정류와 증맥류를 구분하는 주요 부분이다. 내용은 각각 《의학입문醫學入門》의 잡병제강(雜病提綱)과 장부육맥진법(臟腑六脈診法)에 기재된 증상과 맥에 관한 부분을 가져와 짧게 요약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잡병제강〉 제목 아래에 "從節略本"이라고 소주(小註)가 달려 있어 내용이 축약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잡병제강〉은 책이 시작되는 앞 부분에 있다. 〈신증증맥방약합편 유재酉齋〉에서 제자 미은생(溙隱生)이 "《중정방약합편》의 내용을 따르고, 전서(全書)에 실린 증맥의 요결을 취하여 도왔다"라고 하였는데 신증증맥 방약합편을 간행하면서 《의학입문醫學入門》의 〈잡병제강雜病提綱〉을 인용·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축약이 심하여 문장만으로 번역하다 보면 전혀 다른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본 국역서에서는 《의학입문》에서 해당 구절을 찾아 일일이 대조하여 각주를 달고 번역에 녹여냈다. 〈맥법〉에서는 장부의 기본맥, 잡병길흉맥, 응저맥, 구사맥, 남녀노맥, 부인의 월경맥, 임신맥, 사맥 등을 7자, 8자의 가결로 풀어내고 있다. 〈잡병제강〉과 〈맥법〉의 번역은 《의학입문·잡병제강》을 중심으로 교감하고 《경약전서》·《세의득효방》·《만병회춘》 등의 서적을 참고하였다.

본 국역서는 《방약합편》 초간본을 중심으로 출간하였으므로 중정본, 신정본에서 추가된 내용은 생략하였다. 생략된 원문과 번역문은 [한의학고전D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작성자 : 구현희

일러두기

- 본 국역서는 초간본(방약합편 야동治洞 초간본 1884.4)을 저본으로 중정본(중정방약합편 미동美洞 간본 1885.8)과 신정본(신정방약합편 서계서포 간본 1915로 추정)으로 교감기를 달았다. 《동의보감》·《제중신편》·《의종손익》·《의학입문》·《경악전서》·《세의득효방》·《만병회춘》 등을 번역에 참고하였다.
- 서문은 〈의방촬투 원서〉를 제외하고는 중정본, 신정본에서 가져온 것으로 서적 간행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국역서에 실어두었다.
- 국역 방약합편 상·하권은 초간본의 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편집하였다.
 - 방약합편 상: 序, 醫方活套(活套鍼線, 活套上統, 活套中統, 活套下統, 附錄[諸傷門, 解毒門, 雜方, 製造門, 禁忌])
 - 방약합편 하: 序, 損益本草(藥性綱領, 藥性歌)
- 초간본에 없는 중정본의 〈석은보유방〉, 〈윤증곽란〉과 신정본의 〈잡병제강〉, 〈맥법〉은 본 국역서에서 생략하였다. 생략된 원문과 번역문은 [한의학고전D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약성가藥性歌〉는 《제중신편》과 《만병회춘》, 《의종손익부여》에 수록된 8언구의 약성가를 참고하여 번역하였고 많이 축약되어 의미가 혼동되는 경우는 《본초강목》에서 해당 조문을 찾아 번역 오류를 없애고자 했다.
- 양각·음각·권점 등 기호는 초간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초간본에 (음각)으로 표기된 약재는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다.

- 책의 구성은 최대한 저본을 좇았으나 줄이 나뉘는 부분이 어색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수정하였다.
-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본초명을 소제목으로 달아두었다.
- 교감기를 제시하였고, 교감 결과를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㉞로 표시하였다.
- 최대한 저본의 글자를 살려 입력하였고 속자, 이체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표시 없이 정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 湿 => 濕, 宜 => 宜
- 입력이 어려운 글자는 파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口+八/豕】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기호가 사용되었다.
 - ㉞ : 판독 안되는 글자
 - () : 음각
 - < > : 양각
 - 작은 글자: 작은글자
 - 임의 제목: 임의로 제목을 단 경우

출판사항

서명 : 국역 방약합편 하 方藥合編 下

원저자 : 황도연 黃度淵

국역 : 구헌희

발행인 : 김종열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20년 12월 14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한 이는 오준호이고, 판본을 조사한 이는 박훈평이고, 판본을 수집한 이는 이정현이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들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편집하여 공개한 이는 구헌희입니다.

copyright ©2020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학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ISBN

PDF : 978-89-5970-470-5

세트 : 978-89-5970-440-8

